2021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사)중앙아시아학회 하계 공동학술회의

몽골시대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품 유통과 지역사회의 변화

- 일시 : 2021년 8월 21일(토) 13:00~18:00
- 장소 : YouTube 라이브 생중계
- 주최 :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 한국연구재단 · 국립중앙박물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사) 중 앙 아 시 아 학 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entral Asian Studies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2021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사)중앙아시아학회 하계 공동학술회의

몽골시대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품 유통과 지역사회의 변화

- 일시 : 2021년 8월 21일(토) 13:00~18:00
- 장소 : YouTube 라이브 생중계
- 주최 :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 한국연구재단 · 국립중앙박물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 (사) 중앙아시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entral Asian Studies |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학회 등록 13:00~13:30(30분) 등록 및 회의 준비

인사말

사회: 김장구 (동국대학교)

13:30~13:40 (10분)	개회사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원장/HK+사업단장	서인범 (동국대학교)
	환영사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 회장	윤형원 (국립부여박물관)

제1부 학술 발표

사회: 이승민 (동국대학교)

13:40~14:15 (35분)	대몽골국 초기 몽골고원의 유통 물품과 유목경제의 실상 발표: 김장구(동국대학교)	토론: 류병재 (단국대학교)
14:15~14:50 (35분)	몽골제국의 선물 경제 발표: 설배환(전남대학교)	토론: 최윤정 (경북대학교)
14:50~15:25 (35분)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 물품과 운송 문제 발표: 최소영(서울대학교)	토론: 조원희 (한국학중앙연구원)
15:25~16:00 (35분)	휴 식	

제2부 학술 발표

사회: 김성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6:00~16:35 (35분)	몽골(원)제국 시기 고려로 들어온 외국의 직물들 – 세 가지 주요 장면 발표: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김윤정 (서울역사편찬원)
16:35~17:10 (35분)	15~16세기 몽골 · 명 경제교류와 몽골 사회의 변화 발표: 조원(부산대학교)	토론: 고명수 (충남대학교)
17:10~17:45 (35분)	조선의 몽골 인식과 그 흔적 – 시맨틱 큐레이션 발표: 최원재(동국대학교)	토론: 체렝도르지 (몽골국립대학교)
17:45~18:00 (15분)	**동국대학교 HK사업단 소개** –동유라시아 세계 물품의 문명 •문화사–	진행: 김병모 (동국대학교)

폐회사

김장구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사)중앙아시아학회 하계 공동학술회의

몽골시대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품 유통과 지역사회의 변화

▶ 목 차 ◀

제1부 학술 발표 사회: 이승민(동국대학교)

【제1발표】 대몽골국 성립 전후 몽골고원의 유통물품 변화와 유목경제의 실상

발표 ▌ 김장구(동국대학교) ····· 9
토론 ▌ 류병재(단국대학교) ····· 37

【제2발표】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 : 몽골제국에서의 '선물' 경쟁

발표 ▌ 설배환(전남대학교) ····· 41
토론 ▌ 최윤정(경북대학교) ····· 59

【제3발표】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 물품과 운송 문제

발표 ▌ 최소영(서울대학교) ····· 63
토론 ▌ 조원희(한국학중앙연구원) ····· 91

제2부 학술 발표 사회: 김성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4발표】 몽골 원제국 시기 고려로 들어온 외국의 직물들 - 세 가지 주요 장면

발표 ▌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 97
토론 ▌ 김윤정(서울역사편찬원) ····· 121

【제5발표】 明·오이라트 通貢·互市의 양상과 성격

발표 ▌ 조원(부산대학교) ····· 127
토론 ▌ 고명수(충남대학교) ····· 141

【제6발표】 조선 유서(類書)에서 보이는 몽골 인식 -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

발표 ▌ 최원재(동국대학교) ····· 145
토론 ▌ 체렝도르지(몽골과학아카데미) ····· 185

여 백

제1부

【제1발표】

대몽골국 성립 전후 몽골고원의 유통물품 변화와 유목경제의 실상

김장구(동국대학교)

Ⅰ. 머리말
Ⅱ. 몽골고원과 주변지역 사이에서 유통된 물품
Ⅲ. 대몽골국 성립 이전 몽골고원의 물품과 경제 상황
  1. 삼림과 초원에서 산출된 물품
  2. 외부 정주지역에서 유입된 물품
Ⅳ. 대몽골국 성립 이후 몽골고원의 경제 상황의 변화
  1. 삼림과 초원에서 산출된 물품
  2. 외부 정주지역에서 유입된 물품
Ⅴ. 우구데이 카안 시기 경제 상황의 변화 - 결론을 대신하여

【제1발표】

대몽골국 성립 전후 몽골고원의 유통물품 변화와 유목경제의 실상

김장구(동국대학교)

Ⅰ. 머리말

칭기스 칸이 몽골 부를 장악하고 이어서 몽골고원의 유목민들을 통합하여 대몽골국을 성립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으로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국내외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칭기스 칸의 인간적 친화력,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정신력, 역경에 처할 때마다 반복되는 행운의 연속, 어머니와 부인의 현명한 충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친 부하들, 강력한 군사력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1)]

이 글에서는 칭기스 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그가 주변 세력과의 안정적인 교류를 통해 몽골고원의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발전을 추구했던 점에 초점을 맞추어보려고 한다. 특히 동시대 사료에 보이는 다양한 물품의 유통 양상과 그 변화를 통해 유목세계와 정주세계의 교류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Ⅱ장에서는 몽골고원에서 생산되고 주변지역으로 교환되었던 물품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몽골고원으로 유입되었던 중요한 외래물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장에서는 사료에 보이는 대몽골국 성립 이전에 몽골고원에서 유통되었던 물품을 분석하여 당시 몽골고원의 경제 상황을 그려보도록 하겠다. Ⅳ장에서는 대몽골국 성립 이후 대외원정의 과정과 결과로 인해 변화되는 몽골고원의 경제상을 살펴보겠다. Ⅴ장에서는 우구데이 카안 시기 주변 지역과 국가를 정복하면서 변화되는 몽골고원 경제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발표문으로 당시 몽골고원에서 유통된 모든 물품과 변화하는 역사상을 온전하게 그려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추후 지속적인 수정 과정에서 추가 사료 수집과 상세한 분석을 통해 보충하려고 한다. 이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조언과 도움

1) 라츠네프스키, 『칭기스 칸』(김호동 옮김), 지식산업사, 1992, 127~150쪽; 스기야마 마사아키, 『몽골세계제국』(임대희 외 옮김), 신서원, 1999, 37~39쪽;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93~114쪽; 모건, 『몽골족의 역사』(권용철 옮김), 모노그래프, 2012, 96~99쪽; 성백용 외, 『사료로 보는 몽골 평화시대 동서문화 교류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9~34쪽.

을 요청하는 바이다.

Ⅱ. 몽골고원과 주변지역 사이에서 유통된 물품

9세기 중반에 위구르제국이 멸망한 이후 몽골고원은 정치적으로 유목민의 내부 분열과 주변 세력의 간섭과 견제로 오랫동안 통일되지 못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내부 경제상황이 피폐화되고 주변 정주지역과의 정상적인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연경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2)]

특히 거란[遼]은 몽골고원의 중서부까지 직접 통제하면서 유목민의 발흥을 억제하였고, 뒤를 이어 여진[金]은 타타르 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목민의 통합을 방해하였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던 몽골 부의 수장인 이수게이가 살해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유목민들이 필요로 하던 외부 물자를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몽골고원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은 대몽골국이 성립되고 주변 정주지역을 공격하여 약탈함으로써 풍부한 재화를 획득할 때까지 변화하지 않았다.[3)] 칭기스 칸은 이런 몽골고원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교환을 통해 유목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 유목민의 통합이 최우선임을 잘 알고 있었다.[4)]

당시 몽골고원에서 산출되는 물품으로는, 주로 삼림지대에서 나는 최고가인 검은담비(貂鼠 bulaɣa), 흰 송골매(白鷹 čaɣan šongqur)와 사슴(buɣu), 토끼(taulai), 날다람쥐(청설모 靑鼠 keremü) 등 동물, 강과 호수 주변에서 잡는 다양한 물고기(jiɣasu) 등이 있었다.[5)] 아울러 초원지대에서는 오종가축인 말(mori), 양(qoni), 염소(imaɣa), 소(üker), 낙타(temege)[6)]와 타르바가(土拔鼠 tarbaɣa) 등이 있다.

유목민들은 예로부터 이처럼 다양한 가축과 사냥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이용해 의식주와 유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만들어 사용했다. 예를 들면, 모피로 만든

2) 김호동, 「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강좌 중국사』Ⅲ, 지식산업사, 1989, 249~251쪽; 블라디미르초프, 『몽골사회제도사』(주채혁 譯),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55쪽.

3) 蕭啓慶, 「北亞遊牧民族南侵各種原因的檢討」, 『元代史新探』,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3, 303~322쪽; 札奇斯欽, 『蒙古文化與社會』.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7, 17~35쪽.

4) 김호동, 「'변방사'로 세계사 읽기: 중앙유라시아를 위한 변명」, 『역사학보』228, 2015, 55~80, 특히 62~68쪽; 티모시 메이, 『칭기스의 교환』(권용철 옮김), 사계절, 2020, 164쪽.

5) 물고기의 몽골어 명칭에 대해서는 최형원, 「18세기 몽골어 魚名 고찰(1)」, 『알타이학보』23, 2013 참조; 몽골고원의 어로(漁撈)에 대해서는 설배환, 「몽골제국(1206~1368)에서 수산자원(魚貨)의 이용」, 『STRATEGY 21』24,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특히 132~138쪽 참조.

6) 동물의 몽골어 명칭에 대해서는 최형원, 「〈蒙語類解〉에 나타난 동물 관련 어휘 검토」, 『몽골학』32, 2012 참조. 몽골고원의 낙타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칭기스 칸의 탕구트 원정 이후로 보인다. 저자미상, 『몽골비사(元朝秘史)』(유원수 역주), 사계절, 2004, 249, 250절; 블라디미르초프, 『몽골사회제도사』, 55쪽.

의복, 신발, 펠트(양탄자), 가죽 끈, (털)새끼줄, 게르 등은 가축과 야생동물의 가죽과 털을 이용해 만들어 사용했다. 나무와 금속으로는 마차, 가구, 요람, 소도구, 주방용구 등과[7] 활과 화살, 갑옷과 투구, 칼과 창 등[8] 무기류를 만들어 사용했다.[9]

몽골고원에서 농경은 고대로부터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경제적으로 보조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음은 분명하다.[10] 사료에는 대몽골국 성립 이후 정주지역에서 포로로 잡혀온 농경민들이 카라코룸 부근의 오르콘 강 유역, 칭카이 성(鎭海城), 셀렝게 강 하류, 자브한 강 유역의 올리야수타이, 톨 강과 케룰렌 강 부근 등에서 소규모 농경을 했음을 보여준다.[11]

그러나 몽골고원에서 산출되는 이런 물품들은 유목민들의 자급자족과 일부 물물교환의 형태로 유통되었으며, 주변 정주지역과 교환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2]

주변 정주지역에서 몽골고원으로 유입된 물품들은 대부분 몽골고원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소량만 생산되어 지극히 부족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밀가루를 비롯한 곡물류와 비단과 면직물 등 직물류 등이다. 그리고 금속류와 무기류도 중요한 수입품이었고, 심지어 자연재해나 유목민 사이의 전쟁 등으로 부족해진 가축도 외부로부터 구하거나 혹은 약탈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포로가 된 장인(匠人)과 농민, 공녀 또한 주요한 대상이었다.[13]

이 글을 통해 칭기스 칸이 분열되었던 몽골고원을 통합하고 대몽골국을 건립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주변 정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물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얻고자 했음을 밝힐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

7) 『몽골비사』 124, 233절, 『長春眞人西遊記』(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臺北, 正中書局, 1962, 261쪽.
8) 『몽골비사』 97절.
9) 추후 사료에 보이는 몽골고원의 가축, 야생동물, 물고기 등의 명칭과 생산, 교환된 물품의 명칭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형원, 2012, 2013 등 참조.
10) 몽골고원의 수렵과 유목경제 일반에 대해서는 岩村忍, 『モンゴル社會經濟史の硏究』,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1968; 吉田順一, 「モンゴル族の遊牧と狩獵: 十一世紀~十三世紀の時代」, 『東洋史硏究』 40-3, 1981과 伊藤幸一, 『モンゴル經濟史を考える』, 京都, 法律文化社, 1985, 146~163쪽, 몽골고원에서 곡물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는 설배환, 「13-14세기 몽골초원의 물적 기반과 유목경제의 지속성 고찰」, 『중앙아시아연구』20-2, 2015, 특히 195~201쪽을 참조.
11) 『長春眞人西遊記』(『蒙古史料四種本』), 282~286, 366~367쪽; 블라디미르초프, 『몽골사회제도사』, 70쪽. 이보다 조금 늦은 1247~48년경의 기록인 장덕휘(張德輝)의 「[영북]기행([嶺北]紀行)」, 王惲, 『秋澗先生大全文集』卷一百, 「玉堂嘉話」卷之八, 7a~7b(姚從吾 校注本, 『姚從吾先生全集』 第七集), 臺北, 正中書局, 1982, 291~292쪽)에도 이에 대해 기록하였다.
12) 이개석, 「몽고帝國 성립기 商業에 대한 一考」, 『慶北史學』9, 1986; 박환영, 「『몽골비사』에 반영된 몽골유목민들의 물질문화 연구」, 『東아시아古代學』29, 2012.
13) 하자노프, 『유목사회의 구조: 역사인류학적 접근』(김호동 역), 지식산업사, 1990, 특히 279~290쪽; Allsen Th. T.,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Ⅲ. 대몽골국 성립 이전 몽골고원의 물품과 경제 상황

1. 삼림과 초원에서 산출된 물품

사료에 보이는 대몽골국 성립 이전의 몽골고원에서 유통된 물품들은 금, 은 등 극히 일부 귀금속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물의 모피나 가죽 같은 자연 생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골비사』 9절에는 "코릴라르타이 메르겐(명궁)은 **담비**와 **다람쥐** 같은 **사냥감**이 있는 자신의 코리 토마드 땅에서 사냥을 금하는 바람에 그곳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자, 코릴라르씨가 되어, '보르칸 성산이 **사냥감**이 풍부하고 땅이 좋다.'며 보르칸 성산의 주인들, 즉 보르칸을 일으킨 신치 바얀의 오리앙카이족의 땅으로 옮겨 오고 있었다."[14]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몽골인의 계보를 서술하는 중에 언급된 사항으로 초기 몽골인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9~10세기경의 모습으로 보인다. 바이칼 호 근처 코리 토마드 지역에 담비와 다람쥐 같은 사냥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동해 간 몽골 동부지역에 있는 보르칸 칼돈(성산)에도 사냥감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몽골비사』 12~13절에는 "그 뒤 하루는 도본 메르겐(명궁)이 토코착 고지로 사냥을 나갔다. 숲 속에서 오리앙카다이족 사람이 **세 살 난 사슴**을 죽여 그 갈비와 창자를 굽고 있는 것을 보고, 도본 메르겐이 '동무여, 나눕시다!'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리다!'하고는 허파가 붙은 질두와 가죽은 자기가 갖고 세 살 난 사슴고기 전부를 도본 메르겐에게 주었다.[15]

이 서술 기록도 9~10세기경의 일을 적은 것으로 보이며, 사슴도 몽골 선조들에게 중요한 사냥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몽골비사』 89절에는 '거기서 함께 나아가 보르칸 칼돈(성산)의 남쪽, 쿠렐쿠 안에 있는 셍구르 개울의 카라 지루켄의 쿠쿠 노르(호수)에서 살고 있을 때는 **타르바가**, **들쥐** 등을 잡아 연명했다.'[16]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은 1170년대 중반 무렵 아버지

14) 『몽골비사』 9절: Qorilartai mergen Qori tumad-un ɣaǰar-tur-iyan **buluɣan**, **keremün**, **görügetei** ɣaǰar-iyan qorilalduǰu maɣulalduǰu, Qorilar oboɣtu bolǰu, "Burqan qaldun-nu **görögesün görügüli** sayitu ɣaǰar sayin." kemen Burqan qaldun-nu eǰed, Burqan bosqaɣsan Šinči-bayan Uriangqai-dur negüǰü ayisun aǰuɣu.

15) 『몽골비사』 12절: Tegün-ü qoyina nigen üdür Dobun-mergen Toqočaɣ ündür degere görögelere ɣarba. Hoi dotura Uriangqadai kümün **čöke buɣu** alaǰu qabiryar inu abid inu širaǰu bükü-yi ǰoluɣaǰu 13절: Dobun-mergen ügülerün, "Nökör, širolɣa-da!" kemeǰükü "Ögsü!" kemeǰü, aɣušigitu ǰildü arasun inu abču čöke buɣu-yin miqa kübčin-i Dobun mergen-ne ögbe.

16) 『몽골비사』 89절: Tende neyileldüǰü odču Burqan qaldun-u ebür-e, Kürelkü dotura Senggür ɣoruqan-u Qara ǰirüken-ü Kökö naɣur nuntuɣlaǰu aqui-dur **tarbaɣad**, **küčügür**

이수게이가 사망한 후 타이치오드 사람들이 어린 테무진을 사로잡으려던 시기의 상황이다.

이어서『몽골비사』90절에는 '벨구테이는 꼬리가 짧은 공골말을 타고 **타르바가** 사냥을 나가고 없었다. 저녁에 해가 진 뒤에야 벨구테이는 꼬리가 짧은 공골말에 **타르바가**를 싣고, 자신은 몸을 흔들며 걸어왔다.'[17]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 또한 1170년대 말, 테무진 집안의 말 여덟 마리를 강도들이 훔쳐갔을 때 상황이다. 당시 테무진과 그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타르바가는 그들에게 중요한 식량이었으며, 이복동생 벨구테이가 공골말을 타고 타르바가 사냥을 다녔음을 알 수 있다.

『몽골비사』96절에는 '셍구르 개울에서 이동하여 켈루렌 강의 발원 지역인 부르기 기슭에서 목영할 때 '초탄 어머니의 예물'이라고 처가에서 **검은담비 외투**를 보내왔다. **그 외투**를 들고 테무진과 카사르와 벨구테이가, "옛날 예수게이 칸 아버지와 케레이드 사람들의 옹 칸이 의형제가 되기로 했다.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분도 우리 아버지나 같다."고 하며 옹 칸이 토올라 강의 카라 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갔다. 테무진이 옹 칸에게 가서, "일찍이 저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바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얻은 기념으로 **예복**을 가져왔습니다."고 하며 **담비 외투**를 주었다. 옹 칸은 매우 기뻐하며 이르기를,

"**검은담비 외투**의 답례로 흩어진 너의 백성을 모아 주마!

담비 외투의 보답으로 헤어진 너의 나라를 합쳐 주마!

콩팥이 있는 허리 밑에, 흉추 뼈 있는 가슴에 있도록 하라!"고 했다.[18]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1183년 경, 결혼 예물로 받은 검은담비 외투를 아버지 이수게이의 의형제였던 옹 칸에게 선물함으로써, 테무진이 훗날 몽골부를 통일하고 대몽골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몽골비사』104절에 거의 그대로 반복되어 나온다. 이때는 1184년 경,

---

alaǰu iden bülege.

17)『몽골비사』90절: Belgütei oγotur dargi qongγor-i unuǰu **tarbaγa**čilara odču bülege. Üdeši naran šinggegsen-nü qoyina Belgütei dargi oγotur Qongγor-tur **tarbaγad** ačiǰu niγsaγalǰatala yabuγan kötülǰü irebe.

18)『몽골비사』96절: Senggür γoruqan-ača negüǰü Kelüren-müren-ü terigün Burgi ergi-de nuntuγlan baγuǰu, Čotan eke-yin šidkün kemen **qara buluγan daqu** abčiraǰu bülege. **Tere daqu**-yi Temüǰin, Qasar, Belgütei γurban abču odču erte üdür Yesügei qan ečige-lüge Kereyid irgen-ü Ong qan anda kemeldügsen aǰuγu. "Ečige-lüge minu anda kemeldügsen ečige metü bui je." kemen "Ong-qan-i Tuula-yin Qara tün-ne buyu" kemen medeǰü odba. Ong qan-dur Temüǰin kürčü ügülerün, "Erte üdür ečige-lüge minu anda kemeldügsen aǰu γu. Ečige kü metü buyu je kemeǰü gergei baγulǰu **emüsgel** čima-da abčiraba." kemen **buluγan daqu** ögbe. Ong-qan maši bayasču ügülerün,

"**Qara buluγan daqu**-yin qariγu, Qaγačaγsan ulus-i činu, Qamtudqaǰu ögsü!
Buluγan daqu-yin qariγu, Butaraγsan ulus-i činu, Bügüdkeldüǰü ögsü!
Bököre-yin bögse-dür, Čekere-yin čegeǰi-dür atuγai!" kemebe.

옛날에 이수게이가 메르키드의 칠레두의 부인이던 후엘룬을 빼앗아 온 것에 대한 복수로 삼성 메르키드(오도이드, 오와스, 카아드 메르키드)가 테무진을 습격해 부인 부르테와 벨구테이의 어머니(예수게이의 두 번째 부인), 자식들을 강탈당한 상황이었다. 이에 테무진은 작년(1183년)에 '검은담비 외투'를 선물했던 옹 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이에 옹 칸은 자신과 자신의 의형제(동생)인 자모카와 함께 테무진을 돕기로 결심하는 상황이다.

『몽골비사』 97절에는 '거기서 돌아와 부르기 기슭에 있을 때 보르칸 성산에서 오리앙카이 사람 자르치오다이 노인이 풀무를 지고 젤메라는 이름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오난 강의 델리운 동산에서 테무진이 태어났을 때 나는 **담비 가죽 배내옷**을 주면서 나의 이 아들 젤메도 주었다. …"[19]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1180년대 초반(1183~1184년)의 상황으로 보인다. 오리앙카이 사람 자르치오다이 노인이 자신의 아들 젤메를 테무진에게 종사(從士)로 주는 상황에서, 옛날 테무진이 태어날 때 담비 가죽으로 만든 배내옷을 선물했던 상황을 예기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기록이 『몽골비사』 211절 칭기스 칸이 젤메에게 포상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반복된다.

『몽골비사』 114절에는 '오도이드 메르키드가 도망할 때 **담비 가죽 모자**를 쓰고, **암사슴의 종아리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털을 없애고 무두질한 수달피 가죽을 이어 만든 옷**을 입은 다섯 살 난 쿠추라는 이름의, 눈에는 불이 있는 소년이 목영지에 떨어진 것을 우리 군대가 발견하고 데려다가 후엘룬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다.'[20]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은 1184년 경, 테무진이 옹 칸, 자모카와 함께 삼성(三姓) 메르키드를 섬멸하고 나서 '쿠추(Küčü)'라는 다섯 살 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후엘룬 어머니께 드리게 되는 상황을 서술하였다.

『집사』 「부족지」에는 삼림 우량카트 종족에 대해 '그들은 결코 천막을 소유하지 않았고, **의복은 동물의 가죽**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소나 양이 없었고, **山牛나 산양**, 혹은 산양과 비슷한 **주르[암컷 야생 사슴]**를 소나 양 대신 키웠다. … 그들의 지역에는 산과 삼림이 매우 많고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 위에서 **사냥감**을 많이 잡는다. '차나(châna, 스키)'라고 부르는 판자를 만들어 그 위에 서서, 가죽

19) 『몽골비사』 97절: Tende-če qariǰu Burgi ergi-de büküi-dür Burqan qaldun-ača Uriangqadai kümün J̌arčiɣudai ebügen kügürge-ben ügürčü J̌elme neretü köbegün-iyen uduridču ireǰü J̌arčiɣudai ügülerün, "Onan-nu Deligün bolday-a büküi-dür, Temüǰin-i törüküi-dür, **buluɣan nelkei** ögülebe, bi. Ene köü-ben J̌elme-yi ögülebe kü, bi.

20) 『몽골비사』 114절: Uduyid Merkid dürberün, **buluɣan mayalaitu**, **maral-un ɣodun ɣudustu**, **ilkin ǰarqaɣ üsün-ü buluɣan ǰalɣaɣsan degeltü**, tabun nasutu, Küčü neretü, nidün-dür-iyen ɣaltu keüken-i bidan-u čerigüd nuntuɣ-tur qočuruɣsan-i olǰu abčiraǰu, Hö'elün eke-de sauɣa abču odču ögbei.

끈으로 고삐를 만들고 나무 하나를 손에 잡고는 그 나무를 눈 위에서 땅으로 누르면 마치 배가 물 위를 가듯이 달린다. 초원과 평원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山牛와 다른 짐승들**에게 다가가 죽인다.'[21]고 기록하고 있어, 초원의 유목민과는 다른 삼림민인 우량카트 종족의 삶을 보여준다. 즉, 펠트로 만든 게르도 없고 소나 양도 없으며, 의복은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 입으며, 키우거나 사냥하는 동물은 산우(山牛)와 산양, 야생 사슴 등임을 알 수 있다.

『몽골비사』 117절에는 '… "이제 다시 의형제를 또 맺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자!" 고들 다짐하며, 테무진은 메르키드의 톡토아를 노략질해 약탈한 **금 허리띠**를 자모카 형제가 매게 했다. 요 몇 해 동안 망아지를 낳지 않은, 톡토아의 **가리온 말**을 자모카 형제가 타게 했다. 자모카는 오와스 메르키드의 다이르 오손을 노략질해 약탈한 **금 허리띠**를 테무진 형제에게 매게 했다. …'[22]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1184년 경, 테무진이 옹 칸, 자모카와 함께 삼성 메르키드를 섬멸하고 나서, 테무진과 자모카가 세 번째로 의형제 관계를 맺는 상황이다. 첫 번째는 테무진이 열한 살 때(1172년 경), 두 번째는 그 다음해 봄(1173년 경)에 각각 의형제를 맺었다. 이번에 교환한 선물은 각각 금 허리띠였는데, 모두 메르키드를 섬멸하고 약탈해 온 것으로 메르키드의 지도자들(톡토아와 다이르 오손)의 부와 권력을 잘 보여주는 물품이다.

『몽골비사』 133절에는 '칭기스 카한과 토고릴 칸은 그렇게 요새를 구축한 (타타르 부의) 메구진 세울투를 그의 요새에서 잡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의 **은제 요람**과 **진주 담요**를 칭기스 카한이 가졌다.'[23]는 기록이 보이며, 이 내용은 『집사』 「부족지」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그(칭기스 칸)는 이 전투에서 **은으로 만든 요람**과 **금실로 꿰맨 담요**, 그리고 **기타 여러 재물들**을 약탈물로 빼앗았는데, 이는 그 당시 타타르 종족들이 모든 유목민들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풍부했기 때문이다.'[24]라고 거의 그대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집사』 「칭기스 칸 기」에도 반복되고 있다.

'칭기스 칸은 쿠리엔으로 이루어진 휘하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진군했다. 그를 붙잡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말 떼**와 **가축**과 **물자**를 노략했다. 그렇게 약탈하는 도중에 **은으로 만든 요람**과 **금실로 짠 이불**을 빼앗았는데, 그 당시 몽골인들 사이에서 그 같은 사치품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이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여겨져 널리

21) 라시드 앗 딘, 『집사』, 「부족지」(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2, 190~191쪽.

22) 『몽골비사』 117절: … "Edüge basa anda tungqulduǰu amaraya!" kemeldüǰü, Temüǰin Merkid-ün Toγtoγa-yi arbilaǰu abuγsan **altan büse** J̌amuqa anda-da büselegülbei. Toγtoγa-yin **esgel qali'un**-i J̌amuqa anda-da unuγulbai. J̌amuqa Uwas Merkid-ün Dayir usun-i arbilaǰu abuγsan **altan büse** Temüǰin anda-da büsegülbei. …

23) 『몽골비사』 133절: Činggis qahan, Toγoril qan qoyar teyin qorγalaγsad-i, Megüǰin segültü-yi, qorγan-ača inu bariǰu Megüǰin segültü-yi tende alaǰu **münggün ölegei**, **tanatu könǰile** inu Činggis qahan tende abulabai.

24) 『집사』 「부족지」, 156쪽.

알려졌다. 이 같은 일이 알탄 칸과 그의 아미르들의 희망에 들어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칭상은 매우 기분이 좋아서 칭기스 칸을 칭찬하고 그에게 '자우우트 쿠리'라는 칭호-키타이 말로 대아미르라는 뜻-를 주었다. 그와 동시에 칭상은 케레이트의 군주인 토그릴에게 '옹 칸'-한 나라의 군주라는 뜻-이라는 칭호를 주었다.'[25]

이들 기록은 칭기스 칸의 아버지 예수게이를 독살했던, 타타르족의 수장인 메구진 세굴투가 금나라에 복종하지 않자 1196년 옹깅 승상(完顔襄)에게 군대를 주어 타타르를 공격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칭기스와 토그릴이 연합하여 타타르족을 공격하여 메구진 세굴투를 죽이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은제 요람'과 '진주 이불'을 빼앗아가진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옹깅 승상은 이 일을 알고 칭기스에게 '자고드 코리(百戶長)', 토고릴에게는 '옹(王)'이라는 칭호를 주어 이후 '옹 칸'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몽골비사』 135절에는 '타타르족이 요새화한 나라토 시투겐의 목영지를 약탈할 때 우리 군인들이 목영지에 버려진 한 어린 소년을 발견했다. **금 귀걸이**, **코걸이**를 하고 **금박 물린 비단과 담비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를 입은 소년이었다. 데려다가 칭기스 카한이 후엘룬 어머니께 "선물입니다"하고 드렸다. 후엘룬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의 아이였음에 틀림없다. 근본이 훌륭한 사람의 후손임에 틀림없다"고 하며 자신의 다섯 아들들의 아우, 자신의 여섯 번째 아들로 삼아 시키겐 코도코(시기 코토코)라고 이름지어 돌보았다.'[26]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칭기스 칸이 1196년에 타타르를 섬멸하고 그 목영지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후엘룬 어머니께 선물로 드려 '시키겐 코도코'라는 이름을 주어 여섯 번째 아들로 길렀다는 내용이다. 어릴 때 그가 금 귀걸이, 코걸이를 하고 금박 물린 비단과 담비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를 입은 것으로 보아 타타르 부의 귀족 가문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집사』 「부족지」에는 시기 쿠투쿠가 15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를, '당시 베수트 종족의 구추구르 노얀이 오르두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슴**이 눈밭 위로 달려갔다. 쿠투쿠는 구추구르에게 "이 사슴들을 쫓아가겠다. …"고 말하자 〔구추구르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사슴을 쫓아 달려갔다. … 잠들 시간에 쿠투쿠가 도착했고, 칭기스 칸이 그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니, 그는 "**30마리의 사슴 떼** 가운데 세 마리 이상은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내가 때려잡아 눈 속에 던져두었습니다."라고 말했다.'[27]고 했다.

---

25) 라시드 앗 딘, 『집사』, 「칭기스 칸 기」(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3, 153쪽.

26) 『몽골비사』 135절: Tatar-un qoryalaysan Naratu šitügen-e bayuysan nuntuy-tur talaqui-dur nigen üčügen kö'üken-i gegsen-i bidan-u čerigüd nuntuy-ača olǰuqui. **Altan egemeg dörebčitü**, **daǰi toryan buluyan-iyar doturlaysan heligebčitü** üčügen kö'üken-i abčiraǰu Činggis qahan Hö'elün eke-de sauya kemen ögbei. Hö'elün eke ügülerün, "Sayin kü'ün-ü kö'ün aǰuyu ǰe. Huǰa'ur sayitu kü'ün-ü uruy buyu ǰe. Tabun kö'üd-iyen de'ü, ǰiryuduyar kö'ün bolyan Šiki quduyu kemen nereyidčü eke asaraba.

이 기록을 통해 칭기스 칸이 타타르 부를 섬멸할 때 목영지에 버려진 어린 시기 쿠투쿠(『비사의 코도코』)를 데려다가 후엘룬 어머니에게 드렸으며, 후엘룬이 자신의 여섯 번째 아들로 삼아 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15살 때에 용감하게 홀로 사슴 떼를 쫓아가서 30마리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사냥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집사』「칭기스 칸 기」에는 '1202년 '노카이 일', 즉 개해 봄에 칭기스 칸은 알치 타타르와 차간 타타르를 치기 위해 올쿠이 실지울지트라는 강가에 출정하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어느 누구도 **약탈물**을 취하느라 정신을 팔아서는 안 된다. 전투가 끝나고 적을 없앤 뒤에, 약탈물을 거두어 그 모두를 공평하게 각자에게 나눌 것이다"라고 했고, 모두 이에 대해 합의했다.'[28]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물품이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대몽골국의 군사조직이 기존의 유목 부족적 성격에서 칭기스 칸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제시된 중요한 기록이다.

『몽골비사』 182절에 '웅구드 족의 알라코시 디기드 코리에서 온 사르탁 사람 아산[Asan←Hasan Hājjī]이 **흰 낙타**를 타고, **일천 마리의 거세 양**을 몰고 **담비**, **다람쥐**와 바꾸러 에르구네 강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가축에게 물을 먹이러 발조나 호수로 들어가다가 만났다.'[29]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은 1203년 경, 칭기스 칸이 케레이드의 옹 칸의 습격을 받아 발조나 호수로 피신해 있을 때, 사르탁(호레즘) 상인인 아산이 그 곳을 지나다가 칭기스와 만났을 때이다. 이 상황은 아산이 칭기스에게 명운을 걸고 몽골고원으로 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아산의 속마음은 추후 칭기스 칸이 승리했을 때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미리 염두에 둔 계산된 행동이었다. 또한 칭기스 칸은 아산을 통해 호레즘 왕국 등 서아시아의 정보를 얻기 위한 계산이었다.[30] 이 장면에서도 역시 담비가죽(貂皮)과 다람쥐가죽이 중요한 물품으로 등장한다.

*** 小結:** 여기서는 대몽골국 성립 이전에 몽골고원에서 생산, 약탈, 교환된 물품을 초원과 삼림의 생산 물품과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귀중품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다.

---

27) 『집사』「부족지」, 160쪽.
28) 『집사』「칭기스 칸 기」, 199~200쪽.
29) 『몽골비사』 182절: Önggüd-ün Alaquši digid quri-dača Asan Sartaγtai **čaγa'an teme'etü minγan irges** daγulǰu Ergüne müren hürüγü **buluγad** **keremün** qudalduǰu abura ayisurun, Balǰuna usulan oroqui-dur učiraba.
30) Allsen Th. T., Mongolian Princes and Their Merchant Partners, 1200-1260, *Asia Major, 3rd series*, vol. 2, pt. 2, 1989, p.87. 티모시 메이, 『칭기스의 교환』, 163~164쪽. 아산과 함께 자파르 호자(Jafar Khawja 札八兒火者)도 무슬림이었다. 자파르 호자에 대해서는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 異文化와 宮廷의 外交典禮」, 『한국과 동부 유라시아 교류사』, 학연문화사, 2015, 310~311쪽(原載 『동국사학』53, 2012); 邱軼皓, 「자파르 화자」, 미할 비란 외 편저, 『몽골제국, 실크로드의 개척자들』(이재황 옮김), 책과함께, 2021, 223~247쪽 참조.

먼저, 초원과 삼림에서 생산되어 유통된 물품으로는, 『비사』 9절의 **담비**와 **다람쥐** 등 사냥감, 『비사』 12~13절의 **세 살 난 사슴**, 『비사』 89절의 **타르바가**와 **들쥐**, 『비사』 90절의 **타르바가들**, 『비사』 96절과 104절의 **검은담비 외투**, 『비사』 97절과 211절의 **담비 가죽 배내옷**, 『비사』 114절의 **담비 가죽 모자**, **암사슴의 종아리 가죽으로 만든 구두**, **털을 없애고 무두질한 수달피 가죽을 이어 만든 옷** 등 다섯 살 난 쿠추의 의복, 『비사』 117절과 133절의 **가리온 말**, 『집사』 「부족지」의 삼림 우량카트 종족의 **동물 가죽 의복**, **山牛**, **산양**, **주르[암컷 야생 사슴]**, 『비사』 182절의 **흰 낙타**와 **일천 마리의 거세 양**, **담비**와 **다람쥐**, 『집사』 「부족지」의 시기 쿠투쿠가 사냥한 **30마리의 사슴 떼** 등이다.

사료에 언급된 것은 모두 가축과 사냥한 동물, 또는 그 모피나 가죽으로 만든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담비(검은담비), 다람쥐, 사슴(암사슴~주르), 타르바가, 들쥐, 수달, 말, 山牛, 산양, 낙타, 거세 양 등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으로는, 『비사』 117절의 **금 허리띠**, 『비사』 133절과 『집사』 「부족지」의 **은제 요람**과 **(금실로 꿰맨)진주 담요**,[31] 『비사』 135절의 **금 귀걸이**, **코걸이**, **금박 물린 비단과 담비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 등이다.

여기서 언급된 금 허리띠, 은제 요람, (금실)진주 담요, 금 귀걸이와 코걸이, 금박 물린 비단과 담비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 등은 분명히 몽골고원 북부의 메르키드와 동부의 타타르를 공격하여 약탈한 물품이지만, 그 전에 외부 정주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2. 외부 정주지역에서 유입된 물품

금나라가 타타르 부를 앞세워 몽골초원을 감시하고 괴롭히기 전, 금나라 건국 초기에는 몽골[蒙古斯]이 금나라를 괴롭혔는데, 1221년 몽골을 방문했던 조공(趙珙)은 '옛날에 있던 몽고스(蒙古斯)국은 금나라의 위천회(僞天會) 연간(1123~1134)에 자주 금나라를 침략하여 괴롭혔는데, 금나라는 싸우다가 후에는 **많은 금과 비단**을 주어 화친하였다.'[32]는 기록을 남겼다. 이를 통해 당시 몽골 유목민들 역시 주변 정주지역에서 금과 비단 등 몽골고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필요한 재화를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1140년대 무렵, 초몽골국(Qamuɣ Mongɣul Ulus)의 카불 칸에 대한 『집사』 「칭기스 칸 기」의 기록에도 비슷하게 보인다.

'카불 칸에 관해서는 일화들이 무척 많다. … 그 뒤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알탄 칸 앞으로 가서는 그의 수염을 잡는 등 〔칸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 알탄 칸은 참을성 있고 현명한 군주였다. … 그래서 그것〔=카불 칸의 행동〕을 장난과 익살로 여기고 분노를 삭인 채 그의 목숨을 살려 주었다. 그리고 그

31) 『집사』 「칭기스 칸 기」에는 **금실로 짠 이불**로 나온다.
32) 『蒙韃備錄箋證』(『蒙古史料四種本』), 434쪽. 舊有蒙古斯國, 在金人僞天會間, 亦嘗擾金虜爲患, 金虜嘗與之戰, 後乃多與金帛和之.

에게 하사할, 그의 키만큼 될 **금과 보석과 의복**을 창고에서 가져오도록 하여 모두 그에게 준 뒤, 최대한으로 그를 깍듯하게 대하여 돌려보냈다.'[33]

『집사』「칭기스 칸 기」에는 1199년경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뒤 어느 하루는 옹 칸이 보오르추에게 은사를 내리려고 그를 찾았다. 〔마침〕 그는 侍衛에 들어 있었고 칭기스 칸의 활통을 차고 있었다. 그가 "옹 칸이 저를 찾았습니다"라고 말하자 〔칭기스 칸은〕 "가보라!"고 말했다. 그는 활통을 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는 갔다. 옹 칸은 그에게 옷을 입혀 주고 **황금으로 된 '뭉쿠르' 10개**를 하사했다. **'뭉쿠르'는** 원래 그들이 **매우 큰 잔**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로 '질페'보다도 더 큰 잔이었는데, 요즈음 우리는 그 용어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뭉쿠르'를 작은 잔이라고 말한다.'[34]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옹 칸이 보오르추에게 황금으로 된 큰 잔인 '뭉쿠르' 10개를 은사로 내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집사』「칭기스 칸 기」에는 1203년경에 '〔칭기스 칸은〕 또 이렇게 말했다. "토그릴에게 전하라. … 우리들 중에서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칸 아버지가 마시던 **푸른 술잔**으로 마시곤 했는데, 너희들이 늦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일찍 일어나 〔그 잔으로〕 또 마시니 너희들 모두 〔나를〕 질투했었다. 너희들은 이제 **푸른 술잔**을 전부 차지했으니 〔얼마든지〕 마시거라. 나의 동생인 너 토그릴이여. 〔그래 봐야〕 얼마나 마시겠는가? …"'[35]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칭기스 칸이 토그릴과의 권력 투쟁에서 아버지(이수게이)의 '푸른 술잔'을 차지한 그를 '나의 동생'이라며 무시하는 말투로 이미 승기를 잡았음을 보여준다.

『몽골비사』 188절에는 '"그의 **금잔**이라도 주어라! 물이라도 떠 마시게 해라!"고 했다. 그러자 거세마 관리자 쿠쿠추가 셍굼의 **금잔**을 "받아라!"하고 뒤로 던지고는 말을 달렸다.'[36]는 기록이 나온다.

케레이드의 옹 칸과 그의 동생 닐카 셍굼이 도망치다가, 옹 칸은 도중에 죽고 셍굼은 자신의 거세마를 관리하던 쿠쿠추와 그의 아내와 같이 있었다. 이 때 쿠쿠추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셍굼의 금잔'을 던져버리고 칭기스에게 갔다가, 주군인 셍굼을 배신했다고 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집사』「부족지」에는 '처음에 칭기스 칸이 메르키트 종족들 대부분을 장악하고, 소

33) 『집사』「칭기스 칸 기」, 56~57쪽.
34) 『집사』「칭기스 칸 기」, 189~190쪽.
35) 『집사』「칭기스 칸 기」, 217~218쪽.
36) 『몽골비사』 188절: **Altan ǰantau** ber inu ög! Usun ber udquǰu uɣutuɣai!" kemeǰükü. Tende-če Kököčü aɣtači, "**Altan ǰantau** inu ab!" kemen qoyinaɣši oru'ad qataraǰu'u.

의 해 즉 601(=1205 乙丑)년에 그 지방(탕구트)을 정벌하러 갔다. 그 지역에 크고 견고한 성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키(Lîkî)였고,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사 킹로스(Asâ Kînglôs)였다. 그것을 취하고 파괴하였으며, 그 지방을 유린하고 그곳에 있던 **많은 낙타**를 몰고 왔다.'[37]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칭기스 칸이 탕구트를 공격한 주요 목적이 '많은 낙타'였음을 알 수 있다.

* 小結: 외부 정주지역에서 몽골고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으로는, 『몽달비록』의 **많은 금과 비단**, 『집사』「칭기스 칸 기」의 **금**과 **보석**과 **의복**, **큰 황금잔 '뭉쿠르'**, **푸른 술잔**, 『비사』 188절의 **금잔**, 『집사』「부족지」의 **많은 낙타** 등이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대몽골국 성립 이전에 몽골고원에는 주로 초원과 삼림 지대에서 산출된 물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외부 정주 지역에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으로는 금은보석, 비단, 의복 등과 황금 잔, 푸른 술잔(玉?) 등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Ⅳ. 대몽골국 성립 이후 몽골고원의 경제 상황의 변화

블라디미르초프는 대몽골국 성립 이후 몽골고원의 경제상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강대한 칭기스 칸의 제국이 형성되고 몇 차례의 대규모 원정을 치른 다음에 몽골지역과 몽골인의 경제가 일변하게 되었다. 사방에서 각종의 귀중품이 몽골로 흘러들어 오고 화폐가 출현하였으며, 무슬림 상인의 활동이 대규모로 전개되고 원방(遠方)의 여러 문명국가들로부터 온 각종 공장(工匠)의 거류지가 출현하였다. 몽골에서는 건축물과 성시(城市)가 나타났는데 몽골인 자신도 그 일부분은 성시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오르콘 하반(河畔)의 카라코룸은 대통상로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38]

아래에서는 차례로 대몽골국 성립 이후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몽골고원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물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삼림과 초원에서 산출된 물품

『집사』「부족지」에는 '칭기스 칸이 나이만 군대를 패배시키고 타양 칸을 죽였을 때, 즉 호랑이의 해(=1206년)에 오난 강의 河源에 아홉 개의 다리를 지닌 흰 깃발을 세웠다. 거대한 집회와 대연회가 열렸고 '칭기스 칸'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부여되었다.

37) 『집사』「부족지」, 234쪽.
38) 블라디미르초프, 『몽골사회제도사』, 68쪽; 이개석, 「元代의 카라코룸, 그 興起와 盛衰」, 『몽골학』4, 1996; 김경나,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아시아리뷰』8-2, 2019.

그 뒤 타양 칸의 형제인 부이룩 칸을 잡을 목적으로 출정하였는데, **매 사냥**으로 정신이 없던 그를 사냥터에서 급습하여 죽여 버렸다. 그의 휘하에 있던 쿠쉴룩과 그의 형제, 둘 다 도주하여 에르디쉬 강으로 갔다.'[39]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칭기스 칸이 나이만을 정복하고 타양 칸을 죽인 뒤 대몽골국을 성립하고 타양 칸의 형제인 부이룩 칸을 잡으러 갔을 때, 부이룩 칸은 여전히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매 사냥'에 빠져 있다가 급습을 당해 죽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 나이만을 비롯해 몽골고원의 유목 귀족들이 매 사냥을 즐겼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집사』「부족지」에는 '칭기스 칸은 토끼의 해인 '타울라이 일', 즉 603(즉 1206~1207)년에 (키르기스의) 이 두 군주에게 알탄이라는 사람과 부쿠라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어 귀순할 것을 종용했다. 그들은 휘하의 세 아미르를 **흰 송골매(songqôr)**를 들려 보내 배알하러 보내고 귀순해 왔다.'[40]

이 기록을 통해 몽골고원의 서북쪽에 살던 키르기스인들이 토산품인 '흰 송골매', 즉 '名鷹'을 칭기스 칸에게 조공품으로 바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몽골비사』239절에는 '(조치가) 투멘 키르기수드에 이르자 키르기수드의 노얀들인 예디 이날, 알 디에르, 우레벡 디긴 등이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 담비** 등을 갖고 귀순해 와서 조치를 알현했다. 시비르, 케스디임, 바이드, 토카스, 텐렉(텔렝구드), 투엘레스, 타스, 바지기드(바시키르)에서 이쪽으로 숲의 백성들을 귀순시키고 조치가 키르기수드의 만호, 천호들을, 숲의 사람들의 노얀들을 데려다 칭기스 카한에게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담비** 등을 바치며 알현케 했다.'[41]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들은 칭기스 칸의 맏아들인 조치가 북쪽의 '삼림민(hoi-yin irgen)'들을 정복하고, 그 지방의 특산물인 흰 송골매(čaɣa'anuɣud šingqod), 흰 거세마(čaɣa'anuɣud aɣtas), 검은담비(qaranuɣud buluɣad) 등을 복속을 청하는 조공품으로 바친 것을 칭기스 칸에게 가지고 온 상황이다.

『집사』「칭기스 칸 기」에는 '[1208년] 겨울에는 톡타이 베키와 쿠쉴룩을 치기 위해 상서롭게 출정했다. … 그들은 메르키트의 군주 톡타이 베키와 [나이만의] 타양 칸의 아들 쿠쉴룩 칸을 급습하여 두 사람을 모두 격파하고, 그의 **재산**과 **말 떼**와 **가축**을 모두 약탈했다.'[42]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당시 몽골고원의 유목민들 사이에 벌어진

39)『집사』「부족지」, 222쪽.

40)『집사』「부족지」, 246~247쪽. 이와 같은 내용이『집사』「칭기스 칸 기」와『元史』에도 나온다.『집사』「칭기스 칸 기」, 253~254쪽;『元史』本紀 第一 太祖 二年 丁卯條(中華書局標點校勘本, 1999, 14쪽). '是歲, 遣按彈, 不兀剌二人使乞力吉思. 旣而野牒亦納里部, 阿里替也兒部, 皆遣使來獻名鷹.'

41)『몽골비사』239절: (Joči-yi) Tümen Kirgisüd-tür kürügesü Kirgisüd-ün noyad Yedi, Inal, Al-di'er, Örebeg digin Kirgisüd-ün noyad elsen oroǰu **čaɣa'anuɣud šingqod**, **čaɣa'anuɣud aɣtas**, **qaranuɣud buluɣad** abuɣad ireǰü, Joči-da aɣulǰaba. Šibir Kesdiyim, Bayid, Tuqas, Tenleg, Tö'eles, Tas, Baǰigid-ača inaɣši hoi-yin irgen-i Joči oroɣulǰu Kirgisüd-ün tümed-ün, minɣad-un noyad-i, hoi-yin irgen-ü noyad-i abuɣad ireǰü Činggis qahan-dur **čaɣa'anuɣud šingqod**-iyar, **čaɣa'anuɣud aɣtas**-iyar, **qaranuɣud buluɣad**-iyar aɣulǰaɣulbai.

전쟁의 목적이 상대방의 재산과 가축 등이었음을 보여준다.

칭기스 칸이 중앙아시아 원정 중에 초청한 장춘진인(長春眞人)의 여정을 기록한 여행기인 『서유기(西遊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辛巳年(1221) 음력 5월 下旬(27일) 夏至]여기에서 서쪽으로는 점점 산과 언덕이 보였고,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모두 **검은 수레**와 **흰 장막**을 **집**으로 삼아 살며, **가축**을 방목하고 **사냥**을 하는 것이 그 풍속이다. **옷은 무두질한 가죽이나 모피**로 만들어 입고, **짐승의 고기와 젖을 음식**으로 먹는다. 남자들은 머리를 땋아서 양쪽 귀 뒤로 늘어뜨린다. 부인들은 **자작나무 껍질로 된 모자**를 머리에 쓰는데, 어떤 것은 높이가 2尺이 넘는다. 대부분은 **검은 모직물**로 둘러싸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붉은색 비단**을 쓰기도 하며 모자 끝이 거위나 오리같이 생겨서 **고고(故故)**라고 부른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며 장막(廬帳)을 출입할 때는 주변을 배회한다.[43]

이 기록은 몽골고원 서부를 지나며, 그 지역의 주거, 음식 생활과 두발 양식 등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다. 특히 부인들의 '고고관(故故冠 boγtaγ)'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눈에 띈다.

[辛巳年(1221) 음력 6월 下旬(28일)] 28일, 오르도의 동쪽에 도착했으며, … 진영에 들어갔고, 남쪽 연안에 **수레**를 놓아두었다. **수레**와 **천막**이 많았고, 날마다 **제호**(醍醐 버터)와 **동락**(湩酪 응유)이 제공되었다. 한(漢 금나라)과 하(夏 탕구트)의 공주가 모두 **방한 도구 등**과 **식량**을 보내왔다. **기장쌀** 1斗는 백금 10냥이며, 백금 50냥이면 밀가루 80斤과 바꿀 수 있다. 대개 밀가루는 음산(陰山, 즉 천산산맥) 너머 2천여 리 떨어진 서역에서 (서역)상인들이 낙타에 실어서 가지고 온 것이다.[44]

이 내용은, 아마도 대칸의 부인인 한 카툰의 오르도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쉬고 있을 때의 상황으로, 특히 수레와 천막(게르), 유제품과 곡물에 대해 기록하였다.

[辛巳年(1221) 음력 7월 中下旬] 북쪽에는 갈랄초(曷剌肖 올리야소타이)라 불리는 옛 도시가 남아 있었다. … 처음으로 회흘(回紇) 사람을 보았는데, 수로를 파서 **보리(밭)**에 물을 대고 있었다. 또 5~6일을 고개를 넘어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몽골 진영에 이르렀다. … 역참지기가 말하기를 이 설산(雪山)의 북쪽에 **진해(鎭海 칭카이) 팔랄갈손(八剌喝孫 balγasun)**이 있다. 팔랄갈손(八剌喝孫)은 중국어로 城을 일컫는 것이다. 그 안에는 **창고**가 있어 창두(倉頭)라고 부르기도 한다. … [7월 26일] 다음날 아불한산(阿不罕山)의 북쪽에서 칭카이(鎭海)가 선생을 찾아왔다. 선생이 그와 이야기하기를,

---

42) 『집사』「칭기스 칸 기」, 254쪽.

43) 『長春眞人西遊記』(『蒙古史料四種本』), 268~269쪽. 從此以西, 漸有山阜, 人烟頗衆, 亦皆以黑車白帳爲家. 其俗牧且獵, 衣以韋毳, 食以肉酪, 男子結髮垂兩耳, 婦人冠以樺皮, 高二尺許, 往往以卓褐籠之. 富者以紅綃, 其末如鵝鴨, 名曰故故. 大忌人觸, 出入廬帳須低徊.

44) 『長春眞人西遊記』(『蒙古史料四種本』), 280~282쪽. 二十八日, 泊窩里朶之東, … 入營, 駐車南岸, 車帳千百, 日以醍醐湩酪爲供, 漢夏公主皆送寒具等食, 黎米斗白金十兩, 滿五十兩可易麵八十斤, 蓋麵出陰山之後二千餘里, 西域賈胡以橐駝負至也.

"… 사막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추수가 이루어진 것**을 기쁘게 보았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겨울을 나면서 황제께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45]

이 기록은 자브한 강변의 올리야소타이라는 옛 도시에 들러 보리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고, 칭카이 성(城)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다. 이 지역은 몽골고원에서 소규모 농사가 가능한 지역 중 한 곳이다.

[癸未年(1223) 음력 4월] 서북쪽 천여 리에 있는 검검주(儉儉州)에서는 **좋은 철**이 산출되고. **청서(靑鼠)**가 많으며 또한 **기장**과 **보리**도 수확한다. **한인(漢人) 장인(匠人)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으며, **각종 비단들을 직조**하고 있다. 도원(道院)의 서남쪽으로는 금산(金山 알타이)이 보이는데, 그 산에는 비와 우박이 많이 내린다.[46]

이 기록은 오늘날 투바공화국에 속하는 검검주(儉儉州 또는 謙謙州, 켐켐치우트) 지역의 산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좋은 철과 청설모(靑鼠 날다람쥐)가 나며, 기장과 보리도 수확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농경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인 장인(漢匠)들이 많이 거주하며 각종 비단을 직조하는 갓으로 보아, 아마도 전쟁 포로로 이주된 농민들과 기술자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小結**: 대몽골국 성립 이후 몽골고원에서 유통된 물품을 살펴보면, 먼저 『집사』「부족지」의 **매 사냥**, 『집사』「부족지」의 **흰 송골매**, 『비사』 239절의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담비**. 『집사』「칭기스 칸 기」의 1208년 겨울, 메르키트의 **재산**과 **말 떼**와 **가축** 약탈 등 기사에 보이는 매,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담비 등이 있다.

장춘진인(長春眞人)의 『서유기(西遊記)』에서는 **검은 수레**와 **흰 장막**, **가축**과 **사냥**. **무두질한 가죽옷**, **모피**, **짐승의 고기**와 **젖**. **검은 모직물**이나 **붉은색 비단**으로 싼 **자작나무 껍질로 된 부인들의 모자[고고(故故)]**, **제호**(醍醐 버터)와 **동락**(湩酪 응유), **방한도구** 등과 **식량**, **기장쌀**, **보리(밭)**, **추수**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부분 초원과 삼림지대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고고관(boγtaγ)을 감싸는 붉은색 비단은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것이다.

특히, 켐켐치우트(儉儉州)에서 나는 **좋은 철**과 **청서(靑鼠)**, **기장**과 **보리**가 언급되었으며, 많은 **한인(漢人) 장인(匠人)들**이 **각종 비단**들을 직조하는 것으로 보아, 전쟁으로 포로가 된 자들로 보인다.

2. 외부 정주지역에서 유입된 물품

『집사』「부족지」에는 '칭기스 칸이 무서운 꿈에서 깨어나 등불을 찾았는데, 오르두

45) 『長春眞人西遊記』(『蒙古史料四種本』), 282~286쪽. 北有故城曰曷剌肖, … 始見回紇決渠灌麥. 又五六日,踰嶺而南, 至蒙古營, … 郵人告曰, 此雪山北, 是田鎭海八剌喝孫也. 八剌喝孫, 漢語爲城, 中有倉廩, 故又呼曰倉頭. … 翌日, 阿不罕山北鎭海來謁, 師與之語曰, "… 沙漠中多不以耕耘爲務, 喜見此間秋稼已成, 余欲於此過冬, 以待鑾輿之回, 何如?"

46) 『長春眞人西遊記』(『蒙古史料四種本』), 366~367쪽. 西北千餘里儉儉州, 出良鐵多靑鼠, 亦收床麥, 漢匠千百人居之織綾羅錦綺.

안에는 자아 감보의 딸인 이바카 베키라는 이름의 한 카툰이 있었다. … 그리고 "밖에 누가 있느냐?"고 소리쳤다. 케식을 서던 〔주르체데이의 아들인〕케흐티 노얀은 "접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를 불러들여 "이 카툰을 너에게 주노라! 그녀를 취하라!"라고 말했다. 케흐티가 이 일로 크게 두려워하자 그를 달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이 말은 진실이다"라고 하고, 카툰에게는 "내게는 기념으로 이름이 〔아식 테무르〕인 바우르치 한 명과 내가 쿠미즈를 마시던 **황금 술잔**을 남겨 놓으라!"고 말한 뒤, 오르두와 가복들과 가인들과 재물과 가축 등 나머지 모든 것을 카툰에게 주었고, 그녀를 케흐티 노얀에게 주었다.'[47]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칭기스 칸이 쿠미즈(아이락)를 마시던 잔이 '황금 술잔'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몽골비사』 208절에 '[1206년 분봉 시] 칭기스 카한이 이바카 베키를 주르체데이에게 상으로 주며, "너를 성품이 나쁘고 자태가 초라하다고 안했다. …"'[48]라고 나온다.

『몽골비사』 238절에는 '(오이고드[위구르]의 이도오드가) "그대의 다섯째 아들이 되어 힘을 바치겠습니다!"하고 아뢰어 왔다. 그 말에 칭기스 카한이 허락하여 답을 보내기를, "딸도 주마! 다섯째 아들이 되도록 하라! **금**, **은**, **진주**, **자개**, **금단(金緞)**, **혼금단(渾金緞)**, **비단**을 갖고 이도오드가 오도록 하라!"고 하여 보내자, 이도오드가 "허락받았다"고 기뻐하며 **금**, **은**, **진주**, **자개**, **비단**, **금단**, **혼금단**, **피륙**을 갖고 와서 칭기스 카한을 알현했다. 칭기스 카한이 이도오드에게 알 알톤을 주었다.'[49]는 기록이 있다.

『집사』 「칭기스 칸 기」에도 '[1209년 봄] 앞에서 말한 두 사람의 사신(부쿠시 이시아이구치, 알긴 티무르 투툭)이 칭기스 칸의 사신들과 함께 도착해 그 말을 아뢰자, 칭기스 칸은 은사를 내려 "만일 이디쿠트가 진실로 힘을 다 바칠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가 **창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직접 갖고 오도록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이디쿠트는 창고의 문을 열고 **화폐와 물품들** 가운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서 칭기스 칸의 어전으로 향했다.'[50]고 같은 내용이 보인다.

이 기록들은 칭기스 칸이 '대몽골국'을 건설하고 공신들에게 상훈을 내릴 때, 위구르의 이도오드(이드 쿠드 亦都護)가 복속을 청할 때 상황이다. 위구르가 바친 물품으로는 금(altan), 은(münggü), 진주(subud), 자개(tanas), 금단(金緞 načid), 혼금단(渾金緞 dardas), 비단(toryad), 피륙(ayurasun)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크로드 상

47) 『집사』 「부족지」, 320쪽; 『집사』 「칭기스 칸 기」, 117쪽.
48) 『몽골비사』 208절: Činggis-qahan Ibaγa beki-yi Jürčedei-ye soyurqaǰu ögürün, Ibaγa-da ügülerün, "Čima-yi Ülige če'eǰi činu üge'üi, Üǰesgüleng tala mau'ui ese ke'ebe je, bi.
49) 『몽골비사』 238절: Tere üge-dür Činggis qahan soyurqaǰu qariγu ügüleǰü ilerün, "Öki ber ögüye! Tabduγar kö'ün boltuγai! Altan, münggü, subud, tanas, načid, dardas, toryad abuγ ad Iduγud iretügei!" kegeǰü ilegesü, Idu'ud "Soyuryaγdaba." kemen baysču altan, münggü, subud, tanas, toryad, načid, dardas, ayurasun abuγad Iduγud ireǰü Činggis-qahan-dur aγ ulǰaba. Činggis qahan Iduγud-i soyurqaǰu Al altun-i ögbe.
50) 『집사』 「칭기스 칸 기」, 253~257쪽.

에 있던 오아시스 정주국가인 위구르 왕국의 재화를 엿볼 수 있다.

이어서 '〔칭기스 칸의〕 어전에 위구르인들의 군주가 와서 배알하고, "만일 은사를 내리셔서 이 종을 높여주신다면, 멀리서 듣고 가까이 온 것을 〔치하하여〕 **붉은 색의 외투**와 **황금 혁대 고리**를 제가 갖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칭기스 칸의 네 아들 다음에 저를 다섯째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원했다.'[51]는 기록에서 위구르 군주가 1209년에 사신을 보내 복속을 청한 후, 1211년 봄에는 직접 몽골고원으로 가서 칭기스 칸에게 아들이 되겠다고 청원하게 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몽골비사』 248절에는 '"(알탄) 칸(금나라 황제 宣宗)이 허락하신다면, 몽골의 칸에게 지금은 귀순하여 화의합시다! 화의에 들어 몽골이 물러가면, 물러간 뒤에 다시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해봅시다! 몽골의 사람도, 군마도 땅이 맞지 않아 병들어 간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들의 칸에게 **딸**을 줍시다! **금**, **은**, **피륙**, **재화**를 군인들에게 무겁게 내어줍시다! 우리의 이 화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고 제안하였다.

알탄 칸이 옹깅 승상(完顔承暉)의 이 말을 옳게 여겨, "그렇게 되도록 하라!"며 귀순하여 칭기스 카안에게 **공주 이름의 딸(岐國公主)**을 바치고, **금**, **은**, **피륙**, **물화**를 군인들의 힘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종도(中都)에서 내어 옹깅 승상을 칭기스 카한에게 보내왔다. 귀순해 오자 칭기스 카한이 그들의 화의를 받아들여 도시마다 공격하고 있던 부대들을 돌아오게 하여 철군했다. 옹깅 승상은 모조(莫州), 후주(撫州)라는 이름의 멧부리까지 칭기스 카한을 배웅하고 돌아갔다. **피륙**, **물화**를 우리의 군인들이 실을 수 있는 데까지 싣고, 짐을 **깁**으로 묶고 행군했다.'[52]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1208-09년(1214~15년의 원정과 혼동되어 서술)의 일을 서술하면서, 칭기스 칸이 금나라를 공격하자 금나라가 화의를 청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금나라 측에서 황제의 딸[岐國公主]과 함께 대량의 금, 은, 피륙, 재화를 보냈는데, 심지어 '비단 깁'을 재화를 묶는데 사용할 정도로 질과 양이 엄청났다는 의미이다.[53]

『몽골비사』 249절에 '그 출정한 김에 카신(河西) 사람들(=탕구트)에게 갔다. 향하여

51) 『집사』「칭기스 칸 기」, 272쪽.

52) 『몽골비사』 248절: Altan-qan-i soyurqabasu Mongγul-un qan-dur edöged-tür elsen eyetüye! Eye-dür oruǰu Mongγul-i ičuγasu, ičuγaγsan-u qoyina basa busu sedkil bida tende eyetüldüd ǰe. Mongγul-un ba ere aγta γaǰar hegüšiyeǰü kölčirgemüi kemegdemüi. Qan-a inu **öki** ögüye! **Altan münggün aγurasud ed** čerig-ün kü'ün-e kündüte γaryaǰu ögüye! Ene eye-dür man-u oroqu ülü-'ü-yi ker medegdekü?" kemen duradqabasu Altan-qan Ongging čingsang-un ene üge jöbšiyeǰü, "Eyin böged boltuγai!" kemen elsen Činggis qa'an-a **Güngǰü neretei öki** γaryaǰu **altan**, **münggün**, **aγurasun ed tabar** čerig-ün kü'ün-e küčün-e medegülün daγaqui-ača ǰungdu-ača γaryaǰu Činggis-qahan-dur Ongging čingsang kürgeǰü irebei. Elsen iregdeǰü Činggis-qahan eye-dür anu oroǰu, qotad qotad-tur egered baγuγsad čerigüd-i qariγulǰu ičubai. Ongging čingsang Muǰu, Fuǰu neretü qoši'un-a kürtele Činggis qa'an-i hüdeǰü qariba. **Aγurasun ed** bidan-u čerigüd daγ aqui-ača ačiǰu, **kibud**-iyar ačiγa-ban tataǰu yabubai.

53) 『元史』 本紀 第一 太祖 九年 甲戌條(中華書局標點校勘本), 17쪽.

가니 카신 사람들의 보르칸(국왕)이 귀부하여, “그대의 오른팔이 되어 힘을 바치겠습니다.”하고 아뢰면서 **차카 이름의 딸**을 칭기스 카안에게 내주었다. … “칭기스 카안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탕오드 사람들은 키 큰 데레순풀(deresün)을 가리개로 하여 기른 **많은 낙타**를 내어 **공물**로 드리겠습니다. 털을 짜서 **피륙**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놓는 **매**를 조련하고, 수집하여 그 중에 좋은 것으로 골라 보내며 살겠습니다!”하고 아뢰었다. 아뢰고 나서 약속을 지켜 탕오드 사람들로부터 **낙타**를 징발하여 이루 다 몰고 갈 수 없도록 가져다주었다.’[54]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는 1209년, 칭기스 칸의 제1차 탕구트(西夏) 원정에 대한 서술과정에서, 탕구트의 보르칸(국왕)이 자신의 딸 차카를 바치고, 많은 낙타, 털을 짠 피륙, 훈련시킨 매 등을 공납품으로 바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서술을 통해 탕구트 지방에 낙타와 피륙, 매 등이 많이 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이어서『몽골비사』250절에는 ‘칭기스 카한은 그 출정에서 키타드 사람들의 알탄 카안(금 황제)을 귀부시켜 **많은 피륙**을 취하고, 카신 사람들의 보르칸을 귀부시켜 **많은 낙타**를 취하였고, 칭기스 카한은 양의 해(1211년)의 그 출정에서 키타드 사람들의 아코타이라는 이름의 알탄 칸을 귀부시키고 탕오드 사람들의 일로코 보르칸을 귀부시키고, 돌아와 사아리 초원에 설영했다.’[55]는 기록이 보인다.

『몽골비사』252절에 ‘알탄 칸은 종도에서 나올 때 종도 안에 카다를 료쇼(留守)로 삼아 맡기고 갔다. 칭기스 카한이 종도의 **금**, **은**, **재화**와 **피륙**을 점검시키러 웅구르 집사장, 아르카이 카사르, 시기 코토코를 보냈다. 이들 셋이 온다고 카다가 **금을 섞어 짠**, **무늬를 넣은 피륙**을 갖고 종도에서 나와 마중했다.’[56]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집사』「칭기스 칸 기」에도 ‘그때 칭기스 칸은 쿤주(Qûnjîû, 桓州)라는 곳에 있었는데, 타타르 종족 출신의 (시기)쿠투쿠 노얀과 웅구르 바우르치와 하르카이 카사르 등 세 삶을 보내서 중두 시 안에 있던 **알탄 칸의 재고와 재물**을 갖고 오도록 했다. 알탄 칸이 그 도시에서 떠날 때 카일류와 쿠이라는 두 아미르를 신뢰하는 대리인으로 **재산과 재고와 물자**를 관리하도록 남겨 두었다. 이 관직은 키타이 언어로 ‘류슈

54) 『몽골비사』 249절: Tere morilaɣsaɣar Qašin irge-dür yorčiba. Jorilju kürü'esü Qašin irgen-ü Burqan elsen, "Baraɣun ɣar činu bolju küčü ögsü!" kemen **Čaɣa neretei öki** Činggis qa'an-a yarɣaju ögbe. … Činggis qa'an-i soyurqabasu, ba Tangɣud irgen ündür deresün-ü nemürete ösgejü **olon temeged** ɣarɣaju qa bolɣaju ögsü! **Örmege nekejü, aɣ urasun** bolɣaju ögsü! **Oɣorqu šibaɣun suryaju quraɣulju sayid-i inu kürgegülün** asuɣai!" kemen öčibei. Ügülejü üge-dür-iyen kürün Tangɣud irgen-eče-iyen **temeged ɣubčilju** tuɣ un yadatala abčiraju ögbei.

55) 『몽골비사』 250절: Činggis-qahan tere morilaɣsan-dur Kitad irgen-ü Altan qa'an-i elsegülji **olon aɣurasun** abču, Qašin irgen-ü Burqan-ni elsegülji **olon temeged** abču Činggis-qahan qonin jil tere morilaɣsan-dur Kitad irgen-ü Aqutai neretü Altan qan-i elsegülji Tangɣud irgen-ü Iluɣu burqan-ni elsegülji qariju Saɣari-keger-i baɣubai.

56) 『몽골비사』 252절: Altan qan Jungdu-dača ɣarurun Jungdu dotura Qada-yi liušiu bolɣan tüšiji oduɣsan ajuɣu. Činggis qahan Jungdu-yin **altan**, **münggün**, **ed**, **aɣurasun** ya'uke inu toɣolaɣulurun, Önggür baɣurči, Arqai qasar, Šigi-qutuɣu ɣurban-i ilebei. Ede ɣurban-i ayisai kemen Qada esergü uɣdun **altatai** **hartai aɣurasu** bariɣad Jungdu dotor-ača ɣarču esergü irebe.

(留守)'라고 불린다. 이 두 사람과 다른 아미르들은 **금실로 짠 의복**과 **보물들**을 갖고 상술한 아미르들을 배알했다. 웅구르 바우르치와 하르카이 카사르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쿠투쿠 노얀은 거절했다. … 칭기스 칸은 "쿠투쿠는 큰 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의 倍로 은사를 내려 주고, 웅구르 바우르치와 하르카이 카사르를 질책했다.'[57]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들은 1215년 경, 칭기스 칸이 중도(中都)를 공격하자 알탄 칸(금 황제)이 도망가면서 카다에게 유수(留守)직을 주어 맡겼는데, 칭기스 칸이 부하들을 시켜 중도의 재화를 점검시키려 보낸 상황이다. 당시 금나라 수도인 중도에는 금, 은, 재화, 피륙이 많이 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집사』「칭기스 칸 기」에는 '호라즘 샤가 칭기스 칸의 사신들과 상인들을 경솔하게 살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분란을 일으킨 이야기_ … 호라즘 샤의 치세 말년에 사람들은 비할 바 없는 평안과 복락을 누렸고, 반란의 불길은 소멸되었다. 도로에는 도적과 강도가 사라져, 상인들은 왕국의 어느 곳이라도 이익을 낼 것 같은 지방이 있다면 그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쪽으로 갔다. 몽골 종족들은 도시들에서는 멀리 떨어진 초원민이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직물**과 **의복**과 **카펫** 등은 그들에게 특히 귀했고, 그들과의 교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한 소문은 매우 널리 퍼졌다.

그런 까닭에 부하라에서 세 명의 상인이 **金絲 織物**, **잔다니치**, **면포** 등을 비롯해 그 밖에도 그 종족들에게 필요하고 알맞다고 보이는 **각종 물품들**을 갖고 그 지방으로 향했다. …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온〕 옷들을 보이면서, 그 가격이 10디나르나 20디나르인 것들을 모두 2발리시나 3발리시로 불렀다. 칭기스 칸은 터무니없는 그 말을 듣고 … 그의 옷들을 목록을 적어 빼앗고 그를 억류했다. …〔칭기스 칸이〕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옷의 가격을 부르지 않고 "우리는 이 직물들을 군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칭기스 칸은 그들의 말에 기분이 좋아져 "**금실로 짠 옷**들은 모두 금 1발리시를 주고, **잔다니치**〔와〕 **면포** 두 벌에 은 1발리시를 주라"고 했다. … 그들이 돌아갈 때 〔칭기스 칸은〕 "카툰.왕자.아미르들은 각자 자기 휘하에서 두세 사람을 〔선발하여〕 **금.은 발리시**를 주고, 그들과 함께 술탄 지방으로 가서 교역을 하여 그 지방의 **보배들**과 **진귀품들**을 구해 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 명령에 따라 각자 자기 종족에서 한두 사람을 임명하여 450명의 무슬림들이 모였다. 칭기스 칸은 마흐무드 호라즈미와 알리 호자이 부하리와 유수프 칸카 오트라리를 사신으로 그 상인들과 동행케 해서 호라즘 샤에게로 보내, 다음과 같은 전갈을 주었다. … '[58]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칭기스 칸이 실크로드를 통한 오아시스 도시와의 통상교역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59] 즉, 몽골고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들을

57) 『집사』「칭기스 칸 기」, 288~289쪽.
58) 『집사』「칭기스 칸 기」, 308~310쪽; 티모시 메이, 『칭기스의 교환』, 165~167쪽.
59) Allsen,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1997; 설배환, 『蒙•元제국 쿠릴타이 硏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139~161쪽.

무슬림 상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몽골유목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60]

『몽골비사』 260절의 '해가 지는 곳에서 뜨는 곳에 이르기까지 적의 백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투부드(티베트) 개들을 부추겨 보내시면, 저희들에게 천지가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가 **적의 백성**을, **금**, **은**, **피륙**, **물화**, **백성**과 **속민**을 그대에게 가져오겠습니다.'[61]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1218년부터 시작된 칭기스 칸의 중앙아시아 사르타올(호레즘 왕국) 원정 과정 중의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몽골군의 목적이 재화와 사람을 약탈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辛巳年(1221) 음력 6월 下旬(28일)] 28일, 오르도의 동쪽에 도착했으며, … 기장쌀 1斗는 백금 10냥이며, 백금 50냥이면 **밀가루** 80斤과 바꿀 수 있다. 대개 **밀가루**는 음산(陰山, 즉 천산산맥) 너머 2천여 리 떨어진 서역에서 (서역)상인들이 낙타에 실어서 가지고 온 것이다.[62]

이 기록은 몽골고원에 유입된 밀가루가 西域(중앙아시아) 상인들이 낙타로 실어왔다는 것과 그 가격까지 기록한 중요한 사료이다.

『몽골비사』 264절에는 '힌두스의 중부에 이르도록 추격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회군하면서 힌두스의 변방 백성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낙타**, 수많은 **거세 염소들**을 가져왔다.[63]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호레즘 왕의 아들 잘랄 앗 딘이 인더스 강을 넘어 도망치자, 몽골군이 회군하면서 그 지방 백성들을 약탈하고 낙타와 거세 염소들을 빼앗아 오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몽골비사』 265절에는 '아샤 감보가 나서며, "모욕하는 말들은 내가 했다. 이제라도 너희들 몽골이 싸움을 배웠으니, 싸우고자 한다면 나는 알라샤이(賀蘭山)에서 목영하며, **모직 장막**이 있고, **낙타 짐**을 갖고 있다. 알라샤이를 행해 내게 오라! 거기서 싸우자! **금**, **은**, **피륙**, **재화**가 필요하면 에리 카야(寧夏), 에리 제우(西涼)를 목표로 해라!"하고 말을 전해 보냈다.'[64]는 기록이 보인다.

---

60) Allsen, Mongolian Princes and Their Merchant Partners, 1200-1260, pp.83~94.

61) 『몽골비사』 260절: Naran šinggekü-eče uryuqu-da kürtele dai-yin irgen bui. Man-i Töbödüd noqod-iyan tukirču ilegesü, **daiyin irgen**-i ba tenggeri yaǰar-a kücü nemegdeǰü, **altan**, **münggü**, **ayurasun**, **tabar**, **irgen**, **oryan** čima-da abčirasuyai!

62) 주)43 참조. 『長春眞人西遊記』(『蒙古史料四種本』), 280~282쪽. 二十八日, 泊窩里朶之東, … **黎米**斗白金十兩, 滿五十兩可易**麵**八十斤, **蓋麵出陰山之後二千餘里, 西域賈胡以橐駝負至也**.

63) 『몽골비사』 264절: Šindus-un dunda kürtele eriǰü yadaǰu qariǰu, Šindus-un kiǰiyar irgen-i dayuli'ad olon **temeged** olon **serkes**-i abuyad ireǰükü.

64) 『몽골비사』 265절: Aša-gambu ügülerün, "Dayaringqu üges bi ügülelüge. Edöge ber bögesü ta Mongyol qadqulduya surču qadquldusu kemebesü, bi bürün Alašai nuntuytu, **terme gertü**, **temege-iyen ačiyatu** buyu. Alašai ǰoriǰu na-dur iredkün! Tende qadqulduya! **Altan münggün ayurasun tabar** keregtü bögesü, Eri-qaya, Eri-ǰe'ü-yi ǰoridqun!" kemeǰü ileǰükü.

이 기록은 칭기스 칸이 호레즘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원정에서 되돌아오자마자, 중앙아시아 원정에 군대를 내지 않은 탕구트를 1226~7년에 응징하러 갔다가 병에 걸린 상황에서, 아샤 감보가 항복하지 않고 싸움을 청하는 장면이다. 당시 탕구트가 많이 갖고 있던 재화의 종류들이 열거되어 있다.

『집사』「칭기스 칸 기」에는, '칭기스 칸은 유언을 모두 마치고 아들들을 보낸 뒤 낭기야스 방면으로 향했는데, 그 도시의 군주들이 차례로 찾아와 복속했다. 주르체와 낭기야스와 탕구트 지방들의 경계 중간에 있는 류판산(六盤山)에 도착했을 때, 주르체의 군주가 "칭기스 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에게 선물을 들려 파견해서-그 가운데에는 호화스런 **큰 진주들**이 담긴 접시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우리는 복속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칭기스 칸은 "귀에 구멍을 뚫은 사람에게는 모두 **진주**를 주라"고 명령했다.'[65]라고 나온다.

이 기록은 칭기스 칸이 다시 원정길에 올라 금나라 근처에 오자, 금나라 황제가 칭기스에게 '호화스런 큰 진주들이 담긴 접시'를 보내 복속을 청해왔고, 칭기스는 이 진주를 부하들과 군사들에게 모두 사여해 준 내용이다. 이 기록을 통해 칭기스 칸은 전리품이나 공납품을 자신보다도 부하들에게 사여해 줌으로써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몽골비사』 266절에는 '칭기스 카한이 차소토 산 위에서 여름을 나고, 아샤 감보와 산에 올라 저항하던 **모직 장막**을 가진, **낙타 짐**을 가진 탕오드들을 군대를 보내 의도한 바대로 절멸할 때까지 약탈했다. 거기서 보오르초와 모칼리에게 "힘이 자라는 데까지 갖도록 하라!"고 상을 내렸다.'[66]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은 결국 칭기스 칸이 1227년에 저항하는 탕구트의 아샤 감보를 섬멸하고 재화를 약탈하고, 부하 장수인 보오르초와 모칼리에게 전리품을 취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다.

이어서 『몽골비사』 267절에는 '칭기스 카한이 차소토에서 이동하여 오라카이 성에서 묵고, 오라카이 성에서 이동하여 두르메게이 성(靈州城)을 깨뜨리고 있을 때 보르칸이 칭기스 카한을 알현하러 왔다. 보르칸은 **황금 불상**을 비롯한 **금은 기명**을 아홉 가지로 아홉 벌씩, **동남동녀** 각 아홉 명, **거세마**와 **낙타** 각 아홉 마리 등 온갖 것을 아홉 가지씩 아홉 색으로 갖추어 알현하였다. 보르칸을 문을 닫은 채 알현케 했다.'[67]

65) 『집사』「칭기스 칸 기」, 385쪽.

66) 『몽골비사』 266절: Činggis-qahan Časutu degere jusaǰu Aša-gambu-luγa Aγulalaγsad, dayiǰiγsad **Terme gerten**, **Temege-iyen ačiγatan** Tangγudud-i čerigüd ileǰü onoγsaγar üridtele talaγulbai. Tende-če Boγorču, Muqali qoyar-a soyurqarun, "Küčün-e medetele abtuγai!" kemen ǰarliγ bolba.

67) 『몽골비사』 267절: Činggis qahan Časutu-ača ködölǰü Uraqai-balaγasu baγuǰu, Uraqai balaγasun-ača ködölǰü Dörmegei-balaγasu ebden büküi-dür Burqan Činggis qahan-na aγ ulǰara irebe. Tende Burqan aγulǰarun, **altan sümes** terigülen **altan münggün ayaγa saba** yesün yesüd, **nuγud ökid** yesün yesüd, **aγtas temeged** yesün yesüd eldeb-iyer yesün

는 기록이 이어진다.

이 기록은 탕구트의 군주였던 보르칸이, 1227년 칭기스 칸에게 항복을 청하는 과정에 그가 가져온 공납품이 열거되어 있다.

* 小結: 『집사』「부족지」에 칭기스 칸이 쿠미즈를 마시던 **황금 술잔**이 보이는데, 이것은 아마도 오래 전에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구르가 칭기스 칸에게 복속을 청할 때 바친 물품으로 『비사』 238절에는 **금**, **은**, **진주**, **자개**, **금단(金緞)**, **혼금단(渾金緞)**, **비단**, **피륙**이 나오며, 『집사』「칭기스 칸 기」에는 **화폐**와 **물품들**, 그리고 이득 쿠트(亦都護)가 상으로 하사해달라고 청한 **붉은 색 외투**와 **황금 혁대 고리** 등이 보인다. 이 물품들을 보면, 실크로드 상의 정주국가인 위구르왕국의 재화가 아주 풍부했음을 알 수 있다.

금나라 역시 몽골에 항복을 청하며 다양한 것을 바쳤는데, 『비사』 248절에는 **기국공주(岐國公主)**, **금**, **은**, **피륙**, **물화** 등이, 『비사』 252절에는 **금**, **은**, **재화**와 **피륙**, **금을 섞어 짠 피륙**, **무늬를 넣은 피륙** 등이, 『집사』「칭기스 칸 기」에는 **알탄 칸**(金)의 **재고와 재물**, **금실로 짠 의복**, **보물들**, 그리고 **호화스런 큰 진주들이 담긴 접시**가 보인다.

탕구트[西夏]가 몽골에 복속을 거부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물품들이 언급되는데, 『비사』 249절에는 탕구트가 보낸 **차카 공주**, **많은 낙타**, **피륙**, **매**가, 『비사』 265절에는 **모직 장막**, **낙타 짐**, **금**, **은**, **피륙**, **재화**, 『비사』 266절에는 **모직 장막**, **낙타 짐**, 『비사』 267절에는 탕구트 국왕 보르칸이 칭기스 카한에게 **황금 불상**을 비롯한 **금은 기명**, **동남동녀**, **거세마 낙타** 등을 바치며 알현했다고 기록하였다.

장춘진인의 『西遊記』에 언급된 **서역상인들**이 **낙타**에 실어 몽골고원으로 가져온 **밀가루**는 그 가격이 아주 높아 80斤을 사는데 백금(白金) 50兩이 들었다고 한다.

호레즘과 몽골 사이에 이루어진 교역과 전쟁 등에 대한 기록에서도 수 많은 물품들이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집사』「칭기스 칸 기」에는 몽골 초원민에게는 귀한 **여러 종류의 직물**과 **의복**과 **카펫** 등이, 칭기스 칸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려고 부하라 상인이 가져온 **金絲 織物**, **잔다니치**, **면포**, **각종 물품들**, **금실로 짠 옷**, **금 • 은 발리시(錠)**, **보배들**과 **진귀품들**, 그리고 『비사』 260절 **적의 백성**, **금**, **은**, **피륙**, **물화**, **백성**과 **속민** 등이 보인다.

그리고 『비사』 264절에는 힌두스의 **변방 백성**들, 수많은 **낙타**, 수많은 **거세 염소**들을 약탈해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몽골국 성립 이후에는 몽골고원으로 아주 다양한 물품과 재화들이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귀금속 • 보석류를 비롯한 사치품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황금 술잔, 황금 혁대 고리, 황금 불상, 금, 은,

---

yesüd ǰisülejü ayulǰaqui-dur Burqan-i egüden bütegün-e ayulǰayulba.

금•은 발리시(鋌), 금은 기명, 진주와 접시, 자개, 화폐, 보배들과 진귀품들이 있다. 직물류 또한 값비싸고 화려한 금단(金緞), 혼금단(渾金緞), 金絲 織物, 잔다니치, 비단, 금실로 짠 의복, 금을 섞어 짠 피륙, 무늬를 넣은 피륙, 붉은 색 외투, 모직 장막, 면포 등이 몽골고원으로 유입되었다.

아울러 금나라의 기국공주(岐國公主)와 탕구트의 차카 공주, 동남동녀와 적의 백성, 농민과 장인(匠人) 등을 포함한 수많은 속민들도 몽골고원으로 끌려왔다.

한편 대몽골국 성립 이전 사료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가축과 동물들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겨우 탕구트와 힌두스에서 약탈한 낙타와 거세마, 거세 염소, 매 정도이다. 곡물류에 대한 언급은 거의 보이지 않고 『西遊記』에 언급된 기장쌀(黍米)과 밀가루(麵) 밖에 보이지 않는다.

Ⅴ. 우구데이 카안 시기 경제 상황의 변화 - 결론을 대신하여

몽골고원을 통합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정복전쟁으로 일생을 보낸 칭기스 칸이 1227년 여름에 탕구트 정복 중에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1229년 여름에 개최된 쿠릴타이에서 우구데이가 다음 대칸으로 추대되었다.

우구데이 카안은 부친의 유업인 금나라 정복을 완수하는 동시에 사방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대몽골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변지역과의 교류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일시적인 약탈과 정복을 위주로 했던 부친과는 달리, 정주민 출신인 참모들의 의견에 따라 정복지에 대한 항구적인 지배를 통해 지속적인 재화의 획득을 꾀했다.[68]

이후 정복된 지역으로부터 끊임없이 몽골고원으로 재화가 유입되었고, 대몽골국 통치의 중심지로써 카라코룸에 도읍을 정하고 세금 징수제도와 역참을 정비하는 등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갖추어 나아갔다.[69] 이와 함께 몽골고원으로 유입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런 상황은 다양한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몽골비사』 273절에는 '그렇게 알탄 칸을 무찌르고 세우세라는 이름을 주고, 그들의 **금**과 **은**, **금을 섞어 짠**, **무늬를 넣은 피륙**과 **재물**, **알라샨 명마**와 **말치기**들을 약탈하고 알긴치와 탐마치를 남겨두고 남깅(南京)과 종도(中都) 각로의 성에 다로가치를 두고 평안하게 돌아와 카라코롬에 설영했다.'[70]라고 보인다.

---

68) 김호동, 「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강좌 중국사 Ⅲ』, 지식산업사, 1989, 258~269쪽; 宇野伸浩, 「オゴデイ・ハンとムスリム商人」, 『東洋學報』70, 1989; 김경나,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아시아리뷰』8-2, 2019.

69) 김성수, 「몽골제국 시기 유라시아 광역 교통망 잠치((ǰamči)」, 『몽골학』25, 2008; 티모시 메이, 『칭기스의 교환』, 167~175.

70) 『몽골비사』 273절: Tedüi Altan qan-ni muqudqaǰu se'üse nere ögčü **altan**, **münggün**, **altatai** **hartu aγurasun** **tabar** **alašas** **se'üses**-i anu daγuliǰu alginči tammačin talbiǰu Namging, J̌ungdu ǰüg ǰüg-tür, balaγasun-dur daruγačin talbiǰu tübšin tükel qariǰu Qara

여기서는 우구데이 카안이 동생 톨로이와 함께 1231~1234년에 걸쳐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서 약탈해온 재화들의 품목들이 열거되어 있다.

『집사』「칸의 후예들」에는 '또한 그(우구데이)는 뛰어난 **금세공인들**에게 주옥(酒屋)을 위해 일련의 기물들을 **금**과 **은**으로 코끼리나 사자, 말이나 다른 **동물들의 형상**을 본떠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것들을 술통 대신에 비치하고 포도주와 쿠미즈로 가득 채웠다. 그 각각의 앞에는 **은으로 만든 주반(酒盤)**을 하나씩 놓았는데, 그 동물들의 입에서 포도주와 쿠미즈가 흘러나와 그 주반들로 흘러가도록 했다.'[71]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아마도 프랑스에서 온 금세공인 윌리엄 부시에가 만들었다고 하는 '은(銀)나무(mönggün modu)'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72]

『집사』「칸의 후예들」에는 이어서 '그(우구데이)는 오르콘 강가에 거대한 **도시** 하나를 **건설**하라고 명령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카라코룸**'이라고 이름하였다. 키타이 지방에서부터 그 도시까지 '타얀 얌' 이외에 또 하나의 얌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나린 얌**'이라고 불렀다. 5파르상(=약 28㎞)마다 얌을 하나씩 세워 얌이 37개가 되었다. 그 얌을 보호하기 위해 각 유숙지마다 천호를 하나씩 배치했다. 또한 그는 매일 〔여러〕 지방들로부터 **500량의 수레**에 **식량**과 **음료**를 가득 실어 그곳으로 운반해 와서 **창고**에 놓아두었다가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곡주**와 **포도주**를 〔운반해 오기〕 위해서 각각 여덟 마리의 소가 끄는 거대한 **수레**들을 준비해 두었다.'[73]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 기록을 통해 대몽골국을 통치하기 위한 수도인 '카라코룸'을 건설하고, 세금과 식량 등 운수를 위한 역참(驛站)을 정비하고, 운반을 위한 수레와 보관할 창고를 만들었다.[74]

『집사』「칸의 후예들」에는 '또한 무슬림 장인들로 하여금 카라코룸에서 하루 떨어진 곳(케헨 차간=게겐 차간)에 전각 하나를 짓도록 했다. 봄이면 매를 날리기 위해 그곳에 머물곤 했다. 여름에는 우르메게투 라는 곳에서 〔지내는데〕 그곳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천막을 치고 결코 걷는 일이 없었다. 그것의 **말뚝들은 금**으로 만들었고 내부는 **금사(金絲)직물**(nasîj)로 덮었는데, 그것을 시라 오르두라고 불렀다.'[75]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대칸들이 끊임없이 계절이동을 지속했음을 알 수 있다.[76]

남송의 사신인 조공(趙珙)은 『몽달비록(蒙韃備錄)』에 '무릇 모든 추장들의 아내는

---

qorum-a bayubai.
71) 라시드 앗 딘, 『집사』,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5, 97쪽.
72) 루브룩, 「몽골기행」, 『몽골제국 기행: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김호동 역주), 까치, 2015, 325~27쪽.
73) 『집사』「칸의 후예들」, 97~98쪽.
74) 설배환, 『蒙 • 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硏究』, 197~211쪽.
75) 『집사』「칸의 후예들」, 98~99쪽.
76) 김호동, 「몽골帝國 君主들의 兩都巡幸과 遊牧的 習俗」, 『중앙아시아연구』7, 2002, 2~12쪽.

고고관(顧姑冠)을 쓰는데, 이것은 철사를 이용해 만들며, 그 형태는 마치 죽부인(竹夫人) 같고 길이는 세 尺 정도이다. **붉은색이나 파란색 비단(錦繡)** 혹은 **진주**와 **금**으로 장식하며, 그 꼭대기에는 가느다란 나무를 꽂고 (또한) **붉은색이나 파란색 모직(絨)**으로 장식한다.'[77]라고 기록했는데, 長春眞人『西遊記』의 기록과 일치한다.[78]

또한 1233년에 몽골을 방문했던 팽대아(彭大雅)와 1235~36년에 방문했던 서정(徐霆)의『흑달사략(黑韃事略)』에는 '그들은 **고기를 먹고 곡물을 먹지 않으며**, **사냥**으로 얻는 것은 **토끼**, **사슴**, **멧돼지**, **타르바가**, **완양**(頑羊 aryali?), **황양**(黃羊 ǰegeri), **야마**(野馬 taqi), **물고기** 등이다.'[79]라고 당시 몽골인들이 즐겨먹던 음식에 대해 기록하였다.

『몽골비사』274절의 '초르마칸 전통사가 박타드(바그다드) 사람들을 귀순시켰다. 그 땅이 좋고 물화가 좋다는 것을 알고 우구데이 카한이 초르마칸 전통사에게 "바로 거기에 탐마로 앉아 **황금**, **금 세공품**, **황금실로 짠 능라**, **황금실을 섞어 짠 비단**, **황금실로 자수를 넣은 비단**, **진주**, **자개**, 목이 길고 다리가 긴 **토비차오드 말들**, 구**링 엘로우드 낙타들**, **다오시 키치도드 낙타들**, 짐 싣는 **카치도드 노새들**을 해마다 보내도록 하라"고 명을 내렸다.'[80]는 기록을 통해 몽골 군대가 정복전쟁을 진행할수록 더욱 다양한 물품들이 약탈물과 공납품으로 몽골고원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르마간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나서, 현지의 물화가 풍부한 것을 알게 된 우구데이 카안이 매년 카라코룸으로 물화를 보낼 것을 명령하는 상황이다. 이 때 열거된 품목들을 보면 당시 바그다드에서 생산되는 물화와 몽골인 통치자들이 좋아하는 품목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몽골비사』279절에는 '또한 (황실의) 형제들이 모이면 **선물**과 **상**을 주자! **피륙**, **은 덩어리**, **전통**, **활**, **갑주**, **무구**, **곡물**을 채우고 그 **고**를 지키게 하자! 각처에서 **고지기**와 **곡창지기**를 뽑아 지키게 하라!'[81]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몽골고원으로 유입되는 곡물과 재화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창•고(倉•庫)를 만들어 보관하고 관리자를 두게 된 상황을 잘 보여준다.

---

77)『蒙韃備錄箋證』(『蒙古史料四種本』), 454쪽. 凡諸酋之妻，則有顧姑冠，用鐵絲結成，形如竹夫人，長三尺許，用紅青錦繡或珠金飾之其上。又有杖一枝，用紅青絨飾之。

78) 주) 43 참조.『長春眞人西遊記』(『蒙古史料四種本』), 268~269쪽. 婦人冠以樺皮, 高二尺許, 往往以卓褐籠之. 富者以紅綃, 其末如鵝鴨, 名曰故故.

79)『黑韃事略箋證』(『蒙古史料四種本』), 475쪽. 其食肉而不粒, 獵而得者曰兔, 曰鹿, 曰野彘, 曰黃鼠, 曰頑羊, 曰黃羊, 曰野馬, 曰河源之魚.

80)『몽골비사』274절: Čormaqan qorči Baγtad irgen-i elsegülǰügü. Tere γaǰar sayin, ed sayin kemegdemüi kemen medeǰü Ögödei qahan ǰarliγ bolurun, "Čormaqan qorči-yi mün tende tamma saγuǰu šira altan, širamal altatan naqud, načidud, dardas, subud, tanas, küǰügü urtus köl ündür tobičaγud, güring elögüd, daγusi kičidud, ačiγana, qačidud, lausasud hon-dur kürgegülǰü ilen adqun!" kemebei.

81)『몽골비사』279절: Basa aqa degü čiγulubasu öglige soyurqal ögüye! Aγurasun, sükes, qod, numud, quyaγ, ǰebe, čangud tüsürčü balaγad sakiγuluya! J̌üg ǰüg-eče balaγačin, amučin ilγaǰu sakiγultuγai!

대몽골국의 대칸들은 이렇게 전쟁과 약탈을 통해 획득한 재화를 쿠릴타이를 통해 제국 황실의 구성원들과 부하들에게 끊임없이 사여해줌으로써 충성심을 확보하였다.[82] 아울러 몽골 황금가문의 구성원들과 관료, 군사 지휘관들은 약탈전과 정복전쟁을 통해 확대되는 가산제적 성격을 가진 대몽골국의 성공을 위해 일로매진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사료

저자미상, 『몽골비사(元朝秘史)』(유원수 역주), 사계절, 2004.
宋濂 等 撰, 『元史』, 北京, 中華書局, 1999.
李志常, 『長春眞人西遊記』(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臺北, 正中書局, 1962.
趙珙, 『蒙韃備錄』(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臺北, 正中書局, 1962.
彭大雅•徐霆, 『黑韃事略』(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臺北, 正中書局, 1962.
張德輝, 「[嶺北]紀行」, 王惲, 『秋澗先生大全文集』卷一百, 「玉堂嘉話」卷之八, 5b~9a.
(姚從吾 校注, 『姚從吾先生全集』 第七集), 臺北, 正中書局, 1982.)
라시드 앗 딘, 『집사•1』 「부족지」(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2.
라시드 앗 딘, 『집사•2』 「칭기스 칸 기」(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3.
라시드 앗 딘, 『집사•3』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5.
루브룩, 「몽골 기행」, 『몽골제국 기행: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김호동 역주), 까치, 2015.

* 연구서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라츠네프스키, 『칭기스 칸』(김호동 옮김), 지식산업사, 1992.
모건, 『몽골족의 역사』(권용철 옮김), 모노그래프, 2012.
미할 비란 외 편저, 『몽골제국, 실크로드의 개척자들』(이재황 옮김), 책과함께, 2021.
블라디미르초프, 『몽골사회제도사』(주채혁 譯),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설배환, 『蒙•元제국 쿠릴타이 硏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성백용 외, 『사료로 보는 몽골평화시대 동서문화교류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스기야마 마사아키, 『몽골 세계제국』(임대희 외 옮김), 신서원, 1999.
티모시 메이, 『칭기스의 교환』(권용철 옮김), 사계절, 2020.
하자노프, 『유목사회의 구조: 역사인류학적 접근』(김호동 역), 지식산업사, 1990.
札奇斯欽, 『蒙古文化與社會』.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7.
岩村忍, 『モンゴル社會經濟史の硏究』,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1968.
伊藤幸一, 『モンゴル經濟史を考える』, 京都, 法律文化社, 1985.
Allsen Th. T.,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82) 설배환, 『蒙 • 元제국 쿠릴타이 硏究』, 2016.

* 연구 논문

김경나,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아시아리뷰』8-2, 2019.
김성수, 「몽골제국 시기 유라시아 광역 교통망 잠치(ǰamči)」, 『몽골학』25, 2008.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 異文化와 宮廷의 外交典禮」, 『한국과 동부 유라시아 교류사』, 학연문화사, 2015.[原載 『동국사학』53, 2012]
김호동, 「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강좌 중국사』Ⅲ, 지식산업사, 1989.
김호동, 「몽골帝國 君主들의 兩都巡幸과 遊牧的 習俗」, 『중앙아시아연구』7, 2002.
김호동, 「'변방사'로 세계사 읽기: 중앙유라시아를 위한 변명」, 『역사학보』228, 2015.
박환영, 「『몽골비사』에 반영된 몽골유목민들의 물질문화 연구」, 『東아시아古代學』29, 2012.
설배환, 「몽골제국(1206~1368)에서 수산자원(魚貨)의 이용」, 『STRATEGY 21』24, 2009.
설배환, 「13-14세기 몽골초원의 물적 기반과 유목경제의 지속성 고찰」, 『중앙아시아연구』 20-2, 2015.
이개석, 「몽고帝國 성립기 商業에 대한 一考」, 『慶北史學』9, 1986.
이개석, 「元代의 카라코룸, 그 興起와 盛衰」, 『몽골학』4, 1996.
최형원, 「〈蒙語類解〉에 나타난 동물 관련 어휘 검토」, 『몽골학』32, 2012
최형원, 「18세기 몽골어 魚名 고찰(1)」, 『알타이학보』23, 2013
蕭啓慶, 「北亞遊牧民族南侵各種原因的檢討」, 『元代史新探』,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3.
吉田順一, 「モンゴル族の遊牧と狩獵: 十一世紀~十三世紀の時代」, 『東洋史研究』40-3, 1981.
宇野伸浩, 「オゴデイ•ハンとムスリム商人」, 『東洋學報』70, 1989.
Allsen Th. T., Mongolian Princes and Their Merchant Partners, 1200-1260, *Asia Major, 3rd series*, vol. 2, pt. 2, 1989.

여 백

【토론문 1】

「대몽골국 성립 전후 몽골고원의 유통물품 변화와 유목경제의 실상」 토론문

류병재(단국대학교)

본 연구는 칭기스칸이 오랫동안 혼란스러웠던 몽골초원을 통일한 전후 시점부터 그를 이은 어거데이 시기까지 물품과 재화들이 사용된 기록들을 초원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몽골제국 초기 몽골초원 지역에서 사용된 물품과 재화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여 대몽골올로스 초기 유목경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본 주제의 역사적 시기는 문헌사료 부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동·서양 동시대의 사료를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점은 발표자의 성실성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한국학계에서는 칭기스칸이 대몽골올로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의 군사력과 인물 등 정치적·인적 시스템에 집중했던 데 반해, 본 연구는 몽골초원에서 사용된 물품과 재화의 생산, 유통과 활용 등에 천착하여 칭기스칸이 자신의 군사 시스템과 휘하 인물들을 지휘하는 동적 요인으로 몽골초원의 통일과 팽창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이동·유목 경제와 정착·농업 경제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이 논이나 밭에 인위적인 행위를 가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며 모여 사는 구조라면, 전통적인 유목생산은 초원에 인위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고, 서로 일정 거리를 떨어져 있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문화와 생산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유목지역의 재화와 물품이 중원 지역의 농경 국가의 그것보다 품질, 상품성이나 활용성 면에 미치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본 연구에서 칭기스칸에 의해 대몽골올로스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몽골 초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유목적 생산기반을 가진 물품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대몽골올로스 건국 이후 본격적인 대외 전투와 정복 상황 하에서 등장하는 재화들은 금은 보석류와 비초원지역 생산기반에서 생산된 제품이 대다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표자도 주장한 것처럼, 비초원지역 기반 재화와 물품은 당시 몽골 유목민들에게 의식주의 기본 생활 물품으로 소비된 것이 아니라 초원유목국가의 통치자로서 정치·군사적 시스템을 운용하는 휘하 인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13세기 전후 몽골 유목사회를 이해하는 학술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동서양의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사료를 활용하여 당시 몽골 초원지역에서 생산, 유통, 수입되어 소비되었던 다양한 재화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물품, 당시 혼란했던 초원사회에서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있던 '올로스'에 합류하기 위해 사용된 용도의 물품과 유목민 리더의 권위와 충성심을 위한 물품 등을 케이스 별로 좀 더 상세히 구분하고 생산지와 물품에 따른 용도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면 당시 유목 사회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몽골비사〉와 〈집사〉는 논거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다만, 동일인물을 애기하고 있는데 명칭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예들(예컨대, 〈몽골비사〉에서는 시기 코토코, 〈집사〉에는 시기 쿠투쿠)이 종종 있어 혼돈의 소지가 있다. 인물들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제시된 물품명의 표기 또한 13세기 당시 몽골어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 바, 〈몽골비사〉의 물품 표기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 드린다. 몽골어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명확히 지켜지는 모음조화 현상을 따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물품명과 인명, 지명 등의 표기를 통일화시키는 것이 논지 전개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였지만, '역참'과 관련된 사료와 연구성과를 조금 더 활용할 것을 제안 드린다. 몽골지역 이외의 재화들은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 몽골지역으로 운송되었으며 그러한 운송 루트를 체계화 한 것이 '역참'이기 때문에 관련 사료와 연구성과를 활용한다면 논거들이 더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몽골제국 초기 몽골초원 지역에서 사용된 물품과 재화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여 대몽골울로스 초기 유목경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향후 유목경제의 정의와 한계성,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북방유목민들의 투쟁, 특히 유목제국을 건설했던 흉노, 선비, 돌궐, 위구르, 몽골 등의 사례를 시기별 혹은 국가별로 논의하는 연구시리즈를 기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유목-농경 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 결과를 '물품과 재화의 소비와 활용'이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제1부

【제2발표】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
: 몽골제국에서의 ‘선물’ 경쟁

설배환(전남대학교)

머리말

1. 몽골의 ‘선물’(sauqa) 문화와 대칸

2. 선물 혹은 뇌물 경쟁과 사회변화

맺음말

【제2발표】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
: 몽골제국에서의 ‘선물’ 경쟁

설배환(전남대학교)

머리말

근세 동부 유라시아에서 뇌물 수수와 횡령 등 부정부패, 이른바 관리의 “貪贓”은 척결의 대상이었다. 북송 초기의 황제는 뇌물을 먹은 관료를 종종 죽여 저잣거리에 효시했다.[1] 몽골제국 쿠빌라이 카안은 1276년 大名路 다루가치 小鈐部에 대해 불법 뇌물수수죄를 물어 처형하고 그 가산을 몰수했다. 그는 1281년에 중외 관리의 贓罪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杖刑과 사형을 처결하라고 조칙을 내렸다.[2]

부패(corruption)는 전근대 비서구의 상징물로 여겨졌다.[3] 특히 그것은 역대 중화 왕조의 큰 병폐였다.[4] 일부 논평을 빌면, “元朝” 관리의 貪贓은 가장 심각했다.[5] 뇌물과 탐관오리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갈구, 시행되었다.

반면 선물은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 교환되며 환영받았다.[6] 공납 경제(a tributary economy)는 강국의 침략과 위협을 회유적 공물(tribute)로 대체, 개선하는 것이었고 세계적 현상이었다. 이는 유럽인에게도 익숙한 것이었다. 일부 공물은 첩이나 혼인을 위한 공납적 인간 선물, 곧 귀족 혈통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군주를 달래는 형태를 띠었다. 공납의 정치경제는 인간의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1) 『宋史』3 「太祖本紀」3 開寶九年八月辛丑, p.48; 『宋史』5 「太宗本紀」2 雍熙二年夏四月己丑, p.75; 『宋史』199 「刑法志」1 天禧四年, p.4974. 뇌물죄에 사형을 구형한 북송 초기와 달리, 남송에서 贓罪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관대해졌다. 뇌물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빈번한 사면은 송대에 뇌물 수수가 성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조복현, 「宋代 官僚社會에서 賂物授受가 盛行한 背景과 士風」, 『동양사학연구』95, 2006, pp.99-100).

2) 『元史』9 「世祖本紀」6 至元十三年春正月戊子, p.177, “大名路達魯花赤小鈐部坐姦贓伏誅, 沒其家.”; 『元史』12 「世祖本紀」9 至元十九年九月壬戌, p.246, “壬戌, 禁諸人不得沮撓課程. 敕: 「官吏受賄及倉庫官侵盜, 臺察官知而不糾者, 驗其輕重罪之. 中外官吏贓罪, 輕者杖決, 重者處死. 言官緘默, 與受贓者一體論罪.」 仍詔諭天下.”

3) Ronald Kroeze, Andre Vitoria, Guy Geltner, eds., *Anticorruption in History: From Antiquity to the Modern Er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2.

4) 송대에는 북송 후기인 12세기 이래 뇌물수수가 꾸준히 성행했다(조복현, 「宋代 官吏들의 賂物授受에 대한 정책 연구」, 『중앙사론』21, 2005, p.764-770).

5) 沈仁國, 「元世祖時期官吏貪贓受賄的形式及特點」, 『江蘇教育學院學報(社會科學版)』, 1998(04), p.105; 呂麗·王志民, 「《元史》中官吏貪腐案考察」, 『社會科學戰線』, 2017(03), p.213.

6) Hyun Jeongwon, “Gift Exchange among States in East Asia during the Eleventh Century,”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Washington, 2013, pp.1-6. 동아시아 “외교적 선물”은 “貢”, “方物”, “歲幣”, “恩賜” 등의 용어로 명명되었다. 그것은 조공체제 안에서 교환되었다.

데 유서 깊은 제도였다.[7]

뇌물과 선물은 이처럼 뚜렷한 경계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지 않다. 예컨대 예언자 무함마드는 인간관계에서 선물(hadiyya)의 혜택 때문에, 선물 교환을 개인적으로 시행했고 또 장려했다. 선물을 교환할 때 사람들은 사랑을 교환했다. 선물은 닫힌 문을 열고 마음으로부터 원한을 부드럽게 제거한다고 무함마드는 말했다. 선물이 아무리 작더라고 그 자신은 선물을 받았고 더 좋은 선물을 증여자에게 돌려줬다. 무함마드는 뇌물로 제공되는 선물에 대해 눈살을 찌푸렸지만, 뇌물과 법적으로 허용된 선물 사이에 경계선은 긋기 어려웠다.[8]

선물과 뇌물 사이의 모호성[혹은 다중성]은 13~14세기 몽골인 사이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뇌물과 선물의 경계에서 카안울루스에서 貪贓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뇌물은 어떠한 유용성을 지녔을까? 그간의 몽골사 연구는 법률적·정치적 시각으로 제국에서의 뇌물 문제와 반부패 정책을 탐구했다. 그러나 뇌물을 몽골의 선물 문화와 인간 행동, 사회·정치 구조와 연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선물과 뇌물의 두 수레바퀴가 인도하는 몽골제국 물질문화의 한 단상을 그리고자 한다.

1. 몽골의 '선물'(*sauqa*) 문화와 대칸

몽골인은 선물을 좋아했다. "선물"은 『몽골비사』에 몽골어 *sauqa*(현대 몽골어 beleg)의 어휘로 나타난다. 그것은 漢語 "掃花"로 音譯되었고 "人事"(즉, 선사하는 예물의 뜻)로 意譯돼 있다.[9] 그것은 한자 撒花·撒和 등으로도 쓰였다.[10] *sauqa*는 누군가가 받은 호의를 갚기 위해 여행 중에 받은 선물을 가리켰다. 그 수령자는 관습적으로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대했고 그 때문에 그것은 외부인에게 종종 "뇌물"로 오해받았다.[11] *sauqa*는 물품이나 가축은 물론, 사람을 포함했다. 예컨대, 『몽골비사』에서 테무진은 메르키드와 타타르를 궤멸시킨 후 어머니 후엘룬에게 쿠추와 시기 쿠투쿠라는 두 아이를 "선물"(*sauqa*)로 드렸다.[12] 그것은 "선물, 전리품의 몫"을 의미한다.[13]

---

7) Geraldine Heng, *The Invention of Race in the European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299-300.

8) Ghada Hijjawi Qaddumi, *Book of Gifts and Rarities* (*Kitāb al-Hadāyā wa al-Tuḥaf*)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Middle Eastern Studies, 1996), p.4. 이슬람 법률에서 *hiba*는 개인적 자산이 어떠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는 약정(contract)을 일컫는 반면, *hadiyya*는 그와 반대로 수령자에게 교환의 어떤 대가를 주도록 의무를 지운다. 선물(*hadāyā*)은 많은 경우에 제공되거나 교환되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를 띠었고 특히 정치·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것은 군주의 후함이나 힘을 보이는 데 이용되었다.

9)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栗林均·碙精扎布 編, 仙台: 東北大學東北アジアセンター, 2001), pp.128-129, 172-173.

10) 『至正條格』(校註本)(韓國學中央研究院 編, 서울: 휴머니스트, 2007), p.234의 각주3.

11)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Leiden·Boston: Brill, 2004), p.433.

12) 『몽골비사』(유원수 역주, 파주: 사계절, 2004) 114절·135절, p.79, 100.

선물을 갈망하는 몽골 관습은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카르피니의 일화에서 확인된다. 그는 몽골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러시아 왕공으로부터 몽골인에게 가려면 "그들에게 줄 값진 선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선물이 없을 경우 사신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받는다"라는 조언을 들었다.[14] 카르피니는 구육의 쿠릴타이에서 조공국과 왕국에서 대칸에게 바친 막대한 선물을 묘사한다. 그것들은 비단, 새마이트(금실을 넣어 짠 실크 옷감), 벨벳, 브로케이드(양단 혹은 무늬를 넣어 짠 비단), 금실을 섞어 짠 여성용 비단 속옷, 고급 모피 등이었다. 수레 500여 대에는 금·은과 비단옷이 가득했다.[15] 대칸은 쿠릴타이 등에서 이국 사절이 헌상하는 외교적 선물의 정치·경제·의례적 최대 수혜자였다.

루브룩 또한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일절 호의를 베풀지 않는 몽골 관행을 기록했다.[16] 루브룩은 특히 지위가 낮은 몽골 관료에게 가는 선물에 대한 줄기찬 요구에 압도됐다. 교황의 사절 루브룩 등은 여행 중에 대칸과 그의 친위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선물을 얼마만큼 요청받을지 불신했다. 그것은 공납의 정치경제와 거리가 먼, 아시아적 선물경제였고 서양 출신 사절들에게 낯선 개념이었다.[17]

『맨드빌의 여행기』(*The Book of John Mandeville*)에 따르면, 대칸(emperor)이 도시와 소읍을 지날 때, 사람들은 군주에게 좋은 냄새가 가도록 집 앞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기분 좋은 향이 나는 것을 집어넣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기독교 수도승들은 십자가와 성수를 들고 열을 지어 그에게 다가가면서 찬송가 "오라, 창조주 정령이시어"(*Veni Creator Spiritus*)를 큰 소리로 불렀다. 수도승들의 사제장은 대칸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기도를 올리고 가장 경건한 자세로 은총의 인사를 올렸다. 그는 은 쟁반 위에 배든 사과든 다른 과일이든 아홉 개의 과일을 주군에게 바쳤다. 대칸은 그 가운데 한 개를 취하고 나머지를 자기 주변의 諸王(lords)에게 주었다. 이는 "내 앞에 올 때는 누구나 빈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Non accedat in conspectus meo vacuum*)라는 [몽골] 옛 율법(law)에 따라 어떠한 이방인도 대칸에게 어떠한 것을 바치지 않고서는 그의 면전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몽골 관습 때문이었다.[18]

몽골인은 전투 과정에서도 선물을 주고받았다. 룸 셀죽 술탄 기야쓰 앗 딘(Q'iasdin: 곧 Ghiyath al-Din Kaykhusrev II, 재위 1237-1246)을 침공할 때, 몽골인과 조지아인이 동시에 작전에 나섰다. 전투 초기부터 조지아인들은 용맹하게 싸웠

13) Peter Olbricht und Elisabeth Pinks, *Meng-Ta Pei-Lu und Hei-Ta Shih-Lüeh: Chinesische Gesandtenberichte über die Früchen Mongolen 1221 und 1237*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0), p.136.
14)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Toronto·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0), p.54; 『몽골제국 기행: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플라노 드 카르피니·윌리엄 루브룩, 김호동 역주, 서울: 까치, 2015), p.132.
15)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p.64.
16)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p.172.
17) Geraldine Heng(2018), p.300.
18) Iain Macleod Higgins, ed. and tr., *The Book of John Mandeville with Related Texts* (Indian 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11), pp.145~146(Chapter 25).

고 몽골 사령관들을 놀랬다. 그들은 조지아인들에게 애정과 존경을 표하며 선물로 보상하고 찬사했다.[19] 그런데 전투에 지쳐 술탄이 화평을 요청했다. 술탄은 몽골인에게 풍부하고 막대한 하라지(*kharaj*: 이슬람 율법에서 갓 정복된 지역에서 이슬람으로 전향한 비무슬림에게 부과하는 토지세)를 약속하며 많은 선물과 값비싼 귀금속으로 그들을 달래고 보호를 청원했고 그들이 더 나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까지 당분간 그를 만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20] 기야쓰 앗 딘이 몽골군에 보낸 선물과 약속한 토지세는 講和와 보호의 대가였다.

몽골의 선물 관행은 1230년대에 '중국'으로도 알려졌다. 남송 사절 彭大雅(?-1245)의 보고에 따르면, *sauqa*(撒花)는 "見物", 즉 몽골인이 물건을 보[고 요구하]는 행위였다. 몽골인은 원하는 물품을 얻었을 때 비로소 만족해했다. 彭大雅는 *sauqa*를 "貪", 곧 "(물건을) 조르다"라는 뜻으로 풀이한다. 그가 이해한 사우가(*sauqa*)는 선물이면서 강탈에 가까운 것이었다.

> 그들이 물건을 보[고 요구하]면 그것을 *sauqa*(撒花)라고 부른다. 그것을 주면 [그들은] *na sayin*(捺殺因)이라고 말하는데, 몽골어로 "좋다"(好)는 뜻이다. 주지 않으면 *mao'u*(冒)라고 말하는데, 몽골어로 "나쁘다"(不好)는 뜻이다. *sauqa*는 漢語로 "조르다"(貪)는 뜻이다.[21]

사우가(撒花)와 뇌물 사이에 모호한 경계는 대칸의 詔書에서도 엿볼 수 있다. 1260년에 쿠빌라이 카안은 몽골제국에서 관리가 개국 이래 봉록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賄賂"가 방치되고 이 뇌물이 나라의 좀이 되었다고 인식했다. 그는 모든 일에서 사우가 등의 물품이 모두 백성에게서 공급받은 것이며 그 명칭을 사적 재물[己財]이라고 하지만 모두 官物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그 자신도 그 폐단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전투용 물자와 오르탁 등이 대칸을 알현하면서 바치는 사우가(撒花) 등 물품을 금절 대상에서 제외했다.[22] 쿠빌라이는 사우가를 뇌물로 간주하고 금지한 반면, 자신에게 헌상되는 오르탁의 사우가를 허용했다. 이 聖旨는 사우가를 둘러싸고 오르탁 상인과 대칸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준다.

대칸의 선물 애호는 고가의 물품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오르탁 상인이 관리를 끼고 사치품을 거래하는 中賣寶貨를 낳았다.[23] 예컨대 大德 연간(1297-1307)에 이슬

---

19) D. Muskhelishvili, tr., "The Hundred Years' Chronicle," *The Georgian Chronicles of Kartlis Tskhovreba(A History of Georgia)*(Roin Met'reveli and Stephen Jones, eds., Tbilisi: ARTANUJI Publishing, 2014), p.332.

20) D. Muskhelishvili, tr., "The Hundred Years' Chronicle," p.334.

21) 『黑韃事略』([宋]彭大雅 撰, 徐霆 疏證, 北京: 中華書局, 1985), p.10, "其見物則謂之撒花, 予之, 則曰捺殺因, 韃語好也. 不予, 則曰冒, 韃語不好也. 撒花者, 漢語貪也."; Peter Olbricht und Elisabeth Pinks, *Meng-Ta Pei-Lu und Hei-Ta Shih-Lüeh: Chinesische Gesandtenberichte über die Früchen Mongolen 1221 und 1237*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0), p.164.

22) 『元典章』1 「聖政」1 止貢獻, p.59, "庚甲年四月初六日, 詔書內一款節該: 開國以來, 庶事草創, 旣無俸祿以養廉, 故縱賄賂而爲蠹. 凡事撒花等物, 無非取給於民, 名爲<已>[己]財, 實皆官物. 取百散一, 長盜滋奸. 若不盡更, 爲害非細. 始自朕躬, 斷絶斯弊. 除外用進奉軍前克敵之物·幷斡脫等拜見撒花等物, 並行禁絶. 內外官吏, 視此爲例."

23) 中賣寶貨는 대칸과 [오르탁] 상인 사이에 이루어진 사치품 교역을 지칭하는 한자 번역어였다. 그것은 1303년 이후에 대칸이 오르탁에게 발급한 中寶聖旨를 필요로 했다. 성지 없이 자의적으로 대칸에게

람 巨商이 붉은 루비(紅剌: 홍보석 lāl ﻟﻌﻞ 또는 la'l) 한 덩이를 관부에 "中賣"했다. 그것은 무게 1량 3전에 가격이 中統鈔 14만 錠(=7백만 량)이었다. 관부에서 그것을 모자 꼭대기에 끼워 넣었다. 테무르 카안 이래로 역대 카안이 그 보석을 서로 계승하며 중시했다. 대칸은 설날과 天壽節(황제 생일)에 대쿠릴타이(大朝賀)를 열 때 그것을 썼다.[24] 14만 정은 카안울루스 稅糧의 3분의 1 가격이었고[25] 1307년 常賦歲鈔 400만 정[26]의 3.5%였다.

선물(*sauqa*) 문화에서 대칸은 일방적 수령자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선물의 최고 수혜자이자, 최대 행위자였다. 군주의 선물 행위는 恩賜 혹은 回賜로 표현되었다. 외국이 몽골제국에 항복했을 때 대칸은 선물을 건넸다. 일례로 1282년에 참파가 몽골에 귀부했을 때, 쿠빌라이 카안은 귀국하는 사신에게 의복을 사여했다.[27]

특히 그것은 朝會賜與와 歲例賜與의 형식으로 쿠릴타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28] 예컨대 아유르바르와다는 1311년 삼월에 대도 大明殿에서 대칸에 즉위했다. 그는 그해 여름 사월에 그것을 기념해 太師·太傅·太保에게 1인당 금 50량, 은 350량, 의복 네 벌을 하사했다. 쿠릴타이(朝會)에 참여한 行省 臣에게 상으로 은을 차등 있게 주었다.[29]

은사로 유명한 대칸은 우구데이였다. 『집사』「우구데이 카안기」 후반부는 카안의 은사 일화 40여 건을 싣고 있다. 예컨대 살아갈 방도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모르는 가난뱅이가 몇 개의 쇳조각을 송곳 모양으로 갈아서 나무에 끼워놓고 카안의 행로에 앉아서 기다렸다. 우구데이 카안은 그의 비참한 처지를 들은 후 보리 한 톨의 가치도 없는 송곳 하나마다 銀 1발리시의 값을 치러줬다.[30] 어떤 사람이 뼈 화살촉을 200개를 가지고 왔을 때, 카안은 그에게도 은 200발리시를 주었다.[31] 한 弓匠은 아주 형편없는 활을 만들었다. 그것이 카라코룸에서 널리 알려져 아무도 그의 활을 사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20개의 활을 막대기에 묶고 [대칸의] 오르두 문 앞에 서 있었다. 우구데이 카안이 밖으로 나오다가 그를 보고 그의 곤궁을 확인한 후 그 활을 취하고 금 20발리시를 주었다.[32]

물품을 진상하는 私獻과 구별되었다(김찬영, 「元代 中賣寶貨의 意味와 그 特性」, 『중앙아시아연구』 12, 2007, pp.25-41). 한편 좌기의 연구에서 "中賣寶貨"를 사치품 교역으로 한정하는 해석은 검토가 요구된다. "中賣寶貨"에서 "中賣"는 보화의 거래에 관리 등[諸人中寶]이 개입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종종 뇌물을 취하며 보화의 가격을 올렸다. 이에 중매보화는 황실 재고에 부담을 안겼다.

24) 『南村輟耕錄』7([元]陶宗儀 撰, 北京: 中華書局, 2004) 「回回石頭」, p.84; 김찬영(2007), pp.25-26.

25) 설배환, 「몽골제국에서 賦稅의 시행과 그 帝國的 체계 이해를 위한 試論」, 『東洋史學研究』139, 2017, p.190.

26) 『元史』22 「武宗本紀」1 大德十一年九月己丑條, p.488.

27) 『元史』12 「世祖本紀」9 至元十九年冬十月甲辰, p.247, "甲辰, 占城國納款使回, 賜以衣服."

28) 설배환, 「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p.163-173.

29) 『元史』24 「仁宗本紀」1 至大四年夏四月癸卯, p.540, "以即位, 恩賜太師·太傅·太保, 人金五十兩·銀三百五十兩·衣四襲. 行省臣預朝會者, 賞銀有差."

30) 『칸의 후예들』(라시드 앗 딘, 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05), pp.120-121.

31)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130.

32)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133.

우구데이의 은사는 빈민에 한정되지 않았다. 카안은 카라코룸을 건설한 후 그 재고에 쌓인 약 2만 개의 발리시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가져가게 했다. 당시 카안은 발리시를 재고에 쌓아두고 지키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언명했다. 귀족과 평민이든, 부자와 빈자든 도시주민은 대칸의 재고에서 자기 몫을 넘치도록 받았다.[33]

우구데이 카안의 관용과 은혜는 각지의 상인을 그의 궁전으로 유인했다. 그는 그들의 물품을 좋든 나쁘든 사서 그 값을 모두 치루어 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관리들이 보지도 않고 [값을] 주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개에 열 개의 값을 청구했다. 카안은 구매 물품에 대해 열에 열하나(곧 10%)를 쳐주라고 지시했다. 이에 어느 날 어전의 관리들이 그들의 물품 가격이 적정값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건의했다. 대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상인들이 국고[를 상대로] 거래하는 것은 이익을 늘이기 위해서다. 또한 그들은 반드시 너희 비틱치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지출해야 한다. 내가 주는 것은 [그들이] 너희에게 진 빚이니, 나의 어전에서 손해를 보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34]

위 발언에서 우구데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의 속성을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황실과의 상거래 혹은 中賣寶貨에 '필연적으로' 상인과 관리 사이에 뇌물 수수가 개입해 있는 사실을 드러냈다. 곧 대칸의 선물은 종종 은총과 뇌물, 나아가 상거래와 중첩돼 연결해 있었다.[35]

물품은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이다. 그러나 몽골 대칸에게 선물은 외교적 의례를 넘어 정치·경제 활동이자, 통치 행위였다. 선물은 카안 자신 및 관료의 뇌물도 통합했다. 통치 행위로서 우구데이의 은총과 선물, 그리고 문서 행정의 통합적 힘은 『세계정복자사』에서 엿볼 수 있다.

> 그[곧 (우구데이) 카안]의 정의에 관한 명망은 일탈자들을 제약했고 그의 선물[사여]에 대한 명성은 [마치] 길들이지 않은 동물의 사냥을 유발했다. 그를 향한 두려움으로 완고한 자들이 복종하고 그의 통치의 엄격함으로 오만한 자들이 부끄러워했다. 그의 야를릭(yarlīgh)이 劍의 사무를 수행했고 그의 문서들의 지면들이 군대의 검들의 빛을 빼앗았다.
>
> 우구데이 카안의 은총 덕분에 어느 누구도 그의 자리에서 실망하거나 불만스럽게 떠나지 않았다. 때때로 제국과 황실의 기둥들(곧 재상들)은 그의 낭비를 반대하곤 했다. 그들은 선물과 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경우 그의 신민에게 그것들을 주는 일이 그에게 의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안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 비판은 재치와 이해라는 보석이 결여돼 있고 그들의 말은 두 가지 면에서 쓸모가 없도다. 첫째 우리의 예법과 관습의 명성이 반역자들에게 도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반드시 우리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친절의 노예'이기 때문이다(*al-insān 'abīd ul-iḥsān*). 그 선행 때문에

33)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125.
34)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p.126.
35) 『흑달사략』의 독일어 역주자는 sauqa에 ①선물 ②교역물 ③覓(조르다, 요구하다)의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밝힌다(Peter Olbricht und Elisabeth Pinks(1980), p.136).

> [우리] 군대와 사람들이 그들과 맞닥뜨려 싸우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많은 노역과 곤란에서 덜어질 것이다. 둘째 이 세상은 악명 높게도 아무에게도 신의가 있지 않았지만 결국 잔인성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좋은 평판을 영속시킴으로써 그 자신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이해의 빛으로 장식된, 온전히 제정신인 사람에 어울리는 것이라는 점은 훨씬 더 명백하다."[36]

주베이니의 기록을 믿는다면, 우구데이 카안의 선물 수수는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라는 인간 본성에 대한 보편 철학에 기반한 통치 행위였다. 따라서 대칸은 선물경제의 정점에 있었다. [뇌물 성격의] 선물 교환에는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애정과 존경의 심리, 혹은 요구와 강탈의 언행이 관여했다.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것처럼 카안 울루스에서 뇌물의 '만연'은 몽골초원에서의 선물(*sauqa*) 풍속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37] 동시에 사우가의 선물·뇌물·교역물은 대칸의 [정당화된] 통치 도구였다.

2. 선물 혹은 뇌물 경쟁과 사회변화

사우가(*sauqa*)가 선물·뇌물·교역물로서 카안 울루스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가운데, 몽골 조정은 뇌물을 국가의 해독(蠹)으로 비판하며 반부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牧民官이 먼저 자기를 깨끗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38]라는 테무르 카안의 詔書에서 부패를 경계하는 이념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선물·뇌물·교역물로서 복합적 성격의 사우가(*sauqa*)가 제국 정계·사회에 존속하는 한편, 부당한 선물로서 뇌물을 지칭하는 용어가 등장했다. 『通制條格』, 『元典章』, 『至正條格』 등 원대 법률 문서에는 "肚皮"(뱃가죽)라는 어휘가 출현한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몽골어 *kegeli*의 직역이었다. *kegeli*는 "(가축의) 胎, 배[肚子], 어미 말이나 어미 가축의 배 안에 있는 태아" 또는 "말의 배"를 뜻하는 *kegel*에서 유래했다. 곧 *kegeli*는 "배(服), 임신, 賄賂, 뇌물(賄), 장물(贓)"을 뜻했다. 이것이 사람의 배를 지칭하는 *kebeli*와 구어에서 발음이 닮았기 때문에 원대 공문서에 "肚皮"로 直譯되었다.[39]

다른 한편 고려·조선의 외국어 학습서 『朴通事』에서 한 촌부는 名利를 다투는 관인을 "매일 말 뱃가죽에 티끌을 석 자나 묻힌" 존재라고 풍자한다. 그의 조롱에서 말의 배는 선행연구의 분석처럼 뇌물과 관련 있다. 다만 뇌물 그 자체는 말의 배에 잔뜩 묻은 "티끌"이었다.

---

36) 'Alā' al-Dīn 'Atā-Malek Jūweynī, *Tārīkh-i Jahān-Gushā*, edited by Mohammad Qazwini (Tehran: Institute of Enteshārāt Negāh, 2009), pp.245-246; 'Ala-ad-Din 'Ata-Malik Juvaini, *Genghis Kha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 ed. Mirza Muhammad Qazvini, tr. J. A. Boyl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7), pp.201-202.

37) 李治安, 「論元代的官吏貪贓」,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 p.39.

38) 『元典章』46 「刑部」8 諸贓1·取受·牧民官受財斷罪, p.1571, "諸牧民官, 不先潔己, 何以治人?"

39) 特木勒, 「釋"肚皮"」, 『中國史研究』, 2021(01), pp.170-171.

[네] 말이 옳다. 너희같이 名利를 다투는 관인은 매일 말 뱃가죽(馬肚皮)에 티끌을 석 자나 묻혔고 나귀가 눈을 부릅뜨듯하며 假使長(거짓 상사)을 따라와 비비는 데(속이는데) 앞서기를 다투며 저 [假使長의] 밑구멍(똥구멍)에 끼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손톱을 다듬으며 틈도 얻지 못하고 하나같이 이름나기를 바라니, 어디 기꺼이 나 같은 村莊人의 집에 오리오. 40)

"元朝"에서 최초 贓罪條例는 쿠빌라이 카안 시대에 상가와 나스르 앗 딘 멜릭, 신두 등 상가의 무리가 횡령죄로 처형된 후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다.41) 1292년에 中書省과 御史臺에서 「贓罪十三等」을 확정한 후 카안의 재가를 얻었다. 그것은 枉法者(법을 어긴 자) 5등, 不枉法者(법을 어기지 않은 자) 8등이었고 사형죄는 대칸에게 보고되었다.42)

그런데 몽골 대칸은 1292년에 이전에도 뇌물을 인지하고 제재했다. 1215년 몽골군이 금나라 中都를 함락한 후 칭기스칸은 시기 쿠투쿠 등 3인을 그곳으로 보내 帑藏을 적몰했다.43) 당시 시기 쿠투쿠를 제외하고 웅구르와 아르카이 카사르가 中都 留守 카다(哈荅)의 뇌물을 받았다. 칸은 시기 쿠투쿠를 칭찬한 반면, 두 사람을 크게 꾸짖었다.44)

13세기 중엽에 뇌물을 경계하는 인식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뭉케 카안은 1252년 말에 국정을 정비하면서 稅吏와 書記 들이 편파적이거나 기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칙령을 내렸다.45) 1262년 真定의 백성 郝興이 원수 馬忠을 살해했을 때 馬忠 아들 馬榮이 郝興을 받고 郝興에게 자신의 군역을 대신하게 했다. 中書省에서 馬榮이 뇌물을 받고 원수를 잊었으며 자식의 도리가 없다며, 그에 杖을 치고 그 銀을 몰수했다. 쿠빌라이 카안도 [금 泰和]法에 따라 논죄하라고 승인했다.46)

쿠빌라이 시대의 贓罪 13等은 뇌물 수량(소위 計贓)과 법률 위반 여부(곧 枉法·不枉法)에 따라 형벌을 체계화한 과정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1303년 「贓罪條例」로 확정됐다. 당시 테무르 카안은 平章 바얀(伯顔)과 함둘라(暗都剌), 右丞 바트마신(八都馬辛) 등이 사익에 영합해 뇌물을 받고 위아랫사람을 기만해 정무에 균형을 잃고 백성에게 폐단을 안겼다며 이들의 가산을 적몰하고 변경을 수비케 했다. 중서성은 카안의 특별 칙명에 따라 集議를 거쳐 12개 조의 본 조례를 제정했다. 동시에 카안은 관리의 봉록

40) 『朴通事諺解』, pp.227-229.
41) 李治安(2004), p.34.
42) 『元史』17 「世祖本紀」14 至元二十九年三月, p.361, "丁未, 納速剌丁滅里以盜取官民鈔一十三萬餘錠, 忻都以徵理逋負迫殺五百二十人, 皆伏誅. 王巨濟雖無贓, 帝以與忻都同惡, 并誅之. 中書省與御史臺共定贓罪十三等, 枉法者五, 不枉法者八, 罪入死者以聞. 制曰「可」."
43) 『元史』1 「太祖本紀」 太祖十年五月·是月, p.18.
44) 『몽골비사』제252절; 『칭기스칸기』(라시드 앗 딘, 김호동 역주, 서울: 사계절, 2003).
45)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46) 『元史』5 「世祖本紀」2 中統三年十一月辛丑, p.88, "真定民郝興讎殺馬忠, 忠子榮受興銀, 令興代其軍役. 中書省以榮納賂忘讎, 無人子之道, 杖之, 沒其銀. 事聞, 詔論如法."

이 적어 청렴을 기를 수 없다고 진단하고 京朝 百司의 월봉 외에 祿米를 늘려 지급하고 公田이 없는 外任官에게 공전을 배정하고 그렇게 할 토지가 없으면 녹미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47] 中書平章 바얀 등이 수수한 뇌물은 사실 朱清과 張瑄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었다.[48]

[표 1] 「贓罪條例」 12개 조

斷例	47	57	67	77	87	97	107	[至元鈔 기준]
枉法: [얼마의] 貫을 채우지 못한 자는 사정을 헤아려 단죄하고 例에 의거해 제명한다.	1貫에서 10貫 미만	10貫 이상 20貫 미만		20貫 이상 50貫 미만	50貫 이상 100貫 미만		100貫 이상. ○수령한 모든 宣敕을 追奪한다.	금후 사무 때문에 재물을 받으면, 條에 의거해 처결, 파면한다. 枉法者는 제명하고 [다시] 서임하지 않는다.
不枉法: [얼마의] 貫을 채우지 못한 자는 사정을 헤아려 단죄하고, 見任을 해임하고 별도로 관직을 구하게 한다.	1貫에서 20貫은 현 등급에서 서임한다.	20貫 이상 50貫은 [贓罪 사실을] 기록하고 邊遠에 한 차례 임명한다.	50貫 이상 100貫은 1등을 떨어뜨린다.	100貫 이상 150貫은 2등을 떨어뜨린다.	150貫 이상 200貫은 3등을 떨어뜨린다.	200貫 이상 300貫은 4등을 떨어뜨린다.	300貫 이상은 제명하고 [다시] 서임하지 않는다.	不枉法者는 모름지기 3년간 [서임을] 중지한다. 再犯은 [다시] 서임하지 말라. 無祿人은 1등을 경감한다.
								吏人이 贓罪를 어기면, 종신토록 서임하지 않는다.
※『大元聖政國朝典章』46(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75) 「刑部」8 諸贓1, p.1570.								

「贓罪條例」 12개 조는 뇌물 액수와 枉法·不枉法에 따라 杖刑과 관직의 승강(오지파견·강등·해임·파면·不敍)의 방식으로 징계했다. 品官과 달리 吏人의 贓罪는 종신토록 (재)임용하지 않는 형벌만 존재했다. 뇌물은 至元鈔를 기준으로 했다.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枉法은 無理·유죄·무고의 소송 문제와 賣官·橫差民戶 사안이었다. 不枉法은 饋獻이나 구호품 착취, 人情, 田宅 행정 등 각종 사무 비용의 수수, 枉法 미수 행위가 해당됐다. 뇌물은 반환 및 몰수 규정이 있었다. 몽골법은 枉法의 범위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한다.

몽골법은 당·송·명 중화왕조의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웠다.[49] 최신 연구에 따르면 『元史』에서 사건 연루자 2만 738명 가운데 사형으로 명기된 이는 단 두 명이었다.[50] 이러한 경향은 贓罪의 처벌에도 적용된다.

贓罪의 처벌은 확정된 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죽은 후에도 이루어졌다. 1286년 饒州路 樂平縣 다루가치 우마르(烏馬兒)가 백성의 재산을 받았다. 그것을 추징하는 사이에 그가 병환으로 사망했다. 刑部는 우마르가 [뇌물로] 錢鈔를 받았고 생전에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장물을 추징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더라도 家屬에게 그것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서성에 의해 승인되었다.[51]

---

47) 『元典章』46 「刑部」8 諸贓一·取受·贓罪條例, pp.1571-1573.
48) 『元史』21 「成宗本紀」4 大德七年三月壬辰, pp.449-450.
49) 『滋溪文稿』26([元]蘇天爵, 陳高華·孟繁清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97) 「章疏」 乞續編通制, pp. 434-435, "我國家自太祖皇帝戡定中夏, 法尙寬簡."
50) 呂麗·王志民(2017), pp.218-219.
51) 『至正條格』6 「斷例」 職制·取受雖死徵贓, p.219.

몽골 관부는 장물을 여러 차례 나눠서까지 몰수하려고 했다. 다만 [죽음과] 가난은 장물 몰수를 면제할 근거였다. 일례로 1332년에 형부는 "官吏人 등이 일 때문에 [뇌물을] 받고 자수해 장물을 납입하지 않았으나 집안과 자신이 가난해 여러 차례 징수했으나 折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죽거나 가속이 병에 들고 곤궁합니다. 혁파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징수를 면제하십시오"라고 의견을 내서 중서성의 재가를 받았다.[52]

[표 2] 官吏의 뇌물수수 枉法·不枉法 대략

枉法	不枉法
• 일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게 다른 사람의 錢·物을 받고 이치에 맞다고 처결하고 지시하는 행위 • 죄인의 錢·物을 받고 방면하는 행위 • 돈을 받고 사람을 사거나 청탁해서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無辜하는 행위 • 죄인을 교사해 터무니없이 평민을 지목하고 錢·物을 받는 행위 • 例를 위반해 관리를 사거나 멋대로 民戶를 차출해 倉庫官·祗待頭目·鄕里正 등으로 충당하고 錢·物을 속여 취하는 행위	• 향응·예물을 제공하거나 구호품을 착취하거나 인정을 따르는 행위, 田宅을 매매·전당·증여하면서 관부에 신고하고 명의·소유권을 넘길 때[推收過割], 사무 때문에 勾事錢(사무처리비)·紙筆錢 등을 요구하거나 倉庫·院·務가 결탁해서 分例錢·關津錢·批驗錢(조사비) 등을 취하는 행위. 그 사안이 많아 모두 열거할 수 없다. ▪ 돈을 준 사람의 핵심 사무가 이치에 맞지 않거나 죄가 있어 관리를 사거나 청탁해 [소송의] 승리를 도모하고 脫免하려고 했는데, 비록 이미 장물(贓)을 받았더라도 그 사무가 법을 어기지 않고 종결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不枉法에 따라 [경중 등급에 따라] 처결한다. • 贓物의 반환과 몰수: 관부로의 몰수: ▪ 돈을 준 사람의 핵심 사무가 이치에 맞지 않거나 죄가 있으면서 관리를 사거나 청탁해 [소송의] 승리를 도모하고 脫免시키는 행위는 그 사안이 이미 종결됐는지를 따지지 말고 모두 각기 관부로 몰수한다. 비록 돈을 준 사람이 스스로 자수하더라도 역시 마땅히 관부로 몰수한다. ▪ 돈을 준 사람의 핵심 사무가 비록 옳고 이치에 닿더라도 돈을 써서 관리를 사고 청탁하며 피고인(對訟人: 소송을 마주한 사람)을 능욕하고 학대하며 무거운 처결을 요구할 경우,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관부로 고발되면 곧 뇌물수수와 관련되니 마땅히 관부로 몰수한다. 돈을 준 사람의 명백한 자백을 받아 낸다. ▪ 일을 구하는 장물(贓)과 돈을 운용하면서 벼슬을 구하는 사람이 비록 이치에 의거해 쓰고 당해 관리가 일찍이 고의로 속여 [뇌물을] 애걸해 취하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수수한 후 빠르게 결정했거나 혹은 빈 자리를 요구하다 희망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官에 고발하는 것은 곧 뇌물수수와 관계된다. ▪ 騙脅錢(사기와 협박으로 얻은 돈)과 科斂錢([부세로] 할당된 돈) 등이 우수리라서 돌려줄 수 없거나 혹은 돈을 낸 사람의 명단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논의해 몰수한다. 주인에게로의 반환: ▪ 돈을 준 사람의 핵심 사무가 이치에 맞고 관리가 고의로 속여 뇌물을 받았는데, 官에 고발되면 마땅히 주인에게 [뇌물을] 돌려준다. ▪ 사기, 협박, 科斂 등으로 얻은 장물 • 관리와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 자수하며 錢物을 내놓으면, 현행 体例에 따라 다만 소속 기관에서 조사한다. 이와 같이 일찍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의논해서 관부로 몰수한다. 지금 돈을 준 사람의 핵심 사무에 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면서 [뇌물을] 주인에게 반환할지, 관으로 몰수할지를 논하므로, 반드시 돈을 준 사람 등을 체포해서 대면해 명백히 심문한 후 비로소 논의하니, 종결하기 어렵다. 마땅히 다만 현

52) 『至正條格』6 「斷例」 職制·取受身死貧乏遇革, p.219.

枉法	不枉法
	행 体例에 의거해 조사하고 몰수를 논해야 하지 않겠는가? • 管軍官이 받은 군인의 錢物에 대해 장물과 돈을 추적해 行省에 보고, 발송한 후 內院(추밀원)으로 보낸다.
※『大元聖政國朝典章』46(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75) 「刑部」8 諸贓1·取受·定擬給沒贓例, pp.1573-1575.	

「贓罪十三等」(1292)과 「贓罪條例」(1303)이 정립, 시행된 것과 별개로, 카안울루스에서 부패가 매우 왕성했고 많은 이들이 관여했다. 예컨대 1282년 쿠빌라이 카안의 재상 아흐마드가 황태자 짐김과 갈등 속에 高和尙 등에게 살해되었을 때였다. 그는 왕관에 끼워 넣을 카안의 커다란 보석을 私藏하고 백성의 가산과 토지를 사유하는 등 막대한 貪贓의 죄로 부관참시되었다. 그는 무덤에서 꺼내져 밧줄로 발을 묶이고 시장 네거리로 끌려와 그의 머리 위로 수레가 달리는 형벌을 받았다.[53] 당시 아흐마드의 黨人은 714명이었다. 이미 제거된 이가 133명이었고 나머지 581명도 모두 파면되었다. 아흐마드의 말, 낙타, 소, 양, 나귀 등 3758마리도 적몰되었다.[54] 1303년 監察御史 杜肯構 등은 太傅·右丞相 울제이(完澤)가 朱清·張瑄의 뇌물을 받을 일을 테무르 카안에게 보고했으나 카안은 회답하지 않았다.[55]

1299년에 張弘範의 아들 張珪가 浙西肅政廉訪使로 근무할 때, 그는 郡 長吏 이하 30여 명과 府 史胥 무리 수백을 탄핵, 파면했고 징수한 장물이 거만에 달했다.[56] 1303년 보고에 따르면, 七道奉使宣撫가 贓污官吏 1만 8473명을 파면했다. 그 장물은 4만 5865錠이었다.[57]

부패의 유행 속에서 몽골인은 물론 다양한 신민이 선물과 뇌물을 이용해 자신의 권익을 확대했다. 1290년 江淮等處行尙書省의 보고에 따르면 관할 지역의 부자·세력가·兼倂之家에서 왕왕 儒戶을 가탁했고 풍족하게 뇌물을 주고 관부의 官吏와 짜고 결탁해서 差徭를 회피하고 戶役을 감당하지 않았다.[58]

1306년 杭州路 다루가치 자쿠르다이(扎忽兒歹)이 보고한 바, 豪霸뿐만 아니라, 몰락 가문과 유랑민도 뇌물을 이용해 관부를 쥐락펴락했다. 크고 작은 공무를 처리할 때는 자신과 연결된, 속칭 "고양이 머리"[貓兒頭]라는 관리를 활용했다. 그들은 관인의 기호에 맞는 뇌물과 놀이를 제공하는 등 지방 관부 및 지역 유력가와 강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법정(곧 자르구)에서 品官과 노복[皂]이 결탁해서 선량한 이가 오히려 치욕을 입었다. 곧 뇌물은 행정·권력에서 벗어나 있거나 국한돼 있는 이들이 官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었다.

53) 『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元史』205 「列傳」92 姦臣·阿合馬, pp.4562-4564.
54) 『元史』12 「世祖本紀」9 至元十九年五月己未朔, p.242, "沙汰省部官, 阿合馬黨人七百十四人, 已革者百三十三人, 餘五百八十一人並黜之. (중략) 籍阿合馬馬駝牛羊驢等三千七百五十八."
55) 『元史』21 「成宗本紀」4 大德七年二月庚辰, p.448, "監察御史杜肯構等言太傅·右丞相完澤受朱清·張瑄賄賂事, 不報."
56) 『元史』175 「列傳」62 張珪, p.4072, "劾罷郡長吏以下三十餘人·府史胥徒數百, 徵贓巨萬計."
57) 『元史』21 「成宗本紀」4 大德七年十二月丁未, p.456, "七道奉使宣撫所罷贓污官吏凡一萬八千四百七十三人, 贓四萬五千八百六十五錠, 審寃獄五千一百七十六事."; 呂麗·王志民(2017), p.215.
58) 『廟學典禮』3(王頲 點校, 江蘇: 浙江古籍出版社, 1992) 「隨路府州縣尹提調儒人功業」, p.51.

大德 10년(1306) 시월 모월 모일, 江浙行省에서 받은 中書省의 咨文: 杭州路 다루가치 자쿠르다이(扎忽兒歹)의 보고: 「本路 사무는 번잡하기가 실로 기타 路와 같지 않습니다. 豪霸가 관부를 쥐락펴락하고 몰락한 집안 사람[破落]과 유랑민[潑皮]이 백성에게 소동을 일으키는 등의 사안에 대해 열거해 보고드리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刑部로 보내 그곳에서 의논해 本官들이 논의한 사항을 都省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의논했으니, 청컨대 위에 의거해서 시행하십시오.

[1]건: 관부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으며 그렇게 쥔 자는 항주가 최고입니다. 매번 관원이 임지(항주)에 도착할 때마다 [그에게] 갖가지 계략으로 뚫고 찌르며 어떤 이는 자신이 직접 아는 사람이나 추천인을 구하고 어떤 이는 그 좌우에 뇌물을 줘 [누군가의 장점에 대해] 허풍을 불어 넣습니다. [관원이] 이미 물건이나 음식 등 바친 것[進具]을 받으면, 즉시 그 간사함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입맛을 서로 주고받고, 이어서 축하의 일을 찾아 선물을 보내고 그가 좋아하는 바를 엿보아 점차 뇌물[苞苴]을 먹입니다. 聲色을 좋아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부인을 바치고 재물의 탐하는 자에게 옥과 비단을 그에게 뇌물로 주었으며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놀잇감을 주었습니다. 나날이 교류와 결탁이 이미 깊어지니, 그의 현명과 무능[不肖]을 따지지 않고 이의 서열[序齒], 곧 나이를 형제로 삼아 飮宴에 동석하는 자도 있었고 바둑을 두거나 쌍륙을 두는 자도 있었으며 전혀 거리끼는 바가 없습니다. 피차의 집안사람과 처첩이 그 의심을 피하지 않고 또한 자매 관계를 맺고 온 집안이 오가며 그 긴밀함이 대단히 심합니다. 街坊의 인민이 그들을 이와 같이 보니, 만일 公事가 있으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달려가 자기와 연결된 사람에게 청탁하는데, 속칭 "고양이 머리"[貓兒頭], 또는 "문을 정한다"[定門]라고 일컫습니다. 탐관오리는 그 낚시바늘의 먹이를 머금고 오로지 [그들이] 명하는 대로 따르며 그들이 실행하려고 하면 바로 실행하고 그들이 멈추려고 하면 바로 멈춥니다. 조금이라도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告訴의 말을 꺼내 그에게 협박당하니, 공손히 손을 모으고 엎드려 듣습니다. 옳고 그름이 뒤집어지고 선악[曲直]이 나뉘지 않으니, 백성이 원통과 억울함을 풀고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또는 청렴하고 신중한 관리가 기강을 세우려고 하면서 이 무리를 거절하면, 부패한 權門이 무리를 지어 모여 모략을 꾀하고 나아가 돈 있는 세력가를 내버려둬서 일의 정황을 날조하고 詞訟을 치장하여 증거를 짜맞추고 관부를 고발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로써 그들은] 品官과 노복[皂]이 결탁해서 법정(곧 자르구)에서 말을 맞추도록 하고 [이들이] 명백히 증거를 댈 경우 치욕을 입는 것이 너무 많아 선량한 이가 그 때문에 의지를 잃게 합니다. 근래 듣자하니 本路 潛縣의 常縣尹과 臨安縣의 郭縣尹이 관부를 쥐락펴락하는 사람[把持人]인 何福秀와 羅文曄 등이 모인 파당에게 여러 차례 처결됐습니다. [그들은] 향을 피우고 맹세하며 허위로 뇌물[贓錢]을 모아 망령되게 廉訪司를 경유해 그를 고발하니, 牒文이 本路로 내려와 심문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셀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엄격한 법으로 禁治하지 않으면, 警戒할 수 없습니다. (후략)[59]

뇌물은 사건을 뒤집을 힘이 있었다. 彰德의 富商 任甲이 睢陽에 다다랐을 때, 나귀가 폐사했다. 그는 郝乙에게 그것을 해체시켰는데, 任이 화가 나서 郝을 구타했고 자다가 사망했다. 郝에게는 처 王氏와 첩 孫氏가 있었고 손씨가 官에 고소했다. 관리가 任의 뇌물을 받고 郝이 상해로 죽은 것이 아니라며 도리어 손씨에게 罪가 다다르고,

59) 『元典章』57 「刑部」19 諸禁·禁豪霸·札忽兒歹陳言<三>[二]件·大德十年月日, pp.1934~1935.

그녀를 감옥에 가두었다. 아내 왕씨가 와서 원통함을 호소하자, 탕구트인 觀音奴가 차꼬[械]를 부수고 손씨를 감옥에서 꺼냈다. 그가 [歸德]府 서리를 불러 "내가 글을 써서 향과 폐백을 갖춘 후, 만일 내 대신에 [네가] 郤의 일에 대해 諸城隍神께 기도해서 내 앞에 神이 나타나게 하거라"라고 말했다. 한 睢陽의 小吏 역시 郤의 사건에 가담했고 觀音奴가 엄격하고 명철한 것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神이 그 일을 드러낼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任이 뇌물로 준 鈔를 펼쳐 보이며 자수하면서 말했다. "郤이 사실 상해로 죽었고 任이 上下에게 뇌물을 줘 그 사실을 감췄으며 저 또한 뇌물을 받았으니 감히 자수합니다." 이에 상인 任甲에게 죄주고 郤乙의 첩 손씨를 풀어줬다.[60]

소송이 발생할 때, 관리는 때로 소송인을 전전시키며 뇌물을 탐욕했다. 仇鍔이 威州에서 재직할 때, 백성 張씨 가산을 두고 송사를 벌였다. 아전(吏) 그들을 전전하며 뇌물을 받으면서 몇 년이 지나도 판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형제가 빈곤해졌다.[61] 뇌물은 巨萬에 달하는 옥송과 이동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62]

뇌물수수에는 사대부 지식인도 동참했다. 그들의 도구는 지식이었다. 경서 지식은 때로 소송을 교사하고 재물과 뇌물을 소통시키는 데 유효한 자원이었다. 예컨대 1286년에 중서성 보고에 따르면, 그 이전에 각지에 일등의 豪華之徒가 많았다. 그들은 입으로는 聖人의 책을 암송하면서 몸은 市井의 사무를 하면서 詞訟을 교사하고 재화와 뇌물을 교통시켰다. 그들은 풍문을 멋대로 칭하면서 관원을 논박하고 아전을 힐난했으며 士籍을 허다하게 점유하면서도 儒風을 무너뜨렸다.[63]

士人의 선물·뇌물 교환은 몽골제국의 관리 선발 방식의 변화가 한 기폭제였다. 일부 남인은 수도에서의 관직을 얻기 위해 몽골인에게 "섣달의 닭"이라는 조롱을 감수했다. 섣달의 닭은 남방에서 北人을 대접하기 위한 물품이었다. 지식인은 과거가 폐지된 후 관리를 선발하는 몽골의 두 방식인 "納粟"과 "獲功" 가운데 전자의 선물을 선택했다.[64]

---

60) 『元史』192 「列傳」79 良吏2·觀音奴, p.4368.

61) 『柳貫詩文集』10([元]柳貫, 柳遵傑 點校,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4) 「有元故奉議大夫福建閩海道肅政廉訪副使仇君墓碑銘【(并序)代趙承旨作】」, pp.203~204, "在威州, 民張氏兄弟訟家財, 吏展轉逮賂, 更數歲莫能決, 因亦致困匱."

62) 『輟耕錄』7 「義奴」, p.91, "劉信甫, 揚州人, 郡富商曹氏奴. 曹瀕死, 以孤托之. 孤漸長, 孤之叔利孤財, 妄訴於府曰: 「某家貲產未嘗分析, 今悉爲侄所據.」 郡守劉察其詐, 直之. 叔之子以父訟不勝, 慚且憤, 毒父死, 而復訴於府曰: 「弟挾怨殺吾父.」 適達魯花赤馬馬火者, 受署之初, 與守不和, 竟欲置孤法, 幷得以中守, 引致百餘人, 皆抑使誣服. 曰: 「孤俾某等殺叔, 守受孤賄若干.」 末鞫信甫. 信甫曰: 「殺人者某也, 孤實不知, 守亦無賄.」 既被鍛煉無完膚, 終無兩辭. 初, 信甫先遣人密送孤過京師, 避於一達宦家, 囑之曰: 「慎勿出.」 至是, 乃厚以金帛賂達魯花赤, 孤得無預, 而信甫減死. 既而叩蹕陳告, 達魯花赤以罪罷去, 守復官, 凡獄訟道里費蓋巨萬計. 孤歸, 悉算儻. 信甫曰: 「奴之富皆主翁之蔭也. 今主有難, 奴救脫之, 分內事耳. 寧望求報哉?」 力辭不受."

63) 『廟學典禮』5 「行臺坐下憲司講究學校便宜」, p.105, "在前各處多有一等豪華之徒, 口誦聖人之書, 身爲市井之事, 教唆詞訟, 交通貨賄, 妄稱風聞, 論官嘯吏, 濫占士籍, 有玷儒風. 今仰各處教官, 常切訓誨, 在籍儒生, 務要讀書明理, 潔己修身, 毋作浮辭以爲訟師, 毋假衣冠以商財賄, 各務進德修業, 以待選用. 如有違犯, 事發到官, 取問是實, 削籍爲民, 依例當差."

64) 천하가 안정됐을 때 [어사]臺·[중서]省의 要官은 모두 北人이 차지했고 漢人과 南人은 1만 가운데 한두 명도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州縣의 낮은 품급에 지나지 않았고 그마저도 대체로 또한 조금 있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다. 나중에 곡식을 바치거나[納粟] 공을 세우는[獲功] 두 가지 길이 있

몽골의 제한적 혹은 배타적 방식의 권력·행정이 儒者를 뇌물수수로 인도한 사회변화는 1335년 바얀과 허유임의 논쟁에서 잘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관인들은 몽골인과 색목인의 이름으로 횡령했다.

> 1260년 쿠빌라이 카안이 科擧를 폐지한 후 조서를 썼으나 아직 옥새를 찍지 않았다. 參政 許有壬이 다투듯 궁중으로 들어왔다. (중략)
> [許]有壬이에 말했다.「科擧가 만일 폐지되면, 천하 人才가 원망할 것입니다.」바얀은 "독서인이 대부분 뇌물 때문에 패망했고 또한 몽골과 색목의 이름을 빌린(빌려 횡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許有壬은「科擧를 시행하기 전에 어사대 안에 뇌물로 벌을 받은 일[贓罰]이 셀 수 없었는데, 어찌 모두 [그것이] 독서인에게서 나오겠습니까? 독서인에게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을 저들(몽골·색목인)과 비교하면 적습니다.」伯顔이 그래서「독서인 가운데 임용할 만한 사람은 오직 參政뿐이오.」有壬曰:「예컨대 張夢臣·馬伯庸·丁文苑 무리는 모두 큰일을 맡길 만합니다. 또한 예컨대 歐陽元功의 文章이 어찌 쉽게 미치겠습니까?」伯顔曰:「과거가 비록 폐지되었더라도 사인 가운데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식품[美衣美食]을 구하는 이는 모두 스스로 학문으로 향할 수 있었으니, 어찌 大官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가 있겠는가?」有壬曰:「이른바 사인이란 처음에 衣食(옷과 음식)을 사무로 여기지 않고 그 사무는 治國平天下에 있었을 뿐입니다.」伯顔이 또 말했다:「지금 科擧로 인재를 얻으니, 실로 選法(관리 선발 방법)을 방해하오.」[65]

1271년에 按察使 覃嘉은 뇌물수수 관행의 원인을 이른 나이에 출직하는 새로운 현상에서 찾았다. 그는 이해한 바, 府·縣의 人吏가 어린 나이에 학교에 들어가나 겨우 10세 이상에서 학업을 중단한 후 곧바로 吏門·中書로 가서 문서를 작성했다. 禮義의 가르침과 무지[教懵]를 아직 알지 못한 채 賄賂를 향한 감정과 循習이 이미 현저해져서 나날이 그것에 물들어 성정이 되었다. 연령이 차고 성인이 된 후 官府 일을 수행하면서 왕왕 장물(贓)을 받고 법을 왜곡한 결과 법에 저촉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았다.[66]

몽골제국의 정치 문화와 인사 구조에서 요행과 선물을 경쟁하는 인간상과 사회변화를 朱德潤의「送強仲賢之京師序」에서 뚜렷히 발견할 수 있다. 朱德潤은 풍속을 풍자하면서도 자신의 벗에게 그 경쟁을 뛰어들 것을 제안했다.

> 국가에 평화가 드리운지 70년이 지나자, 통치와 교화가 훌륭하고 깨끗해졌다. 백 가지 방도[百度]가 활짝 열렸고 사인을 선발하는 유형[科]도 더욱 넓어졌다. 무릇 관부에 들어오는 자는 첫째가 宿衛(케식)로서 近侍를 수행하고 그다음으로 吏業으로서 그 자질을 따른다. 무릇 近侍는 대부분 世勳子孫이고 吏業은 대부분 省·臺의 옛 典吏(비칙치)이다. 이로부터 혹자는

었고 富者가 왕왕 이로써 官階에 진출했다. 그것을 처음 시행할 때는 오히려 그들(부자)에게 주는 것과 같았고 나중에 그것을 구하는 이가 많았으나 역시 南人에게는 절대 주지 않았다. 수도에서 출사하려는 이는 北人의 눈에 섣달의 닭[臘雞]이었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기까지 했다. 무릇 섣달의 닭은 남방에서 北人을 대접하기 위한 물품이었다는 옛말이 있다(『草木子』「克謹篇」, p.49).

65)『元史』142 「列傳」29 徹里帖木兒, pp.3404-3405.

66)『元典章』12「吏部」吏制·司吏·人吏優<假>[暇]讀書, p.492.

> 科擧라고 하고 혹자는 保薦이라고 하며, 중앙에 省·臺·院·部, 지방에 路·府·州·縣이 있으며 모두 근무 월수를 계산해 관직을 옮기고, 九品分班이 천하에 빽빽이 펼쳐져 있으니, 가히 성대하다고 일컬을 만하다. 그리고 百家九流의 사람이 또한 잡다하게 그 사이에서 나오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전[遴選]이 있겠으며 사인 가운데 [官階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자 역시 오로지 儒術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도다! 옛날에는 관직을 위해 사람을 선발한 반면, 지금은 사람에 맞춰 관직을 수여한다. 옛날에는 관원에서 侍從을 선발했으나, 지금은 侍從이 관원으로 진출한다. 옛날에는 鄕貢里選(곧 향거리선제. 향리에서 孝廉에 기초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추천해 중앙 관료로 선발하는 제도)이었으나, 지금은 歸官鄕里(관원을 향리로 돌려보내는 제도)다. 이는 漢代 사인을 선발하는 잡다한 방식으로 오랜 폐단이 지금에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살피지 않으므로 매번 요행을 바라는 마음[僥倖之心]이 있고 분주히 경쟁하는 습속[奔競之習]이 잇따랐다. 내 친구 強仲賢은 성인이 되었고 재주가 많으며 학문에 뛰어나고 사무에도 능하다. 그는 마땅히 搢紳士子 가운데 목을 길게 늘이고 날아오르는 원앙들 가운데 맨 앞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독 애석하게도 그가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江湖에 거처하고 있으나, 그를 도와 천거하는 이가 없었다. 지금 強君이 자신이 가진 것을 옆에 끼고 장차 京師로 나아가서 廟堂·王公의 훌륭한 인물을 만나보고 翰苑名師·宿儒의 논의를 듣고자 하니 특별한 감정이 생긴다. 그러한 즉 仲賢의 학문은 더욱 향상될 것이니, 이른바 벼슬살이가 뛰어나면 배우고, 배움이 뛰어나면 벼슬살이는 하는 법이니, 내가 보건대 그가 벼슬길에 들어간 방법이 이로부터 시작됐으며 이로부터 달성했도다. 바라건대 그 뜻을 바꾸지 마시라.[67]

『事林廣記』에서 「贓罪條例」와 동일한 조목의 「取受贓賄」를 편성한 것은 카안울루스에서 뇌물수수의 성행과 그 법적 제약을 인지할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뇌물 성격의 선물은 대칸도 움직일 수 있었다. 『黑韃事略』은 소송에서 대칸을 작동시키는 사우카의 힘을 주목한다.

> 비록 지극히 사소한 것이 訟事에 이르더라도 역시 선물(撒花 sauqa)을 쓰고 직접 몽골 군주[韃主] 앞에서 꾸미기도 한다. 그러면 마침내 처결되지 않은 것 없이 떠난다.[68]

한 연구에서 평가한 바, 유목민의 관점에서 유목민들은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군사적으로 나약한 정주 세계의 상품을 얻을 수 있으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

67) 『全元文』1273(李修生 主編, 南京: 鳳凰出版社, 2004) 「朱德潤」3 送強仲賢之京師序, p.490; 『存復齋文集』4 「送強仲賢之京師序」, pp.16b-17b(124-126), "國家承平垂七十年, 治教休明, 百度具張, 而取士之科尤廣. 凡入官者, 首以宿衛近侍, 次以吏業循資. 蓋近侍多世勳子孫, 吏業多省臺舊典. 自此或以科擧, 或以保薦, 内則省臺院部, 外則路府州縣, 咸以月計遷, 九品分班, 森布天下, 可謂盛矣. 而百家九流之人, 亦雜出於其間, 豈遴選之多, 而士之所以求進者, 亦不專以儒術歟! 古者爲官擇人, 今則因人授官; 古者選官侍從, 今則侍從出官; 古者鄕貢里選, 今則歸官鄕里. 此漢世士之雜, 流弊至此, 而人不之察, 故每有僥倖之心, 而奔競之習相踵矣. 吾友強君仲賢盛年而多材, 善學而能事, 是宜與搢紳士子頡頏於鴛序者也, 獨惜其處江湖之遠, 無相與薦起者. 今強君挾其所有, 將趍京師, 而觀廟堂王公之偉器, 聽翰苑名師宿儒之論議, 而有感發焉. 則仲賢之學益進, 所謂仕優則學, 學優則仕, 吾見其入仕之階由是始也, 由是達也. 幸毋易其志.

68) 『黑韃事略』(중화서국본), p.7, "雖至細交訟事, 亦用撒花, 直造韃主之前, 然終無不決而去."

침범하는 초부족적 통치 구조에 의해 통치되었을 때 가장 성공적이었다.[69] 이와 마찬가지로 몽골 중심의 권익·통치 구조와 문화를 한인들, 특히 하층 지식인·농민·상인은 충분히 인지하고 사우가 문화를 적극 활용해 권력에 가까이 다가갔다. 대칸이 친절·은총과 선물로써 백성의 마음을 샀던 것처럼, 세력가나 백성 또한 선물·뇌물로써 관부의 권력을 구매했다. [선물·]뇌물은 어느 누군가가, 특히 약자가 권력자를 조정하는 [소소한] 방식(출구)이자 힘이었다.

맺음말

본고는 몽골제국 카안울루스의 선물(*sauqa*) 문화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상을 검토했다.

몽골인은 선물을 좋아했다. "선물"은 몽골어로 *sauqa*(撒花)였다. 대칸의 선물은 종종 은총과 뇌물, 나아가 상거래와 중첩돼 연결해 있었다. 카안울루스에서 뇌물의 '만연'은 몽골초원에서의 선물(*sauqa*) 풍속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사우가는 대칸의 [정당화된] 통치 도구였다.

몽골 조정은 「贓罪十三等」과 「贓罪條例」의 반부패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카안울루스에서 많은 이들이 뇌물을 통해 연결돼 있었다. 그것은 관직을 얻고 소송을 이기고 관리와 관부를 좌우하는 힘과 기제를 제공했다. 뇌물 성격의 선물은 대칸도 움직일 수 있었다.

다수의 사서에서 백성은 권력과 행정을 복무하는 도구화된 존재로 기록되었지만, 그들은 권력자와 관인의 왜곡된 일상을 '정확히' 포착해 폭로했다. 『朴通事』에서 실린 한 촌부와 그 친구 관인의 전체 대화를 음미한다. 권위와 권력은 뇌물과 비비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것은 물질과 언행으로 구현되었다.

> 내가 네 농장으로 가고자 하나 시간[工夫]을 얻지 못해 갈 수 없었다.
> 너는 매일 뭘 하는가?
> 나는 날마다 깨어 明鍾의 한 소리를 듣고 곧장 말을 타고 관인을 따라 나서 점등할 때에 딱 맞춰 말을 내리니, 언제적에 한가함을 얻으리오?
> [네] 말이 옳다. 너희같이 名利를 다투는 관인은 매일 말 뱃가죽(馬肚皮)에 티끌을 석 자나 묻혔고 나귀가 눈을 부릅뜨듯하며 假使長(거짓 상사)을 따라와 비비는 데(속이는데) 앞서기를 다투며 저 [假使長의] 밑구멍(똥구멍)에 끼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손톱을 다듬으며 틈도 얻지 못하고 하나같이 이름나기를 바라니, 어디 기꺼이 나 같은 村莊人의 집에 오리오. 내가 村에 있어 벼가 익고 게가 살지고 고기가 정히 아름다우며 산에 가득한 과실로써 음식을 삼고 堂上에 불상을 걸고 단정히 앉아 또 樓 바깥의 못에 가득한 연꽃을 본다. 네

69) Peter B. Golden, "Nomads and Sedentary Societies in Eurasia," Michael Adas for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ed., *Agricultural and Pastoral Societies in Ancient and Classical Histo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1), p.107.

> 스스로 말하되, 村莊에 찾아 올 사람이 없다 하니라. 내 매일 池樓 위에 올라와 촌 맛[村味]을 열어 보이고 손님을 대하여 술을 마시고 싯구를 읊으며 바둑을 두며 論談하며 능히 소일하고 가을 한밤중에 달이 紗窓에 밝고 거문고 한 곡조를 어루만져 千愁를 푸나니, 만일 너도 내 樓上에 오면 함께 名利를 잊어버리리다.[70]

뇌물수수는 官에 관계된 錢糧과 제작 物料 가운데 착복되고 절도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대출되며 사정을 봐주는 것과 함께 백성에게 고통을 안겼다.[71] 그러나 일상에서 士人조차도 관계 진출을 위해 뇌물을 적극 활용하며 그 폐단을 망각하기 일쑤였다.

부패는 특히 한인 유자가 몽골 정권을 향한 비난의 이유였고 그들의 관계 진출이 제약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대칸의 반부패 정책은 국가 재고의 방어이자 관리 보호, 방어 기제였다. 대칸은 *sauqa*(撒花: 선물·뇌물·성거래)와 반부패를 포기할 수 없었다. 선물과 뇌물, 부패는 어디쯤에서 정당한가?

70) 『朴通事諺解』, pp.227-229.
71) 『元典章』5 「臺綱」1 內臺·整治臺綱, p.126.

여 백

【토론문 2】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 몽골제국에서의 '선물' 경쟁」 토론문

최윤정(경북대학교)

본고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몽골제국의 정치문화와 인사구조' 속에서 '몽골의 선물 문화와 사회변화'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연구가 몽골제국과 몽골의 중국지배 시기를 이해하는데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토론자로서 이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몽골이 중국을 통치한 원대에 전후 시기에 비해 '관리의 貪贓'이 상당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점인데, 본고에서는 한자로 '撒花' 몽골어로 'sauqa'로 음사되는 '선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suaqa(撒花)'는 그것을 주고받는 사람들 간의 지위와 관계 등에 따라 실질적 의미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우구데이가 말한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라의 본질적 의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화나 재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막강한 권력과 막대한 재화를 가진 대칸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를 회유하고 통치의 편의를 위해 신민들에게 재화를 나눠주는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칸이 'suaqa(撒花)'를 요구하는 건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는지, 혹은 성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또 전쟁터에서는 우호나 호의로 표시로, 혹은 진정 어떤 물자가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suaqa(撒花)'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물과 뇌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여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법성(혹 합법성) 여부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도 뇌물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본고에서 '納粟'의 경우도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있는데, '납속'은 송대에도 시행되던 제도였고 특별한 시기, 특별한 이유로 곡물 등을 내고 관직(유외관)을 얻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suaqa(撒花)'를 일괄적으로 '선물'로 표기할 수 있을지요?

두 번째, 본고에서는 크게 〈'suaqa(撒花)'에서 '肚皮(kegeli)'로〉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듯한데, 관료조직에서 관원의 각종 비리와 貪贓은 비단 몽골제국 시기에만 출현한 문제가 아니었고 신민이 선물이나 뇌물로 자신의 권익을 추구하는 행위 역시 어느 시기에나 존재했던 문제입니다. 몽골의 중국 통치 시기 贓罪의 성행과 뇌물의 '만

연’ 이유를 ‘suaqa(撒花)’과 관련지여 이해한다면 贓罪로 처벌받은 대상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쿠빌라이 시기 「贓罪十三等」(1292)와 성종 테무르 시기 「贓罪條例」(1303)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와 탐장이 성행했다면 그 규정들이 제정된 원인에 대해서도 ‘반부패’의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게 아닐까요.

세 번째, 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카안울루스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해 貪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징수하거나 몰수한 贓罰鈔 수량이 상당했습니다. 본고에서 사례로 제시되었듯이 범죄자가 죽은 뒤에도 궁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수차례에 걸쳐 뇌물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천작은 장벌초를 동원해 긴급한 상황에 처한 災民을 구조하는데 사용하자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송명대와 비교해 贓罪를 포함한 각종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웠던 이유는 국가의 재정적 측면과 여타 측면에서(가령 인명배상제도)도 함께 고려할 수 있지 않을지요.

제1부

【제3발표】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 물품과 운송 문제

최소영(서울대학교)

序論
Ⅰ. 몽골-티베트 관계 초기의 보시
1. 몽골과 중앙 티베트의 만남: 쿠텐의 서신
2. 팍빠와 쿠빌라이
3. '서부 몽골(stod hor)의 보살 왕자' 훌레구
Ⅱ. 帝師의 등장: 쿠빌라이 이후
1. 최고의 라마: 팍빠의 시대
2. 까르마派의 부활
3. 보시 물품의 사용처
Ⅲ. 보시물품 이동의 이면
結論

【제3발표】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 물품과 운송 문제

최소영(서울대학교)

序論

13세기 초 유라시아 북부의 초원을 통일한 몽골은 남으로 세력을 뻗쳐 카라 키타이, 서하, 호레즘 왕국을 정복했다. 칭기스 칸을 이은 2대 대칸 우구데이 시기에는 여진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중국 북부까지 그들의 세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앙티베트[1]는 북쪽과 북동쪽 변경을 몽골과 맞대게 되었다. 마침내 1240년, 우구데이의 아들 쿠텐(Köten, 闊端, 1206-1251)이 옛 서하 땅의 양주를 근거지로 하고 군대를 보내 중앙 티베트를 침략했고 티베트의 기록들은 이 때 약 500명의 승려가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다. 몽골은 확실한 티베트 장악을 위해 몇 년 뒤 더 큰 규모의 군대를 보냈다. 몽골이 장악한 여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티베트인들 역시 몽골을 두려워했고 당시 한 승려의 전기는 티베트인들이 몽골(hor) 혹은 몽골인(sog po)이라는 말만 들어도 땅을 딛고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라고 그 공포를 표현했다.[2] 몽골은 티베트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몇 가지 변화를 거쳐 티베트를 13개 만호로 나누어 각각 만호장을 두었으며 宣慰司를 설치하고 또한 중앙의 總制院(후의 宣政院)에게도 티베트를 관할할 권한을 주었다.[3]

---

1) 라싸(Lha sa)를 중심으로 하며 몽골제국 시기 한문 사료에 '烏思'로 음사된 위(dbus) 지역, 현재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까쩨(Gzhis ka rtse)를 중심으로 한 짱(gtsang, 藏) 지역을 묶어서 위짱이라고 하며 몽골 제국 시기에 烏思藏, 명 중반 이후 衛藏으로 표기되었다. 거기에 서부의 아리(Mnga' ris)와 위짱 북부의 장탕(Byang thang)까지 합친 것이 바로 중앙티베트이고, 현대의 西藏自治區와 대략 일치하는 강역이다. 캄(Khams)은 사천과 운남 일부의 티베트 문화권을 가리킨다. 중앙티베트 외의 티베트 강역은 사천과 운남 일부를 포함하는 캄(khams) 혹은 도캄(Mdo khams)과 도매(mdo smad) 혹은 암도(a mdo)라고 불리는, 청해성과 감숙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 있다. 이 글의 '티베트'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중앙티베트'를 가리킨다.

2) Spyan snga ba Rin chen ldan, *The Collected Works (Gsung-'bum) of Yang-dgon-pa Rgyal-mtshan-dpal, Reproduction of three volumes of the writings of the Stod 'Brug-pa Dkar-brgyud-pa master from Rta-mgo Monastery in Bhutan*, Volume 1. 1982. p.64.

3)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의 행정체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크고 업무의 중복이 큰 것이 특징이다. 뭉케 카안은 즉위 후 중앙티베트를 자신의 동생들에게 분봉했고 그 뒤를 이은 쿠빌라이는 훌레구의 분봉지인 팍모두 만호를 제외하고 모든 분봉을 폐지했다. 훌레구와 팍모두 만호의 관계는 13세기 말에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기층을 관할한 것은 각 만호장이었으나 그 위에는 위에 언급한 선위사, 총제원(宣政院) 외에도 쿠빌라이 시기부터 설치된 일종의 출진 종왕인 西平王, 후에 鎭西武靖王이 암도 지역에 주둔하면서 티베트의 군사, 행정적인 문제를 관할하고 있었고 여기에 사꺄派 쾬씨의 후손인 白蘭王까지 존재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집권 세력이 없어 체계적인 군대로 맞설 수 없었던 티베트와 유라시아 최강의 군사력으로 티베트를 압도한 몽골의 관계는 곧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몽골인들이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여 여러 교파의 주요 승려들을 초빙하고 이들을 높이 받들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몽골 지배층은 儒學者나 도교의 道士, 기독교인, 무슬림, 위구르인 등 다양한 종교와 민족 출신의 막료들을 곁에 두고 있었으나 점차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5대 대칸 쿠빌라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사꺄派 출신의 티베트 승려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가 대칸의 조정에서 帝師라는 호칭을 받아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며 그 후 몽골인들이 明軍에 쫓겨 北走할 때까지 사꺄派 승려들이 帝師직을 역임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교파 출신의 티베트 승려들이 초청을 받아 와 다양한 佛事를 관장하고 황실 성원들에게 灌頂을 주며 說法을 하였다.

그런데 승려들의 이러한 활동은 몽골 측의 대규모 물자 소비를 동반했다. 佛事와 灌頂, 법회 자체에 필요한 재화 뿐 아니라 승려 개인에게 주는 보시의 양도 대단한 양이었던 것이다. 카안을 비롯한 몽골 지배층이 티베트 승려들에게 준 보시품은 당시에도 큰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문 사료에는 빈번히 이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이렇게 많은 보시는 한편으로 티베트의 경제, 특히 사원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불교와 몽골의 관계는 아직 밝히지 못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양자 간에 오간 布施 물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元史』를 비롯한 한문 사료들은 티베트나 티베트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거의 남기고 있지 않으며 또한 티베트어 저작들은, 잘 알려진 대로, 세속사를 기록하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몽골의 물품 하사에 대한 연구나[4] 티베트 불교가 元代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5] 등이 다수 있었지만 티베트 승려에 대한 구체적인 布施 내용은 다루지 못했다. 또한 주로 몽골 등에서 반입되었을 티베트의 비단 관련 용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나 미완성인 채 남아 있는 연구도 있어서,[6] 티베트 물품사 연구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布施는 佛心의 물질적 표현이므로, 몽골 지배층이 티베트 승려에게 행한 보시를 고찰하는 것은 티베트 불교와 몽골의 관계의 중요한 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며 연구의 의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지극히 한정된 수의 사료 기록과, 그 의미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물품 명칭이 남아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을 것이나, 본 발표는 몽골제국 시기 한문 저작에 남아 있는 티베트 승려 개인들에 대한 일부 보시 기록과 티베트 사료에 남아 있는 소수의 기록들을 최대한

4) 최근의 예를 들면 康繼輝 (2012)「蒙元王朝的物質賞賜研究」, 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王淼 (2014)「蒙元王朝賜賚制度探析」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등이 있다.
5) 王啓龍 (2002)「藏傳佛教對元代經濟的影响」.『中國藏學』. 2002-01, pp.63-85.
6) Joachim Karsten, (2008) 'When silk was gold' in the Land of Snows: a preliminary Tibetan-English "pictorial" glossary of textile terms related to silken fabrics from Tibet (13th to 20th centuries); with Chinese, Manchu, Mongol and Uigur equivalents from the 1770s. academia. edu.

찾아내어 소개하고 살펴보려 한다. 생생한 내용 전달을 위해 관련 사료는 임의로 요약하지 않고 최대한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려 하며, 자료가 아직 부족하나마 이 연구가 몽골제국 시기 몽골 지배층과 티베트 불교 관계의 생생한 일면을 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Ⅰ. 몽골-티베트 관계 초기의 보시

1. 몽골과 중앙 티베트의 만남: 쿠텐의 서신

1240년 당시 凉州(현 甘肅省 武威)를 근거지로 하여 북중국을 관할하던 우구데이의 아들 쿠텐은 티베트 사료에 도르따(dor ta)라고 적힌 이름의 장수에게 군대를 주어 중앙티베트에 파견했다. 도르따의 몽골군은 라싸 북부의 라뎅(rwa sgreng) 사원에서 다수의 승려를 살해하고, 군주가 없는 티베트에 대해 몽골 군사 정복의 관행대로 대표 한 명이 복속을 위해 오도록 했다. 이 때 대표로 가게 된 것은 사꺄派의 座主 사꺄 빤디따 뀐가 갤챈(Sa skya paNdita Kun dga' rgyal mtshan, 1182-1251)이었다. 사꺄 측의 저작은 쿠텐이 사꺄 빤디따를 초청하기 위해 보낸 문서를 싣고 있는데 이 명령문은, 몽골이 침략지에 보내 복속을 표하러 대표자를 소환할 때 일반적으로 쓰인 문서와 달리 소환의 목적에 대해 쿠텐이 부모와 天地의 은혜를 갚기 위해 오류가 없는 취함과 버림(取捨)의 길을 자신에게 가르쳐 줄 라마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나서 쿠텐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賞賜品으로 銀 5錠(bre chen), 진주 6천 2백 알이 달린 비단 法衣, 유황 쇼울(gos lu hang gi ring 'gag), 장화, 버선과 함께 카띠(kha ti) 비단 정폭 두필, 퇸띠(thon ti) 비단 정폭 두 필, 洋緞(gos chen) 20필 등이 있다. 이 통지를 斷事官(rdor sri mgon)과 왼조 다르마(dbon jo dar ma) 두 사람에게 보낸다. 용해 여덟 번째 달 그믐에 썼다.[7]

거절하지 말고 와서 자신에게 오류 없는 取捨의 길을 알려 달라는 내용은 몽골이 일반적으로 복속을 요구하며 대표를 소환하는 명령문과 다르며, 이 문서는 사꺄 빤디따가 피정복지의 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명한 라마로서 소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서와 더불어 물품을 함께

7) "gnang sbyin la dngul bre chen lnga/ gos chen gyi chos gos mu tig gi tshom bu can la mu tig stong phrag drug dang nyis brgya/ gos lu hang gi ring 'gag/ lhwam 'bob dang bcas pa/ kha ti kha tshang ma yug gnyis/ thon ti kha tshang ma yug gnyis/ gos chen sna lnga yug nyi shu rnams yod/ 'di'i lon la rdor sri mgon dang/ dbon jo dar ma gnyis btang ba yin/ 'brug lo zla ba brgyad pa'i gnam gang la bris/(Ngag dbang Kun dga' bsod nams, A myes zhab, *Dzam gling byang phyogs kyi Thub pa'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i bang mdzod dgos 'dod kun 'byung (Sa skya gdung rabs chen mo)*, (1629/1986), Mi rigs dpe skrun khang, Beijing, , p.118)"

보내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가치 있는 물건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은 5錠(dngul bre chen lnga)의 '錠'으로 번역되는 티베트어 '데첸(bre chen)'은 이전에는 티베트에 없었으며 몽골제국 시기에 처음 등장한 단위이다. 원래 '데(bre)'는 작은 알갱이 곡물의 부피를 잴 때 쓰던 용어인데 거기에 '큰(chen)'을 붙인 이 단어는 바로 몽골제국 전역에서 발리시(Per. bālish), 수케(Mong. süke, 도끼), 錠 등으로 적었던, 말굽 모양의 은 덩어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한편 진주 6천 2백 알이 달린 비단 法衣는 대단히 호화로운 의복인데, 『元史』 등 한문 사료에 賞賜品으로 종종 등장하는 "珠衣"의 일종이라고 생각된다. 카띠(kha ti)와 퇸띠(thon ti)라는 비단 명칭은 티베트어가 아니며, 카띠는 銅錢 문양의 패턴이 그려진 비단이라고 하고[8] 퇸띠(thon ti)는 '緞綈'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9]

사꺄 빤디따는 조카인 팍빠 로되 갤챈('Phags pa Blo gros rgyal mtshan, 八思巴, 1235-1280)과 착나 도르제(Phyag na rdo rje, 1239-1267)를 이끌고 천천히 이동하여 양주로 갔다.[10] 쿠텐을 만난 사꺄 빤디따는 쿠텐 곁의 다른 종교인들보다 자신이 더 신임을 얻어, 기도회 때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되었음과, 중앙티베트가 몽골에 복속 의사를 확실히 표할 것을 전하는 서신을 티베트에 보냈다. 그는 이를 위해 호구조사 결과를 보낼 것을 청하고 확실한 복속의 표시로 금, 은, 상아 등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11] 그러나 곧 몽골 조정은 구육의 사망으로 혼란스러웠고 티베트는 그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칸 지위는 우구데이계에서 톨루이계로 넘어가 1251년 뭉케가 즉위하였다.

2. 팍빠와 쿠빌라이

4대 대칸 뭉케는 즉위 후 제국 전역에 대한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티베트에도 다시 군사를 보내고 곧이어 인구조사를 행한 뒤 이전에 쿠텐의 專權 아래 있던 티베트를, 사꺄派만 쿠텐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불교 교파 단위로 자신의 형제들에게 분봉했다. 이 일은 여러 티베트 사료들이 일제히 다루고 있으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8) 관련 내용은 Joachim Karsten, pp.6-7.

9) Dieter Schuh는 본 문서에 나타난 직물 명칭을 고찰하고 한편으로 쿠텐이 사꺄 빤디따를 만나기 전에 불교 지식을 보이는 것 등을 근거로 하여 문서 자체에 위조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Dieter Schuh, *Erlasse und Sendschreiben mongolischer Herrscher für tibetische Geistliche Vol. 1* (VGH Wissenschaftsverlag, 1977, pp.29-41. 참고.). 그러나 사꺄 빤디따가 도착하기 전에 쿠텐의 주위에는 불교 승려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미 티베트 승려들도 있었으며(최소영 (2021) 「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동양사학연구』, 155. p.138) 따라서 쿠텐이 불교를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 쿠텐이 보낸 장수 '도르따' 군대의 활동과 사꺄 빤띠따가 대표로 뽑힌 경위 등에 대하여는 최소영 (2021) 「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동양사학연구』 155. pp.132-133 참고.

11) "공물로는 금, 은, 象牙, 큰 진주 알, 주홍 염료, 꼭두서니 염료, 코끼리 담즙, 호랑이, 표범, 티베트 레오파드 세 종류, 수달, 두꺼운 티벳 모직 천(bod snam)을 바쳐라". 그러나 이 목록의 대부분이 티베트에서 나지 않는 것이고, 사꺄 빤디따는 여기에 "여기에서는 그것들을 좋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물 중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아무 것이나 좋은 재화가 오는 것으로써 족하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Ngag dbang Kun dga' bsod nams, pp.139-140).

다음과 같다.

> 디궁派는 뭉케 황제에게 속하고, 사꺄派는 쿠텐 자신에게 속하며, 챌派는 세첸 쿠빌라이(se chen go pe la)에게 속했다. 팍모두派, 야상, 탕뽀체는 서부 몽골(stod hor)의 왕 훌레구(hu la hu)에게 속했다.[12]

먼저 사꺄 빤디따는 조카들과 함께 양주의 쿠텐 조정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고 이제 사꺄派의 座主 지위는 팍빠에게 넘어 왔다. 뭉케가 대칸이 되고 난 후 대칸의 동생이 된 쿠빌라이는 북중국을 관할하게 되었고 京兆를 분봉지로 받았다. 당시 몽골제국의 숙원이던 남송 공략을 위해 뭉케는 그 서쪽인 大理를 치기로 했고 쿠빌라이는 이를 위해 1253년, 양주에서 가까운 섬서 서북쪽 臨洮에 군대를 집결시켰다. 여기서 쿠빌라이는 사꺄 빤디따의 명성을 듣고 그를 초빙하였으나 아마도 그때는 그가 이미 사망한 후였고 대신 그 조카이며 당시 17세이던 팍빠가 왔다. 사꺄派의 기록은, 쿠빌라이의 질문에 대해 당시 쿠빌라이의 막영에 있던 다른 이들은 대답을 잘 못했는데 팍빠가 대답을 잘 했고 쿠빌라이가 매우 기뻐했다고 적고 있다.[13] 이렇게 시작된 팍빠와 쿠빌라이의 관계는 당시 몽골제국과 티베트는 물론, 훗날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시 쿠빌라이의 비 차부이(Chabui 혹은 차비Chabi, Ch. 察必, 1225-1281)는 쿠빌라이보다 먼저 티베트 불교에 귀의하였으며 특히 사꺄派에 대단히 우호적이었다. 사꺄측의 기록은 차부이가 먼저 팍빠로부터 灌頂[14]을 받은 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그 때 왕비가 "관정에 대한 보시(dbang yon)로 무엇을 바칩니까?"라고 물으니 팍빠가 말씀하기를 "자신이 향유하는 재물은 모두 바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이든 자신이 소중히 여기며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바칩니다."하셨고 왕비는 "제가 가장 아끼는 물품 중에 제가 혼인할 때 부모가 준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위에 진주알(mu tig) 하나가 있는 귀걸이(rna rgyan)를 팍빠에게 바쳤다.[15]

차부이는 관정을 받고 나서 "信心이 크게 생겼고" 이에 쿠빌라이에게도 관정을 권했다. 그러나 팍빠는 쿠빌라이의 요청을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관정 후 請法의 맹

12) Byang chub rgyal mtshan, *Rlangs kyi po ti se ru rgyas pa,* (1364/1986) Lhasa: Bod 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p.449.
13) 쿠텐과 마찬가지로 쿠빌라이 곁에도 다양한 종교와 민족 출신의 막료들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때 팍빠는 쿠빌라이 곁에 머물렀다가 티베트로 가서 戒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떠났다가 곧 돌아왔다. 관련 내용은 최소영 (2021) pp.142-143 참고.
14) 受戒하여 佛門에 들어갈 때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
15) "de'i dus su dpon mos dbang yon ci 'tshal zhus pas/ 'phags pa'i zhal nas/ rang gi lus longs spyod kha rje dbang thang thams cad 'bul ba yin/ khyad par rang gang la chags shing gtsigs che ba de 'bul ba yin gsungs pas/ btsun mos nga khyo sa la yong dus pha mas byin pa'i gtsigs che shos yin zer nas rna rgyan gyi steng na mu tig rdog po cig 'dug pa de phul bas(Ngag dbang Kun dga' bsod nams, p.153)"

세(chos zhu ba'i dam tshig) 즉 관정 후에는 사제 관계가 되므로 팍빠가 쿠빌라이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규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차부이가 近臣들이 다수 함께 있을 때는 쿠빌라이가 상석에 앉고 개인적으로 說法을 들을 때는 팍빠가 상석에 앉는 것으로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관정을 받고 나서 쿠빌라이는 팍빠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시했다.

> 그 외에 금과 진주로 된 袈裟(snam sbyar), 법의(法衣), 큰 숄(phyam che), 모자(dbu zhwa), 장화(chag lhwam), 방석(bzhugs gdan), 금좌(gser gyi khri), 傘蓋(gdugs), 잔(gsol zhal), 접시(gsol sder) 등 모두와 낙타와 말, 나귀, 금으로 된 안장 등 모두, 특히 상술한 각 만호 및 法螺(chos dung) 등을 관정의 공양으로 바쳤다.[16]

쿠빌라이의 보시 물품은 袈裟, 숄, 신발, 傘蓋 등 대개가 승려의 사원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낙타, 말, 나귀는 乘用이거나 짐 싣는 용도였을 것이다. 팍빠는 쿠빌라이에게 총 3차례 관정을 주었다. 또한 쿠빌라이는 티베트의 승려들에게 몽골 황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조서를 보내면서 자신의 곁에 있는 팍빠에게 다음과 같은 물품을 보시했다.

> 그 다음 해인 호랑이 해(1254)에 [쿠빌라이는] 승려에게 힘을 주는 조서를 티베트 문으로 쓴 것과, 은 56錠, 磚茶(ja <sigs> [sig]) 200 덩어리, 緞子(gos yug) 80필, 綵緞(dar yug) 1100 필을 바쳤다. 또한 上師(즉 팍빠)에게 의복으로 금과 진주로 장식한 법복, 보석으로 장식한 숄(phyam tshe), 法衣(chos gos), 보석[이 달린] 모자(zhwa), 장화(lhwam), 좌석을 바쳤다. 또한 물품으로는 황금 傘蓋(gser gyi gdugs), 금으로 된 여러 색깔 방석(gser gyi khre'u), 금잔(gser gyi phor pa), 은과 보석이 있는(dngul gyi ja'o rin po che'i) 자루가 있는 검(yu ba can gyi gri) 등을 바쳤다. 그리고 또한 보석 종류로는 금 1錠, 은 4錠, 낙타를 탈 때 쓰는 금 (안장)(rnga mo'i chibs pa gser ma), 나귀, 금으로 된 얇은 안장과 쿠션(gser gyi sga stan srab) 3 종을 바쳤다.[17]

여기서 물품의 종류가 전보다 다양하고 그 가치도 金錠, 銀錠, 비단 등으로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쿠빌라이의 보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 이 호랑이해(1254)에 또다시 法緣을 위해 銀 56錠, 다섯 끝이 있는 磚茶(gsol ja rtse

16) "gzhan yang gser dang mu tig gi snam sbyar/ sku chos/ phyam tshe/ dbu zhwa/ chag lhwam/ bzhugs gdan/ gser gyi khri/ gdugs/ gsol zhal/ gsol sder la sogs pa tshang ma rnga mo dam chibs dre'u/ gser gyi sga 'khor tshang ma/ khyad par gong du bshad pa'i khri skor dang/ chos dung sogs dbang yon gyi gtso bo rnams phul ba yin no//(Ngag dbang Kun dga' bsod nams, pp.159-160)" 상술한 萬戶란 쿠빌라이가 '티베트 13만호'를 관정에 대한 보시로 바쳤다는 것인데, 당시 아직 쿠빌라이는 대칸이 아니었고 티베트 역시 13만호가 정착되지 않은 때였으므로 이 문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17) "de'i phyi lo stag lo de la bande shed bskyed bod yig tu bris pa dang/ dngul bre chen lnga bcu rtsa drug/ ja sigs nyis brgya/ gos yug brgyad cu dang/ dar yug stong dang brgya phul lo//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p.165)"

lnga sigs) 2백 덩어리, 양단(gos chen yug) 110필을 바쳤다. 요약하면 詔書('ja' sa)와 기물(longs spyod) 이것들은 모두 法에 대한 공양으로 바친 것이다.[18]

이는 팍빠에게 아직 일개 제왕이었던 쿠빌라이가 보시한 기록들이다. 이때 뭉케의 조정에는 까르마 까귀派의 승려인 까르마 박시(Karma Pakshi, 1204-1283)가 머물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 쿠빌라이의 초청으로 가서 설법하고 幻術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나 계속 머물라는 쿠빌라이의 청을 거절하고 떠나 대칸 뭉케에게로 갔다. 뭉케 조정에서의 그의 활동에 대해『紅史』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까르마 박시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과 육식에 대한 금령[을 내리게 하고], 모든 告天人(gnam mchod pa)에게 해를 입히지 않게 하였으며 각자 자신의 종교를 지키게 했다. [뭉케는 그에게] 金印(gser gyi dam kha)과 銀 1000정을 비롯하여 供品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바쳤고, 모든 죄수를 3차례 사면하여 풀어주었으며, 온 세상('dzam bu gling)에서 비할 데가 없는 대 사원을 카라코룸(ga ra gu rum)에 지었다.[19]

은 1000정은 대단히 큰 양이며, 이러한 보시는 뭉케가 대칸이었으므로 쿠빌라이보다 운용 가능한 재화의 양이 더 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 때 뭉케는, 자신의 조정과 쿠빌라이의 막부 개평부에서 이른바 '佛道 논쟁'을 개최하였으며 마지막 쟁론에는 까르마 박시와 팍빠가 모두 참여했다. 불교 측이 승리하면서 팍빠는 쿠빌라이의 막영 뿐 아니라 몽골 조정에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3. '서부 몽골(stod hor)의 보살 왕자' 훌레구

훌레구(Hülegü, 1215-1265)는 뭉케와 쿠빌라이의 동생이며 몽골리아에 있을 때 그도 역시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들은 臨濟宗의 禪師로 보통 海雲印簡으로 불리며 구육 시기 북중국의 불교를 관할했던 海雲(1202-1257) 禪師의 설법을 들었다. 뭉케와 쿠빌라이도 역시 海雲과 관계가 깊었으며 쿠빌라이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그에게 작명을 청했고 海雲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尊貴하라는 뜻으로 眞金이라는 이름을 주었다.[20] 그가 바로 후에 쿠빌라이

18) "stag gi lo 'di yang rten gyi rgyu dngul bre chen lnga bcu rtsa drug/ gsol ja rtse lnga sigs nyis brgya/ gos chen yug bgya dang bcu tham pa/ mdor na 'ja' sa dang longs spyod 'di rnams thams cad chos kyi yon du phul ba yin/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pp.165-166)"

19) "srog mi gcod sha za ba'i khrims bcas/ gnam mchod pa kun la gnod 'tshe cing rang rang gi chos lugs skyong du bcug/ gser gyi dam kha dang/ dngul bre stong gis mgo byas nor rdzas dpag tu med pa phul zhing/ bla mchod kun la bkye/ btson thams cad dong sprug pa lan gsum byas/ ga ra gu rum du gtsug lag khang chen po 'dzam bu gling na 'gran zla med pa bzhengs/ (Tshal pa Kun dga' rdo rje (1364/1981), *Deb ther dmar po (Hu lan deb ther)*, Mi rigs dpe skrun khang, Beijing, pp. 91-92) "

20) "帝誕生太子, 詔海雲國師 摩頂立名. 奏云, 世間最尊貴, 無越於真金(釋念常, p.364)."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티베트 불교에서 자주 쓰는 인명인 '도르제(rdo rje, 金剛)'이다. 이는 챌派의 승려로부터 얻은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의 황태자가 되는 眞金(1243-1286)이다. 그런데 1253년 훌레구는 뭉케의 명령으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원정길에 올라 천천히 이동하여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의 지역을 정복한 뒤 그 곳에 정착해 독자적인 울루스의 주인이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훌레구는 몽골제국 시기를 다룬 티베트 사료에 다수 등장하는데, 이는 그가 팍모두派의 고승 갤와 린포체 톡둑빠(Rgyal ba Rin po che Thog brdugs pa, 1203-1267)와 맺은 시주-법주 관계 때문이었다. 위에서 본대로 뭉케는 즉위 후 티베트를 자신의 동생들에게 분봉했고 훌레구는 팍모두派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 관계는 생각보다 긴밀했던 것으로 보이며,[21] 그 성격은 경제적인 분봉관계이면서 또한 제왕 개인의 특징에 따라 종교적인 측면을 강하게 보이기도 했다. 특히 팍모두派의 기록은 훌레구가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다수의 자기 휘하 티베트 民戶를 팍모두의 主 사원인 댄사 틸(gdan sa thil)에 바쳤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와 티베트 불교교파 팍모두 간의 구체적인 교왕 관계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몇 년 전 톡둑빠가 훌레구에게 보낸 서신이 학계에 소개되었고 이 서신이 주석과 함께 번역,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불교와 훌레구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뭉케 왕(mo mgo rgyal po)과 왕자 훌레구(rgyal bu hu la hu)에게 드리는 기도. 옴스바스띠!
> 라마들과 本尊(yi dma lha), 三寶의 가피로 상서로움과 원만과 장수[를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뭉케 왕과 보살 왕자 훌레구(rgyal bu byang chub sems dpa' hu la hu) 父子, 형제, 형과 동생이 자손들과 더불어 장수와 無病하고 행복하기를!
> 이 방대한 땅의 주인이 된 자, 보살 왕자 훌레구가 계신 곳으로, 린포체 팍모두빠[22]가 청합니다. 보살 왕자가 많은 왕국들을 세력 하에 넣고 복을 쌓는 것을 마치고서, 완벽한 깨달음으로 보리를 얻기 위하여 상서로운 팍모두와 소중한 디궁틸 둘에게 金 2錠 씩을, 金 발우 큰 것을 두개씩 보냈으며 또한 특히 저 팍모두빠에게 하늘에 제사 지내는 자(告天人, gnam mchod pa)의 [권한을 부여하는] 大 詔書('ja' sa chen po)와 금으로 장식하였으며 수정 손잡이가 달린 금 지팡이를 주셨으며, 카일라스 산(gangs ti tse)에 거주하는 승려들이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한 자원으로 銀 4錠을, 또한 대 라마들 모두에게 佛堂을 지어 주었고, 僧團이 머물 곳을 위해 대량의 金錠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23]

---

21) 훌레구와 그 후손들과 팍모두派의 관계는 훌레구 울루스의 가잔(Ghazan, 1271-1304)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나, 14세기 중반에도 팍모두 만호장 장춥 갤챈은 자신들의 영역 범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훌레구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뭉케 사후 쿠빌라이와 아릭 부케 사이에 계승 전쟁이 벌어지자 쿠빌라이와 관련 있는 교파인 챌派와 사꺄派는 아릭 부케를 저주하는 의례를 행하기도 했다(張雲 (2000) 「元代西藏"止貢之變"及相關問題考釋」, 『中國藏學』, 2000-3, p.40).

22) "phag mo gru pa"의 마지막 'pa' 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어딘가에 속한 복수의 집단을 가리킬 때도 있고 한 개인을 나타낼 때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漢字의 派와 유사한 의미이고 후자의 경우 해당 집단의 우두머리를 가리킬 때가 많으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 그대로 '팍모두빠'와 같이 적는다.

23) "mo mgo rgyal po dang rgyal bu hu la hu la smon lam btab/ oM swa sti/ bla ma rnams

이 서신을 쓴 날짜는 알 수 없으나 뭉케가 살아 있을 때이므로 1259년 이전이고 훌레구가 '많은 왕국들을 세력 하에 넣은' 때이므로 그가 西征을 떠난 후라고 할 수 있다. 서신에 의하면 훌레구는 여러 승려들을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金錠, 銀錠을 보내고 있어서 그 물질적 가치가 대단할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세심한 보시를 보내고 있다. 또한 톡둑빠 개인에게는 따로 하늘에 기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서와 금 지팡이를 보냈다. 톡둑빠는 그에 감사하며 훌레구에게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설해 주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한문 사료『佛祖歷代通載』에 실린, 훌레구 西征 이후 북중국의 海雲에 대한 다음 기록이다.

> 이 달에 훌레구 대왕이 많은 몽골 조정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금 지팡이와 금수 놓은 袈裟 그리고 令旨를 보내어 師(즉 海雲)에게 法語를 청했다.[24]

즉 몽골리아와 북중국을 떠난 후 어느 시기에 훌레구가 海雲에게 令旨와 금 지팡이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그가 티베트의 톡둑빠에게 보낸 것과 같은 품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물품들은 그가 페르시아로부터 보낸 것이라기보다 몽골리아에 남아 있던 자신의 카툰들과 아들들에게 청하여 보내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25] 이 기록은 몽골리아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훌레구가 티베트 불교와 漢地의 禪佛教에 다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민족, 교파 출신의 두 승려에게 각각 같은 물품을 보내고 있는 것은 당시 훌레구에게 양 불교가 대체로 동등하게 중요했던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海雲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는 반면, 팍모두派 측 기록에 의하면 훌레구는 걜와 린포체 톡둑빠에게 또 대량의 보시를 보냈다. 이는 다른 교파에도 널리 알려질 정도로 대단한 규모였다. 사꺄派의 문서지기 뻴조르 상뽀(Dpal 'byor

---

dang yi dam lha// dkon mchog gsum gyi byin rlabs kyis// bkra shis phun sum chogs pa dang// tshe ring nad med bde legs shog// mo mgo rgyal po dang/ rgyal bu byang chub sems dpa' hu la hu yab sras spun pho bo nu bo rigs rgyud dang bcas pa tshe ring ba dang/ nad med pa dang bde legs su gyur cig// sa chen po 'di'i bdag por gyur pa// rgyal bu byang chub sems dpa' hu la hu'i spyan sngar// rin po che phag mo gru pas zhu ba// rgyal bu byang chub sems dpas rgyal khams mang po mngar 'dus shing// bsod nams kyi tshogs rdzogs nas// rdzogs pa'i byang chub tu sangs rgya bar bya ba'i ched du// dpal gyi phag mo gru dang// 'bri khung gi thel rin po che// gnyis su gser bre chen gnyis gnyis// gser phor chen po gnyis gnyis bskur ba dang// yang dgos su phag mo grur nga 'bu la gnam mchod pa'i 'ja' sa chen po dang// phyag mkhar gser gyis spras shing shel gyi mgo bo can dang/ gangs ti tser bzhugs pa'i dge 'dun rnams la gnam mchod pa'i cha rkyen du dngul bre -149- chen bzhi/ bla chen de kun la lha khang bzhengs pa dang/ dge 'dun gyi sde 'dzugs pa la gser bre mang po bskur ba dang bcas pa thugs la btags/ (Jampa Samten & Dan Martin (2015) "Letters to the Khans: Six Tibetan Epistles of Togdugpa Addressed to the Mongol Rulers Hulegu and Khubilai, as well as to the Tibetan Lama Pagpa". Roberto Vitali (Ed.), *Trails of The Tibetan Tradition: Papers for Elliot Sperling*, Dharamsala: Amnye Machen Institute. pp. 309-310)"

24) "是月旭威烈大王, 差蒙古萬宣差, 以金拄杖金縷袈裟段并令旨, 奉師求法語(釋念常 (1341/1988)『佛祖歷代通載』,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338)."

25) 이들은 훌레구가 완전히 페르시아에 정착한 뒤 몽골리아를 떠나 그에 합류한다.

bzang po)가 15세기에 편찬한 『한장사집』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 [걜와 린포체는] 서부 몽골(stod hor)의 왕 훌레구(hu la hu)와 施主-法主 관계를 맺었고 백만 스물 한 개의 供物 등 성대한 보시를 받았다. 17일이 지난 뒤 걜와 린포체는 入寂했다.[26]

이 보시 기록은 챌派 까귀의 만호장이었던 뀐가 도르제(Tshal pa Kun dga' rdo rje)가 쓴 『紅史』에도 실려 있다.[27] 백만 스물 하나라는 수는 대단히 큰 숫자이며 품목은 나와 있지 않으나 훌레구의 佛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페르시아로 떠나기 전 형제들과 함께 선불교를 비롯한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가 곧 중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 승려를 동시에 존숭했던 훌레구는 후에 결국 티베트 불교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걜와 린포체는 다른 서신에서 훌레구에 대해 "보살왕자께서는 三寶에 모든 죄를 고백하셨다"라고 적고 있으며 또 다른 서신에서는 아마 훌레구가 걜와 린포체에게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물은 듯,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정갈히 씻는 것부터, 한 달에 세 번 외설, 노래, 춤, 음악을 금하고 한낮 이후에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는 등의 계율을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훌레구가 이 승려가 말한 바를 지켰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아르메니아의 史家 키라코스는 훌레구에 대해 "그는 승려들의 명에 따라 살았고, 움직였고, 말에 올랐으니 완전히 자신을 그들의 뜻에 맡겼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는 그들의 수장 앞에서 절을 하고 땅에 입을 맞추었으며 그들 이교도의 사원에서 정화한 것만을 먹었다. 훌레구는 다른 누구보다 그를 찬양했다."[28] 고 적고 있어서 훌레구는 -톡둑빠의 말이 아닐지라도- 俗人으로서 지켜야 할 불교 계율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성실히 지키며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백만 스물 한 개의 供物'이 도착한 시기는 훌레구가 사망하고(1265) 그 아들 아바카(Abaqa, 1234-1282)가 계승한 때인데 훌레구가 생전에 보낸 것이 그때 도착한 것일 수도 있고 훌레구가 보시를 계획했다가 실현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아바카가 부친의 이름으로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아바카의 종교에 대하여는 훌레구보다 더욱 알려진 것이 적으나 그가 자신이 아끼는 손자 가잔(Ghazan, 1271-1304)을 양육하면서 그 시종부터 스승까지를 모두 불교도로만 채웠고 이것이 아바카에서 아르군, 가잔으로 이어지는 유산이었다고 기록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29] 라시드 앗딘은 '개종' 전 가잔의 불교에 대한 신심은 대단하였고 승려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가잔은 카쉬미르어, 티베트어 등을 할 줄 알았다고 하니 이를 통해 훌레구 울루스에

---

26) "stod hor rgyal po hu la hu dang yon mchod 'brel nas/ des brgya 'bum nyi shu tsha gcig gis sna grangs pa'i 'bul mo che byung pa slangs/ de nas zhag bcu ba dun song pa dang/ rgyal ba rin po che drongs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1454/1979)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Kunsang Topgyel and Mani Dorji ed.) Thim-phu, Bhutan. vol.2, p.334)",

27) Tshal pa Kun dga' rdo rje, p.122

28) Kirakos Gandzaketsi는 훌레구와 그 후예들의 불교 신앙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관련 내용은 Soyoung Choi (2014) "Ilkhans and Buddhism" Ankara, WOCMES 2014 발표문 참고.

29) 관련 내용은 Soyoung Choi (2014) 참고.

티베트인 승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종' 후 내린 칙령에서 승려들에게 각자의 고국인 인도, 카쉬미르, 티베트로 돌아가라고 한 것에서도 역시 티베트 승려가 일칸의 수도에 머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훌레구는 몽골리아를 떠나 먼 페르시아 땅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으나 그의 정치적 관심은 카안 울루스 즉 元으로 향해 있었고 종교적 경향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불교에 관심을 가졌었고 페르시아에 정착하고 나서도 대칸 쿠빌라이와 종교적 행보를 같이 하였으며 쿠빌라이가 유지시켜준 티베트의 분봉지에 관심을 갖고 해당 지역 사원에 자신의 民戶를 바치고 또한 승려에게 詔書와 금 지팡이를 보냈다. 그의 이러한 종교적 성향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졌다.[30]

Ⅱ. 帝師의 등장: 쿠빌라이 이후

1. 최고의 라마: 팍빠의 시대

1259년 남송 親征에 나섰던 뭉케가 사망하자 당시 역시 남송 전선에 있던 쿠빌라이는 북상하여 開平府에서 독자적인 쿠릴타이를 열고 대칸 位에 올랐다. 몽골 지배층 사이에서 더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그 동생 아릭 부케도 카라코룸에서 쿠릴타이를 열고 즉위했다. 1264년 싸움은 쿠빌라이의 전략의 승리로 끝났고 그는 부인할 수 없는 대칸이 되었다. 계승 전쟁 기간 동안 팍빠는 신년사에서 쿠빌라이를 "황제"로 칭하며 축원을 올렸다.[31] 이후에도 그는 칭기스 칸에서 쿠빌라이, 그리고 그 자손들로 이어지는 왕통에 대해, 오래 전 쌓은 果가 성숙하여 북쪽에서 시작해서 다른 많은 지역들을 정복하여 다스린다는 불교적 정통성을 부여해 주었다.[32] 또한 몽골인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어 쿠빌라이에게 바쳤고 國師를 넘어 황제의 스승 즉 帝師 칭호를 받았다. 이는 최고의 영예였고 쿠빌라이는 그에게 또 관정을 받았다. 사꺄 측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그 후 이 대 라마(팍빠)께서 조정에 이르고 나서 36세이던 철-陽-말 해에 황제(쿠빌라이)가 다시 灌頂을 청할 때, 서하(mi nyag) 갸괴(rgya rgod) 왕의[33] 수정 印을 고친 六陵

30) 티베트에 대한 훌레구 울루스의 영향력은 1290년대까지 이어졌다. 관련 내용은 최소영 (2010)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3세기 후반 티베트와 훌레구 울루스」. pp.55-59 참고.

31) 관련 내용은 최소영 (2021), pp.147-148 참고. 티베트어 '걜뽀(rgyal po)'는 토번 제국 시기 唐의 황제 등을 지칭하던 단어이고 몽골제국의 대칸에 대하여도 티베트 저작들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카안' 등으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황제로 적는다. 諸王은 '걜부(rgyal bu)'라고 한다.

32) 『彰所知論』. 티베트명 Shes bya rab gsal. 관련 내용은 최소영 (2021) pp.149-151.

33) 갸괴는 보통 걜괴(rgyal rgod)라고 불리는 서하의 왕으로, 일찍이 팍빠의 삼촌인 사꺄 빤디따는 이 왕의 轉世가 바로 쿠텐 왕자라고 선언한 바 있다. 쿠텐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印이 쿠빌라이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이 印을 고쳐서 승려인 팍빠에게 주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제사 임명 관련 내용을 다룬 한문 사료에는 이 기록이 없다. '쿠텐의 轉世'에 관하여는 최소영 (2021) pp.139-140 참고.

(gling drug ma) 수정印(shel dam)과 특별 조서('ja' sa)를 [팍빠에게] 바치고, 팍빠에게 "皇天之下 大地之上 西天佛子 化身佛陀 創製文字 補治國政 五明 빤디따 팍빠 帝師(gnam gyi 'og, sa'i steng na rgya gar lha'i sras po, sprul pa'i sangs rgyas, yi ge rtsom mi/ rgyal khams 'jags su 'jug pa bo, gnas lnga rig pa'i paN+Dita 'phags pa ti sl)라는 칭호를 내렸고 물품 공양 또한 은(dngul) 1천 錠, 綢緞(gos dar) 5만 9천필 등을 바쳤다.

또한 매차 만날 때마다 예물과 카닥(mjal dar), 銀을 끊임없이 바쳤다. 황제가 그때그때 봉헌한 供品만 모두 금 1백 錠 이상, 은 1천 錠, 綢緞(gos dar) 4만여 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와 같이 [팍빠는] 몽골 왕국의 모든 중생들이 남김없이 大乘에 있게 하고, 석가모니의 소중한 가르침이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매우 분명해지게 하셨다.[34]

쿠빌라이는 1260년 독자적인 쿠릴타이에서 대칸으로 즉위한 뒤 팍빠에게 國師 칭호를 주었었다. 이 칭호는 앞에서 본 중국 불교 禪僧 海雲에게서 뭉케 시기 카쉬미르의 승려 나모(Namo, 那摩, 南無, 연대 불명)에게 전해진 것이었으며 팍빠가 國師 칭호를 받을 때 나모는 사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쿠빌라이의 대칸位가 확고해 지고 그의 티베트 불교 존숭도 확실해졌으며 거기에 팍빠가 몽골문자를 창제하면서, 그는 새로이 帝師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의 기사는 대칸이 된 쿠빌라이가 帝師 팍빠에게 준 보시는 규모 면에서 이전과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여준다. 관정을 다시 받고 나서 쿠빌라이는 팍빠에게 은(dngul) 1천 정, 綢緞(gos dar) 5만 9천필을 주고 있는데, 처음에 팍빠가 쿠빌라이로부터 쇼울, 신발 등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보시 물품의 물질적 가치와 양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 그 후에도 그때그때 보시한 물품을 보면 금 100 錠, 은 1천 錠, 綢緞(gos dar) 4만여 필 등으로 그 규모가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토번 제국 시기 唐이 토번에 매년 보내던 세폐가 비단 5만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비단의 질이 달랐겠으나, 팍빠 개인에게 관정에 대한 보시로 한번에 5만 9천 필의 비단을 바쳤다는 이 기록은 몽골제국 지배층 사이에서 티베트 불교가 차지하게 된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티베트 사료에 남은 몽골의 보시 기록은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그들의 숭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280년 팍빠가 사망한 뒤에도 帝師 지위는 사꺄派 승려들이 계속 이어갔으며 이들에게도 팍빠에게 준 것보다는 적을 지라도 여러 이유로 대규모 보시가 행해졌다.

34) "zang zing gi 'bul ba yang dngul bre chen stong ra can/ gos dar lnga khri dgu stong la sogs pa dang/ mjal res kyi mthong phyag dang mjal dar dngul bre chag med sogs mdzad pas/ rgyal po'i 'phral gyi 'bul ba kun dril bas -213- gser bre brgya lhag pa dang/ dngul bre stong ra can/ gos dar gzhi khri la soT pa byung bar grags shing/ de ltar hor gyi rgyal khams kyi 'gro ba ma lus pa theg pa chen po la bkod de bde bar gshegs pa'i bstan pa rin po che nyin byed kyi snang ba ltar ches cher gsal bar mdzad/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pp.212-213)"

2. 까르마派의 부활

앞에서 언급한 까르마 박시는 1256년 쿠빌라이를 떠나 뭉케와 아릭 부케에게로 가서 머물렀고 많은 보시를 받았다. 쿠빌라이는 아릭 부케에게 승리한 후, 자신의 청을 거절하고 떠난 까르마 박시에 대해 적을 도왔다는 혐의를 두어 감금하고 고문했다. 후에 까르마 박시는 풀려났으나 까르마派는 한동안 세력을 더 펼치지 못했다. 그런데 팍빠 사후 사꺄派의 지배 가문인 쾬('khon)씨는 점점 그 후손이 귀해졌고 그에 따라 10대 초반의 어린 승려가 몽골 조정으로 가서 帝師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儀典에서는 그대로 帝師 대우를 받았으나 몽골 지배층이 팍빠에게 보낸 것과 같은 존경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때 까르마派는 티베트에서 최초로 제도적으로 환생 제도를 도입하였고 까르마 박시 사후 랑중 도르제(Rang 'byung rdo rje, 1284-1339)라는 인물을 그의 환생자로 선언했다. 랑중 도르제는 까르마 박시에 이은 3대 까르마빠가 되었고 티베트에서 곧 유명해졌다.

그는 처음에 文宗 툭 테무르(Thug Temür, 1304-1332)의 초청을 받았는데, '번개가 치고 일식이 시작되며 하늘에서 폭설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가 사망한 것을 티베트에서 이미 알았으며, 大都로 이동하다가 경조부(kyin jang hu)에서 카안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이어 대도에 도착했다. 그 때의 대칸은 이린지발(懿璘質班, 1326-1332)[35]이었으며 랑중 도르제는 이 어린 카안의 생명이 길지 않은 것도 역시 알았다. 『홍사』에 따르면 당시 만쯔(즉 중국 남부)에 있던, 명종 코실라의 아들 토곤 테무르(Toghon Temür, 1320-1333-1370)가 대도로 오는데 너무 많은 군중이 몰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였고 이때 랑중 도르제가 머리에 黑帽를 쓰고 6자 진언을 외우자 길이 열렸다고 한다. 토곤 테무르는 손에 큰 카닥을 들고 와 랑중 도르제 앞에서 절하고 무한한 존경을 보냈으며 무수한 재물을 바쳤다. 『홍사』는 당시 최고의 권신 출신 엘 테무르(El Temür, 1285-1333)와 조정 대신들 간의 갈등을 랑중 도르제가 해결해 주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元 멸망 후 편찬된 『庚申外史』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至元 2년(1336) 西域의 까르마(亟剌麻)에게 詔를 내려 수도로 오게 하여 帝師로 예우하고 또한 太師 엘 테무르의 옛 저택을 그에게 하사했다.[36]

1336년 대도에 머문 '서역의 까르마'는 바로 3대 까르마빠 랑중 도르제를 말한다.[37] 이때는 엘 테무르가 1333년 사망한 뒤 그 잔당들도 '모반'을 이유로 대규모로

35) 티베트어 린첸 뻘(rin chen dpal). 몽골어에서 어두에 'r'이 나오는 것을 피하니 그 앞에 모음을 더하여 이린지발이 되었다. 그는 약 50일 재위했다.

36) "至元二年. 詔徵西域亟剌麻至京, 禮為帝師 仍以故太師燕帖木兒第賜之(權衡, 『庚申外史』, 卷上, 온라인판 至元2년 조. https://zh.wikisource.org/wiki/%E5%BA%9A%E7%94%B3%E5%A4%96%E5%8F%B2/%E5%8D%B7%E4%B8%8A

37) 이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단지 "까르마"라고 칭하는 것은 이들이 轉世者로 각각 까르마빠 3세, 까름빠 4세이기 때문이다. 명 영락제는 5대 까르마빠인 데신 섹빠(De bzhin gshegs pa, 1384-1415)

처형되고 핵심 세력이던 그의 아들 텡기스(唐其勢, ?-1335)도 역시 처형된 때였다. 그들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었는데 그 중 저택을 랑중 도르제에게 하사한 것이다. 14세기 초중반 격화된 몽골 조정 내의 정치 투쟁에서, 패배한 측의 재산을 무력한 대칸의 허락 하에 승리한 측이 가지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이는 대부분 엘 테무르가 주도한 것이었다.[38] 그런데 엘 테무르 세력이 무너지자 그 저택이 티베트 승려에게 주어진 것은 엘 테무르 일당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꺄派 출신의 帝師는 몽골 조정에 체류할 때, 보통 티베트어 사료에 '메똑 라와(me tog ra ba, 花園)'라고 적힌 곳에 머물렀고 한 연구는 이것이 大護國仁王寺라고 비정하였다.[39] 신임 대칸 토곤 테무르 혹은 당시 최고의 권신이었던 바얀이, 사꺄派가 아닌 승려 랑중 도르제를 극진히 모실 장소로 아마도 당시 대도에서 가장 큰 저택 중 하나였을 엘 테무르의 집을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주었다(賜)'는 글자로 보아 임시로 살게 한 것은 아닌 듯한데 이후 집의 향방은 알 수 없다. 랑중 도르제의 계승자인 4대 까르마빠 룔빼 도르제도 몽골 조정에 초빙되어 오는데 그의 大都 거주지에 대하여 티베트 저작들은 "宮의 뒤편(pho brang rgyab ma)에 머무셨다'라고만 적고 있다.

랑중 도르제는 다음 해 티베트로 떠났다. 『홍사』는 그가 "일체법의 공성을 깨달은 까르마빠(chos thams cad kyi stong pa nyid rtogs pa'i karma pa)"라고 하는 호칭을 주는 詔書('ja' sa)와 國師(gu shrI)의 印, 수정 印(sbel kha), 금자 원패를 받고 金錠도 보시로 받았다고 적었다.[40] 티베트로 돌아온 랑중 도르제는 출푸(mtshur phu) 즉 까르마파의 주 사원에 자야투 황제('ja' ya du rgyal po, 툭 테무르)를 위한 祭祀와 影堂(yin thang)을 시설했다. 기록 자체는 많지 않으나 大都나 훌레구 울루스로부터 티베트로 보시가 왔을 때 대부분의 승려들이 티베트 땅에서 施主를 위해 기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걜와 린포체 톡둑빠는 훌레구의 보시를 받은 후 "왕자의 건강을 위하여, 억겁의 시간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선업을 위하여" 버터램프를 끊이지 않고 밝히고 기도하고 있다고 적었다.[41]

얼마 지나지 않아 토곤 테무르는 그를 다시 몽골 조정으로 초빙하였고 1337년 대도로 다시 온 그는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의 圓寂 직전 바얀(Bayan, 伯顔, d.1340)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한다. 까르마派 교단은 그의 轉世로 새로운 靈童을 선발했고 그의 법명은 룔빼 도르제(Rol pa'i rdo rje, 1340-1383)였다.[42] 그는 어릴 때부터 교단의 집중 교육을 받고 학식을 쌓아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으며 大都의 토곤 테무르는

를 초청했는데 그 역시 명대 사료에 "哈立麻" 등으로 적혀 있다.

38) 관련 내용은 康繼輝, p.35 참고.

39) 中村 淳 (2005)「元代チベット命令文の総合的研究にむけて」.『駒澤大学文学部紀要』vol. 63. p.37

40) "chos thams cad kyi stong pa nyid rtogs pa'i karma pa zhes pa'i mtshan gyi 'ja' sa gu shrI dam kha shel gyi sbel kha/ gser yig sgor mo phul/ bod rtsa ri gsar rnying du gser bre'i gnang sbyin dang/ nyid kyi zhal slob mdo khams kyi bla ma ting 'dzin bzang po dang/ mtshal dge sbyong chen po la si tu'i tham kha sogs skyes ma'i gnang sbyin phul (Tshal pa Kun dga' rdo rje, pp.102-103)"

41) Jampa Samten and Dan Martin, p.310.

42) 어린 룔빼 도르제는 3대 까르마빠 랑중 도르제의 모자 등을 정확히 알아보았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Tshal pa Kun dga' rdo rje, p.109; 蔡巴 貢噶多吉, 陳慶英, 周潤年 譯 (2002)『紅史』, 西藏人民出版社, p.89 참고.

그가 랑중 도르제의 轉世者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하며 그를 초청했다.

> 황제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고서, 초청하는 詔書('ja' sa), 대량의 供品, 티베트문 성지와 함께 보내는 선물로 금 1정, 은 3정, 각종 綢緞(gos dar) 3필씩을 주어 [선정]원의 관료인 딩주(ding ju) 院使와, 까르 사원의 주지 꾄촉 걜챈(dkon mchog rgyal mtshan)과 帝師의 사람인 쇠남 셰랍(bsod nams shes rab)을 닭 해에 가게 했다.[43]

轉世 개념이 티베트 불교에서도 아직 정착하기 전이었으므로 몽골인인 토곤 테무르로서는 뢸빼 도르제가 랑중 도르제의 환생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토곤 테무르에게 랑중 도르제는 즉위 이전부터 그의 곁에 있으면서 관정을 주고 설법한 스승이면서 의지처였고, 주변의 티베트 라마들도 그 轉世를 인정하였으므로 토곤 테무르는 서둘러 그를 大都로 초청했다. 그런데 이때는 14세기 중반으로, 티베트 자체도 팍모두派의 장춥 걜챈이 사꺄派와 챌派를 비롯한 주요 교파들을 압도하고 티베트를 장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카안 울루스도 이른바 홍건적의 난 등으로 어지러워 뢸빼 도르제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없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사자를 조정으로 보냈고 토곤 테무르는 다시 자신의 사신에게 금 1정과 은 3정, 주단(gos dar) 아홉 종 등을 주어 뢸빼 도르제에게 보냈다.[44] 뢸빼 도르제는 티베트를 출발하여 도매(mdo smad, 청해와 감숙 일부)에 도착하였으나 더 이동하지 못하고 다시 티베트로 귀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승려들이 몽골 황실의 부름에 응해 大都로 몰려들던 元代 초, 중반과 달리 元末에는 승려들이 大都行을 기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첫째 元 즉 카안 울루스 내의 정치적 혼란 때문이며 두 번째는 元代 중반까지는 보이지 않던, '大都로 가면 오래 못 산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사꺄派의 승려들도 역시 帝師에 임명하는 조서를 받고도 大都行을 미루는 모습이 보인다.[45] 뢸빼 도

---

43) "gong ma phyag thal mo sbyar/ spyan chab byon nas/ gdan 'dren gyi 'ja' sa snyan ngag chen mo bod yig ma/ rten gser bre gcig/ dngul bre gsum/ gos dar dgu tshan gsum dang bcas pa bskur nas dbon <gyis> [gyi] mi dpon ding ju dbon dpon dang/ kar sde'i sde dpon dkon mchog rgyal mtshan dang/ ti shrl'i mi bsod nams shes rab btang byung ba bya lo la phebs (Tshal pa Kun dga' rdo rje, p.111)"

44) 이때 토곤 테무르의 태자(tha'i tshe)도 은과 주단 등을 보냈다고 한다. 기록은 다음과 같다. "[랑중 도르제는] 걜충 하쭌(rgyal chung lha btshun)을 황제 父子의 어전으로 대단한 상주문을 주어 3월 22일에 보냈고 4월 16일에 궁에 도착했으며 18일에 알현했다. 차를 마시며 황제 부자의 금자사신 각각에게 황제가 금1정과 은 3정, 주단(gos dar) 아홉 종, 태자(tha'i tshe)가 은 3정, 주단(gos dar) 일곱 종, 술(chang), 라마 법왕의 鈔(cha'o) 50정 등을 주어 보냈다("rgyal chung lha btshun la/ gong ma yab sras kyi drung du zhu yig khyad 'phags bkur nas zla ba gsum pa'i nyer gnyis la song ba'i zla ba bzhi pa'i tshes bcu drug la pho bra"ng du sleb/ bco brgyad la mjal/ ja 'dren gong ma yab sras kyi gser yig pa re/ gong ma'i gser bre gcig dang/ dngul bre gsum/ gos dar cha dgu/ tha'i tshes dngul bre gsum/ gos dar cha bdun/ gsol chang/ bla ma chos rgyal ba'i cha'o bre lnga bcu dang bcas pa bskur nas/ (Tshal pa Kun dga' rdo rje, p.115)")

45) 기록상 元의 마지막 帝師인 사꺄派 쇠남 로되(Bla chen Bsod nams blo gros, d.1362)에게 1357년 토곤 테무르 카안의 사자가 이르러 쇠남 로되에게 대도로 갈 것을 반복하여 청하였다. 그런데도 그가 망설이자, 14세기 중반 사꺄派를 이기고 중앙티베트를 장악한 팍모두派 만호장 장춥 걜챈은 그에게 "황제의 명령이 분명하게 당신에게 '어서 와서 나의 帝師가 되시오(rang re la rti sri'i go sar mgyogs par byon)'라고 하고 있으니 황제의 명대로 가십시오!"라고 채근했다(Byang chub rgyal

르제가 여정을 취소하고 돌아갈 것을 우려한 카안은 조바심을 냈다.

> 황제가 "法主(룀빼 도르제)가 나를 생각하여 와서 도매(mdo smad)에 이르렀다. 도매에 와 있으나 사신들과 관료들이 일을 능히 못하니 티베트로 돌아가려 하는 듯하다. 보리심으로 이전에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나를 생각하여 속히 오시도록 청하여 셰랍(shes rab)을 보낸다."라고 하며, 대단한 供品과, 금 1정, 은 3정, 의복 내외 모두를 갖춘 것(gos phyi nang dgu tshan) 2습 등과 함께, 4월 1일에 티베트어 詔書에 "三寶의 가피로 도로와 역참이 모두 안정되었으니 속히 오기를 청합니다."라고 하고 쓴 것을 주어 [룀빼 도르제에게] 셰랍 院使(dbon dpon, 즉 宣政院使)를 파견했다.[46]

룀빼 도르제는 河州에서 8일간 기다렸는데 역참로가 모두 폐쇄되어 결국 6개월을 체류하게 된다. 도중에 멈추어 여름을 지낼 곳을 정하자 몽골 조정은 그에게 암말 100필과 젖소 50두, 그리고 여름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고 또한 시중 들 관리 3인을 보내 주었다. 룀빼 도르제는 마침내 1360년 12월 대도에 도착하였고 승상(ching sang) 등 관료들이 그를 마중 나왔다. 며칠 뒤 황제 부자를 알현하였고 황태자가 룀빼 도르제를 초청하여 금 1정을 바치고, 시중들던 나이든 게셰(dge bshes)들과 시종들에게도 각각 비단을 주었다. 다시 룀빼 도르제에게 대칸이 금 2정과 은 3정을 주었다. 이 때 시종 승려들에게도 여러 종류의 비단을 준 것은 룀빼 도르제를 모시고 대도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그들을 위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곤 테무르와 황족들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고 곧 룀빼 도르제는 돌아갈 것을 청했다.

> 겨울에 대도(ta'i tu)에 이르러 황제의 궁 뒤편(pho brang rgyab ma)에 머물렀고, 황제 부자 둘이 그를 이끌어 請法하였다. 그에게 시주로 금 가루 2정과 펼쳐진 금 1정을 바쳤다. ... 그때에 물이 다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룀빼 도르제는] 티베트로 돌아갈 것을 청하셨는데 황제 부자가 듣지 않았고, 특히 황태자(hong tha'i tshe)는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말 것을] 청하였다. 물에 적응하기 위하여 3년간 양주(byang ngos), 미냑 가(mi nyag 'ga'), 임조(shing kun) 등에 갔다. 그 후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황제 부자가 관정

---

mtshan. (1364/1989) *Ta si byang chub rgyal mtshan gyi bka' chems mthong ba don ldan*. Lhasa: Bod-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p.236). 쇠남 로되는 결국 다음 해 大都에 도착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한편 사꺄派 출신인 그가 大都行을 망설인 것은 이미 룀빼 도르제와 같은 까르마派 승려들이 그곳에서 대단한 존숭을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46) "chos rje ba nged la bsam nas byon nas mdo smad la phebs/ mdo smad du phebs 'dug na'ang/ gser yig pa dang mi dpon rnams go ma chod pa'i don gyis bod la byon pa yin las che/ byang chub kyi sems kyis sngar gyi smon lam rdzogs par byas pa dang/ nged la bsam nas mgyogs por byon byas nas/ gdan 'dren la shes rab btang ba yin zhes sogs bsnyen bsngags rgya chen po -118- dang/ gser bre gcig dngul gsum/ gos phyi nang/ dgu tshan gnyis dang bcas pa/ 'ja' sa bod yig ma na/ dkon mchog gi byin brlabs la lam dang/ 'jam thams cad 'jags yod pas myur bar 'byon par zhu zer ba zla ba bzhi pa'i tshes gcig la bris pa bskur nas shes rab dbon dpon mngags/ (Tshal pa Kun dga' rdo rje, pp.117-118)" 이전에 팍빠도 대도를 떠나 臨洮에 오래 머물다가 티베트로 갔다. 다만 팍빠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단지 티베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하여 대도를 떠났다. 팍빠의 臨洮行에 대하여는 최소영 (2021) p.166-168 참고.

을 청하였고, 그 보시로 금 3정과 각종 비단을 바쳤다.[47]

토곤 테무르는 륄빼 도르제를 초청할 때부터 그가 대도로 오는 길 중간에 멈출 때마다 금과 은, 비단 등을 보냈고 대도에 이르자 또 금을 바쳤으며 황제 부자가 관정을 받은 후에 또 금 3정과 비단을 바쳤다. 이 양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몽골 황실에서 3, 4대 까르마빠가 차지한 위치를 생각하면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팍빠 만큼은 아니지만 대칸 父子의 대단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전에 팍빠가 대규모 보시를 받았던 것은 쿠빌라이 시대의 번영이나 그의 佛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나, 단지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몽골 문자의 창제 등 그가 쿠빌라이의 조정에 준 정치적 도움도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 사꺄派 출신의 帝師들에 대하여 티베트 사료가 보시 관련 언급 없이 짧은 기록만 남기고 있는 것이 비교를 어렵게 하나 이들에게 물품 보시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역시 팍빠보다는 적은 양의 보시가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륄빼 도르제는 강력하게 요청하여 티베트로 돌아왔고 얼마 뒤 토곤 테무르는 明軍에 쫓겨 대도를 떠났다.

3. 보시 물품의 사용처

티베트 승려들이 그 많은 보시를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나 몇 개의 짧은 기사를 통해 그 일면을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앞에서 팍빠로부터 관정을 받은 차부이 카툰이 관정에 대한 보시로 "가장 아끼는 물건인, 혼인할 때 부모가 준 진주알(mu tig) 하나가 있는 귀걸이(rna rgyal)"를 바친 것을 보았는데, 사꺄派 측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을 한 몽골인이 금 1정(gser bre chen)과 은 1천 정에 샀다고 한다. 차부이가 바친 귀걸이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꺄 측 기록에 의하면 팍빠는 이 금과 은을 두 번째로 티베트에 돌아왔을 때 추믹(chu mig)이라는 곳에서 자신이 개최한 대규모 법회에서 쓰고, 또한 사꺄 사원의 金頂을 만드는 자금으로 썼다. 또한 경전을 금즙으로 필사하고, 사꺄 사원에 있는 사꺄 빤디따의 탑을 금으로 장식하였다.[48] 또 다른 기록에서도 역시 팍빠는 몽골인들로부터 받은 金을 경전을 金寫하는 데에 썼고 사꺄 사원에 이르러서는 가르침을 지키는 수많은 이들에게 나눠 주었으며, 특히 만 명의 승려들에게 모두 금을 나눠주었다고

47) "dgun ta'i tur byon gong ma pho brang rgyab mar bzhugs nas yab sras gnyis kas khrid gsan/ yon gser bsil ma bre gnyis/ ling ma bre gcig phul/ (Tshal pa Kun dga' rdo rje, ... skabs der chu cung zad ma 'phrod pa la bsnyad nas/ bod du 'byon pa'i zhu ba mdzad pas/ gong ma yab sras ma gsan/ khyad par du hong tha'i tshes spyan chab bton nas zhus pas/ chu snyom pa la lo gsum byang ngos/ mi nyag 'ga'/ shing kun sogs su byon/ de nas phyir 'byon pa'i chad mdzad/ gong ma yab sras kyis dbang zhus/ yon du gser bre gsum/ gos dar dgu tshan phul/ (Tshal pa Kun dga' rdo rje, pp.119-120)

48) "sog po gcig la btsongs pas gser bre chen gang dang/ dngul bre chen stong byung bas yar slebs/ gtsang chu mig gi chos 'khor dang sa skya'i gser thog chen mo'i gzhi byas zer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A myes zhab, p.153)"

말해지고 있다.[49] 몽골제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대규모의 보시를 받은 것이 팍빠이니 만큼, 그가 보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다.

> 요약하면, 매일매일 특별한 재물이 끊임없이 손에 들어오는 것들도 자신을 위해서는 깨알(til 'bru)만큼도 가지지 않고 三寶에 바쳤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엇이나 오로지 보시를 하니 그 때문에 풍족(dpal 'byor)하며 원만한(phun sum tshogs pa) 果를 막힘없이 소유하셨다. 전후(前後)로 석가모니 말씀을 모은 깡규르(bka' 'gyur) 역시 여섯 차례 先讀했는데 그로 인하여 보시로 얻은 금사(金寫) 경전 2천 1백 57 부를 비롯하여 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보시품도 역시 세첸 황제(즉 쿠빌라이)가 은(dngul) 1천 錠을 두 차례 보시하는 등 요약하면 보시 물품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겼다고 한다.[50]

물론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썼다고 해도 티베트 저작들이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팍빠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아서 사꺄派에 내놓은 재화는 장대한 사원을 건설하고 승려들이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財源이 되었고 사꺄派는 후에 팍모두派에 세력을 잃을 때까지 명실공히 티베트 최고의 교파로 군림할 수 있었다.

Ⅲ. 보시 물품 이동의 이면

카안 울루스 즉 元의 사료에는 티베트 관련 기록이 매우 적다. 明代에 편찬된『元史』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漢人 지식인들이 티베트와 티베트 불교를 잘 알지 못했고 관심이 크지 않았으며 또한 그나마 있는 지식은 부정적인 것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티베트인의 이름과 지명이 다수 등장하는 한문 사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몽골제국 운영의 근간이라고 불리는 역참을 다룬『站赤』이다. 기록의 내용은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며 이는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몽골 지배층이 티베트 승려에게 준 보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티베트 승려들이 받아서 돌아가는 보

49) "de tshe nyid kyi phyag tu longs spyod kyi dngos po bsam gyis mi khyab pa byung ba thams cad kyang/ bde bar gshegs pa'i bka' 'gyur mtshal gser las bzhengs pa dang/ ... khyad par gdan sa chen por phebs nas bstan 'dzin gyi skyes bu du ma la 'bul ba/ dge 'dun khri phrag du ma la gser zho re'i 'bul 'gyed la sogs pa zang zing gi sbyin pa rgya chen po mdzad cing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A myes zhab, p.212)"

50) "mdor na nyin re bzhin yang 'byor pa'i khyad par tshad med pa phyag tu babs pa rnams kyang rang don du til 'bru tsam yang mi 'dzin par dkon mchog gsum mchod pa dang/ phongs pa rnams la ci dgar sbyin pa 'ba' zhig mdzad pa yin la/ de'i dbang gis 'bras bus dpal 'byor phun sum tshogs pa yang tshad med pa mnga' ste/ snga phyir gsung rab bka' 'gyur yang tshar drug gis sna drangs pa'i mthun du grub par 'bul ba byung ba'i gser chos nyis stong dang brgya nga bdun gyis gtso byas grangs las 'das pa dang/ ang zing yang se chen rgyal pos dngul bre chen stong re can lan gnyis phul bar thog drang/ mdor na 'bul ba'i dngos po brjod par mi nus pa lta bu bsam gyis mi khyab pa byung bar grags so//(Ngag dbang Kun dga' bsod nams, A myes zhab, p.219)"

시 물품의 양이 대단히 많았고 말의 건강을 해치는 지경이 되자 元의 관료들은 말 한 필에 실을 수 있는 무게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 그달에 陝西行省이 말하기를: 諸 관부와 티베트 승려들의 給驛 횟수가 많고 싣는 물건의 무게도 매우 무겁습니다. 금후 鋪馬 지급과 長行馬의 사료를 남발하는 것을 금하고, 바치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만 출발지에서부터 그 무게를 재어 1백 근이 넘지 않게 하며 箚剌 내에 지나는 거처를 명확히 써서 탈탈화손이 따져 묻고 짐을 덜어낼 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51]

> "西蕃僧과 그 사신이 짐을 싣는 것이 무거운 때는 2, 3백 근이고 가벼워도 150 근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울락치 말의 등에도 물건을 더 실어 계속 달리게 합니다. 금후로는 탈탈화손과 站官이 말 한필 당 1백 근까지만 실을 수 있도록 양을 정하게 하고, 급한 용무가 아니면 역마로 달리지 않게 하기를 청하며 역참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중서성이 받아서 의견을 보내 관할 관청에 두루 보내 위 대로 시행하게 했다.[52]

그런데 이후 至大 원년(1308) 한 티베트 승려 집단이 규정을 어긴 것이 적발되었고 이 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황제가 파견한 西蕃 승려 사신 닥빠 뺄(乞剌思八班, Grags pa dpal) 등 6인이 처음에 鋪馬 11필을 타고 大都로 왔다가 지금 돌아가려 하는데 그 수가 3인 뿐인데도 원래의 鋪馬 수를 또 요구하였으나 兵部가 다만 8필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과중하게 짐을 싣고 갔고 涿州에 이르러 감찰에 걸려 조사를 받으니 각 말마다 170근씩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刑部에 보내 보고하여 67대를 맞게 되었는데 宣政院 官 암보(俺普)가 황제에게 "이 승려는 멀리서 왔으며 실은 물건들은 바로 폐하가 내리신 물건입니다. 그 때문에 과중한 것이니 청컨대 포마 3필을 늘려주시어 속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허락하는 성지를 받았습니다.[53]

암보는 暗普, 安普 등으로도 기록된 인물이며 성은 楊씨다. 그는 宋 황실 무덤 도굴로 유명한 양 린첸갭(Yang Rin chen skyabs, 楊璉真珈, fl. 1277-1292)[54]의 아들로, 1293년 宣政院使에 임명되었고 거의 20년을 몽골 조정의 佛事를 관장했다. 이

51) "是月陝西行省言: 諸官府及西僧給驛頻數 駄物太重, 今後請禁止濫給鋪馬及長行馬芻粟, 但有進呈物色, 自起程權其輕重, 不過百斤. 差劄內 明書經過去處. 許脫脫禾孫 盤詰減卸(永樂大典:站赤/永樂大典卷之一萬九千四百十九/二十二勘/站站赤四)."

52) "至大元年九月內, 御位下西番僧使駝駄, 重者二三百斤, 輕者不下百五十斤. 又兀剌赤馬後附物 常行馳驟. 今後 乞從脫脫禾孫及站官 量定每馬許載百斤. 非急務不得馳走. 庶望站赤少甦. 都省準擬, 遍行合屬, 依上施行(永樂大典:站赤/永樂大典卷之一萬九千四百二十四/二十二勘/站站赤九)."

53) "中書省又奏: 西番僧乞剌思八班等六人, 元起鋪馬十一匹赴都, 今欲回還, 止有三人, 復索元來馬數. 兵部止給八匹, 駝駄過重, 行至涿州 爲監察所劾. 每駄稱斤一百七十, 事下刑部詞伏, 擬杖六十七. 宣政院官俺普言于上曰: 是僧遠來, 所將囊橐, 乃上所賜物也, 以此過重, 請增鋪馬三匹, 速令回去. 奉旨準(永樂大典:站赤/永樂大典卷之一萬九千四百二十一 二十二勘/站站赤六)."

54) 璉真伽、楊輦真珈、楊璉真加 등으로 적힌다. 양 린첸갭은 서하 출신으로 보이며 티베트 불교의 승려이고 쿠빌라이의 財務 관료였던 桑哥는 물론 팍빠와도 매우 가까웠다. 린첸 갭은 총제원 산하 江南總攝掌釋教였고 그가 처형된 후에도 아들 암보는 권력을 유지했다. 서하 지역의 승려들은 혼인하여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전장 등에는 河西僧의 帶妻 관련 기사가 여럿 등장한다.

기사는 티베트 승려들이 말 한필 당 100근 만 실으라는 규정을 어겨 매를 맞게 되자 그가 대칸에게 “이 물품은 다 폐하가 주신 것”이라며 벌을 주는 것을 막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졌고 닥빠 뺄을 비롯한 승려들은 자신들의 원래 요구대로 말 11필을 받아 짐을 싣고 티베트로 돌아갔다. 이 기사는 티베트 승려들의 大都 방문이 모두 대칸을 비롯한 몽골 지배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역참 남용과 규칙 위반 문제 개선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른 기사도 역시 “西僧의 사신 레빠 뺄 등이 마필 車兩을 여럿 빌리고 鈔 등을 요구하며 站官을 때리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지대 원년(1308) 11월25일 대칸의 명령으로 조서가 내려 사면되어 풀려났다.”고 적고 있다.

즉 승려들에 대한 보시 물품의 양이나 액수가 몽골의 재정에 문제가 될 만큼 컸던 것은 물론, 이를 티베트까지 운송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국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이는 까귀파의 또다른 종파인 둑빠 까귀 출신의 우걘빠 린첸 뺄(U rgyan pa Rin chen dpal. 1230-1309)[55]에 대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우걘빠는 통풍을 앓던 쿠빌라이로부터 몇 번이나 초청을 받았으나 번번이 이를 거절하다가 협박에 가까운 초청을 반복적으로 받자 그는 할 수없이 大都로 가 쿠빌라이를 치료하고 說法을 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에 대해 쿠빌라이는 수레에 많은 金錠과 銀錠 외에 무수한 재물을 싣고 그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자 이를 본 조정의 관리들이 “그 많은 물품을 역참으로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탄식했다고 한다. 이에 우걘빠는 “나는 재물을 탐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며, 또한 필요하다면 나의 지식으로 금과 은을 만들어 쓰면 된다.”고 말하고 ‘쇠를 황금으로 만들고, 朱錫(gsha’ tshe)를 은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는 大都에 한 달 반 정도만 머물고 쿠빌라이가 준 모든 보시 물품을 두고 떠나 버렸다.[56] 우걘빠에게 준 金銀 등 재물에 대해 관료들이 운반 문제를 먼저 걱정한 것은 당시 역참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57]

---

55) 우걘빠 둡톱 린포체(U rgyan pa Grub-thob Rin po che)라고도 불린다. 우걘빠란 우걘, 즉 빠드마삼바바의 탄생지라고 여겨지는 우디야냐(스와트 밸리 지역)에 다녀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는 우디야나로 가는 여정 중에 카쉬미르에서 훌레구의 사원을 본 것과 또한 많은 몽골인을 만난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또한 중앙티베트를 침략해 온 몽골군을 기도의 힘으로 물리친 적이 있다고 하며 이는 까귀파 승려들의 전기에서 나타나는 몽골 침입에 대한 모습이다. 관련 내용은 최소영 (2018) 「13~14세기 몽골의 침입과 지배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인식」, 『중앙아시아연구』, 23-1. pp.74-75 참고.

56) 우걘빠는 토번 제국 시기 빠드마삼바바가 만든 생명수(tshe chu) 우물이라는 곳을 알고 있다고 여겨졌고 쿠빌라이는 몇 차례에 걸쳐 그에게 桑哥, 진서무정왕 등을 보내 생명수를 가지고 조정으로 올 것을 요구했다. 그는 마침내 몽골인에게 가라는 예언을 듣고 대도로 길을 떠난 것이었다. 우걘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Brenda W. L. Li, “Critical Study of the Life of the 13th-Century Tibetan Monk U rgyan pa Rin chen dpal Based on his Biographies,”(Doctoral Dissertation, Wolfson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2011); Roberto Vitali (2012) "Grub chen U rgyan pa and the Mongols of China", edited by Roberto Vitali, *Studies on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ibet and the Himalayas* , Kathmandu: Vajra. pp.31-64 참고.

57) 한편 우걘빠가 보시 거절의 이유로 첫째, 자신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으며 둘째, 금,은이 필요하면 직접 만들어 쓰면 된다고 한 것은 흥미롭다. 물론 이 기사가 우걘빠의 전기에 실린 것이고 내용을 믿기는 어려우나 쿠빌라이가 우걘빠를 불러오려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현대의 과학적인 의심과는 별개로, 당시 그에게 이런 종류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훌레구 울루스에서도 아르군이 연금술사들을 불러들여 엄청난 재화를 들여 여러 가지 실험을 했으나 실패한 기록이 있다(김호동 역주, 라시드 앗딘 (2018) 『일칸들의 역사』, 사계절, p.316).

또한 티베트 승려들과 역참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었던 듯 4대 까르마빠 뢸빼 도르제는 大都로 가는 길에 역참 이용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

> 대칸의 사자가 울락('u lags),[58] 乘畜을 징집할 것을 요구하자 그(뢸빼 도르제)는 "생명에 危害를 끼칠 수 없습니다. 당신들 역시 울락의 馱畜을 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이후 그들은 짐 싣는 동물이나 타는 말을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끌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이로 인해 역참의 참호('ja' mo ba)들은 매우 기뻐하였다.[59]

그러나 역참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大都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이용하고 싶어도 역참이 제국 내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폐쇄되는 바람에 역로가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뢸빼 도르제는 처음에 자신의 말을 타고 이동하였는지 모르나 결국 역참과 역로를 이용했고 그 길이 막히자 꼼짝없이 한 지역에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기사는 그가 "河州(ga chu)에 8일간 머물면서 산 중턱에 세운 사원 부근에 왕자 최뺄(chos dpal)이 세운 천막에 머물렀다. 이때 반란이 일어나 모든 역참('ja' mo)이 차단되었고 그는 수도로 가는 길에 나서서 간다 해도 장애가 생길 것을 보고, 나서지 않고 그 곳에서 6개월을 체류하였다."고 적고 있다. 더구나 그가 이끌고 가는 隨從은 5백여 명이나 되었고 그들이 먹는 것은 모두 行院 즉 行宣政院이 공급하였다.[60]

이는 漢地 역참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당연히 티베트 현지의 역참들도 고통을 받았고 그 역시 대부분 티베트 승려들이 몽골 지배층으로부터 받아오는 보시 때문이었다. 1296년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도캄 위짱 등 역참은 ... 중서성이 역시 일찍이 말과 소를 살 寶鈔를 내렸고 관리를 파견하여 진제하였습니다. 지금 위짱 등은 소참 7곳은 물론 대참 28곳도 西蕃의 보시를 운송하고 파견되는 사신을 운송하는 것이 실로 잦으며 人戶 수는 적고 역 간 거리는 가까워도 3, 5백리 이상입니다.[61]

따라서 티베트 역참의 참호들도 종종 몽골 조정의 賑濟 대상이 되었다. 일부 티베트 기록들은, 『元史』「奸臣傳」에 입전된 桑哥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

58) 투르크어 울라가(ulaγa)에서 온 말로, '驛馬'를 뜻하나 티베트 사료에서는 역참 관련 여러 노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59) "gser yig pas 'u lags chibs pa zhus pas/ sems can la gnod 'tshe mi byed/ khyod rang tsho'ang 'u lag ma zhon gsung nas/ khal bzhon rnams nang ans btang nas khrid/ 'ja' mo ba rnams shin tu dga' (Tshal pa Kun dga' rdo rje, p.112/ p.92)

60)" ga chur zhag brgyad bzhugs nas la bar gyi lha khang du rgyal bu chos dpal gyis mdzad par nye ba'i sgar la bzhugs gong 'khrug/ 'ja' mo thams cad chad pa'i don gyis gong du lam la thon pa'am byon na bar chad 'byung bar mkhyen nas ma byon par zla drug gi bar du sa cha de rnams su bzhugs/ sku 'khor lnga brgya tsam re bzhugs pa la hing dben pa'i rgyugs sprad (Tshal pa Kun dga' rdo rje, p.115/ p95

61) "今烏思藏等, 除小站七所勿論 其大站二十八處, 遞送西番布施 來往之使實繁. 人戶數少. 驛程近者不下三五百里(永樂大典:站赤/永樂大典卷之一萬九千四百二十一/二十二勘/站站赤六)."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티베트에 와서 역참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었다.[62]

結論

티베트는 7세기에서 9세기까지 이어진 토번 제국 시기는 물론, 그 이후 수백 년간 이어진 이른바 '분열기'에도 불교를 배우기 위해 인도, 카쉬미르, 중국 등지에서 저명한 스승들을 초청했고 이를 위해 막대한 금을 썼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구게(gu ge) 왕국의 왕 라라마 예셰 외(Lha bla ma ye shes 'od, c. 959-1040)가 왕위를 양위하고 출가하였는데, 당시 티베트에 불교를 올바로 가르쳐 줄 스승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는 대학자 조오제 아띠샤(Jo bo rje Atiśa, 982-1054)를 인도에서 초빙해오기 위하여 금을 모으러 다녔는데 그만 적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몸무게만큼의 금을 내놓아야 풀어주겠다는 말을 들은 라라마 예셰 외는 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금을 써봐야 有情들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으니 그 금을 아띠샤 스승을 초대하는 데에 쓰라고 했다. 왕국의 사람들은 슬퍼하며 금을 더 모아 마침내 아띠샤를 모셔 왔고 그로부터 많은 티베트인 제자들이 생겼다.[63]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일화에 가까울 것이나 티베트인들이 멀리서 티베트 고원까지 불교의 스승을 모셔오기 위해 써야 했던 막대한 재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인도 불교가 쇠퇴하고 티베트인들이 여러 불교 지역에서 스승을 모셔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12세기경에는 이제 티베트가 동부 유라시아에서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다.[64] 탕구트인들은 河西 지역을 중심으로 大夏(즉 西夏)를 세우고 불교를 존숭하였는데 티베트 승려들을 조정에 모셔다 帝師로 삼았다. 칭기스 칸의 몽골군에 서하 왕국이 위태로울 때도 그곳에 머물던 티베트 승려들이 마하칼라(Mahākāla, 大黑天) 護法神을 불러 침략을 막았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西夏와 티베트를 모두 장악한 몽골은 서하의 帝師 제도를 이어받아 티베트 승려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였고, 그때까지 중국을 차지한 어떤 왕조보다 불교를 깊이 신봉했다. 이제 티베트인들은 서하에 이어 몽골인들로부터 스승으로 받들어지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62) 티베트 역참 관련 내용은 최소영 (2019)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5세기 티베트 저작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譯註와 연구」 pp.345-365 참고.

63) 관련 내용은 최소영 (2019) pp.211-213 참고. 아띠샤의 제자들은 한 교파를 이루었고 까담派(Bka' gdams pa)라고 불린다. 겔룩파는 까담파와 관계가 깊어 성립 초반 新 까담派로 불렸다.

64) 13세기 한 티베트 지도는, 이전에 인도를 중앙에 두고 자신들을 변방에 놓던 방식에서 벗어나, 티베트를 지도의 한 가운데 놓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서하-몽골로 이어지는 티베트 불교 시주 집단의 등장으로 인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Dan Martin (1992) 'Tibet at the Center: A Historical Study of Some Tibetan Geographical Conceptions Based on Two Types of Country-Lists Found in Bon Histories.' Per Kvaerne (ed) *Tibetan Studies. Proceedings of the 6th Seminar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betan Studies*, FAGERNES, Vol. 1. Oslo, Norway: The Institute for Comparative Research in Human Culture. p.532; Kuijp Leonard Van der Kuijp (2004) *The Kālacakra and the Patronage of Tibetan Buddhism by the Mongol Imperial Family* Bloomington: Department of Central Eurasian Studies, Indiana University. p.54.

보시를 받아 티베트로 가지고 왔다. 처음에 지팡이, 袈裟나 신발 등이었던 몽골인들의 보시는 몽골 지배층이 전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숭상하게 되면서 금, 은, 비단으로 바뀌었다. 이 보시 물품들은 몽골 대칸이 제왕, 공주, 부마들에게 대 쿠릴타이에서 하사하던 것과 동일하며 품목 뿐 아니라 물품의 양과 가치도 대단히 높아졌다. 특히 쿠빌라이의 帝師 팍빠 로되 갤챈은 몽골제국 시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존경받은 승려였으며 그는 한 번에 수만 필에 이르는 비단을 받기도 했다.

티베트 승려들을 존숭하고 보시를 한 몽골 집단은 카안 울루스 뿐만이 아니었다. 형제들과 함께 북중국의 선불교 승려에게 관심을 가졌던 훌레구는 뭉케 시기 西征을 떠나 페르시아에 정착한 뒤에도 동쪽의 자신의 형제들과 종교를 공유했고 자신에게 분봉된 팍모두派의 座主와 시주-법주 관계를 맺었다. 그가 한동안 북중국의 禪佛敎와 티베트 불교 팍모두派를 나란히 신봉했던 것은 양쪽에 각각 보낸 조서와 금 지팡이 기록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보시를 보내는 한편 구체적인 불교 수행방법을 청하였다. 불교에 대한 그의 신심은 이후 그의 계승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져 전해졌다. 가잔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기 전까지, 혹은 개종한 후에도, 훌레구 울루스에는 티베트 승려들이 남아 있었다. 티베트의 기록은 아바카 즉위 초 훌레구의 이름으로 팍모두派에게 백만 스물 한가지의 보시 물품이 왔다고 적고 있다. 훌레구가 보낸 이러한 보시를 바탕으로 팍모두派는 세속 권력도 키울 수 있었고 후에 사꺄派로부터 강제로 빼앗기기 전까지는 중앙 티베트내에서 휘하의 民戶 수도 가장 많이 보유한 교파로 존재했다.[65]

몽골 조정에서 다수의 티베트 승려를 동원하여 빈번하게 시행한 대규모 佛事 후에도 승려들에게 보시가 있었을 것이나 대부분 상세한 품목과 양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티베트로 들어간 물자의 양은 대단히 많은 양이었을 것이다. 元代 張養浩가 『上時政書』에서 "천하의 經費를 셋으로 나누면 승려가 그 중 둘은 차지한다."[66]고 적은 것이 과장만은 아닌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승려의 설법이나 관정, 佛事에 대한 물자 제공이 아니면 다루지 않았는데 티베트 만호장들이 받은 금, 은, 비단 등 재화의 양도 상당했다. 몽골제국 시기 중앙티베트는 13개 만호로 나뉘었는데 각 만호장은 帝師가 추천하여 대칸이 승인하면 취임할 수 있었는데, 쿠빌라이에게 분봉되어 그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던 챌派는 만호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쿠빌라이로부터 銀錠과 비단 등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 챌派의 한 기록은 만호장 가데 뺄(Dga' bde dpal)에 대해 기록하면서 "욕망하는 모든 물질적인 향유물들이 비처럼 내렸다."고 적었다[67] 챌派는 이를 받아 몽골 대칸들의 影堂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티베트인들이 13세기에 자신들을 중심에 둔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

65) 관련 내용은 최소영 (2010) pp.24-26 참고.

66) 康繼輝, p.24; 王淼, p.50

67) "'dod rgu'i longs spyod char bzhin du babs ('Jog ri ba Ngag dbang bstan 'dzin 'phrin las rnam rgyal), *Gung thang dpal gyi gtsug lag khang byung rabs dang bcas pa'i dkar chag 'gro mgon zhal lung bdud rtsi'i chu rgyun*, Tshal gung thang dgon, 34r)"

한편 대규모 물품을 몽골의 수도 大都에서 티베트까지 운송하는 것은 몽골제국 운영의 근간인 제도 중 하나인 역참에 큰 부담을 주었다. 역참 관련 사료들은 권력자들의 역참 남용에 대한 기록을 다수 남겼는데 제왕, 부마 등보다 티베트 승려들이 더 자주 언급되는 결과를 낳았다. 승려들의 大都 방문 횟수와 방문단 규모도 문제였으나 그들이 받아서 티베트로 돌아간 보시 물품의 운송이 더 큰 문제였다. 그러나 티베트 승려들을 관할하는 기관인 宣政院은 티베트 승려들의 위법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자 했고 이들의 방문 자체가 대칸을 비롯한 몽골 황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한 연구는 몽골제국을 떠받친 제도 중 가장 칭송을 받는 역참 제도의 해체와 쇠락에 대해 西番 使臣과 僧人의 鋪馬 이용이 가장 문제였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대칸의 총애와 신임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68]

결론적으로,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는 동부 유라시아 세계의 불교 스승이 되었고 몽골 지배층으로부터 막대한 보시물품으로 사원을 새로 짓고 불탑을 세우고 지붕을 장식하였으며, 대량의 경전을 金寫하고 승려들을 후원하였다. 몽골의 후원으로 이 시기 티베트 불교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몽골제국 이후 티베트와 외부 세력 간의 관계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나 이때 맺어진, 외부 세력이 티베트 불교 교파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티베트 불교는 그들에게 종교적 이념을 제공하는 이른바 시주-법주 관계는 티베트 정치 체제의 기본 틀이 되었다. 이때 몽골인이 티베트 승려들에게 바친 보시 물품의 면면과 그 운송 문제에 대한 이 고찰이 몽골과 티베트 관계를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하는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차 사료】

Byang chub rgyal mtshan. (1364/ 1974) Lha rigs rlangs kyi rnam thar, A detailed account of the "Rlangs po ti bse ru" and the "Si tu'i bka' chems" of Si-tu Byang-chub-rgyal-tshan, T. Tsepal Taikhang, New Delhi.

Byang chub rgyal mtshan, Rlangs kyi po ti se ru rgyas pa, 1364, Lhasa: Bod 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1986.

Byang chub rgyal mtshan. (1364/1989) Ta si byang chub rgyal mtshan gyi bka' chems mthong ba don ldan. Lhasa: Bod-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1454/1979)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Kunsang Topgyel and Mani Dorji ed.) Thim-phu, Bhutan. Two volumes.

達倉宗巴·班覺桑布, 陳慶英 譯.『漢藏史集』, 西藏人民出版社, 1999.

68) 党寶海 (2006)『蒙元驛站交通研究』, 崑崙出版社, pp.242~243; 설배환 (2016)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 논문.「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 p.288.

Dpa' bo gtsug lag phreng ba, (1566/ 1986) Dam pa'i chos kyi 'khor lo bsgyur ba rnams kyi byung ba gsal bar byed pa mkhas pa'i dga' ston, vol. 1, 2. Mi rig dpe skrun khang.

巴卧·祖拉陳瓦 著 黃顯 黃顯, 周潤年 譯註 (2017)『賢者喜宴』西寧: 青海人民出版社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 'i me long, 2 volumes, (Kunsang Topgyel and Mani Dorji ed., Thim-phu, Bhutan: 1979).

達倉宗巴·班覺桑布, 陳慶英 譯.『漢藏史集』, 西藏人民出版社, 1999.

'Jog ri ba Ngag dbang bstan 'dzin 'phrin las rnam rgyal), *Gung thang dpal gyi gtsug lag khang byung rabs dang bcas pa'i dkar chag 'gro mgon zhal lung bdud rtsi'i chu rgyun*, Tshal gung thang dgon.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A myes zhab, Dzam gling byang phyogs kyi Thub pa '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 '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 '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 'i bang mdzod dgos 'dod kun ' byung (Sa skya gdung rabs chen mo), 1629, Mi rigs dpe skrun khang, Beijing, 1986.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A myes zhab, Dpal Rdo rje Nag po chen po 'i zab mo 'i chos skor rnams byung ba 'i-tshul-legs-par bshad pa bstan srung chos kun gsal ba 'i nyin byed [1641]: A detailed historical account of the Mahākāla traditions in India and Tibet, T. G. Dhongthog ed., 2 vols., New Delhi, 1979

Spyan snga ba Rin chen ldan, The Collected Works (Gsung-'bum) of Yang-dgon-pa Rgyal-mtshan-dpal, Reproduction of three volumes of the writings of the Stod 'Brug-pa Dkar-brgyud-pa master from Rta-mgo Monastery in Bhutan, Volume 1. 1982.

Spyan snga rgyal ba thog brdugs pa. Spyan snga rgyal ba thog brdugs pa'i bka' 'bum las springs yig dang zhal gdams. In 'Bri gung bka' brgyud chos mdzod chen mo, vol. 43, 135-238.

Tshal-pa Kun-dga' rdo-rje, Deb-ther dmar-po, Beijing: Mi rigs dpe skrun khang, 1346/ 1981.

Tshal pa Kun dga' rdo rje, (1363/ 1961) Deb ther dmar po, Gangtok: Namgyal Institute of Tibetology.

蔡巴 貢噶多吉, 陳慶英, 周潤年 譯, (2002)『紅史』, 西藏人民出版社.

Jami' u't-tawarikh [sic]. (1998) Compendium of Chronicles. Translated by Wheeler M. Thackston. Cambridge, MA: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Harvard University,

Rashīd al-Dīn Fazl Allah Hamadānī. (1994) [1300-1310]: Jāmi'' al-Tawārīkh. Edited by Muhammad Rūshan and Muṣṭafī Mūsavī. Teherān: Katībe.

라시드 앗 딘, 김호동 역주, (2002)『부족지』, 사계절.

라시드 앗 딘, 김호동 역주, (2003)『칭기스칸기』, 사계절.

라시드 앗 딘, 김호동 역주, (2005)『칸의 후예들』, 사계절.

라시드 앗 딘, 김호동 역주, (2018)『일칸들의 역사』, 사계절.

(明) 權衡,『庚申外史』, 온라인판

https://zh.wikisource.org/wiki/%E5%BA%9A%E7%94%B3%E5%A4%96%E5%8F%B2/%E5%8D%B7%E4%B8%8A
釋念常 (1341/1988)『佛祖歷代通載』,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宋濂 外 (1370/1976)『元史』, 北京: 中華書局.
文殿閣書莊印行,『站赤』(『永樂大典』所收) 上下.

【연구서와 논문】

설배환 (2016)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 논문.「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
최소영 (2010)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 논문,「13세기 후반 티베트와 훌레구 울루스」.
최소영 (2012)「13세기 후반 티베트와 훌레구 울루스」,『중앙아시아연구』17-1. 27-47.
최소영 (2018)「13~14세기 몽골의 침입과 지배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인식」,『중앙아시아연구』, 23-1. 67-99.
최소영 (2019) 「15세기 티베트 저작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譯註와 연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최소영 (2021)「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동양사학연구』155. 127-200.

康繼輝 (2012)「蒙元王朝的物質賞賜研究」, 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党寶海 (2006)『蒙元驛站交通研究』, 崑崙出版社,
山本明志 (2008)「モンゴル時代におけるチベット·漢地間の交通と站赤」 『東洋史研究』67-2, pp.96~112.
王启龍 (2002)「藏傳佛教對元代經濟的影响」.『中國藏學』. 2002-01, 63-85.
王淼 (2014)「蒙元王朝賜賚制度探析」 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張雲 (2000)「元代西藏"止貢之變"及相關問題考釋」,『中國藏學』, 2000-3, pp.38-50
中村淳 (2005)「元代チベット命令文の総合的研究にむけて」.『駒澤大学文学部紀要』 vol. 63. pp.35-56.

Kalsang Norbu Gurung. (2018) "The Value of Tibetan Money: A Study of the Use of Srang in Late 19th Century Tibet" Alice Travers and Jeannine Bischoff (eds). Commerce and Communities: Social Status and the Exchange of Goods in Tibetan Societies (the mid-17th – the mid-20th Centuries). Berlin: Bonner Asienstudien, EB-Verlag, 223-270.
Karsten, Joachim. (2008) 'When silk was gold' in the Land of Snows: a preliminary Tibetan-English "pictorial" glossary of textile terms related to silken fabrics from Tibet (13th to 20th centuries); with Chinese, Manchu, Mongol and Uigur equivalents from the 1770s. 미완성 원고. academia. edu.
Li,, Brenda W. L. (2011) " Critical Study of the Life of the 13th-Century Tibetan Monk U rgyan pa Rin chen dpal Based on his Biographies,"(Doctoral Dissertation, Wolfson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Martin, Dan. (1992) 'Tibet at the Center: A Historical Study of Some Tibetan Geographical Conceptions Based on Two Types of Country-Lists Found in Bon Histories.' Per Kvaerne (ed) *Tibetan Studies. Proceedings of the 6th Seminar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betan Studies, FAGERNES, Vol. 1. Oslo, Norway: The Institute for Comparative Research in Human Culture. 517-532.

Samten, Jampa and Martin, Dan, (2014) "Letters to the Khans, Six Tibetan Epistles of Togdugpa Addressed to the Mongol Rulers Hulegu and Khubilai, as well as to the Tibetan Lama Pagpa" Roberto Vitali ed., Trails of the Tibetan Tradition- Papers for Elliot Sperling, Dharamsāla, India: Amnye Machen Institute. 297-331.

Schuh, Dieter. (1977). Erlasse und Sendschreiben mongolischer Herrscher für tibetische Geistliche: E. Beitrag zur Kenntnis der urkunden des tibetischen Mittelalters u. ihrer Diplomatik. Monumenta Tibetica historica 3.

Vitali, Roberto. (2012) "Grub chen U rgyan pa and the Mongols of China", edited by Roberto Vitali, Studies on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ibet and the Himalayas, Kathmandu: Vajra. 31-64.

여 백

【토론문 3】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 물품과 운송 문제」에 대한 토론문

조원희(한국학중앙연구원)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소영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2년 전, 안타깝게도 작고하신 데이비드 모건 (David Morgan)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에서 개최된 유목민 관련 학술대회에서 모건 선생님께서는 "1985년 이후로 몽골사 연구에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문화사의 대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쿠릴타이라고 문화 현상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내신 설배환 선생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막상 연구자들이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늘 막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료"의 부족입니다. 실제로 2006년에 학술대회에서 모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사의 대두"가 9년 후 2015년 편저로 나올 때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문화사 연구의 어려움 혹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같은 시기 연구자로서 익숙한 제도, 행정, 인물 중심의 연구보다는 물질 혹은 문화를 주제로 연구를 하기에 어려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영 선생님께서는 오늘 발표에서 보셨듯이 "보시"라고 하는 불교 문화 혹은 물질의 교류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 제3장 "보시 물품 이동의 이면"에서 지적해주셨던 한문 사료, 구체적으로 역참에 대한 기록이 모아진 자료, 『참적(站赤)』의 분석에서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 즉 행정 문서 위주의 한문 사료에서는 "보시 물품의 무게가 이만큼 되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로 기록되는 반면, 카안의 물품을 직접 하사받은 티베트 측의 자료에서 보시 물품의 종류와 양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직접 읽고 상세한 소개와 분석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티베트 사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가능하다는 점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이상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토론자가 발표자가 정성스럽게 번역한 원문의 내용도 꼼꼼히 분석을 해주고, 나아가 티베트어 사료에 있는 다른 예시 등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제들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어 실력이 부족하여 그러지 못하는 것은 본 토론자의 부족함이고, 그러한 희귀 언어인 티베트어 사료를 직접 보시는 발표자 최소영 선생님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도 학생들과 같이 티베트어 스터디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속 세대 연구자들의 역량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의 몽골사 연구에 있어서 티베트어가 "희귀 언어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발표자의 내용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며, 따라서 이하의 질문 두 가지는 발표자의 생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번역해주신 사료에서 있지만, 분명히 한문 사료에서는 布施, 그리고 번역하신 사료에 따르면 티베트어 dbang yon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라고 기록 혹은 인지된, 몽골의 군주들이 티베트 불승들에게 제공한 물질적인 지원을 불교적인 "보시"를 넘어 다른 방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몽골 제국의 카안/칸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국의 협력자들 혹은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상인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시혜를 베푼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몽골 군주들의 관대한 성격을 유목 사회의 구조와 연결해서 보는 예도 있으며, 나아가 이른바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조공무역"이라는 말로 알려지듯이 정치적으로 우세인 측에서 자신의 우인인 명분을 위해서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발표자께서 이미 밝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더 거시적인 분석, 혹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발표자께서 쿠빌라이가 팍빠에게 준 보시 물품을 말씀하시면서 제시해주신 비단의 양이 4만 필이었는데, 단순히 "많다"는 양을 넘어 그것을 과거 당-토번 제국 관계에서 비교되었던 비단 5만 필의 양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또한 "까르마파의 부활"에서는 보시 물품의 양을 통해서 샤까파의 상대적 몰락과 까르마파의 대두를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개별적인 예시를 넘어, 발표자가 파악하신 예시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조금 더 큰 틀에서 분석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보시의 양을 통해서 몽골 – 티베트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른바 "퍼주기" – 가장 단순하게는 카안이 제왕들에게 주었던 이른바 "세사" 등이 생각납니다 – 형태와 비교를 할 때 어떤 특

징이 혹시 보이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여 백

제2부

【제4발표】

몽골 원제국 시기 고려로 들어온 외국의 직물들
- 세 가지 주요 장면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들어가며
1장. 첫 번째 장면: 충선왕이 선물로 받은 인도산 직물
2장. 두 번째 장면: 충숙왕대 '외제 수건'의 유통
3장. 세 번째 장면: 충혜왕대 아랍 직물의 유입 가능성
4장. 네 번째 장면: 고려의 새로운 직물 생산 및 수출
나가며

【제4발표】

몽골 원제국 시기 고려로 들어온 외국의 직물들 *
- 세 가지 주요 장면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들어가며

13-14세기 몽골 원제국을 매개로 고려와 중국, 고려와 서역 간에 활발한 교류가 진행됐음은 이제 주지의 사실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개별 품목들의 동향에 대한 검토가 왕성하게 진행되는 중이다. 본 발표에서는 '직물', 특히 중국산 직물 '이외의' 직물에 주목해 보았는데, 고려 전·중기의 경우 비중국 해외산 직물이 한반도에 유입된 바가 거의 없었던 반면 후기인 13~14세기에는 다수의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먼저 해외직물의 유입상을 세 시점을 배경으로 살펴본 후, 그것이 고려의 직물 생산 및 수출 정책에 끼친 영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장. 첫 번째 장면: 충선왕이 선물로 받은 인도산 직물

『고려사』의 1298년 6월 기록에서는 흥미로운 기사가 발견된다. 인도 마아바르국(Mabaar)의 왕자 패합리(孛哈里, 불아리[不阿里], Beihaili)가 사신을 보내와 충선왕에게 은사모(銀絲帽)와 금수수박(金繡手箔), 침향(沈香), 그리고 토산 직물 2필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1)]

기록에 등장하는 "마아바르(Mabaar)"는 13-14세기 인도 동남부 Coromandel 해안에 소재했던 유명한 무역거점이다. 원제국과도 활발히 교류하였다. 또 위 기사의 주인공인 "패합리(孛哈里)"는 비록 '왕자'로 표현돼 있긴 하지만 실은 마아바르국 고위 재상의 아들이었다.[2)]

그의 중국행은 실상 일종의 망명이었는데, 주군(Mabaar의 술탄)과의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원 황제 쿠빌라이는 동남아시아 초유의 일환으로

---

* 현재 집필 중인 저서의 일부분입니다. 인용하지 말아주십시오.

1) 『高麗史』 卷33, 世家33 忠宣王卽位年(1298) 6月 乙丑, "馬八國王子孛哈里遣使來獻銀絲帽, 金繡手箔, 沈香五斤十三兩, 土布二匹. 先是, 王以蔡仁揆女歸丞相桑哥, 桑哥誅, 帝以蔡氏賜孛哈里. 孛哈里與其國王有隙, 奔于元, 居泉州, 至是以蔡氏故遣使通之."

2) 陳高華, 1980 「印度馬八兀王子孛哈里來華新考」 南京大學學振[1980/3]

여러 주요 해상거점들에 사신을 파견했고, 인도 각 지역 또한 원 사신들의 방문 대상지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마아바르의 지도자는 몽골사신들과의 교섭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에 여러 신료들이 오히려 몽골 사신을 몰래 찾아와 왕의 그러한 입장을 누설하곤 했으며, 일부는 그에 그치지 않고 원제국으로 망명하기까지 했으니, Beihaili도 그 중 하나였던 것 같다.[3)]

그런 Beihaili가 고려에 접촉해 온 것은 인도지역 인사가 고려에 오거나 고려왕을 예방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에 해당하며, 그 배경 또한 이미 어느 정도 해명돼 있다. 성종 테무르가 1296년 민간업자들의 인도 등지 왕래를 금지하자 중국상인들과 마아바르 간 관계가 단절에 가까운 상태로 몰렸고, 중국과의 교역이 갑자기 정부 창구로 좁혀지자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무역 손실을 보게 된 마아바르측 상인들이 상황 타개를 위해 자구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마아바르 출신으로 원제국에 체재하던 현지출신자들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1280년대 천주(泉州) 지역에 존재한 인도인 공동체의 일원이던[4)] Beihaili도 그 중 하나였던 셈이다. 그의 고려왕 접촉은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중국내 인도인 공동체와 고려 한반도 간에 사전 교류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Beihaili의 고려왕 접촉에는 일정한 계기나 매개가 분명 필요하였다. 이에 Beihaili가 일찍이 천주에 정착한 후 혼인했던 고려의 여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과거 원제국 승상 셍게(Senghe, 桑哥)와 혼인했던 고려 관료 채인규의 딸이 셍게가 숙청된 후(1291) 원 황제의 명령으로 Beihaili와 재혼했었던 터라,[5)] Beihaili는 그녀를 교량 삼아 고려왕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Beihaili의 충선왕 접촉은, 향후 원제국정부의 무역정책이 다시 변할 경우에 대비해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미리 맺어 두고자 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여러 고급 직물을 충선왕에게 진상한 것도 그 때문이라 할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 실체는 모두 미상이다. '은사모'의 경우 은실로 장식한 모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바탕 직물은 알 수 없고, '금수수박' 역시 인도산 고급 직물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실체를 파악할 근거자료가 전무하다.[6)] '토포' 역시 마찬가지다. 아름다운 고급

---

3) 이강한, 2013『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창비

4) John Guy, *Indian Textiles in the East-From Southeast Asia to Japan,* Thames and Hudson, 1998. Chapter 8. China. p.154. "The presence of a strong Indian community in Quanzhou is confirmed by a Tamil Chinese bilingual inscription of April, 1281 recording the dedication of a Hindu image installed there for worship. The dispatch from the city two months earlier of an official Yuan dynasty envoy to south India underscores the reciprocal nature of the trading relationship."

5) 한편 그녀가 고려인이라는 이유 외에, 현지 무역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지닌 인물이었기에 이 만남의 주선에 간여했던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녀는 셍게와의 결혼생활에서 제국 내외의 조운이나 해외무역에 대한 견문을 일부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고, 쿠빌라이가 그녀를 (원제국으로서는 무역상대국이었던) 마아바르로부터 망명해 온 인도의 전직 고위관료와 재혼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 그녀와 셍게 사이의 혼인을 매개한 것이 회회인 장순룡이었던 점도 주목된다[『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15年(1289) 8月 乙卯, "遣大將軍張舜龍獻同知密直司事蔡仁揆之女于元"].

6) 이 수박의 정체는 실로 미상이다. 인도 다르지(Darji) 카스트의 직조자(織造者)를 가르키는 명칭으로 'Sebak'이라는 용어가 있고(John Gillow, Nicholas Barnard, *Indian textiles,* Thames & Hudson,

직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따름이다.[7]

결국 현전하는 인도산 직물 유물 및 여러 문헌기록들을 통해 위 직물들의 실체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현전하는 인도산 고급 직물유물로는 동인도 코로만델지역 및 서인도 구자라트 산(産) 금사자수 및 염색 제품,[8] 서구에서는 'chintz'로 알려져 있는 인염(印染) 목면,[9] 14세기초 홍해무역에 투입된 서인도 구자라트산 물자,[10] 17~18세기의 목면제품[11] 등 여러 목면 계열 직물들이 주목된다. 또 송대 조여괄(趙汝适)의 『제번지(諸蕃志)』나 원대 왕대연(汪大淵)의 『도이지략(島夷志略)』, 그리고 명대의 『영애승람(瀛涯勝覽)』과 『성사승람(星槎勝覽)』 등 여러 문헌자료에는 '목면' 및 '인피직물'이 인도의 주요 생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인도에서 견직물이나[12] 모직물도[13]

2008. Chapter 7: East. p.180.), 일본·태국·인도네시아 등지로 수출되던 인염 목면을 이르는 'Sembagi'라는 말레이(Malay) 용어도 있지만(John Guy, *Indian Textiles in the East*, 1998. Chapter 2. Techniques and Production Centres. p.21.) 『고려사』 '수박'과의 관련은 미상이다. 한편 중국측 기록에는 "수파(手帕)"라는 것이 등장하는데[『元史』 卷114, 列傳1 后妃1 成宗后卜魯罕, "...后以手帕蒙覆其面..."; 『島夷志略』 天竺("小目長项. 手帕繫額, 编髮垂耳.."); 東冲古剌("男女斷髮, 紅手帕纏頭, 穿黃綿布短衫, 繫越里布."), 얼굴 부위에 착용하는 이 소형의 고급 직물이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태종실록』 卷34, 17년(1417) 12월 20일 辛丑, "白御羅手帕五十條、白綿桃花手巾四條.."; 『세종실록』 卷3, 1년(1419) 1월 1일 丙午, "議政府獻遞手帕, 各道畢獻方物。 ..不宜進手帕于壽康宮.' 上王曰: '雖在父服, 進手帕賀, 何害於義?'"], 『고려사』의 '수박'이 이 '수파'의 오기라 볼 근거는 없다.

7) Rosemary Crill, *The Fabric of India*, V&A Publishing, 2015. Local and Global: Patronage and Use. p.152, "The textiles with elaborate figurative designs would have been very time consuming to produce: they are made by complex mordanting and resist-dyeing processes that are usually associated with the Coromandel coast, but their strong visual connections to Gujarati manuscript painting points instead to a Gujarati original."

8) Robyn Maxwell, *Textiles of Southeast Asia-Tradition, Trade and Transformation*, Periplus, 2003. p.347, Pic.500 "Gujarat, India. silk, gold thread."; Pic.501 "Coromandel coast, natural mordants and dyes.."; John Gillow, Nicholas Barnard, *Indian textiles,* 2008. Chapter 9. The South. p.198. Kalamkari Work of South-Eastern India. "The Coromandel coast of India, stretching from Masulipatnam to the north down to Nagapatnam in the south, was historically the source of some of the most beautifully colored and delicately worked cotton fabrics produced and exported by india..."

9) Claire and Steve Wilbur, Southeast Asian Textiles, A Schiffer Book, 2003. Introduction. p.13. "...cotton printed cloths from the Coromandel coast known in the West as Cambay cloth or chintz."

10) John Guy, *Indian Textiles in the East,* 1998. Chapter 3. Indian Cloth and International Trade. p.43. Pic.47 (1265±40]); p41. Pic.44 (1340±40)

11) John Guy, Rosemary Crill, Karun Thakar, *Indian Textiles (The Karun Thakar collection)*, Prestel, 2014. Trade Cloths. p.43, Pic.20(Chintz. Coromandel coast. c.1700. mordant and resist-dyed cotton); p.40, Pic.22(Chintz. Coromandel coast. 18th century. Sriranka에서 발견); p.42, Pic.24(gold colored sarong, Coromandel coast. 18th century. cotton); p.45, Pic.25(Coromandel coast. c.1700.); p.46, Pic.26(Coromandel coast. 18th century. cotton); pp.48-49, Pic.27·28(Chintz. Coromandel coast. 18th century. cotton); John Guy, Karun Thakar, *Indian Cotton textiles (Seven Centuries of Chintz from the Karun Thakar Collection)*, Hali (ACC Art Books), 2015. Textiles for the East. p.37, Pic.8(18세기. 코로만델산. 인도네시아 수출용. 수마트라 발견); p.38, Pic.9(18-19세기. 코로만델산. 술라위시 발견); p.41, Pic.10(17세기말-18세기초. 코로만델산. 일본수출용. 일본발견주장. chintz. cotton); p.42, Pic.11(17세기경. 코로만델산. 스리랑카 발견 주장); p.45, Pic.12(18세기. 좌동); p.49, Pic.13(18세기. 좌동); p.55, Pic.14(18세기. 코로만델남부산. 북스리랑카산 가능성); p.74, Pic.20(18세기말-19세기초. 코로만델산. 인도네시아 발견); p.78, Pic.22(1700-1730년경, 코로만델산. 일본발견 주장. chintz); p.82, Pic.24(18세기. block printed일 경우 구자라트산, chintz라면 코로만델산. 일본발견 주장).

12) 『諸蕃志』 天竺國, "其國出獅子、貂、豹、橐、犀、象、玳瑁、金、銅、鐵、鉛、錫. **金鏤織成金罽**..."

더러 생산되긴 했지만, 기록을 보면 목면과 인피의 생산 비중이 실로 압도적이다.[14]

송대『제번지』에는 우선 길패와 백첩이 등장한다. 목면의 한 종류이자 별칭으로 잘 알려진 '길패(吉貝)'는 주련국(注輦國) 및 호다랄국(胡茶辣國)[15] 등지에서 생산, 사용되었고, 또 다른 종류의 목면으로서의 '백첩(白氎)'은 천축국(天竺國)에서 생산되었다.[16] 원대『도이지략』에는 목면 관련 용례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 '목면(木棉)'의 경우 남인도의 동담막(Gokorn, 東淡邈), 서인도의 만타랑(Kutch, 曼陀郎) 등에서 생산되었다.[17] '목면화(木棉花)'는 반달리(班達里)에서 생산됐으며,[18] '면포(綿布)'는 인도 동해안 중부 네가파탐(Negapatam=Negapatinam, 土塔), 인도 서해안 남쪽의 파남파서(Banavasi, 巴南巴西), 그리고 서남 인도, 즉 말라바르 아래쪽의 대팔단(Dharmapatanam, 大八丹) 등지에서 생산되었다.[19] '면사(綿紗)'라는 것은 천축(天竺)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20]

일종의 고급목면이었던 '두라면(兜羅綿)'[21] 또한 송·원대 기록에 지속적으로 출현한

[본고에서 인용한『제번지』기사는 揚博文, 2000『諸蕃志校釋』中華書局[2판] (이상『諸蕃志校釋』), 박세욱 역주, 2019『바다의 왕국들(<제번지> 역주)』, 영남대 출판부 및 Chinese Text Project(中国哲学书电子化计劃) web site (https://ctext.org/ens)에서 확인한 것임을 일러둔다.]『원사』는 인도가 1280년대초 제국과 첫 관계를 맺을 당시 겸단(縑緞), 기단(綺緞), 금상(錦裳) 등의 견직물을 진상한 사실을 기록하였고, 인도의 견직물은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Itie Van Hout, 2017 *Indonesian Textiles at the Tropenmuseum*, LM Publishers, Textiles in Indonesia. p.30. "...the imported Indian tradecloths did affect the choice of patterns and the arrangement of designs on locally produced cotton ikat cloths. Indian textiles, the double *ikat* silk *patola* and printed cotton cloths, [and] were treasured for centuries throughout the archipelago.").

13)『제번지』細蘭國(스리랑카), "其王黑身而逆毛，露頂不衣，止纏五色布，**躡金線紅皮履**." 한편『도이지략』에 따르면 남인도지역 특번리(Tamilnadu, 特番里) 지역에서 면양(綿羊)이 목축됐고, 명대『성사승람』방갈랄국(榜葛剌国) 조는 현지에서 "융담(绒毯)"이 생산되었음을 전하고 있으며, 벵갈만 지역에서 '금선 양피화'를 사용했음 또한 언급하였다(『星槎勝覽』榜葛剌国: "其国风俗甚淳，男子白布缠头，穿白布长衫，足穿**金線羊皮靴**，济济然亦其文字者.").

14) 여러 중국측 기록을 보면 '지산(地産)', '토산' 등의 항목에 현지 견직물, 모직물은 열거된 정도가 극히 적은 반면, 목면과 인피직물의 수록 비중은 월등히 높다. 물론『성사승람』과 함께 명대의 주요 남해·남양 관련 기록에 해당하는『영애승람』방갈랄국(榜葛剌国) 조의 "桑柘蚕茧皆有，止会作线缲丝嵌手巾并绢. 不晓成绵('수건과 견직물만 직조할 뿐 성면하는 것에는 밝지 못했다')."와 같은 예외적 구절도 가끔 발견되지만, 이 지역만의 특수한 정황으로 여겨진다.『제번지』,『도이지략』등을 보면 인도 지역의 목면 전통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본고에서 인용한『星槎勝覽』및『瀛涯勝覽』기록은 何秋濤 撰, 黃宗漢 等 輯補,『續修四庫全書』史部 地理類 및 Chinese Text Project(中国哲学书电子化计劃) web site [https://ctext.org/ens]에서 확인한 것임을 일러둔다.]

15)『諸蕃志』注輦國, "地產: 真珠、象牙、珊瑚、玻璃、檳榔、豆蔻、琉璃、色絲布、**吉貝布**."; 胡茶辣國, "有佛宇四千區，內約二萬餘妓，每日兩次歌獻佛飯及獻花。獻花用**吉貝**線結縛為球，日約用三百斤."

16)『諸蕃志』天竺國, "其國出: 獅子、貂、豹、橐、犀、象、玳瑁、金、銅、鐵、鉛、錫。金鏤織成金**罽**，**白氎**."

17)『島夷志略』東淡邈, "地産胡椒，亚于闍婆，玳瑁、**木綿**、大檳榔."; 曼陀郎, "地産犀角、**木綿**，摘四斗花，可重一斤. 西瓜五十斤重有馀，石榴大如斗." [한편 본고에서 인용한『島夷誌略』기사들은 蘇繼慶, 2000『島夷誌略校釋』, 중화서국[2판] 및 Chinese Text Project(中国哲学书电子化计劃) web site (https://ctext.org/ens)에서 확인한 것임을 일러둔다.]

18)『島夷志略』班達里, "地産甸子、鴉忽石、兜羅綿、**木綿花**、青蒙石."

19)『島夷志略』土塔, "地産**綿布**、花布、大手巾、檳榔. 貿易之貨，用糖霜、五色絹、青緞、蘇木之属."; 巴南巴西, "地産細**綿布**，舶人以锡易之."; 大八丹, "地産**綿布**、婆羅蜜."

20)『島夷志略』天竺, "手帕繫額，编髮垂耳，穿細布長衫、藤皮織緞，以**綿紗**結袜，仍將穿之，示其执礼也."

21) 蘇繼慶에 따르면, 인도에서 생산되던 면직물 중 '가장 튼튼하고 두터운 것'을 [범어 'tula'에서 유래

다. 송대에는 남비국(南毗國)과 남니화라등국(南尼華囉等國)에서 생산되었고,[22] 원대에는 서해안 말라바르 아래쪽의 반달리(Pandarani=Calicut, 班達里)나 남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의 가장만리(Rameswaran=Pamban Islands, 加將門里), 인도 북서쪽의 붕가랄(Balhara=Gujarat, 朋加剌) 등지에서 생산되었다.[23] 세면포(細綿布·細棉布)로 간주되는 '사포(絲布)'는 송대 주련국에서 생산되었고,[24] 사포와 동일직물로 흔히 해석되는 '서양포(西洋布)'는 원대 동인도지방에서 생산되었다.[25]

이렇듯 인도에서는 실로 다양한 목면제품들이 생산, 사용되었다. 자연히 마아바르 출신 Beihaili가 충선왕에게 제공한 선물 중에도 목면 제품들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시기(15세기) 인도산 목면이 한반도 인근의 일본으로 대량 유입되기도 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26] 예컨대 상기한 선물들 중 '금수수박'이 목면제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이름을 붙여] '두라면'이라 불렀다(蘇繼慶, 『島夷志略校釋』 253쪽, 班達里[257쪽 설명]).

22) 『諸蕃志』 南毗國, "土產真珠、諸色番布、**兜羅綿**."; 注輦國(其餘南尼華囉等國), "…土產寶劍、**兜囉綿**等布."

23) 『島夷志略』 班達里, "地産甸子、鴉忽石、**兜羅綿**、木綿花、青蒙石."; 加將門里, "地産象牙、**兜羅綿**、花布."; 朋加剌, "産苳布、高你布、**兜羅綿**、翠羽."

24) 『諸蕃志』 注輦國, "地產: 真珠、象牙、珊瑚、玻璃、檳榔、豆蔻、琉璃、**色絲布**、吉貝布." 蘇繼慶은 '絲布之属'은 '科羅曼德爾[코로만델] 해안 여러 市에서 생산된 일종의 細棉布'로서 이름은 'simun'이라 쓰며, 『도이지략』에 등장하는 사포는 모두 이 simun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蘇繼慶, 『島夷志略校釋』 69쪽, 眞臘[78쪽 설명]).

25) 蘇繼慶에 따르면 '서양포(西洋布)'는 남인도 동쪽 해안 科羅曼德爾[코로만델] 해안 馬蘇利帕特南[Masulipatnam] 지역의 산물로서, 일종의 극세 면포(棉布)로 짐작된다. 『長春眞人西遊記』의 '麽斯', 『輟耕錄』의 '嘆子', 『瀛涯勝覽』의 '嘆紗' 모두 원·명대 사료에 보이는 '서양포'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 동해안 상품으로서 서해안에서도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蘇繼慶, 『島夷志略校釋』 38쪽, 無枝拔[43쪽 설명]).

26) 15세기 류큐나 태국 상인들에 의해 코로만델산 목면제품들이 일본으로 전달되었음이 확인되고(John Guy, *Indian Textiles in the East*, 1998. Chapter 9. 'Strange paintings: The Japan trade'. pp.159~160. "The *Rekidai Hoan* [歷代寶案] contains references to 'crimson cotton', the identity of which is unclear but which in all probability included Indian cloth; the records for 1430...include a reference to 'twenty bolts of red oiled cotton cloth' arriving from Thailand, which almost certainly originated on the Coromandel Coast. This source points to the presence of Indian textiles in East Asian waters in the first half of the 15th century and also affirms Thailand's role as an entrepot in international trade in this early period."), 17~18세기에도 코로만델산 제품들이 한반도의 바로 옆 일본에서 많이 보고된다는 점이 흥미롭다(윗책 p.167, "Another cloth expressly made for Christian worship is a painted cotton with the quality and character of a classic Coromandel coast piece of the early 18th century..."). 인도산 물자를 취급하는 동남아시아 무역망 종사자들이 동북아시아내 구매처를 타진하는 듯한 이러한 흐름이 17-18세기보다 이른 시기에도 동북아시아에 존재했다면(John Guy, *Indian Textiles in the East*, 1998. Chapter 2. Techniques and Production Centres. p.21. "These 'painted cottons'...were known by a variety of names in trading records. Some were derivations of the Indian term 'chitta('spotted cloth')', including 'chintz', the most universally recognized word for the painted cotton textiles...Other terms also survive into modern usage, such as *sarasa* and *saudagiri*, Gujarati names for painted and printed cottons for the export trade to Japan and Thailand respectively, and *sembagi*, a variant Malay word used for these textiles in western Indonesia."; p.26. "Technique of single and double ikat was also practiced on the Coromandel coast, in Orissa and in Andhra Pradesh, where cotton was woven as well as silk. Trade records of ikats from Andhra Pradesh(telia rumal) are limited but samples have survived in Japanese collections."), Beihaili의 1298년 한반도 접촉은 그 초기 사례 중 하나라고도 할 만하다.

그러나 당시 충선왕에게 전달된 인도산 직물들이 모두 목면이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토포'라는 것도 함께 진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13세기말부터 한반도에 목면 제품들이 유입되고 있었으므로,[27] 당시 고려인들은 목면이라는 직물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금수수박 등과 함께 진상된 직물을 목면으로 지칭하지 않고 토포로 지칭했다면, 이 '토포'는 목면계열의 직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기한 인도 직물생산의 전체적 경향을 감안할 때, 이 토포는 견직물, 모직물보다는 인피계열 직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당시 인도에서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인피제품이 생산되고 있었다. hemp(삼,대마), mallow(아욱), jute(황마), flax(아마), nettle(쐐기풀), Nilgiri nettle, ramie 등이 전통적으로 제작, 유통되던 인피직물들에 해당한다.[28] 문헌을 통해서도 그런 존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송대 실론 섬에서 생산된 목란피(木蘭皮)나[29] 원대 천축에서 '사용'된 등피직단(藤皮織緞)[30] 등이 눈에 띄며, 이 밖에도 여러 종류의 '포'들이 확인된다.

우선 '화포(花布)'의 경우, 앞서 언급한 원대 동인도 중부의 토탑(土塔) 및 남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의 가장만리(加將門里) 등지에서 생산되었다. 이 화포는 '화문(花紋) 면포'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토탑의 현지 토산물이 '면포, 화포, 대수건' 순으로 열거되고 가장만리의 토산물도 '두라면과 화포'로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31] 송대 남비국과 호다랄국에서 생산된 번포('諸色番布')도 비슷한 경우다. 남비국의 경우 토산물이 '제색번포와 두라면'으로 기록돼 있어[32] 번포가 비목면 계열이었음을 암시한다.

'백포(白布)'는 어떤가? 송대 마라화국(麻囉華國, 오늘날의 Nagpur-Malwa plat 등지로 추정)에서는 "백포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고, 남비국에서도 백포, 백번포를 사용하였다.[33] 원대에는 토탑(土塔)이나 구자라트 북쪽 만타랑(曼陀郎) 등지에서 생산되었다.[34] 백포의 색깔은 목면의 '흰색'이지만, 목면계열이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기록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재질에 대한 언급 없이 '백색'만으로 수식된 점을 감안하면, 이를 목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인도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는 각종 '색포(色布)'나,[35] 북서부 방배(Bombay, 放拜) 및 동해안 마아바르 지역(馬八兒嶼), 서인도의 화라(Patanz, 華羅), 천축(天竺), 인도 북서쪽의 붕가랄(Balhara, 朋加剌), 동인도 대오다(Orissa, 大烏爹) 등지에서 발견되

27)『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22年(1296) 12月 辛亥, "帝賜王: 金四錠 金段二匹 絹二匹, 賜從臣: 銀五十錠 金段十八匹 繡段十匹 綾素段五百七十八匹 絹四百八十六匹, 賜婦寺: 綾絹各二十七匹, 僕從: 木緜絹各四百十一匹."

28) Rosemary Crill, *The Fabric of India*, 2015. Materials and Making. p.19. Bast and Other Fibres.

29)『諸蕃志』細蘭國, "地產: 白豆蔻、木蘭皮、粗細香."

30)『島夷志略』天竺, "手帕繫額, 编髮垂耳, 穿細布長衫、藤皮織緞, 以綿紗結袜, 仍將穿之.."

31)『島夷志略』土塔, "地産綿布、花布、大手巾..": 加將門里, "地産象牙、兜羅綿、花布."

32)『諸蕃志』南毗國, "鑿雜白銀為錢, 鏤官印記, 民用以貿易。土產真珠、諸色番布、兜羅綿."

33)『諸蕃志』 麻囉華國, "產白布甚多。每歲約發牛二千餘只馳布就陸路往他國博易."; 南毗國, "其主裹體跣足; 縛頭纏腰, 皆用白布, 或著白布窄袖衫."; "...其餘從行官屬, 以白番布為袋, 坐其上名曰布袋轎."

34)『島夷志略』土塔, "男女斷髮, 其身如漆. 繫以白布."; 曼陀郎, "男女挽髻, 以白布包頭, 皂布爲服."

35)『島夷志略』無枝拔(남인도 동해의 Mutapalli, 細紅布); 特番里(青布);『諸蕃志』細蘭國(Ceylon, 五色布)

는 '세포(細布)'도 마찬가지다.[36] 목면계열이었다면 목면으로 불렸겠지만, 굳이 직물색이나 직조의 '세밀성'을 토대로 명명된 것 자체가 그것이 '비목면'이었음을 암시한다. 명대 『영애승람』에서 확인되는 방갈랄 지역산 "세포"도 마찬가지다.[37] 이 중 두라면은 한 종에 불과하며('蓦黑蓦勒') 나머지 직물들 중 1건은 견직물 '라(羅)'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재질이 별달리 기록되지 않은 채 "포"로만 언급돼 있어, 인피(Bast) 직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8]

이렇듯 인도지역에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인피직물들이 생산, 사용되고 있었던 바, 충선왕이 받은 인도산 '토포'도 그에 해당했을 수 있다. 결국 충선왕은 1298년 인도 사절단의 방문을 통해 인도산 고급 목면('금수수박') 및 [고려의 모시, 마포와는 또 달랐던] 인도산 인피직물("토포")을 받아들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2장. 두 번째 장면: 충숙왕대 '외제 수건'의 유통

그럼 충숙왕대에는 어떤 직물이 들어왔던가? 당시 충숙왕이 목욕을 위해 많이 확보해 두었다는 직물로서, 그것이 남아도는 통에 측근들이 그를 횡령하기도 했으며, '저포(와 유사한) 직물'로 암시된 '수건(手巾)'이라는 직물이 해외산이었던 것으로 보여 흥미를 자아낸다.[39]

물론 이 '수건'에 대해 별달리 전하는 추가 정보는 없고, 오늘날의 여느 수건처럼 '몸을 닦는 데 쓰는 천'에 불과한 물건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려사』의 찬자가 '명왈수건(名曰手巾)'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에서, 당시인들이 이 '수건'을 '그 실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존재'로 간주했던 느낌이 난다. 아울러 이것이 일반 천이거나 상용 모시였다면 측근들이 잔여분의 '횡령'을 감행했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고려의 모시가 고가치의 물품이긴 했지만, 왕의 목욕용품을 빼돌려야 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수건은 상당한 고가치의 직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수건은 왕실 제사의식에 쓰이는 등 고급 의전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40] 해외

---

36) 『島夷志略』 放拜, "地産绝細布疋, 阔七尺, 長丈馀."; 馬八兒嶼, "地産翠羽, 細布."; 華羅, "以白細布纏頭, 穿長衫, 與今之南毗人少異而大同."; 天竺, "手帕繫額, 编髮垂耳, 穿細布長衫、藤皮織緞, 以綿紗結袜, 仍將穿之.."; 朋加剌, "男女以細布纏頭, 穿長衫."; 大烏爹, "女生髭, 穿細布, 繫紅絹梢."

37) 『瀛涯勝覽』 榜葛剌国, "土产五六样细布:
一样苹布(蕖布), 番名卑泊, 阔三尺馀, 长五丈六七尺, 此布匀细如粉笺一般;
一样姜黑布, 番名满者提, 阔四尺许, 长五丈馀, 此布紧密壮实;
一样番名沙纳巴付, 阔五尺, 长三丈, 便如生平罗样, 卽布罗也;
一样番名忻白勤搭黎, 阔三尺, 长六丈, 布眼稀匀, 卽布纱他, 皆用此布缠头;
一样番名沙榻儿, 阔二尺五六寸, 长四丈馀, 如好三梭布一般;
有一样番名蓦黑蓦勒, 阔四尺, 长二丈馀, 背面皆起绒头, 厚四五分, 卽兜罗绵也。

38) 한편 이 외에 "필포(苎布, 蕖布)", 고니포(高你布), 성라기포(星羅棋布, 星羅碁布), 팔단포(八丹布) 등의 정체불명 직물들이 인피직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여기서는 더 논하지 않는다.

39) 『高麗史』 卷35, 世家35 忠肅王後8年(1339) 3月 癸未, "王薨于寢. 在位前後二十五年壽四十六..." (충숙왕의) 性好潔, 一月湯浴之費, 諸香十餘盆, 苧布不下六十餘匹, 名曰手巾, 多爲內竪所竊, 王不之知."

40) 『세종실록』 卷9, 2년(1420) 9월 13일 무인, "遷奠儀曰: 前一日, ...贈帛玄六、纁四、粉紅綾袂長衫

기록에서는 직조 수준이 매우 높은 수건도 등장한다. 『도이지략』을 교석(校釋)한 중국 학자 소계경(蘇繼慶)은 '유산(溜山)'의 '사감수건(絲嵌手巾)'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직조하는 일등급 사감수건은 심히 조밀하고 실로 길고 넓어 다른 곳에서 짠 것보다 훨씬 낫다'는 『영애승람』의 평가를 소개하였다.[41] 이 직물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42]

이와 관련하여, "('수건'이라 부른 대상으로서의) 저포 60여필"이라는 『고려사』의 설명이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된다. 물론 기사에 '저포'라 단정적으로 표현된 셈이어서 이 '수건'을 고려산 '모시'로 단정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면 그에 왜 별도의 명칭('수건')이 필요했을지 궁금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수건'이라는 직물이 모시와 비슷한 직물이었을 뿐 모시 자체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비록 모시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식물성 인피섬유로서, 굳이 빗대자면 '저·마포류'로 표현될 만한 직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 직물의 '출처'도 문제가 된다. '저포는 아니지만 저포 같은' 이 직물은 과연 고려산이었을까, 해외산이었을까? 『고려사』에서는 이 기사를 제외하고는 수건이라는 직물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해외 기록에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수건'들이 등장한다. 이런 기록들이 위 『고려사』의 수건 또한 해외산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우선 『도이지략』에 '수건'이라는 용어가 몇 차례 출현하는데, 흥미롭게도 인도대륙 소재 지역들의 토산물로 등장한다. 앞서 소개한 토탑(土塔)에서 '대수건(大手巾)'을, 인도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북유(Male, 北溜)에서 '대수건포(大手巾布)'를, 그리고 금탑(인도근처 추정, 金塔)에서 "대포수건(大布手巾)"을 생산하였다.[43] 명대의 『영애승람』

一、紫的段子袂隔音一、粉紅段子繡甫老一、紅段子赤古里一、藍羅袂赤丫一、帛綾袂襪裙一、白苧布襪裙一、白綃汗衫一、白苧布長衫一、紅段子帶二、白苧布汗衫一、白苧布闊汗衫一、白苧布赤丫一、白苧布苔衣一、手巾一、草綠段子袂衿一、白綃單衾一、枕一、紅段子褥二座、滿花寢席一、白麻布足巾二、白苧布裏衣二、紅段子五、指手衣一、粉紅段子同靴一、粉紅段子溫鞋一..."; 卷21, 5년(1423) 8월 22일 경오, "陳敬以鴉青織金段子一匹、貼扇一畫、手巾二, 贈送東宮."

41) 『瀛涯勝覽』 溜山国, "牒干国王、头目、民庶皆是回回人。风俗纯美，所行悉遵教门规矩。人多以渔为业，种椰子为生。男女体貌微黑，男子白布缠头，下围手巾。妇人上穿短衣，下亦以阔布手巾围之。又用阔大布手巾过头遮盖，止露其面。婚丧之礼悉依回回教门亲矩而后行....织一等丝嵌手巾，甚密实长阔，绝胜他处所织者." 그는 아울러 『영애승람』의 '사감수건'과 『도이지략』의 '대수건포'가 동일한 직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蘇繼慶, 『島夷志略校釋』 264쪽, 北溜(266쪽 설명)].

42) 인도에서 확인되는 '치칸(Chikan)'이라는 직물과의 상관성도 향후 궁구해 볼 만하다. John Gillow, Nicholas Barnard, *Indian textiles*, 2008. Chapter 3: The Techniques of textile decoration, p.44. "Embroidered and printed trade cloths were the highly prized produce of the western state of Gujarat, and printed and painted export calicoes the hallmark of the Coromandel coast. The finest white embroidery and pulled threadwork on white cotton, known as ***chikan***, was found in Lucknow, Dacca and Kolkata(Calcutta) and delightfully embroidered and decorated quilted covers, kanthas, were a folk craft of Bengal and Bihar."; Chapter 4: The West. p.161. Chikan Work ("*chikan-kari*, *chikan*-work embroidery, a kind of whitework. floral designs. stitched using untwisted white cotton or silk on the surface of the fabric.")

43) 『島夷誌略』 土塔, "地産綿布、花布、大手巾、檳榔. 貿易之貨, 用糖霜, 五色絹, 青緞, 蘇木之属."; 北溜, "地産椰子索, 汎子, 魚干, 大手巾布. 海商每將一舶汎子下烏爹, 朋加剌, 必互易米一船有饒. 盖彼番以汎子权錢用, 亦久远之食法也."; 金塔, "地産大布手巾、木綿. 貿易之貨, 用鐵鼎、五色布之属."

에서는 방갈랄(인도, 榜葛剌), 섬라(태국, 暹罗), 조왜(Java, 爪哇), 아단(Aden, 阿丹), 홀로모사(호르무즈, 忽鲁谟厮), 조법올(祖法儿, 아랍권[미상]) 등에 대한 기록에서 상기한 '사감수건'이 등장한다.[44] 단순화된 '수건' 용례는 더욱 많이 확인된다. 명대 인도와 자바에서 '수건'이,[45] 인도, 자바, 태국 등지에서 '화수건(화색수건, 색화수건)'이 등장한다.[46] '색수건'은 인도와 자바에서,[47] '색포 수건'은 점성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수마트라)에서,[48] 그리고 '백포 수건'은 말라카해협(말레이시아) 등에서 출현한다.[49] '자수(색사) 수건'은 인도와 스리랑카, 점성 등지에서,[50] '활포 수건'은 '유산국(=北溜, Male)'에서,[51] '번포 수건'은 점성에서,[52] '절포 수건'은 '중가라(重迦羅, 자바인근추정)'에서 발견된다.[53] 그리고 이런 외국산 수건이 한반도에도 들어왔음은 연산군대인 1499년 '인도산 수건'이 류큐(琉球)를 통해 조선으로 들어온 사례에서 확인된다.[54] 이

---

44)『瀛涯勝覽』 榜葛剌国, "桑柘蚕茧皆有，止会作线缲丝嵌手巾并绢。不晓成绵."; 暹罗国, "王者之绊用白布缠头，上不穿衣，下围丝嵌手巾，加以锦绮压腰.."; 爪哇国, "...国王之绊，鬈头或带金叶花冠，身无衣袍，下围丝嵌手巾一二条，再用锦绮或紵丝缠之于腰，名曰压腰. ...其妇被发裸体跣足，围系丝嵌手巾，项佩金珠联络之饰，腕带金银声装之锣."; 阿丹国, "妇人之绊，身穿长衣，肩项佩宝石、珍珠、缨络，如观音之绊，耳带金厢宝环四对，臂缠金宝钏镯，足指亦带指环。又用丝嵌手巾盖于顶上，止露其面."; 忽鲁谟厮国, "此处各番宝货皆有，更有青红黄雅姑石，并红剌、祖把碧、祖母剌、猫睛、金钢钻，大颗珍珠如龙眼大，重一钱二三分，珊瑚树珠，并枝梗、金珀、珀珠、神珠、蜡珀、黑珀，番名撒白值。各色美玉器皿、水晶器皿，十样锦翦绒花单，其绒起一二分，长二丈，阔一丈，各色梭幅，撒哈喇毡、毯罗毯纱、各番青红丝嵌手巾等类皆有卖者."; 祖法儿国, "王者之绊，以白细番布缠头，身穿青花如大指大细丝嵌盖头，或金锦衣袍，足穿番靴，或浅面皮鞋."

45)『星槎勝覽』 古里国, "地产胡椒，亚于下里，俱有仓廪贮之，待商之贩。有蔷薇露、波罗蜜、孩儿茶、印花被面、手巾，其有珊瑚、珍珠、乳香、木香、金箔之类，皆由别国之来."; 『瀛涯勝覽』 爪哇国, "国人之绊，男子鬈头，女子椎髻，上穿衣，下围手巾."; 『星槎勝覽』 爪哇国, "凡男子自幼至老，贫富皆有，插于腰间。若有争论，不通骂詈，即拔刀刺之，强者为胜。设被杀之，藏躲三日而出去，即无事也。男子猱头裸身，惟腰围单带手巾."

46)『瀛涯勝覽』 古里国, "国人亦将蚕丝练染各色，织间道花手巾，阔四五尺，长一丈二三尺，每条卖金钱一百个."; 爪哇国, "又有富人及头目尊贵之人将死，则手下亲厚婢妾先与主人誓曰「死则同住」，至死后出殡之日，木搭高棰，下垛柴堆，纵火焚棺，候焰盛之际，其原誓婢妾二三人，则满头带草花，身披五色花手巾，登跳号哭良久，撺下火内，同主尸焚化，以为殉葬之礼."; 『星槎勝覽』 暹罗国, "男女椎髻，白布缠头。穿长衫，腰束青花色布手巾."

47)『瀛涯勝覽』 榜葛剌国, "身服从头套下圆领长衣，下围各色阔手巾，足穿浅面皮鞋."; 『星槎勝覽』 榜葛剌国, "地产细布、撒哈剌、绒毯，兜罗锦、水晶、玛瑙、珊瑚、珍珠、宝石、糖蜜、酥油、翠毛、各色手巾、被面."; 『星槎勝覽』 爪哇国, "妻妾奴婢皆满头带草花，披五色手巾，随尸至海边或野地，将尸于沙地，得众犬食尽为好."

48)『星槎勝覽』 占城国, "男女椎髻脑后，花布缠头，上穿短衫，腰围色布手巾."; 麻逸国, "男女椎髻，穿长衫，围色布手巾."; 苏门答剌国, "男子头缠白布，腰围折布，妇女椎髻裸体，腰围色布手巾."

49) 『瀛涯勝覽』 满剌加国, "国人男子方帕包头，女人撮髻脑后。身体微黑，下围白布手巾，上穿色布短衫."

50)『瀛涯勝覽』 榜葛剌国, "医卜阴阳百工技艺皆有之。其行术，身穿挑黑线白布花衫，下围色丝手巾，以各色硝子珠间以珊瑚珠穿成缨络，佩于肩项，又以青红硝子烧成镯，带于两臂，人家宴饮，此辈亦来动乐，口唱番歌对舞，亦有解数."; 锡兰国, "其国地广人稠，亚于爪哇。民俗饶富，男子上身赤膊，下围色丝手巾，加以压腰."; 占城国, "国王系销俚人，崇信释教，头戴金鈒三山玲珑花冠，如中国副净者所戴之样。身穿五色线细花番布长衣，下围色丝手巾.....国人男子鬈头，妇人撮髻脑后。身体俱黑，上穿秃袖短衫，下围色丝手巾，赤脚."

51) 『瀛涯勝覽』 溜山国, "男女体貌微黑，男子白布缠头，下围手巾。妇人上穿短衣，下亦以阔布手巾围之。又用阔大布手巾过头遮盖，止露其面。婚丧之礼悉依回回教门亲矩而后行."

52)『瀛涯勝覽』 占城国, "头目所戴之冠，用茭葦叶为之，亦如其王所戴之样，但以金彩妆饰，内分品级高低。所穿颜色衣衫，长不过膝，下围各色番布手巾."

53)『星槎勝覽』重迦逻, "俗淳，男女撮髻，穿长衫，围折布手巾."

54)『연산군일기』 卷39, 6년(1499) 11월 17일 丁卯, "琉球國使臣肅拜. 其國王書云: '琉球國 中山王 尙

런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충숙왕대의 수건 또한 해외산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 지역은 특정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충숙왕대 고려에 들어온 이 해외산 '수건'의 재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해외기록에 등장하는 수건의 바탕직물은 실로 다양하다. 목면, 견직물, 인피직물이 골고루 확인된다. 『성사승람』에서는 점성국에서 "면화 수건"을 썼음을 전하고 있고,[55] 앞서 소개한 『조선왕조실록』의 1417년 기록에 등장하는 수건(명 사신이 조선 왕실에 진상) 또한 '백면(목면)'으로 만든 것이었다('白綿桃花手巾'). 이 밖에 견직물로 만든 수건도 있었음은 명대 인도지역의 '가지국'에서 썼다는 "저사수건"에서 확인되며,[56] 1417년과 1429년 명 사신이 세종에게 바친 수건 역시 각기 '라(羅)'와 '능(綾)'으로 만든 것이었다.[57]

그러나 인피직물로 만든 수건들도 분명히 존재했음은, 앞서 소개한 수많은 단순화된 수건 용례들에서 짐작되는 바가 있다. 아울러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들, 예컨대 1415년 각 전(殿)의 수건을 모시로 만들지 못하게 한 조치나[58] 망자를 위한 재 예식에 '수건저포(저포수건)'의 사용을 허용한 조치[59] 등을 보면, 조선 한반도에서 사용된 국산 수건 중에도 저포로 만든 것이 분명 많았음이 확인된다. 고려후기에도 사정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충숙왕대의 수건이 기본적으로 '저포'로 지칭되었던 사실에서, 고려후기 한반도에서 유통되던 해외산 수건이 인피직물로 만든 것이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 해외산 인피 수건들은 과연 어떤 경로로 충숙왕대 고려에 유입됐고 유통되게 된 것일까? 앞서 살펴본 충선왕대나 후술할 충혜왕대와는 달리, 충숙왕대 수건의 경우 안타깝게도 그 유입 경위가 사적에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 고려-중국 간 물물교류가 왕성했고 그를 통한 서역 물자의 한반도 유입도 활발했음을 감안하면, 해외산 인피수건의 존재가 14세기전반 고려에서 발견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는 않다. 향후 고려 궁정의 이 '해외산 인피수건'을 당대의 고려-해외 직물 교역사에 어떻게 자리매

眞謹啓朝鮮國王殿下...弘治十二年七月十七日.' 禮物, 柳靑龜勝團花錦一段、大紅遍地金段二匹、金黃牧丹花段一匹、天竺上等五彩手巾一條、四番上號異樣手巾一條..."

55) 『星槎勝覽』 占城国, "他番宝船到彼，其酋长头戴三山金花冠，身披锦花手巾，臂腿四腕，俱以金镯，足穿玳瑁履，腰束八宝方带，如妆塑金刚状." 한편 『도이지략』에 등장하는 태국 인근의 랏부리(Ratburi, 羅衛=Rachaburi) 지역에는 '유통된 물자(貿易之貨)'로 '기자수건(棋子手巾)'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島夷誌略』 羅衛, "貿易之貨, 用棋子手巾、狗迹絹、五色烧珠、花银、青白碗、鐵条之属."), 蘇繼慶은 이를 면직물로 추정하였다.

56) 『瀛涯勝覽』 柯枝国, "其国王与民亦锁俚人氏，头缠黄白布，上不穿衣，下围紵丝手巾，再用颜色紵丝一匹缠之于腰，名曰压腰."

57) 1417년 기록('白御羅手帕五十條'); 『세종실록』 卷46, 11년(1429) 12월 29일 신축, "設宴于內殿. 使臣進錫鍍金瑪瑙帶、白綾畫手巾, 東宮苧絲一匹, 贈晋平大君 瑉、安平大君 瑢、臨瀛大君 璆紗各一匹."

58) 『태종실록』 卷29, 15년(1415) 6월 22일 정해, "命各殿手巾, 毋用苧布."

59) 『세종실록』 卷9, 2년(1420) 9월 22일 정해, "禮曹啓: 自前朝以來, 凡於追薦, 設齋糜費, 男女晝夜聚會, 徒爲美觀, 殊失事佛薦亡之意。 自今國行及大夫士庶人追薦, 皆就山水淨處, 設水陸齋, 其辦設, 除俗人, 皆令僧徒供之...其國行物品, 蒸飯三十盆, 油果九器, 豆湯九器, 淨餠九器, 淨麪九器, 實菓九器, 左右甁花六用素花, 奏紙五十卷, 手巾苧布二匹, 蠟燭代用燈籠, 主法布施木緜一匹, 齋廚布施正布五匹。...無職人齋, 蒸飯三盆、油果、豆湯、淨餠、淨麪、實果各三器、奏紙五卷。 已上左右甁花六, 用素花, 手巾正布一匹, 蠟燭代用燈籠..."

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장. 세 번째 장면: 충혜왕대 아랍 직물의 유입 가능성

14세기중엽에 해당하는 충혜왕대에는, 이전과는 달리 '아랍산 직물'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 같다. 1320년대말 중국-서역 간 교역이 잠시 크게 교란되었다가 '재개'된 직후였던 1330년대초, 일칸국 술탄의 사절이 충혜왕을 방문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전하기 때문이다. 『고려사』의 1331년 9월 기록이 그것으로, "서북지역 보새인"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고려왕을 찾아와 토산물을 바쳤다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이다.[60]

보통 『고려사』에 등장하는 서북지역은 서북면, 즉 오늘날의 평안북도 지역에 해당하는 당시 고려의 "북계"를 이른다. 그래서 위 기록은 오랜 시간 '서북면의 토착민이 한반도 북부지역의 특산물을 충혜왕에게 진상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 다만 '보새인'이라는 인명 자체는 고려 인명으로는 대단히 생경한 것이어서, 과연 이 인물이 고려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았다. 모든 고려인들이 성씨를 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보새인이라는 인명은 지나치게 이질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의문을 해소해 줄 단서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이 보새인은 고려에 귀화한 여진인 정도로 추정되었다. 기사의 배경에 대한 규명도 후일의 과제로 남겨졌다.

그러다가 최근 이 '보새인'이 『원사』에 등장하는 '불새인(不賽因)'과 동일인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 '불새인'은 다시금 당시 서아시아에 세워졌던 일칸국(훌레구 울루스)의 마지막 술탄인 "Abû Sa'îd"인 것으로 드러났다.[61] 그와 함께 '서북'의 정체에 대한 의문 또한 풀렸는데, '서북'은 『원사』에는 '서역'과 동일한 의미로 종종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서북 보새인"은 "서역 일칸국의 제왕(제왕) 아부 사이드"였던 것으로, 상기 기사도 그에 맞춰 이란지역 정치세력과 고려 간의 첫 접촉을 전하는 기록으로 재해석되게 되었다.

충혜왕이 당시 서역 인사들과 맺고 있던 연고를 감안하면 아부 사이드가 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다. 충혜왕은 원에서 생장하며 회회인들과 더불어 생활했고 심지어 회회여인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던 터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회, 서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는 한편으로[62] '교역'에 대한 조예도 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63] 그를 적극 지지했던 후원자 옌테무르[燕鐵木兒] 역시

60) 『高麗史』 卷36, 世家36 忠惠王卽位元年(1331) 9月, "西北普賽因遣使來獻土物."

61) 이 아부 사이드는 『원사』에는 不賽因, 卜賽因, 不賽亦 등으로 등장한다.

62) 『高麗史』 卷109, 列傳22 李兆年, "忠惠王以世子入朝丞相燕帖木兒見之大悅視猶子. 因忠肅辭位奏帝錫王命. 時太保伯顔惡燕帖木兒專權待忠惠不禮. 忠肅復位忠惠宿衛于元時燕帖木兒已死伯顔待忠惠益薄. 忠惠與燕帖木兒子弟及回骨少年輩飮酒爲謔因愛一回骨女或不上宿衛. 伯顔益惡之目曰撥皮." 그의 측근들도 회회인들과 상시적으로 어울렸다(卷124, 列傳37 嬖幸2 盧英瑞, "盧英瑞忠惠嬖臣也. 嘗從王如元舍於回回家竊其妻, 杖之遣還").

63) 충혜왕 본인이 일찍부터 서역 현지와의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고려내부의 자산을 옌테무르에게 직접 제공한 바 있었는데[『元史』 卷35, 本紀35 文宗 至順2年(1331) 4月 戊申, "以宮中高麗女子不顔帖你賜燕鐵木兒, 高麗國王請割國中田為資送, 詔遣使往受之."],

당대의 최고 권력자이자 서역과 활발하게 교역하던 이로서 본인과 그 아들들이 충혜왕과 이른 시기부터 어울렸음을 감안하면,[64] 충혜왕은 실로 일칸국이 접선하기에 최적의 인물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칸국이 고려왕에게 직접 토산물을 전달하면서까지 우호 의지를 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기에, 그 배경만큼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일칸국의 고려 접선 시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에 대비해 보조적 거래 상대방을 추가 확보하려 한 결과였다는 가설이 이미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65] 다만 아부 사이드가 충혜왕에게 무엇을 전달했으며, 어떤 요청 또는 제안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일칸국 사신이 충혜왕에게 바친 토산물 중 직물이 포함돼 있었는지의 여부도 현재로서는 미상이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일칸국의 고려 접촉이 일칸국과 다이두(大都) 간의 교역관계 변화 때문이었다면, 당시 일칸국이 고려에 제공한 물품에 일칸국과 다이두 간 교역에서 쟁점이 되었던 물자가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14세기전반 다이두-일칸국 간 교역의 양상에서, 1331년 충혜왕에게 제공된 일칸국 산물의 실체를 유추해 볼 여지가 존재한다.

무역에 관심이 많았던 원 태정제(泰定帝, 1323-1328)는 서역과의 교역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일칸국 술탄 아부 사이드와의 교역관계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1324년초 시작된 교류는 1325년 더욱 증가하여, 원제국의 지폐인 보초, 다량의 비단(帛) 및 진주 등이 교환되었다.[66] 1326년과 1327년에도 여러 동물과 보물이 왕래하였다.[67]

이 과정에서 '일칸국에서 중국으로' 보낸 물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일칸국으로' 갔던 물품에는 등장하는 물종(物種)으로 '견직물'이 확인된다. 당시 이란 지역에서 중국산 견직물을 적지 않게 수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랍권의 견직물 생산량이 중국 못지않았고,[68] 그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감안

그가 옌테무르의 대서역무역에 일종의 투자자로 나섰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토지가 충혜왕의 퇴위 및 옌테무르의 사망 이후 회수된 것도 의미심장하다[卷38, 本紀38 順帝 後至元年(1335) 11月 甲午, "以燕鐵木兒, 唐其勢, 答里所奪高麗田宅, 還其王阿剌忒納失里."].

64) 옌테무르는 권력을 무기로 무역활동에 왕성하게 개입하며[『元史』 卷35, 本紀35 文宗 至順2年(1331) 8月 甲寅, "命宣課提舉司毋收燕鐵木兒邸舍商貨稅."] 심지어 원제국정부와 서역 간 교역물 중 일부를 횡령하기도 하였다(10月 丙寅, "燕鐵木兒取犛牛五十於西域來獻."). 옌테무르가 서역상인 및 권력자들과 유지했던 깊은 결탁의 고리는 그가 10여년전 사례까지 거론하며 '서역상인들이 못 받은 대금을 챙겨주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이강한, 2013 윗책 참조.

65) 이강한, 2013 윗책, 219-220쪽; 251-252쪽 참조.

66) 『元史』 卷29, 本紀29 泰定帝 泰定2年(1325) 11月 壬申, "賜諸王不賽因鈔二萬錠, 帛百匹."; 12月 癸未, "諸王不賽因遣使貢珠, 賜鈔二萬錠."

67) 『元史』 卷30, 本紀30 泰定帝 泰定3年(1326) 1月 壬子, "諸王不賽因遣使獻西馬."; 7月 戊午, "諸王不賽因獻駝馬."; 8月 丁酉, "藩王不賽因遣使獻玉及獨峯駝."; 10月 癸酉, "藩王不賽因遣使來獻虎."; 11月 辛亥, "諸王不賽因遣使來獻馬."; 泰定4年(1327) 3月 辛亥, "諸王斡思班、不賽亦[不賽因]等, 以文豹·西馬·佩刀·珠寶等物來獻, 賜金·鈔萬計."; 3月 丁卯, "諸王不賽因遣使獻文豹·獅子·賜鈔八千錠."

68) 송대 대식국에서는 '연금(軟錦)'과 직금, 이단(異緞)이 생산되었고(『諸蕃志』 大食國, "土地所出: ...織金、軟錦、駝毛布, 兜羅綿、異緞等.."), 대식의 대중국 진상품(『宋史』 卷490, 列傳249 外國6 大食國)으로 등장하는 월락포(樂越匿, 'vala'+'nak' [Laufer, 동북아역사넷(동북아역사재단)]) 역시 백달(바그다드, 白達), 길자니(Ghaznah, Ghizninh, 吉慈尼[판자브, 쿠라산]) 등지에서 생산된 견직물로 짐작된다(『諸蕃志』 白達國, "城市衢陌民居豪侈, 多寶物、珍段, 少米、魚、菜...產金銀碾花、上等琉璃、白越諾布、蘇合油。國人相尚以好雪布(미상)纏頭, 及為衣服."; 吉慈尼國, "土產: 金、銀、越諾布、金絲

하면[69] 다소 의아하게 다가오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송대와 원대 중국산 견직물의 아랍권 유입은 실로 활발하였다. 송대 대식국의 시중에서 거래된 '능과 금'은 중국산일 가능성이 크고,[70] 원대에도 상기한 바스라와 타히리 지역을 포함,[71] 아덴(Aden, 哩伽塔), 서역[天堂], 그리고 호르무즈(甘埋里) 등지에서 오색단(五色緞)과 청단(青緞)이 유통되었다.[72] 아랍에서 '생산'된 견직물들과("土産, 地産") 별도로 기록된 이 직물들은 외국상인들이 이 지역으로 갖고 들어온 외부 물화("貨用", "貿易之貨")로 기록돼 있으며, 그런 점에서 중국산 견직물이 확실하다.

즉 아랍권에서도 견직물이 생산되었고 그 품질은 중국의 그것과는 또 달리 이국적이면서 우수했던 것으로 짐작되나, 그런 아랍지역에서 중국산 견직물 또한 왕성하게 수입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원대의 기록만 놓고 보자면, 『도이지략』 등에서는 두 정황이 모두 확인되는 반면 정사류인 『원사』 등에는 "중국에서 아랍권에 견직물을 제공"하는 사례만 확인된다. 그것이 사료상의 문제가 아님은 동일한 양상이 이후 명대를 배경으로 한 『명사』는 물론 15세기의 『영애승람』 및 『성사승람』에서도 관찰됨에서 확인된다. 아랍권에서 견직물을 생산하는 경우('토산, 지산')는 기록된 사례가 매우 드문 반면, '화용(貨用)', 즉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물품'으로는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73]

綿、五色駝毛段、碾花、琉璃、蘇合油、無名異、摩娑石."). 이후 원대에도 바스라(Basra, 波斯離, 이란-쿠웨이트 사이) 지역에서 생산된 '연금'이 이란지역의 타히리(Tahiri, 撻吉那)에서 사용되었다(『島夷志略』 波斯離, "地産琥珀, 軟錦, 驼毛, 腽肭脐, 没药, 萬年枣."; 撻吉那, "白髮髯鬢. 籠軟錦爲衣. 女資紡績爲生."). 인도 인근 쿠루네갈라(Kurunegala, 明家羅, 스리랑카) 지역에서 복식에 사용된 '청단피(青單被)', 인도네시아 나투나(Great Natuna Island, 尖山) 지역에서 무역된 '청피단(青皮單)'도 아랍산 '견직물'로 추정된다[『島夷志略』 明家羅, "氣候大热, 俗朴, 男女衣青單被."; 尖山, "貿易之貨, 用牙錠, 銅, 鐵鼎, 青碗, 大小埕, 瓮, 青皮單, 錦, 鼓樂之属." 이 명칭을 蘇繼慶은 아랍어의 'tabi'로 추정했으며, 일종의 사(絲)직물로 간주하였다(蘇繼慶, 『島夷志略校釋』 152쪽, 明家羅[154쪽 설명]).].

69) 바그다드산 견직물의 모방품이 유럽에서 만들어지고(Laura Weinstein, *Ink, Silk and Gold, Islamic Art from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15. A Multicentered World. p.52, Pic.23. Fragment of a "Baghdad silk" (Spain, about 1100. Lampas of silk brocaded with metallic thread (gilded animal membrane wrapped on a silk core),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산 금속사 자수도 유명하였다[John Gillow, *Textiles of the Islamic world*, Thames and Hudson, 2010. The Arab World. Iraq. p.118. "Mosul was also renowned as a centre for metal-thread embroidery."; Saudi Arabia. p.122 (Picture: embroidered with silver thread).].

70) 『諸蕃志』 大食國, "王頭纏織錦番布；朔望則戴八面純金平頂冠，極天下珍寶，皆施其上。衣錦衣，系玉帶，躡間金履。...帷幕之屬，悉用百花錦；其錦以真金線夾五色絲織成。...市肆喧嘩，金銀、綾錦之類，種種萃聚."

71) 『島夷志略』 波斯離, "貿易之貨, 用毡毯、五色緞、云南叶金、白银、倭鐵、大風子、牙梳、鐵器、達剌斯離香之属."; 撻吉那, "貿易之貨, 用沙金、花银、五色緞、鐵鼎、銅線、琉磺、水银之属."

72) 『島夷志略』 哩伽塔, "貿易之貨, 用金、银、五色緞、巫嵩布之属."; 天堂, "貿易之貨, 用银、五色緞、青白花器、鐵鼎之属."; 甘埋里, "來商販于西洋互易. 去貨丁香、豆蔻、青緞、麝香、紅色烧珠、蘇杭色緞、蘇木、青白花器、瓷瓶、鐵条, 以胡椒载而返."

73) 『瀛涯勝覽』
① 祖法儿国(Zhufar, 오만), "中国宝船到彼，开读赏赐毕，其王差头目遍谕国人，皆将乳香、血竭、芦荟、没药、安息香、苏合油、木别子之类，来换易紵丝、磁器等物."
② 忽鲁谟厮国(호르무즈), "此处各番宝货皆有，更有青红黄雅姑石，并红剌、祖把碧、祖母剌、猫睛、金钢钻，大颗珍珠如龙眼大，重一钱二三分，珊瑚树珠，并枝梗、金珀、珀珠、神珠、蜡珀、黑珀，番名撒白值。各色美玉器皿、水晶器皿，十样锦翦绒花单，其绒起一二分，长二丈，阔一丈，各色梭幅，撒哈喇毡、毾㲪罗毾㲪纱、各番青红丝嵌手巾等类皆有卖者."
『星槎勝覽』

그런 점에서 견직물의 경우, 13~15세기에는 그 물류의 방향이 쌍방향성보다는 '상대적 단방향성(중국→아랍)'을 보였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동-서 세계간 견직물 왕래에 있어 중국측이 수출국, 아랍권이 수입자측으로 나서는 추세가 적어도 이 시기만큼은 부각되었던 셈으로, 비록 양측 모두 견직물을 생산했지만 총량이나 물종별로 '중국산의 아랍행'이 '아랍산의 중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원제국의 형성과 더불어 생산된 중국산 신(新) 견직물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했던 것으로,[74] 아부 사이드가 태정제에게 선물한 진주와 동물 또한 결국 중국산 비단 구매를 위해 지불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75]

이와 같이 태정제의 재위기간 동안 많은 양의 중국 견직물이 서역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부 사이드와의 교류도 꾸준했지만, 태정제가 겁별(怯別), 월사별(月思別), 연지길태(燕只吉台) 등 다른 서역 제왕(諸王)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중국산 견직물을 서역으로 유입시킬 통로가 다변화되었다. 아울러 서역으로 보낼 견직물의 중국내 생산 또한 원활하였다. 당시 중국에 이른바 '잠재(蠶災)'도 뜸하여[76] 수출용 견직물의 조달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양가 자제들의 방직·자수업 투신,[77] 관공서 단필 제작 장인의 사적인 동원[78] 등 자수업이 과열 조짐마저 보이

① 佐法儿国(Zhufar, 오만), "地产祖剌法、金钱豹、驼鸡、乳香、龙涎香。货用金钱、檀香、米谷、胡椒、色段、绢、磁器之属." (위 『瀛涯勝覽』의 동일지역[조법올국] 기록을 감안하면 이 단·견도 중국산 확실)
② 阿丹国(아덴), "地产九尾羖羊、千里骆驼、黑白花驴、驼蹄鸡、金钱豹。货用金银、色段、青白花磁、檀香、胡椒之属."
③ 忽鲁谟斯国(호르무즈), "产有珍珠、金箔、宝石、龙涎香、撒哈剌、梭眼、绒毯。货用金银、青白花磁器、五色段绢、木香、金银香、檀香、胡椒之属."
④ 木骨都束国(모가디슈), "地产乳香、金钱豹，海内采龙涎香。货用金银、色段、檀香、米谷、磁器、色绢之属."
⑤ 天方国(아라비아), "地产金箔、宝石、珍珠、狮子、骆驼、祖剌法、豹、麅。马八尺之高也，即为天马也。货用金银、段疋、色绢、青白花器、铁鼎、铁铫之属."
⑥ 卜剌哇国(아프리카), "地产马哈兽、花福禄、豹、麅、犀牛、没药、乳香、龙涎香、象牙、骆驼。货用金银、段绢、米豆、磁器之属."
⑦ 剌撒国, "地产龙涎香、乳香、千里骆驼，馀无物也。货用金银、色段、色绢、磁器、米谷、胡椒之属."
⑧ 竹步国, "地产狮子、金钱豹、驼鸡有六七尺高者、龙涎香、乳香、金箔。货用土珠、色段、色绢、金银、磁器、胡椒、米谷之属."

74) Laura Weinstein, *Ink, Silk and Gold*, 2015. A Multicentered World. p.83, Pic.52. Fragment of silk lampas with dragons (Probably Iran, 14th century. Lampas of silk and metallic thread [gilded animal membrane wrapped on a linen core]) "The creators of this silk lampas (a textile in which two warps and two wefts are used simultaneously) drew upon a technical and visual language shared by weavers from China to Italy. This textile vocabulary owed its existence to the Mongol empire, which secured trade routes between China and the Mediterranean from the late 13th to the mid-14th century. Along these routes local motifs became so fully assimilated within the common language of design that the place of production for a given example can rarely be determined. Even if it was produced in Iran, it could well have been made with gold thread from Genoa, Venice, or one of several other Italian cities from which gold and silver threads are known to have been imported to the Middle east."

75) 당시 서역과 교류가 활발했던 옌테무르가 중국 비단상품의 조악성을 '우려'했던 기사에서[『元史』 卷27, 本紀27 英宗 延祐7年(1320) 11月 甲辰, "鐵木迭兒言, '和市織幣薄惡, 由董事者不謹, 請免右丞高昉等官, 仍令郡縣更造, 徵其元直.' 不允."], 제국 내부에 판로를 연 회회, 서역상인들이 다량의 중국 비단을 구매해 서역으로 유입시키고 있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76) 공교롭게도 태정제가 즉위하던 무렵인 1323년 3월 위휘로의 잠재[『元史』 卷50, 志3上 五行1 土 恒風, 至治3年(1323) 3月, "衛輝路大風, 桑彫蠶死."]를 마지막으로 그의 재위기간에는 잠재가 별달리 보고된 바 없고, 그가 사망한 후인 1328년 6월 비로소 하남강북행성을 필두로[五行1 木 羽蟲之孽, 致和元年(1328) 6月, "河南德安屯, 蠖食桑."] 잠재가 재개되어 5년여간 계속되었음이 흥미롭다.

게 된다.[79]

이런 상황에서 태정제의 사망으로 즉위한 문종(文宗, 1328-1332)이 태정제의 '중매보화(中買寶貨: 서역물화 구매제도)' 제도를 극렬 비판하고[80] 아부 사이드를 비롯한 서역제왕들과의 교역도 1,2년간 중단하자, 제국정부 및 중국의 민간상인들과 거래하던 서역상인들의 불만이 비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서역측으로부터의 교역재개 요구가 분출하자 원 황제 문종도 그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해 교역을 재개하게 되는데, 1332년 3월 문종이 아부 사이드에게 수채폐백(繡綵幣帛) 240필을 하사(판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81]

이렇듯 중국과 서역의 교역은 정상화되었지만, 1320년대말의 돌연한 단절만큼은 모두가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역감소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서역의 무역세력들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자 대책 수립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그 시점에 아부 사이드가 고려 충혜왕에 접촉해 왔던 것으로, 그것이 상기한 정황과 무관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서역상인들의 주요 현안이 중국산 견직물 확보 등 '직물'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그들이 고려에 보내온 토산물에도 직물(중국산 또는 현지산)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과의 교류가 전통적으로 왕성하여 유사시 중국 직물의 확보에 도움을 줄 만한 제3지역과의 교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 것 이외에 일칸국의 고려 접촉 동기를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칸국 술탄 아부 사이드의 이름이 자수된, [일칸국의 수도] 타브리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직물이 현전하고 있는데,[82] 충혜왕에게도 이런 직물이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

77) 『元史』 卷181, 列傳68 虞集·虞剛簡·虞汲·弟槃·范梈, "閩俗素污, 文繡局取良家子為繡工, 無別尤甚, 梈作歌詩一篇述其弊, 廉訪使取以上聞, 皆罷遣之, 其弊遂革."

78) 『至正條格』 [斷例] 卷3, 職制 帶肅段匹, 泰定4年(1327) 6月, 刑部議得: "將作院判粟也先不花, 因差福建監肅影堂頂子等物, 於鋪馬上梢帶自己段匹, 就雇彼處官匠, 私家虧價肅造. 擬笞貳拾柒下, 依舊勾當標附. 帶肅段匹沒官, 元虧人匠工價追給." 都省准擬.

79) 『元史』 卷175, 列傳62 張珪, "國家經賦, 皆出於民, 量入為出, 有司之事. 比者建西山寺, 損軍害民, 費以億萬計; 刺繡經幡, 馳驛江浙, 逼迫郡縣, 雜役男女, 動經年歲, 窮奢致怨. 近詔雖已罷之, 又聞姦人乘間奏請, 復欲興修, 流言喧播, 羣情驚駭. 臣等議: 宜守前詔, 示民有信, 其創造·刺繡事, 非歲用之常者, 悉罷之."

80) 『至正條格』 [條格] 卷28, 關市 禁中寶貨, 天曆元年(1328) 9月, 詔書內一款: "諸人中寶, 耗蠹國財, 累朝已嘗禁止. 比者, 奸臣倒剌沙·烏伯都剌等, 違眾任情, 擅將中寶回回人一槩朦朧支給價錢, 仰中書省照勘追理. 今後似前中獻者, 以違制論."

81) 『元史』 卷36, 本紀36 文宗 至順3年(1332) 3月 庚午, "遣使往西域, 賜諸王不賽因繡綵幣帛二百四十匹."

82) Louise W. Mackie, *Symbols of Power - Luxury Textiles from Islamic Lands, 7th-21st Century*, The Cleveland Museum of Art, Yale University Press, 2015. Chapter 6. Mongol Iran and Iraq, 1256-1353. p.231, Pic.6.16. Tiraz of Sultan Abu Sa'id(r.1319-1335). Iran, Tabriz. Ilkhanid period, Lampas: silk and gold thread. "One exceptional striped silk tiraz with gold thread that was used as a shroud can confidently be ascribed to the Ilkhanid Sultan Abu Sa'id. Gold thread forms the prominent tiraz inscription in one main stripe while small ornamented medallions and diamonds alternate on a peacock-inhabited ground in the other, separated by popular Iranian animal friezes in narrow stipes in an A-c-B-c sequence. The Arabic inscription in nashki script reads, 'Glory to our lord the most great sultan, the exalted monarch 'Ala' al-Dunya wa al-Din [A]bu Sa'id Bahadur Khan, may God make his rule to be external.'"

그렇다면 그러한 아랍산 직물들의 재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견직물이었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존재한다. 다음으로 그것이 목면이었을 가능성도 당연히 높은데, 이 지역의 목면계열 직물로는 송대 대식국의 두라면, 길자니(吉慈尼)의 금사면, 원대 아사리(阿思里)의 대면포 등이 확인된다.[83] 이집트 등지에서 생산돼 우만(Uman, 甕蠻) 소재 아랍의 대시장인 카라트(Kalhat, 伽力吉)를 통해 여러 지역에 판매된 '감리포(甘理布=甘埋里布, "호르무즈 지역의 포")'도 일종의 채색면포로 추정된다.[84]

한편 아랍산 '인피직물'이 한반도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랍권 인피직물로는 마포(麻布), 아마포(亞麻布, linen) 등이 확인되는데, 마포의 경우 높은 통풍성으로 인해 의복은 물론 곡식 및 과일을 저장할 포대, 끈, 침구 등을 만드는 데에 쓰였다면, 아마포는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시원한 옷감 소재로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한 것으로 평가된다.[85] 아랍산 마포·아마포의 존재는 원대 문헌에서도 확인되는데, 14세기 모술지역(麻呵斯離)에서 무역된 "랄속사리포(剌速斯離布)"가 일종의 마포로 비정되고,[86] 이집트 엘 코세이어(El Qoseir, 阿思里) 지역의 토산품으로 기록된 '소포필(小布疋)'은 아마포로 추정된다.[87] 현전 유물에서 마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아마포 유물은 12~15세기의 사례들이 다양하게 남아 있다.[88]

마지막으로 아랍권의 모직물이 고려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제번지』와 『도이지략』 등에는 다양한 아랍산 모직과 피화(皮貨)가 등장한다. 송대의 경우 대식, 바스라, 길자니, 모로코, Kish(미상) 지역에서,[89] 그리고 원대의 경우 바스라 등지에서 관련 사례가 확인된다.[90]

이 모든 정황들을 감안하면, 1331년 일칸국의 사절단을 비롯, 많은 서역상인들이 14세기전반 한반도를 드나들며 다양한 서역 직물들을 한반도에 전달, 제공했을 것으

83) 『諸蕃志』 大食國, "土地所出: …織金、軟錦、駝毛布, 兜羅綿、異緞等."; 吉慈尼國, "土產: 金、銀、越諾布、金絲綿(직금면)、五色駝毛段…"; 『島夷志略』 阿思里, "地產: 大綿布、小布疋."

84) 蘇繼慶, 『島夷志略校釋』 79쪽, 丹馬令[85-86쪽 설명] 참조.

85) John Gillow, *Textiles of the Islamic world*, 2010. The Ottoman World. Turkey. p.25. Linen. "Hemp and flax were grown in the same areas. Linen was strong, light, durable and hard-wearing, with the additional property of being cool to wear in hot summers, it was used to make fine quality clothing for wealthy merchant and well-to-do peasant alike….In Ottoman times, much linen fabric was also sourced from Egypt, linen's historical home."

86) 『島夷志略』 麻呵斯離, "貿易之貨, 用剌速斯離布, 紫金, 白銅, 青琅玕, 閣婆布之屬." (蘇繼慶, 『島夷志略校釋』 369쪽, 麻呵斯離[372쪽 설명] 참조)

87) 蘇繼慶, 『島夷志略校釋』 346쪽, 阿思里[347쪽 설명]

88) Jennifer Wearden, *Decorative Textiles from Arab & Islamic Cultures-Selections from the Al Lulwa Collection*, Paul Holberton publishing, 2015. The Written Word. p.136, Pic.47. Tiraz fragment: Tapestry woven Linen and silk, Egypt, Fatimid dynasty, 12th century; p.139, Pic.48. Tiraz fragment: Woven linen, Egypt, Mamluk dynasty, 14-15th century.

89) 『諸蕃志』 大食國, "天氣多寒，雪厚二、三尺；故貴氈毯."; "[토산]…織金、軟錦、駝毛布、兜羅綿、異緞等。番商興販，系就三佛齊、佛囉安等國轉易.."; 弼斯囉國(Basra, Bussora), "產: 駱駝、綿羊、千年棗；每歲記施、甕蠻國常至其國般販."; 吉慈尼國, "土產: 金、銀、越諾布、金絲綿、五色駝毛段、碾花、琉璃、蘇合油、無名異、摩娑石."; 海上雜國/默伽獵國(모로코), "王逐日誦經拜天，打纏頭，著毛段番衫，穿紅皮鞋."; 記施國, "衣番衫、繳縵布，躡紅皮鞋.."

90) 『島夷志略』 波斯離, "男女長身编髮, 穿驼褐毛衫, 以軟錦爲茵褥."; "地產琥珀、軟錦、駝毛、臍肭脐、没药、萬年枣. 貿易之貨, 用毡毯、五色緞…"

로 생각된다.

4장. 네 번째 장면: 고려의 새로운 직물 생산 및 수출

이렇듯 충선왕대 이래 충혜왕대까지 인도와 아랍권 등 동-서 세계간 무역의 주요 거점들로부터 다양한 직물들이 한반도에 들어왔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러한 해외 직물들의 유입이 한반도 직물생산 및 수출정책에 끼친 영향이다. 인도산 직물을 수령한 13세기말 충선왕의 경우, 인도산 인피직물의 중국 유입량 감소를 틈타 고려산 인피직물(모시)을 특화 가공한 신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려 했고,[91] 아랍권 직물을 받은 14세기초 충혜왕은 고려산 직물을 중국은 물론[92] 서역에도[93] 수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는 충혜왕에 초점을 맞춰, 그가 접한 아랍권 직물이 향후 그가 생산한 직물의 실체 및 그 직물을 생산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충혜왕대 무역정책(무역물자생산)의 거점이 '삼현신궁(三峴新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궁궐 규모의 방직 시설이었던 삼현신궁은 통상 충혜왕의 악명을 상징하는 시설로도 알려져 있다.[94] 그런데 이 신궁의 설치시기나 운영방식을 보면, 충혜왕이 아랍산 직물의 접수에 그치지 않고 아랍 현지의 생산 관행으로부터도 모종의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감지된다. 신궁의 여러 면모가 아랍권 고급직물 생산단위로서의 '티라즈(Tiraz)'를 묘하게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삼현신궁의 정확한 규모와 내부구조는 미상이지만, 그 대략의 규모는 중국 명주(明州, 慶元)의 직염국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1290년 설치된 명주 직염국은 태정(泰定) 2年(1325) 개조됐으며, 염방옥(染房屋)이 4칸, 낙사당(絡絲堂)이 14칸, 기방(機坊: 베틀방)이 25칸, 타선장실(打線場屋)이 41칸이나 될 정도로 넓은 시설이었다.[95] 14세기초에는 아직 작은 규모였던 명주 직염국이 공교롭게도 충혜왕 즉위(1330) 직전 확장 개조된 셈이었다. 충혜왕이 관영 방직공간을 조성하면서 아예 궁궐 하나를 통째로 신축한 것도, 원제국측 직염국들의 규모 확대에 영감을 받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신궁 내부의 모습은 또 다른 영향의 존재를 암시한다. 그와 관련해 삼현신궁

91) 이강한, 2018「고려 충선왕의 저포 생산 전략 검토」『한국사연구』180 참조.

92)『高麗史』卷36, 世家36 忠惠王後3年(1342) 3月 丙申, "遣南宮信齎布二萬匹及金銀鈔市于幽燕."; 『朴通事』卷 中. "船路裏來那, 旱路裏來?"; "我來時節, 五六個賊船 圍着一個西京來的載黃豆的船 又高麗地面裏來裁千餘桶布子的大船 衝將去了..."

93)『高麗史』卷36, 世家36 忠惠王後5年(1344) 1月 戊辰, "給布回回家取其利."

94)『高麗史』卷36, 世家36, 忠惠王後4年(1343) 3月 己卯, "王起新闕于三峴."; 卷89, 列傳2, 后妃2, 銀川翁主林氏, "商人信之女, 丹陽大君之婢也. 賣沙器爲業王見而幸之有寵. 3年(1342), 王將納和妃林氏妬之. 乃封爲銀川翁主以慰其意. 時稱沙器翁主. 王起三峴新宮, 其制度不類王居, 庫屋百閒實穀[穀]帛, 廊廡置綵女, 有二女被選當入泣下, 王怒以鐵椎擊殺之. 又多置碓磴, 皆翁主意也…."

95)『至正四明續志』卷3, 城邑, 織染局, "在西北隅, (중략) 至元27年(1290) 起, 蓋局院泰定2年(1325) 鄞縣尹 阮申之提調改造…… **織染局** [在西北隅儒學公元系宋貢院基至元二十七年起蓋局院泰定二年鄞縣尹阮申之提調改造土庫三閒庫前軒屋三閒門樓三閒廳屋三閒並前軒廳後屋一閒染房屋四閒吏舍三閒絡絲堂一十四閒機坊二十五閒又有打線場屋四十一閒土祠一閒在帥府後北首]"

에 배치된 인력의 확보 방식 및 신궁에 비치된 곡백(穀帛)의 존재가 주목된다. 전자의 경우 여러 '채녀'들이 권세가들의 가문에서 징발되었고,[96] 이 채녀들을 다루는 충혜왕의 태도가 매우 잔혹했음이 눈에 띈다. 또 후자의 경우 '곡백'의 '곡'을 견직물의 '곡'으로 해석하면,[97] '곡백' 자체를 채녀들이 직조 과정에서 참고했던 일종의 '표본'으로 해석할 여지가 발생한다.[98] 여러 다양한 곳에서 징발된 채녀들의 직조 스타일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충혜왕 등 정부인사나 제3의 주문자의 의도에 부응하는 직물 생산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는가 한다.

방직시설이었다면 당연히 구비했어야 할 이런 모습들에서 굳이 서역의 영향을 찾고자 하는 것은, 동시기 아랍권에서 성행했던 '티라즈(Tiraz)'의 여러 특징적 면모들 때문이다. 티라즈는 페르시아지역에서 성행했던 고급 자수행위(embroidery), 또는 그 결과물(자수제품), 또는 그런 직물생산을 위해 공권력이 운영·지원했던 '워크샵(workshop)'의 의미 등을 지니는 개념이다.[99] 다시 말해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세계의 직조(織造) 공간을 이르는 명칭으로,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주문량도 많았던 직금("cloth of gold") 등을 사적, 개인적 차원에서 제작케 하기보다 술탄, 칼리프 등의 권력을 기반으로 대량 생산하고자 정부가 무슬림권 전역에 개설했던 관영 제작소들로 규정된다.[100] 티라즈 워크샵들의 등장은 중세초기 아랍권 이슬람 자수생산체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되는데, 이미 8세기부터 티라즈 시스템이 번성하기 시작했으며 10세기중엽에는 왕정의 공식 기구이자 경제적으로는 핵심 수입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101]

물론 충혜왕이 궁전을 만든 후 그것을 방직의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사실만 갖고 그의 그런 시도가 이슬람 티라즈체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다만 14세기후반 알렉산드리아에서 운영된 티라즈에 대한 묘사에 언급된 베틀(looms) 등은[102] 삼현신궁 내부에 비치된 방직도구('碓磑')들을 연상시키고,[103]

96) 『高麗史』 卷124, 列傳37, 嬖幸2, 閔渙, "渙又建白求取人四件婢奴甚急, 曰寄上, 曰投屬, 曰先王所嘗賜與, 曰人相貿易者. 王使渙及康允忠等主之, 於是諸豪富家婢有姿色者, 皆奪而置之北殿, 使紡績如平人家, 權準奉天祐權適家尤被其害, 唯賂渙者得免."

97) '곡(Crepe)'은 서구권에서는 "a thin and loosely woven tabby silk fabric (of high-twist threads) with a crinkled surface (Tang and later, with material evidence from Shang times)"로 정의된다(Dieter Kuhn(edited), *Chinese Silks*, Yale University Press, 2012. p.522[Glossary]).

98) 지금까지는 '곡백'의 '곡'을 '곡식'으로 간주해 이를 통상 '곡식과 비단'으로 해석해 왔지만, 여러 고려 특산 견직물들이 열거돼 있는 최자(崔滋)의 <삼도부(三都賦)>에도 [비단으로서의] '곡(縠)'이 [양곡의] '곡(穀)' 자로 기록돼 있음을 감안하면[『東文選』 卷2, 賦, "...羅綃綾繰 縑綃縳縠..." 『동문선』의 고시(古詩)에는 (윤소종의 형들이) '유산을 받아 노비에다 환(紈)·곡(縠) 옷을 입는 사치를 했음이 묘사되었다(박용운, 2016 『고려시대 사람들의 의복식생활』 경인문화사, 127쪽)], 이 '곡'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99) Louise W. Mackie, *Symbols of Power*, 2015, p.85. 물론 해당용어가 워크샵을 가르키는 의미로 먼저 쓰였고 자연히 그런 워크샵에서 만들어진 직물 자체를 가리키게 된 것이라 보기도 한다.

100) John Gillow, *Textiles of the Islamic world*, 2010. Introduction. p.11.

101) Gillian Vogelsang-Eastwood, *Encyclopedia of Embroidery from the Arab world*, Bloomsbury, 2016. Chapter 15. Embroidered Tiraz. p.140.

102) Louise W. Mackie, *Symbols of Power*, 2015. Chapter 7. Mamluk Egypt and Syria, 1250-1517. p.247. "The only known description of a *tiraz* workshop, and the large drawlooms on which all elaborately patterned silks were woven by a weaver and a

품질 조작 등을 비롯한 각종 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티라즈 운영 지침[104] 등은 삼현신궁에 비치된 표본으로서의 '곡백'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으며, 충혜왕에게 타살당한 여종들이 근무조건을 불평했다는 사실은 이집트 티라즈 근무자들의 높은 노동 강도를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105] 아울러 지금까지는 충혜왕의 삼현신궁 운영을 "궁궐을 지어놓고는 사적 영업의 공간으로 활용한" 사욕적 작태로만 부정시해 왔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충혜왕이 방직을 위한 거대한 공간을 조성한 후, 그에 왕실의 무게를 지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짐짓 그를 '신궁(新宮)'으로 지칭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명명 자체가 삼현시설의 '티라즈적 성격'을 방증하는 셈이라 한다면 지나친 견강부회일까?

무엇보다도 충혜왕이 삼현신궁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수출직물의 생산에 나서게 된 시점인 1340년대 전반이, 공교롭게도 이슬람권에서는 알렉산드리아의 정치권력이 워크샵들에 대한 중앙통제를 포기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가 이완되어 가던 시점이 흥미롭다.[106] 그 결과 직물생산 거점들이 사분오열되고 민간 중심의 무질서한 제작이 계속되면서 그 품질도 악화됐으며, 15세기전반에는 직물생산 여건 자체가 붕괴하는 양상까지도 출현했음을 감안하면(1388년 알렉산드리아 소재 14,000기의 베틀이 1434년

---

drawboy, was recorded when Sultan al-Ashraf Shaban (r.1363-77) visited a tiraz in Alexandria.... Master weavers from Iran and Iraq, many of whom fled Mongol atrocities, are believed to have reintroduced drawloom weaving to the Mamluk realm."

103) 필자로서는 이 방아를 베틀의 답판(족답)으로 해석하고 싶으나 근거는 없다. 고려·조선시대 문직물(문주·능·단·사·라 등) 직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직기(소화루[小花樓]에 단화본[單花本] 혹은 다화본을 갖춘 화기[花機]로 추정됨)에 대해서는 심연옥·민길자, 1997 「조선전기 출토 직물의 종류와 제직기구에 대한 고찰」『한국복식』 15, 15쪽 참조.

104) Louise W. Mackie, *Symbols of Power*, 2015. Chapter 7. Mamluk Egypt and Syria, 1250-1517. p.247. "Constant vigilance was required to insure quality standards. Textile workers and weavers were adept at manipulating the thread, weave, and fabric, which prompted the regulations recorded by Ibn al-Ukhuwwa in Egypt during the late 13th century....The *muhtasib* must prevent them from sprinkling flour and roasted gypsum over it when it is woven to hide its roughness and so that it may appear as if closely woven and of good quality.'"

105) 사실 이들이 피로를 호소한 것만으로 때려 죽였다는 일화 자체가 어색한 바가 있는데, 불량 직물을 만들거나 원사와 관련한 횡령, 착복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던 도중에 사망한 것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바로 위에 인용한 연구에서도 방직 이전 원사(原絲)의 중량과 완성직물의 중량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는 사례가 관찰된다("And important control was implemented by weight. To prevent any suspicion, weavers had to weigh thread when they received it and weigh the woven fabric when it was returned to the owner.").

106) Louise W. Mackie, *Symbols of Power*, 2015. Chapter 7. p.247. "The textile industry underwent a radical change in 1340-1341. After centuries of imperial control, a government official, instead of the sultan, appointed the supervisor of the royal workshop in Alexandria. Textile production plummeted. The figure of 14 thousand looms active in 1388 in Alexandria, once acclaimed for luxurious silks and linens, rumbled to only eight hundred in 1434..."; p.275. Later silks. "Tiraz manufactories underwent radical change in 1340-1341, as mentioned above, when imperial control was replaced by that of the government. Thereafter textiles were made privately, with the most skilled workers producing for the sultan. Textile manufacturing plummeted. ..Standards and grades of production inevitably varied. Extant silks from the 15th century range from low-grade to high-quality fabrics, the latter despite economic recessions and resurgent plagues that drastically reduced populations...."

800여개로 감소), 1340년대의 이러한 이슬람권발 충격파는 무슬림권의 거래 상대방이었던 동아시아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아랍권 티라즈들의 몰락 및 고품질 직물들을 생산해 오던 서아시아 체제의 동요를 지켜보던 충혜왕이 (아랍권 고품질 직금생산의 상징인 티라즈와 유사한) 삼현신궁을 건설해 대중국, 대서역 직물수출에 나서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는 그 몰락의 시작까지는 인지하지 못한 채, 서역의 그러한 생산방식을 모방하려 한 것일 따름일 수도 있다.)

다만 한가지 남는 문제는, 과연 충혜왕 식의 티라즈인 삼현신궁에서 생산된 직물들이 서역에서 나름의 경쟁력과 상품성을 지녔을지의 여부이다. 삼현신궁의 생산품들이 수출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했다면, 충혜왕의 시도의 의미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충혜왕이 삼현신궁에서 어떤 직물을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충선왕대 기획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충숙왕대부터는 고려의 대표적인 대원(對元) 진상물로 등장하는 '직문저포(織紋苧布)'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힐 따름이다. 이 직문저포는 그간 '문양이 시문된 모시'로 짐작돼 왔을 뿐 그 실체에 대한 학계의 구체적 정의가 본격 개진된 바 없었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 이 직문저포는 단순히 색사(色絲)로 문양이 시문된 모시라기보다, 당시 원제국 내외에서 각광받던 직금(織金)·직은(織銀) 제품들, 즉 금속사(金屬絲)를 활용해 견직물 표면의 부분 또는 전체에 시문을 한 제품들과 흡사하게,[107] "금속사를 활용해 시문(施文)한 모시"로 생각된다.[108]

실제로 금은사로 시문한 모시 유물이 현전하기도 하는데, 충혜왕대이기도 한 1340년대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속 불복장유물[109] 중 하나인 '주홍(朱紅) 사지(紗地) 화문(花紋) 직금'이 그것으로, 주홍색으로 물들인 모시실을 날실과 씨실 모두에 사용해 짠 바탕직물에, 종이 위에 금박을 얇게 펴 아교나 칠로 붙인 실, 즉 '금사(金絲)'를 활용해 문양을 짠 사례에 해당한다.[110] 또 같은 문수사 불복장 중 '황색 사지(紗地) 능화형(菱花形) 초화문(草花紋) 직은(織銀)'은 순수 모시기반 직금제품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례이다. 날실은 [정련이 안 된 생사의] '모시실'을 쓰되 씨실은 [황색으로 염색된] '비단실'을 써 제직한 바탕직물(합직물)에 '은사(銀絲)'로 문양을 표현한[즉 직은

107) 원제국 시기의 금은사(金銀絲) 활용 직물들은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금단사(金緞絲, "Jinduanzi silks, common gold-threaded silk known as 'gilded silk'"), ②직금금[織金錦, "a superior variety of the gold-thread weaves known by the Persian term nasij (나시즈), meaning 'cloth of gold,' also called nashishi, nachisi, nashechi, nakeshi"] 및 ③암화금[暗花錦, "gold weft-faced compound jin weave(anjiaxing zhijinjin)"] 등이 그것이다[Dieter Kuhn(edited), *Chinese Silks*, 2012. Chapter 7. Silk Artistry of the Yuan Dynasty. pp.334~340 참조).

108) 장경희가 일찍이 14세기전반 『고려사』에 등장하는 문저포·직문저포를 '모시를 기반으로 한 직금형 직물'로 규정한 바 있다(1991 「14세기의 高麗 梁織 연구」『미술사학연구』 190·191, 48쪽).

109) 문수사 및 장곡사 등 1340년대 유명 불복장 유물에 대해서는 조효숙, 1992 『한국 견직물 연구-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인구, 1975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미술자료』 18; 민영규, 1966 「청양 장곡사 고려철불 복장유물」, 『인문과학』 15.16 등 참조.

110) 심연옥, 2002 『한국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260~261쪽, <초화문 금사(金紗)>; 2006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고대직물연구소출판부, 120~121쪽, 석류문 장금사(裝金紗)>.

(織銀)을 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함께 발견된 사저(絲紵) 교직 답호(搭胡)도 '교직물'에 직금 처리(또는 금사자수)를 한 동일한 사례로서,[111] 2건 모두 이를테면 "직금사저교직(織金絲苧交織)"이라 하겠다.[112]

물론 이러한 동시대 산물로서의 직문저포를 충혜왕이 삼현신궁에서 제작한 직물과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혜왕 폐위 직후 이제현(李齊賢)이 올린 상언이 주목된다.[113] 그는 일찍이 충숙왕이 사치를 비판하며 '금으로 수놓은 옷[蹙金之衣]은 조상의 구법이 아니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는데, '축금지의'는 문자 그대로 '금·은[사] 등으로 장식한[수놓거나 박(箔)을 가한] 비단', 즉 직금(織金)·가금(加金) 류 직물로 해석된다. 원제국시기 한반도에 새로 소개된 '서금(西錦)'이나 고려인들이 그를 모방하여 14세기에도 활발히 생산했던 '직금(織金)' 등이 모두 그에 해당하는데, 이제현은 충선왕(덕릉)과 충숙왕(의릉)을 검약의 사례로 제시하고 충숙왕이 '전왕(충혜왕)'을 꾸짖었음을 환기함으로써, 상기한 '축금지의(또는 '금.은[처리된]금수')'의 유행 시기를 충혜왕대로 암시하고 있다. '고려의 풍속이 사치해지고 민생이 피곤해지며 국용이 결핍'될 정도로 직금류·가금류 직물이 생산된 시기를 충혜왕대로 특정한 셈으로, 충혜왕대 직물생산의 거점 노릇을 했던 삼현신궁에서 생산된 제품이 '직금상품'들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이라 여겨진다.

게다가 삼현신궁에서 제작된 직금 제품들의 바탕직물이 '모시(저포)'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 또한 이제현에게서 제공된다. "이전에 가혹하게 거둔 '포'는 모두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종용한 대목이 그것으로, 이 '포'가 삼현신궁 생산품들의 '바탕직물'을 가리킨 것이라면, 이 종용 또한 삼현신궁 제작물들이 '직문저포'였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직문저포를 비롯한 고려산 '직금인피'의 중국 및 서역내 상품가치는 어땠을까? '금·은사로 문양을 표현한 견직물'만 보아 왔을 중국인들의 눈에는 분명 특이한 물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단과 모시를 혼용해 기반직물을 제직한 후 금·은사로 문양을 짠'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인들에게 친숙하면서도(직금기법을 썼다는 점에서) 동시에 이채로운[바탕직물이 순수 견직물이 아닌 모시+견직 합직물(合織物)이라는 점에서] 외국산 특이상품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114] 다시 말해 원제국의 직금 기법을 차용하되, 그를 적용할 바탕직물로는 이미 중국에서도 명성이 높았던 저포를 쓰거나 심지어 저포와 견직물을 합직한 교직물을 사용함으로써, 고려 직금상품의 차별성

111) 이 두 유물에 대해서는 심연옥, 2015「고려시대 직금 직물의 조직 특성 및 유형 분류」『한복문화』 18-4; 2016「전통 사저교직포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한복문화』19-4 참조.

112) 견직물과 인피직물을 합직하고 그에 금속사로 시문한 경우는 이 밖에도 더 발견된다.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직물 제직시의 날실처럼 쓰고, 각색의 견사를 위향으로 엮어 마치 대나무 발처럼 짠 후 은사(銀絲) 등을 써 문양을 표현한 송광사 죽경질(竹經帙)이 그런 경우다(심연옥, 2015 윗논문).

113)『高麗史』卷110, 列傳23, 李齊賢, "忠穆襲位進判三司事封府院君. 上書都堂曰: '...金銀錦繡不産我國, 前輩公卿被服只用素段子若紬布, 器皿只用鍮銅〇瓦. **德陵作一衣問直則重輟而不爲, 毅陵嘗責前王: '蹙金之衣插羽之笠非吾祖舊法.'** 有以見國家四百餘年能保社稷徒以儉德也. 近來風俗窮極奢侈, 民生困而國用匱職此而已. 請宰相, 今後不以錦繡爲服, 金玉爲器, 又不使袨服乘馬者擁其後. 各務儉約諷上而化下風俗可以歸厚也. **前者迫徵暴斂之布, 便合歸於納者**. 然恐官吏夤緣爲奸, 細民未蒙實惠, 故宜分付諸司以充來歲雜貢, 令其得免先納借貸之弊. 行省既有文移當早施行..."

114) 이강한, 2018「고려 충혜왕대 저포제품의 상품성과 경쟁력 검토」『동방학지』183 참조.

과 특수성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직문저포' 등으로 지칭된 고려산 직금 인피 제품들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의 경쟁력은 충숙왕대인 1322년 7월 이래 공민왕대까지 이어진 원제국측의 집요한 직문저포 징발이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서역에서는 어떠했을까? 일칸국의 수도 타브리즈에서도 견직물에 직금을 가한 화려한 상품만 주로 제작하는 등 중국과 사정이 비슷하였다.[115] 다만 아랍권의 경우, 이집트 등지에서는 수천년간 린넨(linen) 문화가 번성하며 고급 린넨 제품(linen velvet/tiraz 등)을 생산했음이 주목된다.[116] 이른바 "푸스타트(Fustat) 유물"의 20%를 점유한 인피 조각들, 백색 linen으로 만든 칼리프들의 의복, 맘룩(Mamluk) 시대 이집트 무덤에서 나온 린넨 유물[117] 등이 그를 잘 보여준다. 이슬람의 린넨 중 최고급 물품들은[118] 고려산 인피직물의 좋은 경합 상대였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고려는 염색 모시[119] 등으로 경쟁해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15) 일칸국의 수도 타브리즈가 그 중심거점이었다(Louise W. Mackie, *Symbols of Power,* 2015. Chapter 6. Mongol Iran and Iraq, 1256-1353. p.213. "...Opulent dress was also recorded at the Ilkhanid capital of Sultaniyya. The emperor's people are worthily arrayed...although silk and gold are in great plenty, they have very little linen..."; p.231. "Tabriz, spared by the Mongols until Sultaniyya was built, was documented as manufacturing luxury gold and silk textiles. In addition to Sultaniyya, tiraz factories were recorded in Baghdad and Herat during the late 13th and 14th centuries..."). 이 책에 수록된 화려한 직금 유물들은 모두 13-14세기 이란, 이집트, 중앙아시아산으로 'cloth of gold' 또는 'silk and metal thread'에 해당한다. 지면상 쪽수와 도판번호는 생략한다.

116) Gillian Vogelsang-Eastwood, *Encyclopedia of Embroidery from the Arab world*, 2016. Chapter 4. Materials and equipment, p.26. Ground Cloth; John Gillow, *Textiles of the Islamic world*, 2010. Introduction. p.15. The Trade of Silk, Cotton, Linen and Wool in the Islamic world. p.17. "Linen was in common use in the Mediterranean Classical and post classical worlds. It had been the fabric of the pharaohs and, along with wool, was much favoured in the world renowned weavings of the Egyptian Christian Copts."; Louise W. Mackie, *Symbols of Power*, 2015. Chapter 3. Tiraz, 800-1150. p.91, Linen Tiraz with Embroidered Inscriptions. "Linen tiraz were made in areas where flax grew in greatest: in the Nile Delta and near the early capital of Fustat and the Fatimid capital of Cairo."; Chapter 6. Mongol Iran and Iraq, 1256-1353. p.228, "In flax-dominated Egypt, linen velvet was made by the medieval era, whereas silk velvet probably developed in a region with sericulture, such as Iran, where weavers appear to have made it by the 13th century."

117) Louise W. Mackie, *Symbols of Power*, 2015. Chapter 2. Early Textiles, 650-1100. p.80. Fustat Textiles, 1980. (Old Cairo인 Fustat에서 1980년 발견된 직물 3천점의 8%는 "비염색 linen, hemp 또는 reeds", 12%는 청색으로 염색된 "linen plain weaves"); Chapter 3. Tiraz, 800-1150. p.85. "Symbols of majesty distinguished caliphs. Their dress was generally composed of white silk or linen garments..embellished with gold decoration, and shaded by a matching parasol."; Chapter 7. Mamluk Egypt and Syria, 1250-1517. p.253. "Several hundred Mamluk silks are known. Most are small fragments from Egyptian graves, a few are lengths and garments that were scientifically excavated in Egypt... Linen and cotton textiles with printed, embroidered, or applique decoration, along with woolen fragments, are beyond the scope of this book."

118) Louise W. Mackie, *Symbols of Power*, 2015. Chapter 2. Early textiles, 650-1100, p.46. Textile Industry. "...At least 26 grades of flax were recorded during the 11th century, a range that was confirmed by many qualities excavated in 1980 at Fustat(old cairo)...."

119) linen은 염료 흡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터라(Louise W. Mackie, *Symbols of Power*, 2015. Chapter 1. Textile Power, Industry and Characteristics. p.38, "Neither linen nor cotton yarn, being cellulose, accepts dyes well; however, they were valued as white lightweight fabrics."), 염색된 고려산 모시 제품들은 어느 정도 강점을 가졌을 수 있다[삼현신궁의 전신이었을 수도 있는 충선왕대의 관청 이름이 '직염국(織染局)'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아랍산 인피직물에 (직문저포처럼) '직금 시문'을 한 경우는 과연 없었던가? 인도에서는 '목면'이나 '모직'에 직금을 한 사례가 발견되지만[120] '인피직물'에 직금을 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아랍권에서는 린넨 등의 인피직물에 견사(絹絲),[121] 린넨사,[122] 모사(毛絲)[123] 등을 사용해 자수한 사례들이 9세기 이래 15세기까지 출현하지만(견사 자수 사례가 가장 많음),[124] '금속사'로 자수한 경우는 아직

120) 『諸蕃志』 吉慈尼國, "土產: 金、銀、越諾布、**金絲綿**、五色駝毛段、碾花、琉璃、蘇合油、無名異、摩娑石."; 天竺國, "其國出: 獅子、貂、豹、橐、犀、象、玳瑁、金、銅、鐵、鉛、錫。金鏤織成金**罽**, 白氎."; 細蘭國, "其王黑身而逆毛, 露頂不衣, 止纏五色布, **躡金線紅皮履**."

121) Louise W. Mackie, *Symbols of Power*, 2015. Chapter 1. Textile Power, Industry and Characteristics. p.27, pic.1-10(Egypt, first half 11th century. Linen. embroidered with silk. Ashmolean Museum, University of Oxford); Chapter 3. Tiraz, 800-1150. p.91. Linen Tiraz with Embroidered Inscriptions. "In Egypt linen tiraz were embroidered with imported Iranian silk thread for a period of about one hundred years, roughly mid-9th to mid-10th century. The embroidery technique...[presumably] came from Iran, where the use of silk thread from the sericulture industry was well established. It was practiced in Egypt at the expense of indigenous tapestry weave, most likely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court in Baghdad. Smooth silk thread was ideal for embroidery since it passes easily through ground fabrics, unlike more abrasive wool thread."; Gillian Vogelsang-Eastwood, *Encyclopedia of Embroidery from the Arab world*, 2016. Chapter 10. Coptic, Byzantine and Arab Sicilian Embroidery, p.80, Pic.10.3(linen textiles with silk embroidery. 6-8th centuries); Chapter 11. Late medieval Embroideries from Egyptian archeological sites. p.90. [Naqlun monastic site, Fayoum oasis, 이집트, 81점 발굴. 10-13세기말] "His body was wrapped in a linen shroud decorated with a single band of geometric decoration in silk made in embroidery."; Chapter 14. Medieval Styles of Embroidery from Egypt and the Eastern Mediterranean. p.130. "These patterns are worked on an even weave linen or cotton ground with multi-colored silk and wool threads for the main areas."; p.132, Pic.14.12("A fragment of linen with a large inscription worked in red floss silk using couching."); p.133, Pic.14.13("A fragment of linen embroidered with red and blue silk thread..")

122) Gillian Vogelsang-Eastwood, *Encyclopedia of Embroidery from the Arab world*, 2016. Chapter 4. Materials and equipment, p.27. Embroidery yarns. p.28. "With respect to the ancient Middle East, it would appear that linen was used as an embroidery thread only in Egypt."; Chapter 11. p.89. [1980년 푸스타트에서 발굴된 11세기초 유물 3천점] "The ground cloth is an undyed tabby weave linen. It has been decorated with a blue linen thread."; Chapter 14. p.131. Couching and laid work. "During the Mamluk period(1250-1517) couching is characterized by using an even weave linen ground material, with the main designs worked in a simple couching technique using thick linen thread sewn onto the ground with a slightly thinner linen thread."(pic.14.10.)

123) Gillian Vogelsang-Eastwood, *Encyclopedia of Embroidery from the Arab world*, 2016. Chapter 10. p.82, Pic.10.4(embroidery in wool on a linen ground, 6-7th centuries); Chapter 11. [푸스타트유물] "..woolen embroidery on linen is even scarcer than silk, but two fragments preserve an.."

124) Jennifer Wearden(text), *Decorative Textiles from Arab & Islamic Cultures*, 2015. Introduction. p.13, Fig.1. (Tiraz fragment. Woven linen. 이집트, 맘룩왕조. 14-15세기) "Archaeology either as the result of controlled excavation or by illegal plundering has provided quantities of textiles recovered from the burial grounds and rubbish mounds of Fustat and Old Cairo, dating to the period of the Fatimid, Ayyubid and Mamluk caliphs who ruled Egypt from the 10th to early 16th centuries. These are mainly linen fragments woven and embroidered in coloured silks with geometric designs and sometimes with stylized Arabic inscriptions [as Fig.1]."; Gillian Vogelsang-Eastwood, *Encyclopedia of Embroidery from the Arab world*, 2016. Chapter 14. p.127. "Most of the medieval embroideries examined were worked on an even weave linen ground with a silk yarn decoration. Other combinations, however, such as linen with wool, linen with silk and

확인되는 바 없다. 그런 점에서 고려산 직문저포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차별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25]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세기말 이래 14세기 중엽까지 다양한 재질의 직물들이 여러 비중국지역으로부터 한반도에 유입되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그런 직물들이 고려정부에 여러 자극이 되어, 이전에 없던 직물이 생산되고 이전에는 거래한 바 없던 지역으로까지 그것이 수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시기 고려의 대외 교류 범위가 넓어짐과 동시에, 그러한 교류가 쌍방향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라 할 것이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여러 가설들만이 난무하는 상황인데,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linen yarns, cotton with cotton threads, cotton with silk yarns, can also be found, but these do not seem to be as common.."

125) 한편 아랍권에서는 견사와 인피섬유를 합직하는 관행도 존재하여(Gillian Vogelsang-Eastwood, 2016. Chapter 15. Embroidered Tiraz. p.146. Materials. "Various forms of ground cloth were used for medieval embroidered tiraz, such as silk, linen, cotton and ***mulham***(silk warps with cotton or linen wefts.), 앞서 언급한 고려의 '사絲+저苧 교직'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는데, 그런 성격의 아랍산 직물 또한 고려의 직문저포와 경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역의 합직물들 중 직금(또는 금속사 자수)을 한 경우 역시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토론문 4】

「몽골 원제국 시기 고려로 들어온 외국의 직물들 - 세 가지 주요 장면」 토론문

김윤정(서울역사편찬원)

이강한 선생님의 글은 13세기말~14세기초 고려에 유입된 해외직물들을 차례로 살피고 그것이 고려의 직물 산업에 미친 영향을 구명하고자 했다. 기왕의 교류사 연구들이 직물에 주목하였음에도 다루는 직물 교류의 양상이 대체로 중국산 견직물에 치중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글은 직물 교류의 범위를 인도·동남아시아·아랍까지 공간적으로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직물과 마직물 등 보다 다양한 물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는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교류상을 시야에 두고 자기, 직물 등 물질문화에 천착해 온 필자의 연구들이 축적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발표문은 현재 집필중인 저서의 일부이므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제시하고 완성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함으로써 토론문을 갈음하고자 한다.

이 글은 부제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려에 유입된 외국 직물의 3가지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각기 『고려사』 세가의 3가지 사료(① 충선왕 즉위년 을축조, ② 충숙왕 후8년 3월 계미조, ③ 충혜왕 원년 9월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만 관련 사료가 이를 제외하면 전무하므로 직접적인 자료들 대신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추론밖에 할 수없는 상황이다. 이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충선왕 즉위년(1298) 을축조의 기사에서[1] 충선왕이 인도 馬八(兒)國[Mabaar] 출신의 孛哈里[不阿里, Beihaili]로부터 받은 직물로 '金繡手箔'와 '土布'를 주목하였다. 인도산 직물 유물, 송·원·명대 문헌에 등장하는 인도산 직물 기록 등을 통하여, 이 시기 인도에서 다양한 목면과 인피제품들이 생산 및 유통되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들이 인도산 직물, 특히 '금수수박'은 고급 목면, '토포'는 이와는 다른 인피로 판단했다. 그가 인도 지역 출신이고 인도의 식물성 직물의 생산이 활발하였음을 염두에 두면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논증의 시작 과정에서 '금수수박'과 '토포'가 모두 인도산 직물일 것이라는 것을 선험적으로 전제함으로써(본문 6번째 단락) 다른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는 한계점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1) 馬八國王子孛哈里遣使來, 獻銀絲帽, 金繡手箔, 沈香五斤十三兩, 土布二匹. 先是, 王以蔡仁揆女, 歸丞相桑哥, 桑哥誅, 帝以蔡氏, 賜孛哈里. 孛哈里, 與其國王有隙, 奔于元, 居泉州, 至是, 以蔡氏故, 遣使通之.

대표적인 사례로 ‘금수수박’을 인도산 면직물로 파악한 것을 들 수 있다. 솜나무의 수종에 따라 많은 명칭이 있을 만큼 목면·면포의 품종이 다양하고, 중국의 비단이 가는 길 반대로 인도의 면포가 왕래하였다.[2] 필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Coromandel 해안은 무역의 거점이자 원대에도 소위 ‘西洋布’포 불리는 면포의 생산지로 명성이 높았으며, 인도의 다채로운 면직물은 16~18세기 유럽이 열광한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금수수박’이 과연 인도산 면직물이었을까? 인도에서 다양한 목면제품이 생산되었으니, 인도 출신 인물이 충선왕에게 선물한 것이 인도산 목면제품일 것이라는 추측은 다소 거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글자의 뜻 자체를 토대로 추론해 보자면 ‘금으로 수를 놓거나 금박을 입힌 (견)직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충선왕에게 이를 선물한 Beihaili는 비록 인도 출신이나 원제국에 귀화하여 泉州에 거주하다 대도에서 병사한 후 천주에서 장례를 치룬 인물이었다. 또한 원대에 金絲 및 金箔을 활용한 織金綺紋이 널리 유행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3] 따라서 천주에 있던 Beihaili가 그곳에서 매입한 직금기문(‘금수수박’)과 인도산 면직물(‘토포’)을 고려 충선왕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더 크지는 않을까.[4]

충숙왕 후8년(1339) 3월 계미조[5] 역시 이와 비슷한 선험적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흥서한 충숙왕이 생전에 자주 목욕하며 사용한 苧布를 ‘手巾’이라고 한 것에 주목하였다. 특히 ‘수건’은 측근들이 횡령하였던 만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고가치의 직물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고려의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는 점, 중국 혹은 후대의 기록에서 ‘수건’이라는 용례가 인도와 자바 등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된다는 것에서 충숙왕이 사용한 ‘수건’ 역시 해외산 인피직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수건은 중국 고대에부터 그 용례가 등장하는 물품으로 용도·소재에 따라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며, 이는 특정한 소재의 직물을 지칭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정 정도의 크기를 지닌 세신용 포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6]

특히 필자는 ‘저포’와 ‘수건’을 구분하여 명칭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저포와 비슷한 직물이었을 뿐 저포 자체는 아니었을 가능성을 상정했으나, 이는 반대로 ‘목욕 할 때 사용하는 저포 60여필’의 별칭이 ‘수건’이라고 본다면 ‘저포’가 곧 ‘수건’ 그 자체가 된다. 더욱이 측근들이 횡령할 만큼 재화로써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충선왕이 매달 목욕에만 60여필을 필요로 할 만큼 그것의 공급이 원활하도

---

2) Stephen F. Dale, “Silk Road, Cotton Road or .... Indo-Chinese Trade in Pre-European Times”, *Modern Asian Studies*, Volume 43-1,2009.

3) 황넝푸·천잔잔 저, 이희영 옮김, 『중국의 비단역사 칠천 년-역대 직조와 자수품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6; Joyce Denney, “Textiles in the Mongol and Yuan Period” *The World of Khubilai Khan: Chinese Art in the Yuan Dynast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2010 등.

4) 이와 더불어 장동익 선생님은 ‘金繡手箔’을 ‘金繡手帕’으로 교감한 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구된다.

5) 王薨于寢，在位前後二十五年，壽四十六. 性嚴毅沈重聰明，善屢文，工隸書. 又性好潔，一月湯浴之費，諸香十餘盆，苧布不下六十餘匹，名曰手巾. 多爲內竪所竊，王不之知. 忠惠王後五年十二月，元贈諡忠肅，恭愍王六年閏九月，加上尊號曰懿孝.

6) 『資治通鑒音注』의 敬皇帝紹泰元年(555)의 “霸先懼其謀洩，以手巾絞稜”에 대하여 胡三省(1230~1287)은 이를 “今人盥洗，以布拭手，長七八尺，謂之手巾.”라고 주석을 달은 바 있다.

록 다량 생산·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도 주장한 바와 같이 고려의 저포 생산은 상당한 수준에 있었으며 조선초 기록에 (일시적으로나마) 왕실에서 수건을 저포로 만들지 말도록 한 것[7]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사료상에 해외산이었음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고려의 저포일 가능성을 배재할 필요가 있을까.

1331년 충혜왕이 西北 普賽因에게서 土物을 받았다는 사실은[8] 일칸국의 아부 사이드로부터 서역의 다양한 직물들이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일칸국의 직물 제조·교류에 관한 문헌기록 및 유럽과 아랍에 현존하는 직물들 토대로 당시 일칸국의 직물업이 번영하였고 교류 역시 활발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9] 다만 태정제 사망 직후 원제국과의 교역이 제한된 시점에 일칸국이 자신들의 화려한 직물을 보내 고려와 접촉 한 이유가 "중국과의 교류가 전통적으로 왕성하여 유사시 중국 직물 확보에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다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중국산에 버금가는 직조기술력과 유통력을 보유한 아랍인들이 중국산 직물의 확보를 위함이 아닌 자신들 아랍산 직물을 원제국을 경유하지 않고 고려에 직접 판매하기 위한 활로를 개척하려했다고 보는 것 역시 염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글에서는 충선왕~충혜대에 걸쳐 인도~아랍권에 이르는 지역의 다양한 직물이 한반도에 들어왔음을 밝히고, 이렇게 유입된 직물이 단순히 직물의 패턴에서 보다 나아가 고려의 직물 생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충혜왕대에 직물 등 무역물자 생산의 거점이 되었던 三峴新宮이 일칸국 등지의 관영 textiles manufacture라 할 수 있는 Tiraz (factory)에 착안하였다는 것이다. 충혜왕의 행적(상업활동, 회회인들과의 친분 등)을 염두에 둔다면 이 역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직물의 생산은 生絲 등 섬유 생산, 직조, 염색, 가공 등 그 공정이 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신라에서부터 고급 직물의 생산을 위한 섬유 원료, 직조 방법에 따라 세분된 직조 전담 관청을 설치하고 있었으며,[10]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필자 역시도 삼현신궁의 규모를 13세기말 중국 明州의 직염국을 바탕으로 유추하고 있듯이 이러한 시설은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갖추고 있던 조직적인 관영 제작소인 만큼, 삼현신궁이 아랍권의 티라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

7)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1415) 6월 22일(정해), "命各殿手巾, 毋用苧布"
8) 西北普賽因遣使來, 獻土物.
9) Eiren L. Shea, "Chapter 4 Mongol Dress in West Asia" *Mongol Court Dress, Identity Formation, and Global Exchange*, Routledge: New York, 2020.
10)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상).

여 백

제2부

【제5발표】

明·오이라트 通貢·互市의 양상과 성격

조원(부산대학교)

---

1. 머리말
2. 明·오이라트 朝貢 무역
3. 明·오이라트 간 互市의 전개
4. 오이라트의 哈密 지역 지배와 對明 무역에서 무슬림 상인의 활약
   4.1. 15세기 전반기 오이라트와 哈密 관계
   4.2. 에센 시기 오이라트와 무슬림 상단의 결탁
5. 맺음말

【제5발표】

明·오이라트 通貢·互市의 양상과 성격

조원(부산대학교)

1. 머리말

1368년 원제국이 멸망하고 1388년 토구스테무르가 사망할 때까지 北元은 제도와 통치체제를 유지하며 재기를 도모했으나 명의 군사적 공세로 대치 국면이 계속되었다. 군사·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던 요동을 상실하게 되자 北元 조정은 큰 타격을 입었고 1388년 바유르 호수 전투에서 명군의 승리로 北元 세력은 실질적으로 와해되었다.[1] 결국 몽골 초원의 서쪽으로 피신한 카안 토구스테무르(脫古思帖木兒, Togus-Temür)가 오이라트의 지지를 받았던 예수데르(也速迭兒, Yesüder)에 의해 피살되면서 北元의 중원 탈환은 더욱 요원해졌다. 중원 탈환의 도모가 실패로 끝나자 몽골과 明은 동아시아사에서 흔히 보여왔던 유목 세계와 정주 세계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며 1571년 隆慶和議가 수립될 때까지 교류와 충돌로 점철된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갔다.

기존의 명·몽골 관계에 대한 연구는 명 전반기에 전개된 몽골·명의 군사적 충돌, 경제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자행된 몽골의 약탈, 16세기 후반 명과 몽골 투메드부 간에 극적으로 타결된 和議와 이로써 도래한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역사상을 제공하고 있다.[2] 하자노프는 유목민이 외부세계와 상호관계를 맺을 때 수반하여 나타나는 삶의 형태로서 교역과 중개무역, 정주세계 복속 혹은 약탈, 정주세계에 대한 공납과 징세, 정주화의 양상으로 소개한 바 있는데[3] 15-17세기 몽골과 명은 몽골 세력의 분열과 명의 정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렇게 다양한 층위의 관계를 형성했다. 이 가운데 교역은 명·몽골 관계의 상호 의존적 필요에 따라 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5세기 초반부터 명은 몽골 초원 서부의 오이라트, 요동지역의 兀良合과 경제 교류를 시작했고 명과 오이라트의 관계는 土木堡 변이 발발하기까지 거의 반세기에 걸쳐 규모나 다양성의 측면에서 경제 교류가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16세기 후반 명

1) 北元 초기 명과의 주요 戰役에 관해서는 達力扎布,「北元初期史實略述」,『明淸蒙古史論稿』, 北京: 民族出版社, 2003 참조.
2) 洪城鳩,「明代北邊의 互市와 朝貢」『中國史硏究』72, 2011; 岩井茂樹,『朝貢·海禁·互市』,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社, 2020, p.18.
3) 하자노프, 김호동 역,『유목사회의 구조』, 지식산업사, 1990.

과 몽골 투메드부 간의 通貢이 시작되어 동아시아 변경 상업이 활성화되기 한 세기 가량 전에 이미 오이라트를 중심으로 몽골과 명 사이의 활발한 경제 교류의 전례가 있었던 것이다.

명과 오이라트의 경제 교류에 관해서는 오이라트와 명의 조공 무역에 관한 연구, 오이라트와 명의 互市를 검토한 연구 등이 진행된 바 있다.[4] 이 가운데 몽골의 馬市를 연구한 Herry Surruys는 몽골·명 교역에 있어 물품과 교역 방식 전반을 다루었으며 이 가운데 명 전반기 오이라트와의 교역에 관해서도 검토했다.[5] 또한『明實錄』의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명을 방문했던 오이라트 조공단에 포함되어 있던 무슬림 사신·상인들의 사례에 관해 언급했는데, 무슬림 상인들의 출현 배경과 무슬림 상인이 오이라트와 명의 경제 교류에서 지니는 의미를 밝히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오이라트 사신단에 포함된 무슬림 상인들은 명과 오이라트 교역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발표에서는 먼저 15세기 명과 오이라트 사이에 전개된 경제 교류의 방식으로서 朝貢과 互市를 중심으로 교환된 물품과 교역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오이라트 사신단에 포함되어 있던 무슬림 상인들이 출현하게 된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오이라트의 지정학적 위치와 유라시아와의 관련 속에서 무슬림 상인들의 역할을 고찰해보고 이와의 관련성 속에서 에센시기 오이라트의 조공 확대가 갖는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명·오이라트 교류가 시작되었던 시점부터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에센시기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명과 오이라트 사이에 진행되었던 교역을 조망하고 교역의 유라시아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明·오이라트 朝貢 무역

北元이 와해되고 몽골 초원이 동부의 타타르(韃靼)와 서부의 오이라트로 양분되자 명은 하나의 세력을 통해 다른 한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회유의 수단으로 명은 冊封과 朝貢의 방식을 통해 각 세력과 정치적 관계를 맺었다. 주지하다시피 朝貢은 중국 황제와 주변국 군장 간의 君臣 관계를 표현하는 정치적 의례이자 貢納과 回賜의 물자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무역이었다.[6] 몽골의 입장에서는 조공의 절차와 형식을 이행하기만 하면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명과의 조공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다.

---

4) Herry Surruys, *Sino-Mongol Relations During the Ming Ⅲ: Trade Relations: the Horse Fairs(1400-1600)*, Leuven: Peeters Publishers, 1975, 王苗苗 譯,『明蒙關係 - 貿易關係: 馬市(1400-1600)』,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1; 趙淑淸,「瓦剌與明代大同互市」,『中國歷史地理論叢』, 2021, 36-1.

5) 和奏,「明朝與瓦剌" 貢使"貿易中的回回」,『內蒙古社會科學』, 1987-5.

6) 岩井茂樹,『朝貢·海禁·互市』, p.18.

1388년 토구스테무르가 오이라트와 손을 잡은 예수데르에게 피살된 후 北元은 급속도로 약화되어 크고 작은 울루스로 분열되었다. 北元의 카안이 사망하면서 여러 세력들의 각축이 이어졌고 이때 알타이산 일대에서 세력 확대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오이라트는 동몽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온 명과 손을 잡게 되었다. 1403년 영락제는 제위에 오른 직후 무늬가 수놓아진 화려한 비단[文綺]들을 선물로 보내며 오이라트를 회유하자 오이라트를 분할하여 다스리던 마하무(馬哈木, Mahmū)와 동생 태평(太平), 바트볼드(把禿孛羅, Batu bolod)는 귀부 의사를 밝혔다. 1408년 오이라트 측에서는 명의 사신이었던 무슬림[回回] 일리아스(亦剌思, Ilyas)와 함께 사신을 파견하여 말을 바치고 印信과 封爵을 요청했다. 이에 영락제는 오이라트의 사신 暖答失에게 金織綺文 등을 하사했고[7] 다음해 마하무드에게 順義王, 태평(太平)에게 賢義王, 바트볼드에게 安樂王의 봉호를 내렸고 사신 暖答失에게도 綵幣과 襲衣를 하사하는 등 후히 예우했다.[8] 이로써 명과 몽골의 공식적인 朝貢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중국 왕조와 유목 정권 사이에 이루어졌던 絹馬 교역이 개시되었다.

이후로 오이라트와 명의 朝貢 무역은 정치 군사적 갈등으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1490년 다옌칸(達延汗, Dayan Qa'an)이 흥기하여 서부로 패주할 때까지 한 세기에 걸쳐전개되었다. 명의 지원을 힙입어 마하무는 동몽골의 카안 본야시리(本雅失里, Buniyasiri)와 실권자 아룩타이(阿魯台, Aruγtai)를 몰아내고 몽골 초원의 카라코룸 일대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는 명에 사신을 보내 아룩타이를 패퇴시킨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아룩타이의 진멸을 위한 무기를 요청했고, 이에 명은 물자를 하사했다.[9] 명 전기 오이라트 마하무의 왕성한 군사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명과의 경제적 교류 및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1412년 동몽골의 입지가 좁아지자 아룩타이는 명에 入貢하여 투항 의사를 비쳤고, 강성해진 오이라트에 대해 위협을 느끼자 귀환시켜 달라고 명에 요강구하자 위협을 느낀 영락제는 오이라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동몽골을 지원했으나 상황이 역전되어 동몽골 아룩타이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다시 오이라트와 손을 잡았고 1416년 영락제 사신을 보낸 마하무에게 鈔와 綵幣를 하사했다.[10] 이를 통해 명 측에서도 오이라트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오이라트가 동몽골 견제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명의 중앙아시아 정책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은 건국 초기 먼저 티무르조와의 朝貢 관계를 맺었고[11] 이후 명에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길목으로서 타림분지에 위치한 別失八里, 哈密과 차례로 조공 관계를 맺었다.[12] 하미와 인접한 오이라트는 바로

7) 『明太宗實錄』卷84, 永樂6年10月丙子.
8) 『明太宗實錄』卷93, 永樂7年6月癸丑.
9) 『明太宗實錄』卷128, 永樂10年5月乙酉.
10) 『明太宗實錄』卷180, 永樂14年9月甲辰.
11) 명·티무르제국 간의 교류에 관해서는 張文德, 「論明與中亞帖木兒王朝的關系」, 『歷史檔案』, 2007-1; 한지선, 「15세기 명·티무르제국 간의 조공무역과 인도양 교역 네트워크」, 『明淸史硏究』54, 2020 참조.

명이 서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要道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명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13]

마하무드의 아들 토곤(脫歡, Toγun)은 명으로부터 順寧王에 책봉된 후 다른 부족장들을 제거하여 오이라트 연맹을 통일하고 1434년 아룩타이를 제거하여 오이라트를 더 큰 규모로 통합시켰다. 명과의 朝貢관계를 통해 유입된 자원이 오이라트 지도자에게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토곤은 더욱 적극적으로 명과의 조공무역을 개진했다. 명의 冊封과 恩賜品이 세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정치·경제적 자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동몽골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몽골 부족들을 통합한 토곤은 칭기스칸의 후예인 톡토부카(脫脫不花, Toγto Büqa)를 카안으로 옹립했다. 1439년 오이라트가 명측에 올린 朝貢에 관한 기록을 보면, 몽골과 오이라트간의 조공 무역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어 명에 3천7백25필의 말과 13마리의 낙타, 3천4백장의 貂鼠皮, 3백장의 銀鼠皮를 진공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에 상응하여 조정에서는 연회를 베풀고 비단으로 된 의복, 모자, 장화, 그리고 지폐로서 回賜했다.[14] 알탄칸 시기 명과의 通貢·互市가 이루어졌을 때, 貢馬의 가격은 “上等品의 경우 彩緞 4表里, 絹 8필, 中等品은 彩緞 2表里와 絹 2필, 下等品은 紵絲 1필, 絹 8필, 最下等品은 絹 6필”,[15] 모피에 대해서는 貂鼠皮 50개에 彩緞 4表里, 銀鼠皮 50개에 2表里로 책정되었는데,[16] 명 전기 오이라트와의 朝貢 무역에서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와 같은 가격 기준이 책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이라트와 명 조공 무역 초기 주로 말과 비단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 교환 규모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톡토부카를 옹립하고 실권을 장악한 토곤 시기 명과의 조공 무역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조공 상품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이때 말과 함께 進貢되었던 막대한 초서피(貂鼠皮, bulaγa)가 주목된다. 『明會典』에도 몽골의 주요 조공품으로 말, 낙타, 매[海靑]와 더불어 초서피가 언급되어 있다.[17] 오이라트는 일찍이 바르구진에서 예니세이강 상류 일대에 자리잡았다. 이곳은 삼림이 풍부한 자연 환경으로 수렵과 목축이 발달하여 표범, 여우, 사슴, 시라소니, 수달, 담비[貂鼠], 족제비[銀鼠] 청솔모[靑鼠]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토곤은 동몽골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아다이(阿岱) 카안에게 좋은 말, 검은 담비, 시라소니를 보낸 바 있었는데,[18] 이를 통해 말과 함께 검은 담비 혹은 그 모피가 오이라트가 명을 비롯하여 다른 세력과 정치적 부족과의 정치적 관계를 맺는데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

12) 『明史』卷329 「西域傳」; 『明史』卷329 「哈密傳」
13) 명의 서역 진출에서 오이라트의 위치에 관해서는 張文德, 「明與西域通貢往來的特點及其成因」, 『學海』2013-2, pp.177-178.
14) 『明英宗實錄』卷62, 正統4年10月丁亥.
15) 『明英宗實錄』卷210, 景泰2年12月丙子.
16) 申時行等『明會典』卷111, 給賜二 (北京, 中華書局, 1989)
17) 『明會典』卷107, 朝貢三
18) 김장구 역주, 『역주 몽골 황금사』, 동북아역사재단, 2014, p.104.

1449년 명 황제는 톡토부카에게 “金蟒龍文綺綵絹 184필, 金銀 각 5정, 塔納珠 5천 6백개, 金銀廂, 木椀, 金九龍蟒龍渾金文綺 38필, 紵絲衣 1벌, 繡金衣 5벌, 장화, 악기, 천막, 약재”, 카툰에게는 “織金文綺綵絹 32필, 錦袍1벌, 織金衣 3벌, 신발, 針線, 脂粉, 絲絨”을 하사했고, 각 부락의 부족장들에게도 예물을 내렸다.[19] 여기에서 몽골의 귀족들을 위한 사치품으로 화려한 비단으로 제작된 의복, 신발과 더불어, 금은, 보석, 그리고 약재가 오이라트에 전해졌음이 주목된다. 오이라트와 명 사이의 교역에서 사치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정치 사회적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朝貢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교역에서 이 사치품의 교환은 유목귀족에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화·안정시키는 매개 역할을 했다.[20]

조공 무역의 일환으로 외국 사신이 머물던 곳에서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명 조정에서는 進貢品 이외에 사신이 가져온 附搭貨物의 거래를 허용했다. 이러한 부탑 화물은 대개 관에서 수매하였으며 이는 상인과 조공 사절의 접촉을 맞고 귀국할 때 가지고 갈 중국 상품의 구매를 위해 일정 부분 허용된 교역의 형태로서 파악되기도 한다.[21] 정통 연간의 기록을 보면 오이라트 사신 피르무하마드(皮兒馬黑麻)가 와서 “말 8백필, 靑鼠 皮 13만 장, 銀鼠皮 1만6천장, 貂鼠皮 200장을 上貢했는데, 황제는 이를 지나치게 많다고 여겨 청서와 은서피 중 좋은 것을 골라 각각 1만 장과 초서피 200장 모두를 거두고 나머지는 그 사신이 교역하게 했다.“[22] 여기에서 남은 모피의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會同館”이었고 이 곳에서 “各處 夷人이 朝貢하고 賞을 받은 후에 會同館에서 3일 혹은 5일간의 開市를 하도록 허가 받았다.”[23] 會同館은 외국 사신들이 북경 체류 기간 동안 머무는 숙소이자 주요 활동 공간이었다. 사신들은 자유롭게 회동관을 출입할 수 없었기에 북경 체류 기간 중 사신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곳에 머물며 외교 활동과 교역의 상업 활동을 했다.[24]

『明會典』에 나와 있는 관련 오이라트 사신의 回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지된 물품의 무역에 대한 불허를 제외하고 市街에서 官員, 軍人, 백성들과 絹布로 매매할 수 있게 해주었고 5일내로 기한을 두었다.[25] 이를 통해 실제로 교역은 회동관 주변의 市街에서 오이라트 사신들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이라트 사신들은 會同館에서 말을 거래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사신단에 포함되어 있던 상인들이 교역 활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26] 오이라트 사절단은 명에서 하사한 비단, 보석류의 사치품을 가지고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들을 재구매했을 것이다다.[27] 1450년

19) 『明英宗實錄』卷174, 正統14年1月 己酉.
20) 『유목사회의 구조』, p.281.
21) 岩井茂樹, 「十六世紀中國における交易秩序の摸索 -互市の現實とその認識-」, 『中國近世社會の秩序形成』 (岩井茂樹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04), p.101.
22) 『明英宗實錄』卷136, 正統10年12月丙辰.
23) 『明會典』卷107, 朝貢三
24) 명대 會同館무역에 관해서는 『明蒙關係Ⅲ: 馬市(1400-1600)』, pp.33-37; 林常薰, 「明과 朝鮮의 會同館 交易」, 『전북사학』52, 2018 참조.
25) 『明會典』卷111, 給賜二·外夷上
26) 『明英宗實錄』卷96, 正統7年9月庚辰.
27) 『明蒙關係Ⅲ: 馬市(1400-1600)』, p.8.

명 조정에서는 오이라트의 會同館 무역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에 교역품으로 금지되었던 銅湯瓶, 솥, 紅纓, 안장·고삐의 馬具, 剪子 등의 물품을 오이라트측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었다.[28]

3. 明·오이라트 간 互市의 전개

1406년 명에서는 공식적으로 요동 開元과 廣寧에 馬市 두 곳을 개설했는데,[29] 이 지역은 명에 일찍이 귀부한 兀良哈를 상대로 개시된 교역 장소였다. 명 정부에서는 말을 4등급으로 나누어 상등품은 絹 8필, 布 12장, 그 아래는 絹 4필, 布 6장, 그 아래 두 등급의 중등, 하등급의 말은 각각 1개씩 줄여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말은 絹 2필, 布 4장에 거래하게 했다.[30]

1408년 영락제는 甘肅總兵都督 何福에게 “말을 팔러 온 모든 回回와 韃靼인들 가운데 3,5백필을 가져와 거래하고자 한다면 甘州, 凉州에서만 판매하게 하고, 천 필을 가져왔다면 황하 서쪽의 蘭州, 寧夏 등지에서 교역하게 하고 황하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했다.[31] 명 초기 오이라트를 상대로 馬市가 개설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15세기 초에는 甘州, 凉州뿐 아니라 蘭州, 寧夏 부정기적인 馬市가 개설되어 몽골인, 무슬림, 중국인 등이 참여하는 교역이 이루어졌고, 韃靼은 동몽골을 지칭했지만 명대 몽골을 통칭하여 부르는 凡稱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명초 중국의 서북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교역에 오이라트 상인들도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32] 실제로 오이라트에서 파견된 사신들은 寧夏, 肅州로 이어지는 길을 통해 왔으며 正·副使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甘州에 머물렀다는 숙식을 대접받았다는 기록이 있다.[33] 대개 오이라트 사신들은 영락제 이후 哈密衛에서 출발한 후 甘州, 凉州를 거쳐 蘭州, 寧夏를 지나 명의 重鎭인 大同을 통해 北京에 도착했다.[34] 이 과정에서 일부 사신들을 수행 한 상인들은 甘州, 凉州의 변경 지역에서 교역을 했다. 이는 조공무역의 일환으로 전개된 貢道貿易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변경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互市로 볼 수도 있겠다.

몽골과 오이라트간의 조공 무역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몽골인들 가운데 변경 지역에 와서 교역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1431년 甘肅總兵官이 西北 두 지역의 몽골인[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말을 팔고자 왔으니, 각색 면포 10만 필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宣德帝는 명하여 戶部에서 5만필을 지급하게 했다.[35] 이 기사의 몽골인이 오이라트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西北지역의 몽골

28) 『明會典』卷111, 給賜二·外夷上
29) 『明太宗實錄』卷53, 永樂4年3月甲午.
30) 『明史食貨志校注』, p.256.
31) 『明太宗實錄』卷55, 永樂6年3月壬戌.
32) 杜榮坤, 白翠琴, 『西蒙古史研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p.88.
33) 『明英宗實錄』卷32, 正統2年7月丁巳.
34) 趙淑清, 「瓦剌與明代大同貢市」, 『中國歷史地理論叢』36-1, 2021, pp.110-111.

세력이라면 오이라트인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락제 사후 몽골에 대한 공세적인 정책에서 수세적인 방어로 전환되었고 洪熙, 宣德 연간 군사력의 약화로 북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명 내부에서도 변경 방위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다. 『明史』「食貨志」에는 "명초에 동쪽으로는 馬市가 있었고 서쪽으로 茶市가 있었는데 이는 변경을 통제하고 방위비(戍守費)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다."[36]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馬市가 단순히 유목민들의 경제적 필요 혹은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개설된 것이 아니라 명의 변경 방위비 충당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438년 巡撫大同右僉都御史 盧睿이 大同에 馬市를 개설하여 먼 곳에서 온 자들이 가져온 낙타, 말을 軍民이 얻어 값을 매겨 교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를 올렸다. 명 조정에서는 兵器와 銅鐵를 제외한 물품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馬市를 大同에 개설했고,[37] 이로서 互市는 朝貢과 더불어 명과 오이라트 경제 교류의 공식적인 통로가 되었다. 山西 북부에 위치한 북방의 군사적 重鎭이자 교통의 要道에 위치한 大同은 몽골 사신단이 반드시 거쳐가는 貢都상에 위치했으며 중국 상인과 몽골인들 간의 교역의 공간이었다.

당시 馬市는 크게 官市와 民市로 나뉘었고, 官市에서는 대개 오이라트에서 가져온 말의 값을 매겨 金, 銀, 絹, 布로 거래되었고, 민간에서는 오이라트 상인들이 가져온 말, 노새, 당나귀, 소, 양, 낙타, 모피, 말총 등이 중국 상인들이 가져온 緞, 絹, 紬, 布, 침, 실, 식량 등과 교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449년 토목보의 변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몽골과 명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몽골과 명 사이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오이라트 몽골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의 경제 교류는 주로 몽골인들이 가져온 유목 지역의 말, 낙타, 피혁, 모피 제품들이었고, 중국 상인들은 이에 상응하여 견직물이나 식량 등이 교환되었다. 명 조정에서는 洪武 연간에 반포된 『大明律』에 따르면, 해외 수출 물품 가운데 말, 소, 軍器, 철기 및 각종 비단과 綿布 제품의 유출은 금지했다.[38]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이라트를 비롯하여 명과 朝貢 관계를 맺은 몽골 부족들에게는 예외적으로 그들이 가져온 말에 상응하여 각종 화려한 비단이 回賜되었고, 互市를 통해서도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명에서 엄격히 금지한 軍器와 철기 거래가 명과 오이라트 사이에 이루어졌다. 1443년 백성들이 鐵器를 오이라트 사신에게 팔아 큰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이 正統帝에게 보고되어 錦衣衛에게 명하여 이들을 잡아 가두었다.[39] 이러한 변경 지역의 철제 농기구 및 무기 거래는 명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근절되지 않았다. 1570년 隆慶和議 당시 互市 개설에 관해 협의하면서 모든 교역에서 鐵器 거래는 금하기로 협

35) 『明宣宗實錄』卷75, 宣德6年正月己丑.
36) 『明史食貨志校注』, 北京: 中華書局, 1982, p.251.
37) 『明英宗實錄』卷41, 正統3年4月癸未.
38) 『大明律』卷15
39) 『明英宗實錄』卷111, 正統8年12月丙午.

의했다는 사실을 통해 변경지역에서의 鐵器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40]

놀랍게도 兵器의 거래는 명의 官員, 軍人들에 주도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1439년 巡撫宣大右佥都御史가 주를 올려 "오이라트 貢使가 북경에 도착하여 官軍 가운데 교활한 자들이 弓으로써 말을 바꾸는 데 이러한 거래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貢使는 弓을 얻어 몰래 의복을 넣는 상자에 숨기고 변경을 넘어 갑니다."라고 보고 하며 오이라트 貢使를 居庸關에서 檢問할 것을 요청했으나 명조정에서는 오이라트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41] 이외에도 1446년 명의 관원과 백성들이 수공업자들과 몰래 무기를 제작한 후 오이라트 사신들이 돌아가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은밀히 거래하던 불법적 교역 행위가 명 조정에 보고된 바 있었다.[42] 이 기사를 통해 고가로 거래되는 무기가 명의 관원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오이라트의 哈密 지역 지배와 對明 무역에서 무슬림 상인의 활약

4.1. 15세기 전반기 오이라트와 哈密 관계

1408년 영락제는 무슬림 일리야스를 명의 사신으로 오이라트에 파견했고, 토곤은 무슬림 피르마하무드를 오이라트의 사신으로 명에 여러 차례 파견했다. 이렇듯 명과 오이라트의 외교 관계에서 무슬림들이 가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오이라트의 조공 사신단 가운데에도 무슬림 상인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明實錄』에는 "오이라트 사신과 무슬림 상인[瓦剌使人及賣買回回]" 혹은 "무슬림과 몽골인(回回, 韃靼)"을 함께 언급한 용례들이 발견된다.

1413년, 영락제는 甘肅總兵官 豊城侯 李彬에게 勅을 내려 "回回, 韃靼에서 조공을 하러 온 자들이 進貢할 때 良馬인 경우 이를 官에서 교역하고 사람을 보내 북경으로 보내고 값을 기다렸다가 북경에 도달하면 주도록 하라."고 명했다.[43] 1414년에는 陝西行道司에게 "甘肅의 모든 오이라트 사신과 무슬림 상인들 모두 陝西로 보내고 변경 지역을 나아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44] 어떠한 경위로 오이라트 사신단에 무슬림 상인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일까?

몽골제국 시기 예니세이강 상류 일대에 자리잡고 있던 오이라트는 점차 몽골 초원 서부의 자브칸(Zavkhan) 강, 홉드(Khovd) 강으로 영역이 확장되었고 이후 이르티쉬(Irtish) 강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명 초기 오이라트는 북으로 키르키스, 서남

40) 『明代蒙古漢籍史料汇編』(第四輯)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7, p.87.
41) 『明英宗實錄』卷108, 正統8年9月丁丑.
42) 『明英宗實錄』卷137, 正統11年正月戊子.
43) 『明太宗實錄』卷141, 永樂11年7月丁酉.
44) 『明太宗實錄』卷149, 永樂12年3月辛卯.

쪽으로 베쉬발릭(Beshbalik), 하미 지역과 인접했으며, 동쪽으로 동몽골과 접경하게 되었다.[45] 몽골제국시기 오이라트가 자리잡고 있던 예니세이강 일대는 중앙아시아 상인들이 식량 혹은 상품을 싣고 몽골초원으로 지나가는 운송 노선 상에 위치했다. 이 지역에서 오이라트인들은 위구르인들과 함께 오랜기간 거주했으며[46] 명 초기에는 남하하여 동투르키스탄 북부 지역에 자리잡아 오아시스 정권들과 인접하게 되었다.

당시 타림분지의 하미, 투르판, 카슈가르 등지는 동차가타이계의 부족들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다수의 위구르인, 무슬림을 비롯하여 몽골인들이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하미는 동투르키스탄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로상의 주요 지점에 위치하여 15세기 이후 동·서 몽골과 명의 세력들 사이에서 중요한 쟁탈 대상이 되었다. 영락제는 하미를 '서역으로 통하는 要道'로 인식하여 하미의 앵크테무르(安克帖木兒， Engke Temür)를 忠順王에 冊封하고 金印을 하사하고 馬市를 개설했다.[47]하미에서는 進貢한 말은 명의 중요한 군사적 자원이 되었다.[48]

뿐만 아니라 하미는 오이라트가 중앙아시아 혹은 중원 지역과 교역하기 위해 거쳐가는 중계 지점에 위치했다. 당시 명과 중앙아시아 사이를 왕래하는 사신들, 오이라트와 명을 오가는 사신들 모두 하미, 감숙을 통과한 후 대동을 거쳐 북경에 도착했다. 오이라트에서는 토곤시기부터 하미와의 정치적 결석을 강화했다. 토곤이 실권을 장악하던 시기에는 딸 논다시리(弩溫答失里, Nundashiri)를 하미왕 보다시리(卜答失里, Budashiri)와 혼인하게 하여 하미와의 정치적 관계를 돈독히했다.

1436년 당시 陝西 都督同知 鄭銘은 황하 東岸에 무슬림, 몽골인, 티벳인들이 섞여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변경을 침입해 들어올까 염려된다고 조정에 보고했다.[49] 이루 미루어 이미 토곤 시기 오이라트의 영역이 동부로 확대되면서 중국 북부 지역에 몽골인들과 함께 무슬림들이 들어와 거주하며 다양한 민족이 참여하는 교역 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사료상에 오이라트 사신과 함께 언급되었던 무슬림 상인은 오이라트, 하미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무슬림 상인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에서 오이라트를 포함하여 서북 변경으로 비단, 도자기의 전통적인 상품뿐 아니라, 진주 장신구, 악기, 의복, 신발, 침식, 금은 화폐, 식량, 차, 의약품 등이 전해졌다. [50] 역사상 유목 세계와 중원 세계 간의 교류에서 중원에서 공급된 물자들이 유목사회에서 모두 소진되지 않고, 실크로드로 재수출되었던 선례들을 비추어볼 때 오이라트에 유입된 중국의 물자들이 실크로드로 유출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는 15세기 전반 조공 책봉으로 한정된 명의 대외 무역의 질서 외부에 위치한 제 세력들의 교역 욕구를 자극했을 것이다.

---

45) 白翠琴,「明代蒙古與西域關係述略」,『新疆社會科學』1983-3, p.171.
46)『元史』卷63「地理志」
47)『明史』卷329「哈密傳」
48)『西蒙古史研究』, pp.172-173.
49)『明英宗實錄』卷21, 正統元年8月甲戌.
50)『明蒙關係Ⅲ: 馬市(1400-1600)』, p.29.

4.2. 에센 시기 오이라트와 무슬림 상단의 결탁

정례화되어 있던 명·오이라트의 교역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에센(也先, Esen)시기였다. 부친 토곤이 사망하자 실권을 장악한 에센은 1442년 두 차례에 걸쳐 2천여 명의 사신을 파견했다.[51] 이에 대해 『明史』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옛 규정에, 오이라트의 사절은 50명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조정의 封爵과 賞賜를 탐하여 해마다 (인원을) 늘려 2천여 명에 이르렀다. 여러 차례 칙서를 내려도 (그들은) 約定을 받들지 않았다. 사신은 왕래하면서 살인과 약탈을 많이 저지르고 또 다른 부족을 끼워 넣어 함께하였으며, 중국의 귀중하고 얻기 어려운 물건을 요구하였다.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번번이 禍亂의 단서를 만드니, 하사하는 재물 또한 해마다 증가하였다."[52]

이 기사를 통해 에센의 일방적인 요구에 속수무책인 명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기록은 중국의 물품에 굶주려 朝貢 확대를 요구하며 살인과 약탈을 일삼은 에센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자로서의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에센의 조공 확대 요구는 단순히 경제적 굶주림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오이라트 내부 세력 간 갈등의 정치적 상황과 하미와의 연대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오이라트의 실권을 장악한 에센은 군사 활동을 통해 군사적 입지를 확대하고 정치·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했다. 한편, 톡토부카는 훌룬베얼 초원에 근거지를 두고 요동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카안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과정에서 에센과 알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53] 정통성을 지닌 톡토부카의 행보에 에센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 명과의 朝貢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외부세계에서 확보된 경제적 자원을 통해 유목 군주의 권위의 합법성이 담보되는 유목적 관념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확보된 막대한 재화를 통해 내무 몽골 귀족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센시기 오이라트의 하미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1439년 보다시리의 아들 다우와다실리(倒瓦答失里, Dawadashiri)가 재위를 계승하자 당시 도독 피라나(皮剌納)와 사만치(撒滿赤)가 비밀리에 뭉케 부카(猛可卜花, Möngke Buqa)와 내통하여 다와다실리를 시해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하미 군주의 외숙부였던 에센은 휘하 장수들을 파견해 하미를 포위하게 하고 시해 음모를 무산시켰다. 하미 정치에 대한 개입을 계기로 오이라트의 하미에 대한 오이라트의 정치·군사력이 이 지역에 미치게 되었다. 1443년 에센은 다와다실리의 모친 눈다시리와 왕후 등을 붙잡아 오이라트로 이주시키고 장수 陝西丁을 파견하여 다와다실리와 함께 하미를 다스리게 했다.

---

51) 『明英宗實錄』卷89, 正統7年2月乙卯; 『明英宗實錄』卷98, 正統7年11月癸亥.
52) 『明史』卷328 「瓦剌傳」
53) 『西蒙古史研究』, pp.117-119.

에센 시기 하미의 내분을 틈타 오이라트의 지배력이 하미 일대까지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에센은 하미의 동남부, 嘉峪關 서측에 위치한 赤斤蒙古, 沙州衛에 대한 약탈을 비롯한 군사활동을 시작으로[54] 이들과 연혼 관계를 맺으며 甘肅, 寧夏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55] 동차가타이 세력이 분포해있던 타림분지 일대까지 세력권에 넣었다. 1441년이 에센이 명에 파견한 사신들은 '오이라트 하미 사신[瓦剌哈密使臣]'[56]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이 오이라트기 실제로 하미에 대한 외교권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 오리라트는 하미 등지의 무슬림 상인들과 함께 명과 朝貢 무역을 했다. 1446년 명 조정에서 "오이라트 正·副使 보돈(孛端) 등과 무슬림 상인 알리소로단(阿里鎖魯檀) 등에게 彩幣, 鈔絹을 차등을 두어 하사했고",[57] 1448년 명 조정에서는 오이라트 톡토부카칸의 사신 보돈, 에센의 사신 바보(把伯), 무슬림 상인 알리소로단 등을 비롯한 사신단에게 742명에게 연회를 베풀었다.[58] 오이라트와 무슬림 상인들이 참여했던 조공 무역 과정에서 변경 지역 주민들과의 무력 추올도 발생했다. 1441년 오이라트 에센은 조공을 바치며 주를 올려 하미를 거쳐 감숙에 도착한 조공 사신과 무슬림 상인들 다수가 그곳에서 명의 백성들에게 피살당한 일에 관해 언급했다.[59] 당시 오이라트 세력은 양분되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서부로 타림 분지 일대, 동쪽으로 요동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동부 유라시아의 몽골인들과 함께 무슬림 상인들이 교역하기 위해 명의 북방 변경 지대로 몰려들자 변경 지역의 한족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에센이 명에 파견한 조공단에 상당수의 무슬림 상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에센과 무슬림 상인들의 결합은 명과의 교역 규모의 폭발적인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를 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명의 거부는 결국 '土木堡의 변'으로 이어졌다. 1449년 토복보의 발발은 명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으나, 명 측에서 포로가 된 正統帝를 둘러싼 협상을 포기하자 에센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1450년 명과 오이라트간의 和議로 朝貢이 재개되다. [60] 이는 몽골뿐 아니라 명에게도 貢市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 변경 통치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명에서는 일, 이 년마다 한 차례로서 貢期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인원이 100명이 초과되지 못하도록 했다.

에센 사후에도 동몽골 세력이 점차 강성해지자 에센의 동생 바옌테무르(伯顔帖木兒, Bayan Temür)와 조카 오코나(兀忽納)가 하미로 피신하고 오이라트의 여러 부락이 하미 주변에 주둔했다. 1471년 오이라트 측에서 파견한 카라코스(哈剌忽思)는 하미에서 파견한 마흐무드와 함께 北京에 朝貢을 바치러 왔으며[61] 하미에 위협적인 투

54) 『明英宗實錄』卷79, 正統7年8月乙卯.
55) 『明英宗實錄』卷134, 正統10年10月庚申; 『明史』卷328「瓦剌傳」
56) 『明英宗實錄』卷80, 正統6年6月壬申.
57) 『明英宗實錄』卷147, 正統11年5月癸酉.
58) 『明英宗實錄』卷173, 正統13年12月壬申.
59) 『明英宗實錄』卷79, 正統6年5月壬子.
60) 『明英宗實錄』卷198, 景泰元年11月甲寅.

르판을 상대로 함께 군사 원정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오이라트와 하미의 관계가 에센 사후에 긴밀하게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오이라트와 무슬림 상인간의 유착 관계가 일정 기간 유지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5. 맺음말

明과 오이라트는 15세기 초 朝貢 관계를 맺은 이래로 다옌칸이 북방의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여 초원의 패권을 장악할 때까지의 한세기 가까이 경제 교류를 지속했다. 이 두 세력 간의 교역은 오이라트 마하무가 권력을 장악하던 시기에 朝貢 무역으로 시작했으며, 이는 양국간의 경제적인 목적과 정치·군사적 의도가 맞물려 타결된 것이었다.

朝貢 무역에서는 몽골과 오이라트 간의 絹馬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오이라트에서는 당시 동부 유라시아의 사치품이었던 모피를 進貢하였고, 명으로부터 하려한 비단 의복, 모자, 장화, 지폐, 그리고 약재를 하사 받았다. 이러한 사치품은 오이라트 지배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 세력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사회 정치적 기능을 담당했다. 오이라트와의 朝貢 무역은 명에도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명이 북방의 오이라트를 비롯하여 오량카이, 중앙아시아 세력들과의 通交를 통해 입수한 양질의 말들은 명의 중요한 군사적 자원이 되었으며, 이러한 朝貢 무역의 형태는 적어도 명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시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 되었다. 明·오이라트의 朝貢 무역의 일환으로 北京에서 외국 사신이 머무는 會同館에서도 교역이 허용되었으며, 실제로 교역은 會同館 부근의 市街에서 5일 동안 이루어졌다.

한편, 明과 오이라트의 교류가 늘어나자 변경 지역에서 교역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늘어났다. 이에 공식적으로 1438년 大同에서 明과 오이라트 간의 馬市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15세기 초반 明의 서북 지역에서 무슬림과 몽골인들이 교역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기록을 통해 明·오이라트 간의 변경 밀무역이 이미 존재했고 때로는 부정기적인 馬市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명 초반부터 조정에서는 오이라트와의 변경 무역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명은 軍器를 비롯한 철기의 교역을 금지했으나, 北京에 거주한 명의 官員과 오이라트 사신 및 변경 지역 백성들와 오이라트인들 사이의 밀거래 사례가 종종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비단, 綿布, 약재, 식량뿐 아니라 철기 및 무기의 밀거래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세기 明·오이라트 교역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무슬림 상인들이 매개자가 되었던 사실이다. 당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상인들은 오이라트의 보호를 받으며 중앙아시아 및 몽골과 명 사이의 교역을 중개했다. 이는 역사 속에서 돌궐과 소그드, 몽

61) 『明憲宗實錄』卷90, 成化7年4月辛未.

골과 이슬람 상인들 간에 이루어졌던 일종의 '정경 유착'의 관계의 재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이 극대화되었던 것은 에센 시기였다. 오이라트의 토곤, 에센시기 명과 중앙아시아, 오이라트와 명 사이를 잇는 교착 지점에 위치한 哈密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지역의 무슬림 상인들은 당시 정치력을 행사하던 오이라트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명의 朝貢 사신단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교역 활동을 벌였다. 에센 시기 오이라트의 교역 확대 요구와 '土木堡의 변'은 이러한 오이라트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세력 확대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여 백

【토론문 5】

「明·오이라트 通貢·互市의 양상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고명수(충남대학교)

본고는 몽골제국 쇠망 후 중원에 明이 등장하고 몽골이 동·서로 분열된 상황에서 명과 오이라트(서몽골) 사이에 通貢·互市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경제교류의 양상과 성격을 상세하게 살핀 글이다. 오이라트는 15세기 중엽 명 황제를 사로잡을 만큼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명의 대외정책과 국내정치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쳤고, 17~18세기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청과 자웅을 겨루었던 준가르의 모태였다는 점에서 명·청대 동아시아 역사를 올바르게 복원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본고가 갖는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향후 명-몽골 간 정치·경제 관계에 관한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蒙元史를 전공하는 토론자는 기실 명-몽골 관계에 관한 지식이 일천하여 견실하고 유익한 토론을 진행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글을 읽고 떠올린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역할을 대신하고자 한다.

① 본고에서 오직 명-오이라트 간 경제교류만을 다루었는데 실제로 명대 몽골은 줄곧 동·서로 분열된 상태였다. 물론 14세기 말 몽골제국 쇠망 후 15세기 말 다얀칸이 등장하여 초원을 제패할 때까지 동·서 몽골의 각축에서 서몽골이 우위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동몽골 역시 상당한 세력을 보유했고 끊임없이 오이라트와 경쟁하면서 명과 교류·충돌을 반복했다. 그러므로 오이라트에 대한 명의 정치·경제 정책은 동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야 그 의미·성과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이 오이라트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시기 동몽골에 대한 정치·경제 정책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오로지 오이라트에 대해서만 경제교류를 허용했는가? 아니면 동몽골에게도 일정한 교역의 문을 열어놓았는가? 논문에서 오이라트가 명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성장했다고 서술했는데, 명이 강력한 오이라트를 견제하기 위해 동몽골과 연합·교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명이 동·서 몽골 사이에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전술을 구사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② 7쪽 “『明史』「食貨志」에는 ‘명초에 동쪽으로는 馬市가 있었고 서쪽으로 茶市가 있었는데 이는 변경을 통제하고 방위비(戍守費)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

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馬市가 단순히 유목민들의 경제적 필요 혹은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개설된 것이 아니라 명의 변경 방위비 충당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2쪽 "1450년 명과 오이라트간의 和議로 朝貢이 재개되었다. 이는 몽골뿐 아니라 명에게도 貢市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 변경 통치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서술에서 발표자는 명이 오이라트와 교역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역사상 중국왕조와 북방민족 간 교역에서 전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액수가 교역을 차단했을 때 예상되는 북방민족의 약탈과 그 침략을 막는 데 필요한 군사비보다 적다고 판단되어 적자를 감수하고 교역을 허용했던 것이다. 이는 북방민족에 대한 중국왕조의 전형적인 경제적 회유 정책으로서 오이라트에 대한 명의 경제 정책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명사』「식화지」 기록과 1450년 양자 간 화의·조공 재개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발표자는 머리말에서 명-오이라트 교역에서 무슬림 상인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고, '에센 시기 오이라트와 무슬림 상단의 결탁'을 4장 2절 제목으로 설정했다. 이야말로 논문의 독창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보면 오이라트 사신단에 무슬림 상인이 포함된 사실만 언급되고 실제 오이라트와 무슬림 상인 결탁의 구체적 양상·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에 관해 맺음말에서 "당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상인들은 오이라트의 보호를 받으며 중앙아시아 및 몽골과 명 사이의 교역을 중개했다. 이는 역사 속에서 돌궐과 소그드, 몽골과 이슬람 상인들 간에 이루어졌던 일종의 '정경 유착'의 관계의 재현으로 보인다"라고 간단히 언급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양자 결탁의 구체적 양상과 그것이 양자에게 갖는 의미에 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④ 본고에서 명과 오이라트 간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된 15세기를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이후 쇠퇴·소멸 시기는 다루지 않았다. 15세기 명-오이라트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된 이유는 당시 동몽골을 압도했던 오이라트의 정치·군사적 성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양자 교역의 쇠퇴도 동·서 몽골 세력의 역전·교체라는 역사적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과 오이라트 간 교역이 쇠퇴한 구체적 시점·요인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다. 그 시점이 15세기 말 다얀칸이 등장하여 오이라트를 제압하고 초원을 통합한 때인가? 1571년 명과 몽골 투메드부 사이에 체결된 隆慶和議인가? 그리고 쇠퇴의 요인과 구체적 양상은 어떠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제2부

【제6발표】

조선 유서(類書)에서 보이는 몽골 인식
-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

최원재(동국대학교)

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대상
   3.1. 『대동운부군옥』
   3.2. 『성호사설』
   3.3. 『아희원람』
   3.4. 『송남잡지』
4. 연구결과
   4.1. 『대동운부군옥』에 보이는 몽골
   4.2. 『성호사설』에 보이는 몽골
   4.3. 『아희원람』에 보이는 몽골
   4.4. 『송남잡지』에 보이는 몽골
5. 결론

【제6발표】

조선 유서(類書)에서 보이는 몽골 인식

-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

최원재(동국대학교)

1. 서론

본 논문은 조선 당시 세간의 인식을 읽어낼 수 있는 대표적 유서(類書) 네 권을 대상으로 몽골에 대한 지식 데이터를 끄집어 내어 그 배경에 놓인 인식의 면면을 들추어 본 첫번째 연구의 결과다. 조선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이번 연구의 결과대로만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서가 특히 지식인 계층이 주로 보았던 주요 참고서였고, 교육서적으로 후대를 가르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유서의 저자가 남겨놓은 대상에 대한 기록은 분명 대상에 대한 독자들의 이미지 형성에 모종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조선 이전 고려시대에서 몽골풍[1]이 보여주는 것처럼 몽골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몽골의 쇠락과 고려의 조선 전환으로 인해 몽골은 우리 역사에서 잊히게 되었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몽골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몽골에 대한 연구 또한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다.[2] 주지하듯이 1368년 大元(속칭 元朝) 멸망 후 1948년 몽골인민공화국과 북한의 국교 수립 그리고 1990년 한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국의 공식 관계는 단절되었다. 물론 고려와 北元간에 간헐적인 교류가 있었고 조선 정부와 일부 관리들이 몽골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이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고려-北元 관계는 양국의 멸망으로 파탄 나고, 조선 정부의 몽골에 대한 관심은 17세기 초 後金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淸朝의 붕괴 등 급변 상황 발생 시 몽골의 동향에 주목한 것일 뿐 구체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3]

---

1) 칭기즈칸과 티무르의 유산(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33434)

2) 고려와 달리 조선은 몽골과 직접적인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몽학 생도를 충원하기도 어려웠고 역관의 통역 능력도 뒤떨어졌다. 영·정조 시기에 현지 어학서를 참고하여 새롭게 3종의 몽학서를 편성한 것은 언제든 강성한 몽골이 재기할 것을 대비하여 국가에서 몽골어 교육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갑오개혁 시기까지 몽학 역관은 줄곧 선발되었으나, 대다수의 역관들은 현지인과의 대화가 불가능하였다. 몽학(蒙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4116)

3) 이평래. (2011) 「20세기 전기 한국 지식인들의 몽골 인식 1-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중앙아시아연구』, 제17권 제2호, 29-56.

여기 하나의 사료를 살펴보자. 영국인들이 어떻게 1890년대의 한국(인)을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미발굴 자료다.[4)]

> The Koreans are a composite type, in which are blended the Tartar, the Monehien, and the Mongol; but these Ouelpaertains seem to be pure Mongol. …… The lofty heights of the mountain, lost in mist and vapours, present to the weird imagination of the Mongol a world of mystery and romance.
> 한국인은 타타르, 모네히아, 그리고 몽골이 섞인 버전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순수 혈통의 몽골 사람처럼 보입니다. …… 안개와 증기로 둘러싸인 이 고상한 높이의 산은 몽골의 이상한 미스테리와 로맨스를 상징합니다.

영국 성공회 소속의 학자 사제들이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의식의 한 단면이다. 영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몽골인과 연관 지어 생각했음을 알려준다. 저 산은 한라산이다. 이들의 기록은 당시 그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인 한국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역사에 가장 가까이 관련된 아시아의 강대국 몽골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을 연상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한국만 몽골을 경시하고 도외시했을 뿐 한국에 대한 타국의 인식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역사적으로 몽골의 영향 하에서 정해지고 있던 것이었다.

다음은 윤치호의 영문일기(번역본) 중 일부다.[5)]

> 1896년 5월 26일. 화요일. 러시아 황제 대관식. 모스크바.
> 우리가 보카라(우즈베키스탄) 대표, 몽고 대표, 인도 대표들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우리를 보고 웃음을 참느라 가관이었다. 뿔이 난 요란한 사모와 도깨비 같아 보이는 관복을 입고 있는 우리를 불쌍한 나라에서 온 사절들로 생각하는 듯했다. 나도 지금 같은 조선의 절망적인 여건들을 생각하면 내 몸이 온통 고통으로 으스러지는 듯하다.

몽골제국은 약해졌지만 조선이 몽골에 신경 쓰지 않던 사이 몽골은 여전히 세계 속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었다.[6)] 그리고 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개화기 조선은 여전히 몽골이 조롱의 대상이었다. 20세기 전기 한국 지식인들도 몽골을 몰락과 영락을 넘어 미개와 야만의 땅이자 사람이 살지 못할 불모의 땅으로 인식하였다.[7)] 20세기 두 나라 사이에 서로를 바라보는 사정은 이러했다면 20세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몽골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8)]

---

4) THE MORNING CALM. No. 11, VOL. Ⅱ. MAY 1891.
5) 「개화기 선각자 尹致昊의 영문일기〈6〉」, 『월간조선』, 2016.03
6) Ts, 체렝도르지. (2016) 「몽골제국 시대 이후 몽골이 아시아의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연구』 제41집, 99-124.
7) 이평래. (2011) 「20세기 전기 한국 지식인들의 몽골 인식 1-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중앙아시아연구』, 제17권 제2호, 29-56.
8) 강미령은 연구를 통해 17-18세기 조선에 '강력한 몽골像'이 등장했음을 발표했다. 강미령. (2009) 「1

이러한 연구가 이미 조선에서부터 진행되어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을 좁혔더라면 어땠을까? 우리와 단교한 나라 몽골이었지만 국가 차원의 관심이 아니었더라도 민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다면[9] 그래서 몽골에 대한 연구와 민간 차원의 외교기반이 탄탄했다면 개화기에 한국은 또 하나의 우방국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2. 연구방법

조선의 대표적 유서(類書)인『대동운부군옥』,『성호사설』,『아희원람』,『송남잡지』를 전수 조사해서 그 속에 기술되어 있는 몽골, 원나라와 관련 있는 지식 데이터를 모두 이끌어낸다. 궁극적으로 해당 유서의 데이터(내용)를 보고 '조선인이 몽골에 대해 읽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유추해보려는 것이다.

『대동운부군옥』,『성호사설』,『아희원람』,『송남잡지』에서 몽골(원나라)이 기준이 되도록 데이터를 추출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현대식 지식베이스(knowledgebase)로 탈바꿈시키고, 이 결과를 토대로 몽골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추적하는 연구방법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semantic data curation) 기법을 사용한다.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지식베이스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온톨로지(ontology, 지식베이스의 설계도)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10] 결과적으로 연관 지식의 지형도를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하는 프로세스다. 데이터베이스 속의 지식 발견(KDD, knowledge-discovery in databases)이라고도 불리는 데이터 마이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식베이스를 시각화(visualization) 하여 웹사이트에 게재[11]하게 되면 독자들은 해당 지식에 대해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상의 데이터를 디지털 기술로 분해하고 온톨로지에 입각해 다시 디지털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대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다.[12]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유서를 대상으로 몽골이라는 기준으로 침략, 동맹, 수탈, 사대, 학문, 저항, 배신, 교류, 쾌감, 군사, 힐난, 종교, 영토, 부패, 사회, 몽골 인물, 고려 인물이라는 클래스로 설계된 온톨로지에 맞춰 데이터를 추출한 후 이를 다시 몽

7-18세기 조선정부의 몽골 이해」,『중국사연구』, 62권, 137-167; 이평래는 192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몽골을 인식했는지 연구했다. 이평래. (2011)「20세기 전기 한국 지식인들의 몽골 인식 1-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와 전망」,『중앙아시아연구』, 제17권 제2호, 29-56.

9) 이에 대한 연구로는 박원길의『조선과 몽골 - 최덕중, 박지원, 서호수의 여행기에 나타난 몽골 인식』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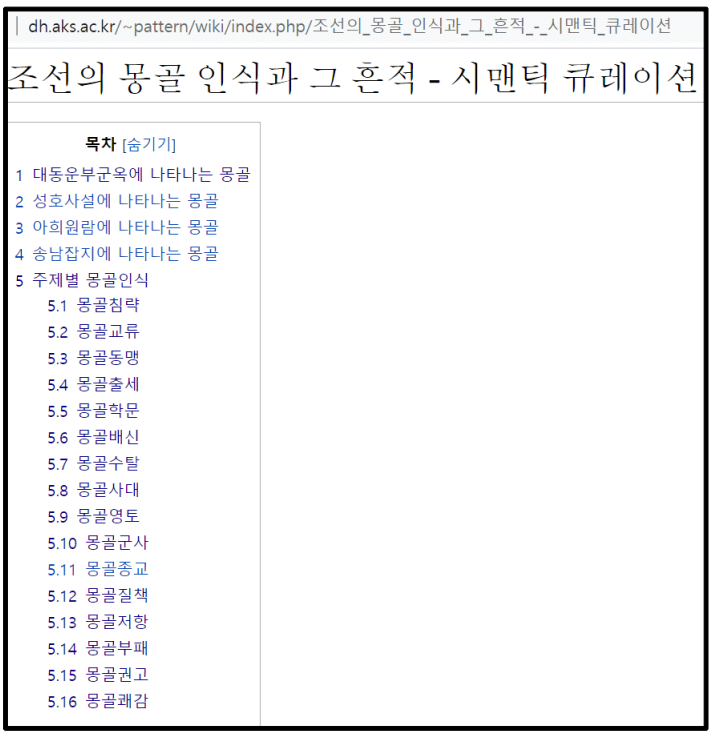
10)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연구소에서 개발한 툴을 사용한다.

11) 최원재 프로젝트(http://dh.aks.ac.kr/~pattern/wiki/index.php)

12) 최원재. (2020)「역사 데이터 내러티브」.『동국사학』, 68, 3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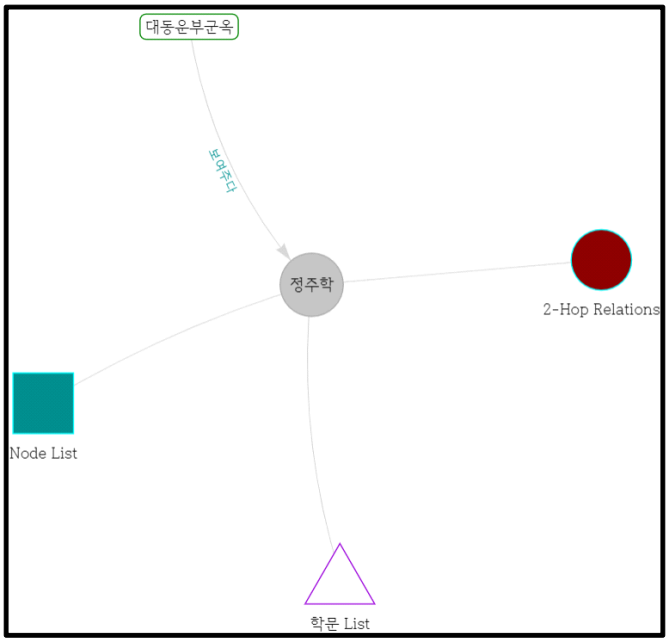
골이라는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데이터 간 어떠한 접점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① 침략: 내정간섭, 조회, 문화적 억제와 강요, 행패, 유배, 억류, 원나라와의 혼인.
② 동맹: 공동의 적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 작전 행위, 서로 아끼고 이해하는 파트너.
③ 출세: 몽골을 배경으로 출세한 사람. 출세후 몰락한 사람.
④ 배신: 고려 혹은 조선을 배신한 자, 고려 혹은 조선을 위해한 자.
⑤ 학문: 학문적 우수함, 학자들의 업적, 시를 짓는 모습, 학문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⑥ 사대: 고려가 원나라를 사대하는 모습.
⑦ 수탈: 사람, 품종(동물, 식물), 물품을 뺏는 모습.
⑧ 질책: 원나라가 고려를 꾸짖는 모습.
⑨ 저항: 몽골제국의 횡포에 맞선 모습.
⑩ 쾌감: 원나라 패망.
⑪ 교류: 물품, 사람(인적 교류), 제도, 언어, 물품, 풍속.
⑫ 군사: 군사적인 행동, 주변 국가와 대립.
⑬ 영토: 몽골의 영역 규정.
⑭ 부패: 정치적 부정, 사회적 부패.
⑮ 종교: 불교, 유교.
⑯ 사회: 문화와 사회 풍습 등.
⑰ 몽골 인물: 이름난 몽골인, 부정한 몽골인.
⑱ 고려 인물: 이름난 고려인(조선인), 부정한 고려인(조선인).
⑲ 권고, 힐난: 권고나 힐난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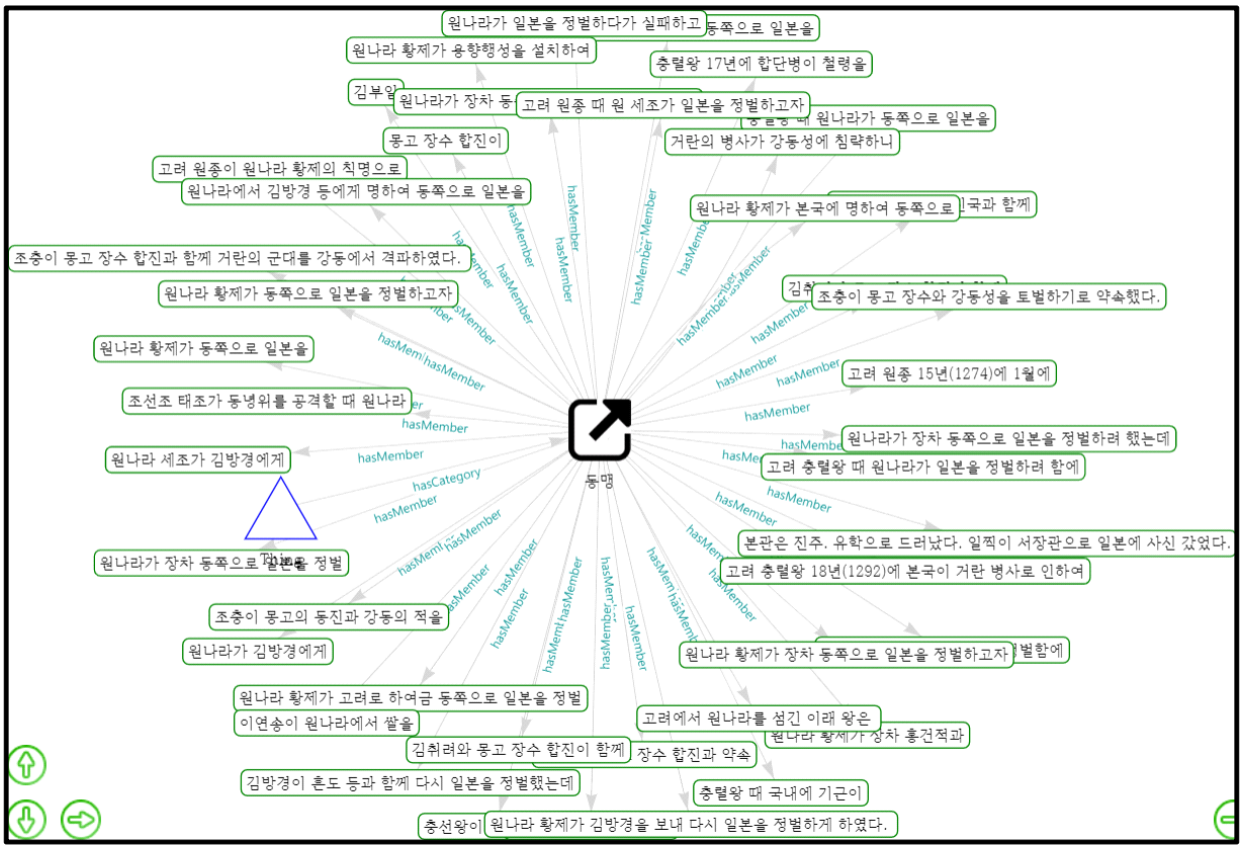


<연구 결과 웹사이트 1>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의 결과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습은 다음과 같다. 왼쪽 상단 1~4번은 연구 대상인 유서 제목이다. 그리고 5번에는 주제별 몽골의식이 1~16번까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연구 결과 웹사이트 1>에서 왼쪽 맨 위에 있는『대동운부군옥』을 클릭하면 <연구 결과 웹사이트 2>로 이동한다. 여기서 중앙 아래에 있는 세모꼴 학문 List를 클릭하면『대동운부군옥』내의 학문 데이터를 모두 보여주는 <연구 결과 웹사이트 3>으로 이동한다. 이 중 하나를 클릭하면 학문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연구 결과 웹사이트 4>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연구 방법으로는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짚어 내어 스몰 데이터 연구가 가능하다.



<연구 결과 웹사이트 2>



<연구 결과 웹사이트 3>

몽골학문

목차 [숨기기]
1 학문
2 대동운부군옥
3 성호사설
4 송남잡지

학문 [편집]

학문적 우수함, 학자들의 업적, 시를 짓는 모습, 학문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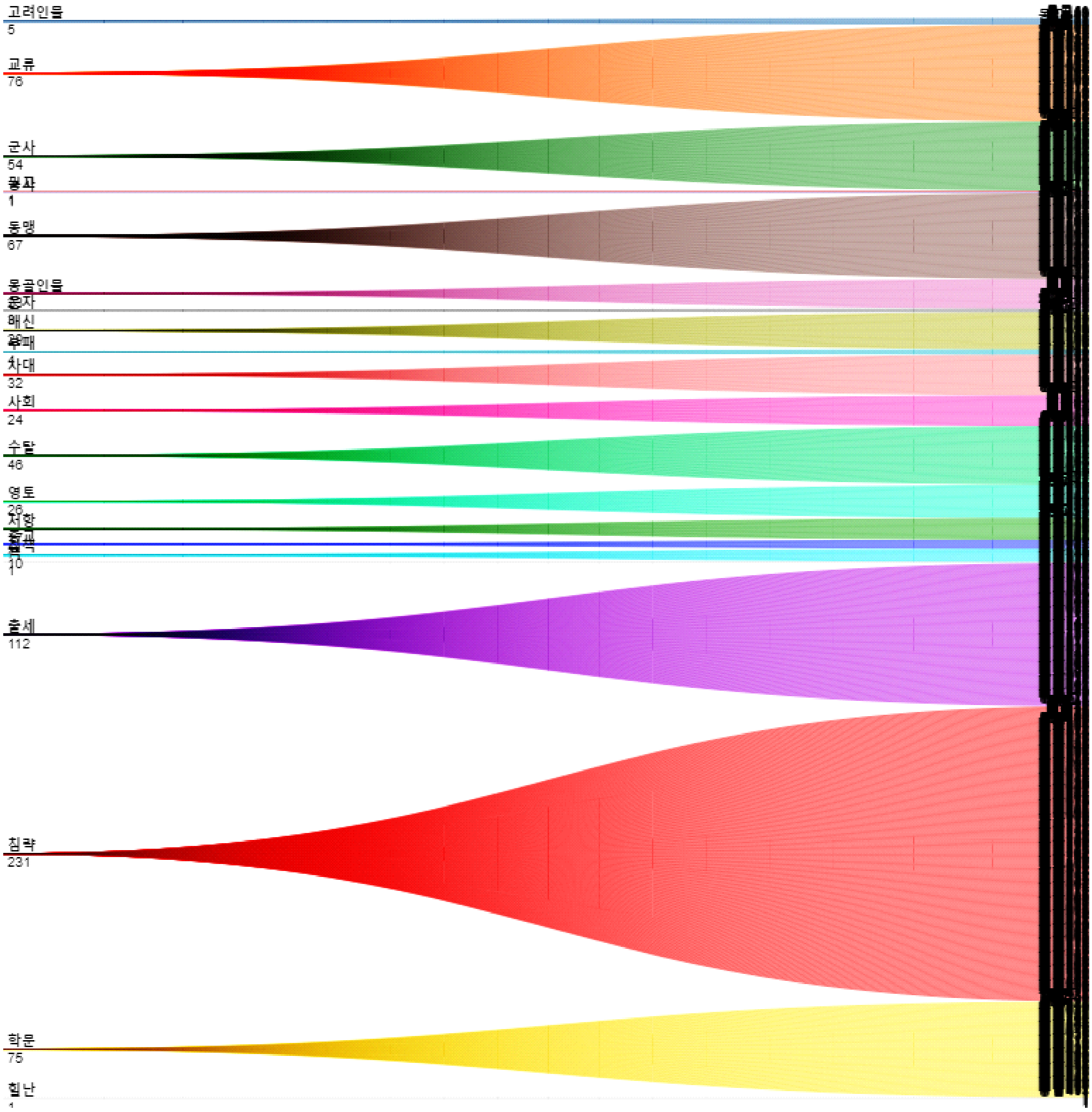
대동운부군옥 [편집]

고려 충선왕이 원나라에 들어갔을 때 조자앙 등이 모두 충선왕의 문에 놀았다.
왕이 한 연을 지어 읊기를 "닭 소리가 문 앞의 버들과 흡사하네"라고 하니, 여러 학사들이 용사의 출처를 물었다.
왕이 말없이 있자, 익재 이제현이 곁에서 설명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의 시에 '집 머리 처음 뜨는 해에 금계가 우니, 흡사 늘어진 버들 가지 간드러지게 긴 모양일세'라고 한 것이 있는데, 닭 소리가 연함으로써 버들가지의 가볍고 가는 것을 비유했으니, 우리 왕의 시구는 이 뜻을 쓴 것이다.
한퇴지가 거문고를 두고 읊은 시에 '뜬구름과 버들솜처럼 뿌리와 꼭지가 없네'라고 했은 즉 고인이 소리에 있어서 또한 버들솜으로 비유한 이가 있다"라고 하니, 자리에 가득 한 사람들이 칭찬 탄복했다.

<연구 결과 웹사이트 4>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을 이용하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정량적으로 연구 대상별 몽골 관련 데이터가 몇 건이 나오는가를 알아보는 것에서 벗어나 데이터 간의 관계성 속에서 그 내용적인 교집합을 찾아 네 권의 유서가 보여주는 몽골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맥락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유형별 패턴도 주요 요소이므로 빅데이터 연구 방식 또한 활용한다. 이는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결의 데이터 연구로서 유서를 읽은 독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클래스를 읽어낼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분석한 내용을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처럼 나타난다. 왼쪽은 데이터 클래스이고 오른쪽에는 개별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다. 이로부터 어떤 클래스 데이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빅데이터 분석>

3. 연구대상

백과전서식 유서(類書)가 갖고 있던 역할은 첫째 지식의 정리와 둘째 발췌문을 통한 대상에 대한 지식 개념 정립, 그리고 셋째 정리 내용의 교육적 소스(source)화를 통한 지식의 확산이다. 크게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독자 계층이 주로 지식인이었다는 면에서 대중성을 넘는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유서들은 傳聞 지식을 기록하되 그것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헌 기록이나 사례를 대응시켰다. 傳聞 지식의 기록은 오랜 기간 民間에 축적된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문헌 지식의 영역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13] 그러므로 유서에 실린 내용은 저자 개인만의 의견이 아닌 세간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특히 『아희원람』과 『송남잡지』는 저자가 직접 저작의 교육적 의도를 명확히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식 내용의 확산성을 책의 성격에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서 속에 담긴 내용은 단순히 당대 지식의 열거가 아니라 당시 세간에 쌓인 의식이며 당시를 살아가던 이들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유서에 기록된 몽골에 대한 연구는 당시 사회에서 몽골을 바라보는 인식을 읽을 수 있게 한다.

3.1.『대동운부군옥』

『대동운부군옥』은 선조 22년(1589)에 권문해가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 유서다. 권문해는 1560년 문과에 급제하여 내직으로 정언, 장령, 외직으로 안동과 대구의 부사와 공주목사 등을 지냈고, 후에 승지의 벼슬을 지냈다. 퇴계 이황에게서 학문을 배워 이름을 날렸고, 특히 역사에 정통하였다. 이 원고본은 책판 667판과 고본 3종 27책이다. 이 중 책판은 초판본의 판목이 남아있는 것이며, 고본은 체재와 형식 등이 다소 다른 미완질의 3종 27책이다. 『대동운부군옥』은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문학, 철학, 예술, 풍속, 인물 등의 분야에서 조선 명종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20권 20책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판은 순조~헌종 때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임진왜란 이전 개인이 엮은 저서로서는 양적 또는 질적인 면으로 가장 우수한 대작이다.[14] 『대동운부군옥』은 조선 후기에 간행되었으나 조선 초기에 집필에 되었으므로 조선 초기 사회의 몽골 인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료다.

3.2.『성호사설』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의 저술을 천지문·만물문·인사문·경사문·시문문 등의 5문으로 분류하여 3,007항목의 글을 수록한 실학서다. 이 책은 기록을 내용별로 구분해 싣는 유서학(類書學)의 저술 또는 백과전서적인 책으로 보기도 한다. 사물과 당시의 세태

13) 강민구. (2011)「조선 3대 유서(類書)의 형성(形成) 경로(經路)에 대한 연구」.『동방한문학』, 47, 149-174.

14) 대동운부군옥목판 및 고본(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1123708780000&pageNo=1_1_1_1)

및 학문의 태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국토와 국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피는 자아의식이 뚜렷한 점 등에서 실학적인 저술이라 할 것이다. 이 책에 씌어진 모든 항목의 서술에 그의 뚜렷한 의식이 반영된 것은 아니나 현실문제를 다룬 항목에 있어서는 그의 사상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15]

3.3.『아희원람(兒戱原覽)』

『아희원람』은 이이엄(而已广) 장혼(張混)이 저술한 아동교재이다.『아희원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탈명륜(脫明倫)적 경향이다. 다른 전통 교재에 비해 교화적인 성격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둘째, 이인기행(異人奇行)·기적(奇蹟) 등의 비합리적이고 우화적인 내용들을 즐겨 다루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국속(國俗)과 민속(民俗)의 소개가 활발하다.『아희원람』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설명들이 자주 등장하나, 중국의 문화를 선진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조선의 독자적인 국속과 역사가 있다는 균형된 문화비판주의를 보여주고 있다.[16]『송남잡지』가『아희원람을』적극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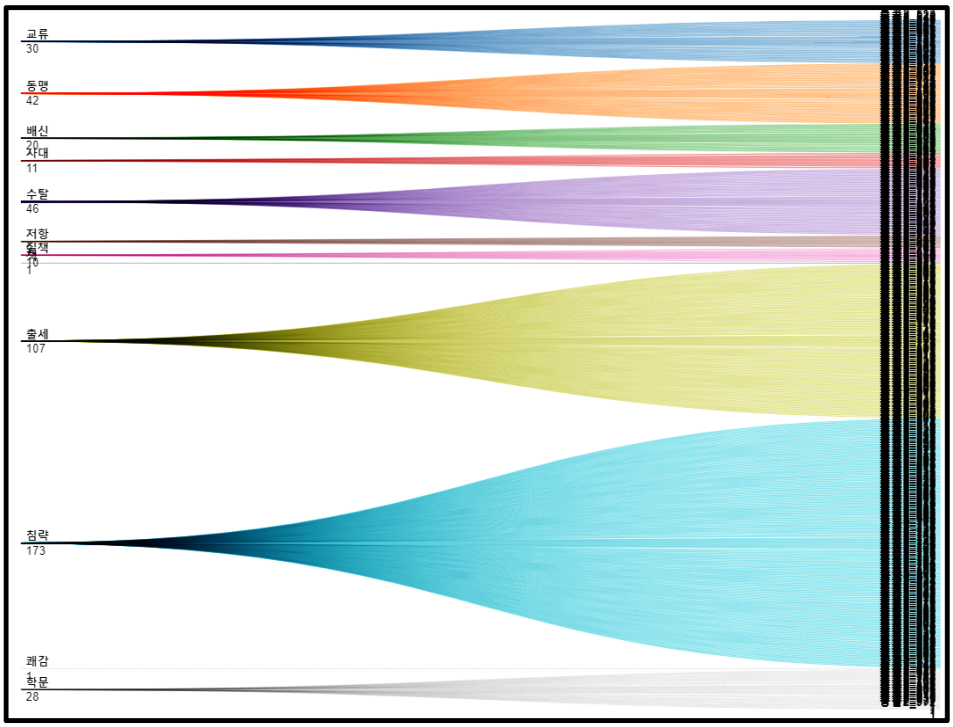
3.4.『송남잡지(松南雜識)』

조선후기 학자 조재삼이 천문·인사 및 동·식물 등의 다양한 부문을 나누어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모아 수록한 유서(類書)다. 편자는 권두에 있는 자서(自序)에서 두 아들의 교육용으로 편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각종 전적에서 사물을 총망라해 33부문으로 유집(類集)하고, 각 유(類) 아래에 작은 항목을 설정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 책은 천지만물 하나하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놓은 것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망라한 백과사전적인 책이다.[17] 단어의 기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15) 성호사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9698)
16) 조선아동교육 아희원람, 문화콘텐츠닷컴(https://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14&cp_code=cp0438&index_id=cp04380540&content_id=cp043805400001&search_left_menu=5)
17) 송남잡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0733)

4. 연구결과

4.1. 『대동운부군옥』에 보이는 몽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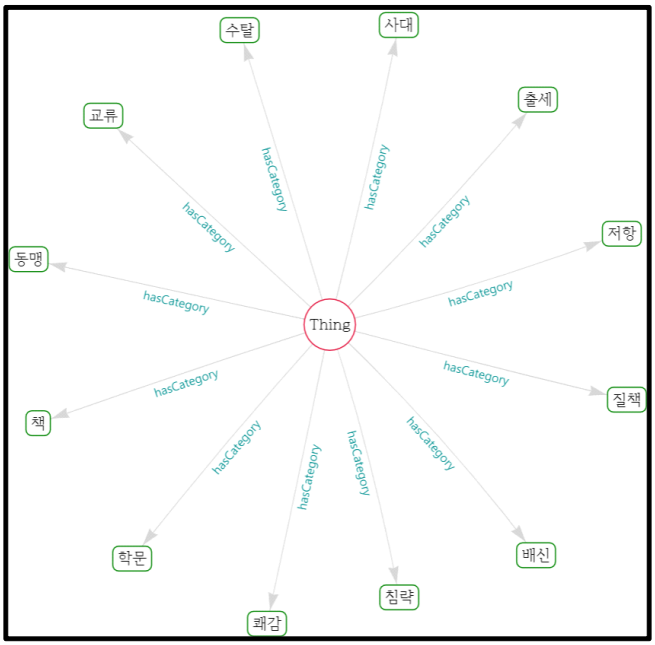
<대동운부군옥 빅데이터 분석>

네 권의 유서 중에서 몽골 데이터가 가장 많이 추출되었고 특히 침략과 관련한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침략 데이터가 우리나라를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인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어도 몽골보다 월등한 장수들이 있었고 민족적인 우수함으로 인해 강대국 몽골과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네 권의 유서 중 가장 고려에 가까웠던 시기에 저술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몽골의 침략으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에 관한 자세한 묘사와 다양한 설명이 당시 독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고, 따라서 몽골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조선의 독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약소국으로만 보이지 않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와 당대의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원적 사상을 갖기에 충분한 침략 데이터가 담겨있다.

반원 감정이 극에 달하지 않게 하려는 중립적 데이터도 눈에 띈다. 강대국 원나라가 우리나라와 함께 군사작전을 펼쳤다는 동맹 데이터와 학문 선진국 원나라에서 인정받은 우리나라 학자, 관료들이 많았다는 학문 데이터를 함께 제공받음으로써 조선 독자들은 우리나라가 원나라에게 침략이나 당하고 수탈이나 당하는 원나라 사대 조공국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몽골민족과 협력하는 민족이라는 점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침략과 수탈이라는 데이터가 몽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한편으로는 이 침략 데이터가 만들어낸 출세라는 데이터군도 상당하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쉽게 말해서 몽골로부터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출세길이 열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원나라는 학문적인 소통이 가능했던 선진국으로 그려진다. 이런 데이터 양상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했을까? 독자들이 아마도 원나라를 배경으로 (혹은 거점으로) 입신양명해야겠다는 (혹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지는 않았을까? 구체적으로 몽골어를 배운다든지, 몽골이 원하는 물품을 고려에서 선점해야겠다든지, 원나라로 유학을 가야겠다든지 등 독자들의 친원적 마음이 자극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대동운부군옥』의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동운부군옥』 내 몽골 네트워크 그래프>

① 침략

몽골은 침략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침략의 범위는 영토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A4용지 18페이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러나 단순히 몽골의 침략을 묘사했다기 보다는 칭찬할 만한 우리나라(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으로 기능하는 면이 많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는데, 특히 고려인의 충, 효, 용기, 지혜, 포용력 등 장점이 몽골의 침략을 바탕으로 더욱 부각된다.

몽골이 침략하는 장면이 아래와 같이 묘사된다.

> 몽고의 병사가 귀주에 들어와 도적질을 하는데 사람 기름으로 땔나무를 적셔서 불을 놓아 태우니 사람들이 그 불을 끌 수가 없었다.

> 고종 41년 몽고병이 우리나라의 고을을 크게 노략질하여 포로가 된 남녀가 2만 6천 8백여 명이었고, 죽은 자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스치고 간 고을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으니, 몽고병의 난리가 이것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 몽고의 병사가 침략하여 강도성을 훼손하니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빠른 우레와 같아 거리의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다 울었다.

침략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사회의 모습이 나타난다.

> 고종 말년에 몽고의 장수가 강도의 내외 성을 무너뜨리자 성안의 백성들이 모두 달아날 계획을 세워 다투어 배를 사니, 배의 날로 가격이 날로 올랐다.

침략에 대한 신묘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몽골의 침략 당시 세간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 고려 고종 14년 봄, 궁문 밖 큰 길에서 판교까지 지렁이가 나와 혹은 실이 얽힌 것처럼 혹은 산대를 펼친 것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얼마 뒤에 몽고군이 크게 쳐들어왔다.
> 고종 8년 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푸른색의 지렁이가 궁문에서 밖으로 판교에 이르기까지 길에 가득하였다. 길 가는 사람들이 모두 피하였다. 15년 봄에 또 궁문에서부터 서문에 이르기까지 길에 푸른색 지렁이가 있었다. 길이가 세 치쯤 되는데, 비를 따라 많이 내려왔다. 3년도 되지 않아 몽고의 군사들이 크게 쳐들어왔다. 왕이 강화로 피하여 도읍을 옮겼다.

몽골과의 혼인하는 사례가 여러 곳에 나타난다. 이 역시 몽골이 행한 강제적인 침략의 모습이다. 조선의 독자들은 두 나라 사이의 혼인이 끼치는 여러 사회적 변화를 감지했을 것이다.

> 충렬왕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원나라 황제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유경이 말하기를 "공주가 임금에게 시집온 이후 나라 사람들이 안도하고 지내게 되었다."하였다.
> 충렬왕 이후 4분의 임금은 연이어 원나라 공주에게 장가들었기에, 정치와 법령이 모두 원나라에서 나오게 되었다. 나라에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원나라 왕으로 연결되어 양국을 왕래하며 시기하고 참소하였다. 그리하여 자식이 왕위에 오르면 아버지가 폐하게 되고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면 자식이 폐하게 되었다. 새로운 임금 세우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옛 임금을 욕하였으며 본국을 배반한 자는 어떤 사건을 만들기를 좋아하여 다시는 군신과 부자의 사이의 도리가 없었다.

몽골의 모욕적인 요구와 내정간섭이 나타난다. 고려의 굴욕적인 모습이 여기저기에 나타나므로 이를 읽는 조선의 독자들 역시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고종 때 몽고 사신이 와서 국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우는 위로하고 타일러 그냥 보내게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몽고 침략의 재앙은 이때부터 싹텄다"라 하였다.
원나라가 공민왕을 폐하고 덕흥군을 세우고자 하여 이가노를 보내어 왕의 인장을 거두어 들이도록 하였다.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충정왕을 폐위시키고 창고를 봉하고 국새를 거두었다. 왕이 강화로 물러나서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연히 대처하는 우리나라 관리의 자세가 돋보인다.

충숙왕 때 원나라 사신들이 끊임없이 오가면서 기세를 부리고 포악하였다. 이에 조련이 말을 부드럽게 하여 대하니 사신들이 문득 성냄을 풀었다.

몽골 침략에서 일어난 전투 혹은 몽골과의 대립에서 부각된 우리나라 장수가 자세히 여러 번 묘사된다. 특히 김경손, 박서, 김방경, 최춘명이 여러 곳에 등장한다. 침략 전쟁 중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람들의 충성심, 효심, 정절이 두드러진다. 이를 감탄하는 몽골인도 등장한다.

몽고 군대는 '대포차'로써 구주를 공격해 오자 장군 박서 역시 '대포차'로서 돌을 날려 공격하여 무수히 죽였다. 몽고 장수가 성루와 무기를 둘러보고는 탄식해서 말하기를 "성 안에 있는 여러 장수들은 다른 날 반드시 다 장수나 정승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몽고 병사가 자주를 매우 급박하게 포위하였는데 부사 최춘명은 굳게 지키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나라에서 화친을 한 뒤에 사신을 보내어 항복하라고 타일렀는데도 최춘명은 문을 닫고 상대하지 않았다. 최우가 노하여 사람을 보내 목을 베려 하였다. 몽고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비록 명을 거스른 것이지만 당신네 나라로 보면 충신인데 성을 온전히 지켜낸 충신을 죽이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며 풀어주기를 요청하였다.
충렬왕의 왕비인 원나라 공주가 궁실을 지으려고 태사 오윤부에게 명하여 날을 잡게 하였다. 윤부가 이르기를 "임금에게 불리하므로 신은 감히 날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공주와 왕이 노하여 곤장을 쳤다. 윤부가 이르기를 "날을 잡는 것은 흉함을 피하고 길한 쪽으로 가려고 함입니다. 위협하여 날을 잡는다면 날을 잡이 않음만 못 합니다. 신은 차라리 죽더라도 감히 아부하지는 못 하겠습니다"하고 끝내 날을 잡지 않았다.

장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절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여인은 침략으로 희생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몽골에 굴하지 않는 고매한 정신의 산화로도 나타난다.

호수에게 시집갔다. 고려 고종 때 호수가 맹주의 수령이 되었었는데, 몽고의 군사가 처들어와 함락되는 바람에 호수도 피해를 입었다. 유씨는 적에게 몸을 더럽힐까 염려하여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침략은 인질도 수반했다. 고려의 왕들은 오랜 시간 원나라에 볼모로 잡혀있었다. 원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는 나라로 그려진다.

> 고종이 조카에게 몽고에 들어가서 독로화가 되라고 하였는데 독로화는 중국말로 인질이란 뜻이다.
> 몽고에서 왕을 불러들여 조회하게 하였다. 고려 고종이 족자를 왕자라 일컫고 그를 보내었다. 들어가서 인질이 되었다.
> 고종은 영녕공 준을 원나라에 볼모로 보내면서 '애자'라고 일컬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의 출중한 인품이 그려진다.

> 원종이 태자 때에 원나라에 인질로 가있었다. 연경에서부터 길이 동관을 지났다. 그곳 수령이 맞이하여 화청궁에 이르러 온천에서 목욕하게 하였다. 원종이 사양하면서 "이곳은 당의 명황제가 일찍이 목욕한 곳이니 비록 다른 시대의 사람이라 한들 어찌 감히 더럽힐 수 있으리오?"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원종이 예를 알고 있음에 감탄하였다.

침략으로 인한 고려 내의 배신 행위,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가 보인다. 이는 이후 배신 클래스에서 더 상세하게 다룬다.

> 고려 고종 45년에 원나라 병사가 내침했는데, 용진 사람 조휘 등이 병마사를 죽이고 화주 이북 땅으로써 반란하여 원나라에 붙으니, 원나라가 쌍성총관부를 두고 조휘를 총관으로 삼았다.
> 고종 때 몽고병이 해마다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포로로 잡아 간 사람이 남녀 20여 만 명이나 되었고 죽인 자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에 왕이 고정매를 소복별감에 임명하였는데 고정매가 주색에 탐닉하고 백성을 갈취하여 사리를 취하니 백성들이 도리어 더 고통을 받았다.

침략은 치욕적 교류를 낳았다. 어떤 물품들이 오고갔는지는 이후 교류 클래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 몽고병이 곧장 갑곶 강 너머까지 쳐들어와 고종이 최린을 보내 몽고의 군영으로 가서 토산물을 바치고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때문에 개경에 계엄이 해제되었다. 각 도가 전란을 겪어 주, 군의 세 가지 세금 외에 잡역을 모두 면제하였다. 그리고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하였다.

침략 중에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모습이 보인다. 수탈 클래스에서 상세히 다룬다. 수탈 클래스와 교류 클래스는 물품의 이동이라는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 원나라에서 제주에 목장을 설치하였다. 목장의 오랑캐들이 발호하여 관리를 살해하기도 하

였다.

② 동맹

침략국의 이미지와는 달리 몽골은 동맹국으로서의 모습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힘을 합쳐 거란이나 왜 같은 제3의 적을 섬멸하는 군사적 동맹 관계이거나 우리나라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에 조력하는 인도주의적 파트너로 원나라가 묘사된다.

군사적 동맹은 다음과 같다.

> 원나라 황제가 장차 동쪽으로 일본을 정벌하고자 고려국에게 전함 900척과 병기와 의장 등 군수물품 일체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제주도에서 전함 100척을 건조하게 하였는데, 고인탄이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때맞추어 요구에 부응함으로 모자람이 없게 하였다. 이에 특별히 명위장군에 임명되었다.
> 원나라 황제가 김방경을 보내 다시 일본을 정벌하게 하였다.

여기서도 우리나라의 장수의 인품이 드러난다. 동맹도 단순히 연합이 아닌 우리나라의 인품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한다.

> 김취려가 몽고, 동진국과 함께 거란을 토벌할 적에 몽고 장수 합진이 말하기를 "과연 우리와 함께 우호를 맺었으니 먼저 몽고 황제에게 절하고, 다음에 만노 황제에게 예를 갖추자"라고 하자, 김취려가 말하기를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으니, 천하에 어찌 두 명의 황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몽고 황제에게만 절하고, 만노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만노는 동진국의 황제로 금나라 선무포선만노가 요동을 점거하여 천왕이라 참람하게 일컫고 나라 이름을 대진이라 하였다.
> 조충이 몽고 장수와 강동성을 토벌하기로 약속했다. 몽고 장수는 술을 잘 마셨는데, 조충과 우열을 겨루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벌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조충은 얼마 동안 마셔도 취한 빛이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 잔에 이르러 잔을 들고서 마시지 않고 말하기를 "이 술을 내가 못 마실 바는 아니나 약속대로 한다면 공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니, 주인이 손님을 벌주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몽고 장수가 그 말을 중히 여겨 대단히 기뻐하였다.

인도적 동맹은 다음과 같다.

> 충렬왕 때 원나라가 동쪽으로 일본을 정벌하게 하자 백성들은 군량을 수송하는 데 곤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농사의 때를 놓쳐 기근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나라 황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중국 강남의 쌀을 배에 실어 와서 구제하게 하였다.

③ 출세

『대동운부군옥』에서 몽골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다. 출세를 위한 장소로서 몽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학문적 지식을 기반

으로 대국에서 출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앞잡이로 출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몽골로 은둔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선두에서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례도 있었고 몽골에서 출세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출세 데이터를 접했을 때 독자들은 몽골이라는 나라가 배신자들의 나라이며 출세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뒷전인 불충한 인사들이나 받아들이는 국가로 인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몽골에서 학문으로 출세하거나 몽골에 있는 고려 왕족과 친해지면서 출세한 이들도 있었고 원나라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 좋지 못한 방법으로 출세하여 몰락한 이들도 있었다. 출세와 관련해서 침략 클래스 데이터 못지 않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타난다. 출세 클래스는 한 편으로는 배신 클래스와 또 한편으로는 학문 클래스와도 연관된다. 이를 보면 당시 원나라는 강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를 보장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은 출세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이인복은 원나라 과거시험인 제과에 합격하여 태녕로금주판관에 임명되었다. 고려에 돌아와서는 충목왕이 그가 명망이 있다고 여겨 4번 관직을 옮겨 우부대언으로 삼았다.
본관은 남포이다. 대사성 백문절의 아들이고 호는 이재이다. 천성이 순박하고 후하여 재상의 기국이 있었다. 당시에 정주학이 처음 중국에서 일어나 아직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았는데, 백이정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정주학을 배우니, 이제현 등이 먼저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다. 상당군에 봉해졌다.
복주 춘양현 사람이다. 처음 이름은 지정(之琔)이었는데 뒤에 정미로 고쳤다가 충선왕이 이(怡)라는 이름을 내렸다. 성격이 활달하고 일찍부터 큰 뜻이 있어 장자의 기풍이 있었다. 충선왕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가 처벌을 받는 수고로움을 겪었으나 시종일관 한결같이 절조를 지켰다. 벼슬은 중찬에 이르렀고 시호는 광정이다.
원경이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가서 문학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몽고어를 배우니 원나라 세조가 납린합날이라 불렀는데 응대함이 자상하고 민첩하여 행동이 재빠르기 때문에 '납린'이라 하고 수염이 아름답고 기이했기 때문에 '합날'이라 했다.
유청신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몽고어를 익혔다. 여러 번 원나라에 사신을 가서 황제께 응대함을 잘 하여 드디어 총애와 신임을 받았다.
원나라 세조가 몸이 아파 의원을 구하자 설경성을 보냈다. 약을 쓰니 효과가 있었다. 이때부터 자주 왕래했는데 황제가 내리는 것을 이루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벼슬은 찬성사에 이르렀다.
원나라 조정에서 배신 가운데 현자를 불렀다. 최유엄이 이 명에 응하였다. 황제가 불러 보고는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다.

나쁜 출세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이현이 몽고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었다. 후에 몽고의 병사를 따라 돌아와서 여러 성들

을 항복하도록 회유하고 거기에서 얻은 재물을 모두 자기 것으로 삼았다. 여러 재상들이 그를 반역자라 논죄하여 그를 죽여 시신을 거리에 버리고 그의 가족들은 적몰하였다.
권한공이 상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을 때 권세를 부리고 뇌물을 받았다. 뒤에 충숙왕이 명하여 국문하게 했는데, 한공이 변소 구멍을 따라 도망하니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자가 자오이다. 행주 사람이다. 벼슬하여 총랑이 되었다. 정중부가 난리를 일으킨 뒤로 권신이 잇달아 일어났으나 자오는 시종 부지하여 옛 관직을 잃지 않았다. 그의 막내딸이 원나라 순제의 황후가 되어 태자를 생산하였다. 황제가 봉하여 영안왕으로 삼았다. 아들 다섯을 낳았으니 기식, 기철, 기원, 기주, 기륜이다. 황후의 세력을 의지하여 제멋대로 굴다가 모두 주살당하였다.
김이는 고려 충선왕을 오래 따라 원나라에 들어가 시종하여 왕을 보살핀 공로가 있었다. 조일신이 공민왕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가 숙위했는데 귀국하여 공을 기록함에 1등으로 등록되었다. 왕을 보살핀 공로를 믿고 횡포를 부리고 교만 방자하여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고려에서는 부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엄인이 없었다. 안락공주가 원나라에 몇 사람을 바쳤는데, 원나라 황제가 매일 보고 가까이 하여 총애했다. 이로부터 잔인하고 요행을 바라는 무리가 서로 본받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거세하고 형은 그 아우를 거세하고 또 강폭한 자는 조금만 분통과 원망이 있으면 문득 스스로 거세한 까닭으로 수십 년이 되지 않는 사이에 거세한 무리가 매우 많아졌다.

④ 배신

원나라가 고려에 대한 배신 행위 후 도망가는 곳으로 나타난다. 고려를 해하는 데 일조하는 나라로 원나라가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원나라 황제가 고려를 배신한 자들의 말만 믿고 고려를 수탈하기도 한다. 독자들에게 원나라가 배신자의 나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데이터가 많이 보인다.

채하중이 조적과 죄를 지어 원나라에 도망갔다. 그곳에서 심왕을 아부하여 섬기면서 고려국의 허물을 엿보아 왕위 찬탈을 도모하였다.
이후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원나라에 들어가 멋대로 금칠이 본국에서 난다고 말하였다. 황제가 사신을 보내 와서 급히 이것을 구하였다. 왕이 먼저 열 항아리를 보내었으나, 본국에서는 나지 않는 물건이었다.
원종 때 이추가 원나라에 도망가 거짓으로 황제에게 아뢰기를 "등석이 고려국에서 생산됩니다"라 하였다. 이에 황제가 그 말을 믿고 사신을 보내어 와 요구했다.
최원이 왕을 원망하여 자기의 형 최유와 함께 원나라로 도망가서 모국 고려를 혼란에 빠뜨릴 것을 도모하였는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⑤ 학문

학문이 발달하고 공부가 소통되는 나라로 원나라가 그려진다. 문학작품 특히 시(詩)로 학자들 간에 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원나라에 체류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이 귀하게 여겨지고 공부가 칭송되는 학문적 분위기의 원나라에서 기량을 펼치는 장면이 나타난다. 원나라 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신학문을 원나라로부터 배워오는 장면도 보인다.

이공수가 원나라에 조회하러 갔다. 황태자가 이공수를 불러 함께 광한전에 올랐는데 거기에 걸려있는 현판 글씨 '인지'의 뜻에 대하여 물었다. 이공수가 대답하기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고 사물을 분별하는 것이 '지'이니, 제왕께서 이 두 글자를 사용하여 사해를 다스려 만세토록 태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려 관종이 한림학사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고 진사를 시험하여 취했는데, 왕이 의봉루에 임하여 선비들을 시험하니 문풍이 이에 흥기했다. 원종이 옛 서울로 돌아와 감시의 방을 내거니 몽고 사신이 가서 보고 말하기를 "난리를 겪은 뒤에서 문풍을 실추하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성대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굉연은 자가 무설이고 호는 죽간인데 원나라에 들어가 구양현, 위소 등과 사귀었다. 『죽간집』이 있는데 '시가 아주 힘이 있다'.

황제 왈 "이색은 용렬한 유학자가 아니니 그의 학문은 비록 중국에서 구하더라도 또한 드물 것이니 어찌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최성지는 수학에 정통했는데 왕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가 스승을 구하여 수시역법을 배워 고려로 돌아와 마침내 그 학문을 전했다.

정주학이 중국에서 유행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보급되지 않았다. 충선왕 때 백이정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그것을 배웠는데 우리나라에 돌아오자 이제현과 박충좌가 먼저 그를 스승으로 모셔서 배웠다.

⑥ 사대

고려가 원나라를 사대하는 나라로 나타난다. 이때 물품들이 함께 원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 역시 침략국에 대한 굴욕적 교류로 볼 수 있다.[18)]

충렬왕이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 따오기 고기를 연달아 바쳤다.

충렬왕이 황서를 원나라에 보내어 '금으로 그린 자기'를 바쳤다.

고려 충선왕이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 연이어 환관을 바쳤다.

충렬왕이 사신을 원나라에 보내 새매를 바치니 황제가 그것을 받았다. 그 뒤에도 연이어 사신을 보내 새매를 바쳤다.

⑦ 수탈

원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물품을 수탈해가는 나라로 그려진다. 수탈 데이터는 교류 데이터와도 연관되는 데이터다.

한 번 오랑캐 원나라가 말 기르는 것을 감독한 이후로 화류가 해마다 천자의 마구간에 들어가네. 원나라에서 탐라에 목장을 설치하였다.

고려 고종 때 몽고가 수달의 가죽 1천 장[領]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 백방으로 잡아도 그 수를 맞추기 어려워 977장을 실어 보냈다.

원종 때 원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 대령산 남쪽의 비자 50근을 구했다. 그 지방 사람들은

18) 사대 클래스, 수탈 클래스, 교류 클래스에서는 고려에서 원나라로 이동하는 물품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비자나무를 백목이라 한다.
고려 고종 8년 몸고 사신이 와서 광첨동유 160근을 요구했다.
고종 8년에 몽고의 황태제가 와서 가는 모시 2천 필을 요구하였다. "밤 깊은데 가벼운 적삼 가는 모시를 입었네."
고려 고종 8년 몽고의 사신이 와서 가는 명주 3천 필을 요구하였다.
고려 원종 9년(1268)에 원나라 세조가 김유와 신백천을 보내어 대령산의 향백자, 유체인상, 관음송 위에 고인 물, 풍면송 솔잎, 송고떡, 남해도의 실모송, 지령동의 전밀, 금강산의 석용, 영동군의 향국자를 요구했다. 김유와 신백천은 모두 고려 사람인데 오랫동안 몽고에 있어서 고려를 등지고 사신의 임무를 받들어 고려로 돌아와 그 욕심을 이루고자 했다.
원종 때에 몽고에서 사람을 보내 아길아합몽합의 가죽을 구하였다. 아길아합몽합은 물고기 이름인데 모양은 소처럼 생겼다. 혹은 환각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가죽으로 가죽신을 만들면 병이 낫는다. 황제가 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 것이다.
고려 원종 때 원나라 세조가 사신을 보내 오매와 화리를 요구하였다.
고려 원종 9년 원나라 세조가 사신을 보내 사람 형체를 닮은 인삼을 요구하였다.
고종때 몽고에서 고려에 사람을 보내서 자로를 구하였다.
고종 때에 몽고의 사신이 왔을 때 자황 10근을 구하였다.
고려 원종 때 원나라 세조가 사신을 보내 붉은 구리 2만근을 구했다. 구리는 매우 견고하면서도 붉다. 식기, 숟가락, 젓가락 등을 모두 이 구리로 만든다. 바로 중국에서 고려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려 원종 때 이추가 도망하여 원나라로 들어가 원나라 황제한테 거짓으로 말하고는 고려로 와서 금, 옻, '푸른 등나무'를 요구하였는데 모두 다 고려에서는 나지 않는 것이었다.
원종 때 원나라가 세조가 사람을 보내어 영동군의 향기로운 누룩을 요구하였다.
원나라 황제가 보낸 사신이 고려에 와서 행백자를 구하였다.
원나라 세조가 사신을 보내와서 어상의 재료로 쓸 향장목을 구했다.
원나라 황제가 송골매를 잡아서 바치라고 독촉하니 고려 충렬왕이 사신을 보내어 송골매를 바치고 또 새매를 바쳤다.
고려 원종이 몽고에 와서 '자단나무' 등의 물자를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고려 사람 가운데서 도망쳐서 몽고에 들어가 이런 물자가 고려에서 생산된다고 거짓으로 아뢴 자가 있었으므로 원나라에서 믿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⑧ 질책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고 판단하는 나라로 원나라가 묘사되는데, 고려의 후진적 모습이 나타나고 몽골이 이를 지적하는 모습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몽골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보이거나, 몽골이 고려를 하대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게 하는 데이터다.

유탁이 대산이 되었을 때 천제석이라 자칭하고 요망한 말로 군중을 미혹시키는 무당이 있었다. 유탁이 그를 매로 때리니, 원나라 사신이 유탁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부인을 형벌한 사람이 있습니까?"하니, 유탁이 학식이 없어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원나라 사신이 와서 충혜왕을 결박해 갔다. 숙주에 이르러 왕이 이불을 달라고 했는데, 숙

주 수령 안균이 이불을 올리지 않았다. 원나라 사신이 안균에게 말하기를 "너의 임금이 추위가 두려워 이불을 달라고 하는데 네가 주지 않으니 신하의 의리에 있어 어찌된 것인가?" 라고 하고서 쇠로 만든 자로 그를 쳤다.

고려 충렬왕 때에 합단이 침략하니 원나라 황제가 병사를 보내어 토벌했는데, 원나라 장수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친히 나가 도적을 막으소서." 하였다. 왕이 늙고 병든 것으로 사양하니, 원나라 장수가 말하기를 "이웃 사람이 잘못하여 불이 나도 오히려 가서 구제하는데, 하물며 자신의 일에 있어서 어찌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원나라 하간왕이 곽영석을 사신으로 보내왔다. 그가 문묘에 배알할 때 학사가 황폐하게 무너져 있었다. 곽영석이 관방에게 말하기를 "내 듣건대 당신네 나라는 예로부터 문을 숭상한다고 하던데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소?"라고 하였다.

⑨ 저항

우리나라가 저항하는 대상으로 원나라가 그려진다. 무관이 아닌 문관의 저항의식을 볼 수 있는 데이터로 조선 독자들에게 민족저항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능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몽주가 북쪽 원나라 사신을 맞아들이지 말라는 상소를 올렸다.

고려 말에 백관들이 몽고옷을 입고 있었다. 정몽주가 건의하여 백관의 관복을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비단으로 만든 모자와 둥근 깃의 옷을 입도록 하였다.

신우 초에 북쪽 원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것에 대하여 의논이 있었는데, 정도전이 "제가 마땅히 원나라 사신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하였다

공민왕이 오랑캐 옷을 입고 변발을 하자 이연종이 간하여 말하기를 "변발과 오랑캐 옷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니 본받지 마십시오"라 하였다. 그러자 왕이 즉시 변발을 풀고 기뻐하며 옷과 이불을 하사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연종을 현명한 신하라 생각하였다.

⑩ 교류

우리나라와의 교류 대상국으로 원나라가 나타난다. 두 나라 간의 교류는 단순히 물품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에까지 이른다.

몽고 풍속에 정수리로부터 이마까지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형태를 네모나게 하고 그 가운데 머리카락을 두는 것을 겁구아라고 하는데, 고려 원종 때 궁중에서 이미 머리카락을 잘랐으나 여러 신하들은 당시에 아직 자르지 않으니, 왕이 꾸짖어 따르게 했다.

원나라 태후가 사신을 보내 충선왕에게 숙비의 고고를 내려 주었다. 고고는 몽고 부인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 이름이다.

홍약이 원나라에 들어가 보초 백여정으로 서적 만팔백 권을 구입하여 환국하였다.

원나라 세조가 고려의 왕에게 금선주사와 색깔 있는 명주를 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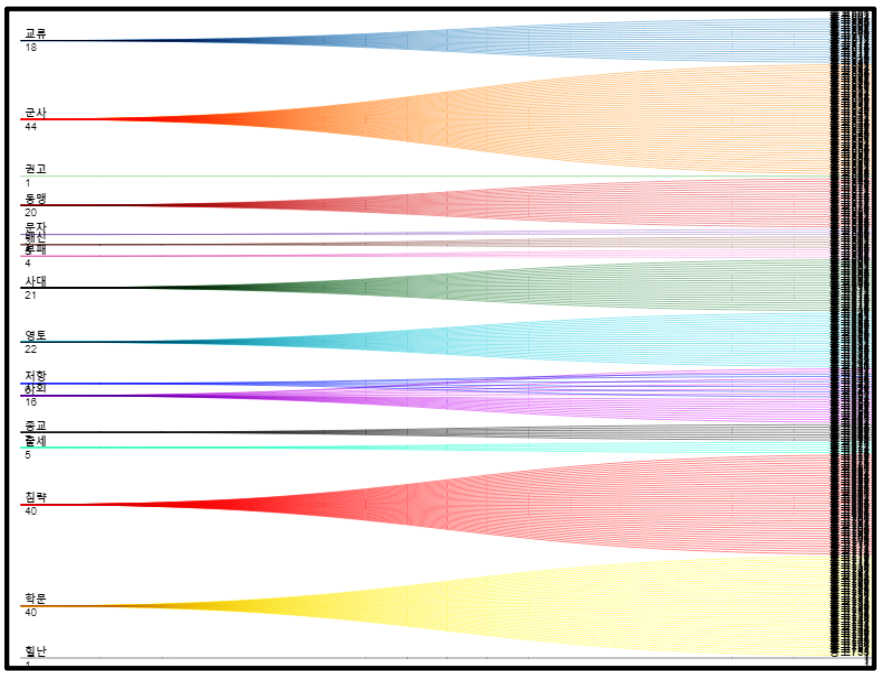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목면이 없었다. 문익점이 원나라에 가서 비로소 씨앗을 얻어왔다.

충선왕이 세자 때 원나라에 가서 납폐를 하고 실련공주에게 장가드는데, 잔치의 상에 고려에서 가져온 유밀과를 사용하였다.

발도는 '발돌'이라고도 쓰는데 몽고어로 용감하여 대적할 상대가 없는 사람에 대한 명칭이

다.
원나라 세조가 김방경에게 흰 깃으로 만든 갑옷을 하사했다.
원의 황제가 충선왕이 정책의 공이 있다 하여 벽전과 금대를 하사하였다.
비도, 분도 등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없던 품종이었다. 충숙왕이 원나라에 들어가 공주에게 장가든 뒤, 우리나라로 돌아올 적에 황제가 하사한 것이다.
원나라 순제가 공민왕에게 보검 300자루를 하사하였다.
원나라 세조가 고려왕에게 서금 한 단을 하사했다.
국화 가운데 소설오라는 종자가 있는데 그 색깔이 희다. 충숙왕이 원나라 공주에게 장가들어 본국으로 돌아올 적에 원나라 황제가 하사한 것이다.
충렬왕 때 원나라에서 새로 만든 수시력을 반포하였는데 이는 허형과 곽수경이 편찬한 것이다.
원종이 몽고의 제도를 따라 순미소를 설치하고 밤마다 순찰하여 사람들이 밤에 다니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
충렬왕 때 원나라 황제가 해청요자를 하사하였다.

4.2.『성호사설』에 보이는 몽골



<성호사설 빅데이터 분석>

『대동운부군옥』에 비해서 몽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난다. 몽골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인물들의 출중함을 보이는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배신 데이터도『대동운부군옥』에서처럼 고려를 배신하고 도망간 나라로만 원나라가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원나라에서 일어난 원나라의 배신 데이터도 보인다. 학문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나라 사람이 원나라에서 학문적 기량을 뽐낸 것이 아니라 원나라인들이 이룩한 학문적 업적에 관한 것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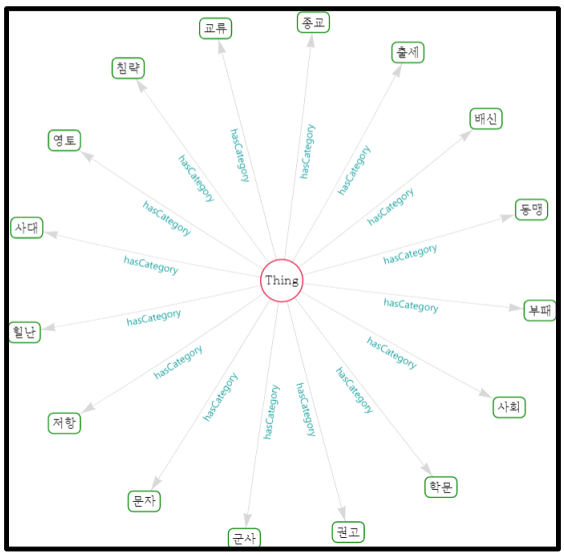
『성호사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이터는 군사 데이터다. 군사 데이터와 침략 데이터는 성격이 다르다. 군사 데이터에서 말하는 군사적 행동의 대상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즉, 군사 데이터는 원나라가 제3의 국가에 대해서 취했던 군사 작전을 의미하고 영토 데이터와 관련이 있다. 뒤이어 침략 데이터가 많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조선 독자들은 몽골, 원나라를 군사 강대국, 침략국의 이미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짙다.

주목할 점은 몽골(원나라)에 대한 저항 데이터 보다는 동맹 데이터, 사회 데이터, 사대 데이터, 교류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호사설』에서의 우리나라와 몽골(원나라)의 관계가 『대동운부군옥』에서 보이는 관계와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두 나라가 완전한 적대 관계가 아닌 강대국과 교류대상국이라는 관계로 나타나는 경향이 엿보이므로 『대동운부군옥』에서의 몽골(원나라) 보다는 훨씬 덜 적대적인 국가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독자들의 반원 수위도 전보다는 조금 낮아졌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총 데이터 양은 『대동운부군옥』이 더 많지만 조선 후기에 출간된 『성호사설』 속 몽골은 조선 전기에 저술된 『대동운부군옥』의 몽골에 비해 모든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를 통해 몽골에 대한 비우호적인 데이터보다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알아야할 몽골 데이터가 균형잡혀 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다보면 조선의 독자들은 몽골(원나라)을 완전한 협력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침략-방어의 관계로만 이어지는 국가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대동운부군옥』에서 나타나는 수탈 데이터가 보이지 않고 질책 데이터가 권고 데이터로 수위가 조절되었다. 원나라를 이용해서 출세한 에피소드도 많지 않다. 교류 데이터와 사회 데이터가 비슷한 양으로 보이고 종교 데이터가 등장한 것은 조선의 독자들도 몽골(원나라)를 이해의 영역에서 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성호사설』의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호사설』내 몽골 네트워크 그래프>

① 침략

『대동운부군옥』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침략 데이터가 보인다.

> 고종 19년에 몽고의 난을 당하자 당시의 권신인 최우(崔瑀)가 왕을 협박하여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했다.
> 도리어 왕이 먼저 승천부(昇天府)에 들어가서 바다 안에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28년을 지내더니 몽고가 군대를 풀어서 안팎의 성을 모두 철수하게 하자, 원종(元宗) 원년에 다시 송도로 환도하였으니, 이는 몽고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 고려 때에도 박서(朴犀)와 김경손(金慶孫)이 귀주(龜州)를 지킬 때 몽고(蒙古) 군사가 밀어닥쳤다.
> 만약 원 나라 임금이 순응하지 않았다면 평안도(平安道)의 한 지대는 팔짱만 끼고 앉아 잃어버렸을 것이다.

② 동맹

『성호사설』에서는 동맹 데이터와 사대 데이터 사이에서의 애매함이 보인다. 군사적인 동맹은 『대동운부군옥』에서처럼 묘사되나 인도주의적 동맹 관계는 몽골(원나라)를 '고려의 뒤를 봐주는' 후견인으로서의 인식하는 관계로 변화되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조선 독자들이 적대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몽골(원나라)에 대한 관점을 조금씩 바꿔갔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 고려 충렬왕 때에 김방경(金方慶) 등이 몽고병과 만병(蠻兵)과 합세하여 일기도(日岐島)에 가서 3백여 명을 죽이고 다시 싸우다가 패전하였고 큰 바람을 만나서 전선(戰船) 3천 5백 척과 만병 10만 명이 모두 물에 빠져죽었다.
> 고려 원종(元宗)은 원 세조(元世祖)에게 큰 공로가 있어서 은총을 받은 것이 보통이 아니었고 충렬왕(忠烈王)에 이르러서는 원(元) 나라의 부마(駙馬)가 되어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받았으므로 말만 하면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 이때는 원 나라의 위령(威令)이 동서에 떨쳐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으므로, 순제(順帝) 이전에는 왜(倭)도 감히 고려를 건드리지 못하였고 해구(海寇)도 감히 침략하지 못하였으며, 서쪽 변방에 있는 금(金) 나라의 유민(遺民)인 동진(東眞)의 만노(萬奴)도 큰소리는 쳤으나 감히 깊이 침입하지 못했으니, 이는 모두 원 나라의 덕이다.
> 고려 충렬왕(忠烈王)이 원 세조(元世祖) 때를 당하여 공주를 맞아 들여 부마가 되었으므로 그 말하는 바를 모두 좇았으니, 비록 나라 일을 주장하지는 못했으나 국운(國運)이 장원하였던 것은 또한 그 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21년을 지나 충렬왕(忠烈王) 16년(1290)에 이르러서는 원 나라에서 동녕부를 혁파하고 북서쪽 모든 성은 우리나라로 되돌려주었다. 이는 그때 충렬왕이 원 나라 공주(公主)에게 장가들어 은총을 받은 때문이었다.

③ 출세

『대동운부군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나라 과거 급제를 통한 출세, 몽골 왕족과의 인연으로 출세한 인물들의 사례가 나타난다. 원나라를 통하면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생각이 조선 독자들에게 여전히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축의 아우는 정당문학(政堂文學) 보(輔)인데, 형제가 함께 원(元) 나라 조정의 제과(制科)에 뽑혀서 한 시대의 명신(名臣)이 되었다.
문정공도 역시 이미 괴과(魁科)에 뽑혔었고 또 행성(行省)의 향시(鄕試)를 제일로 합격하여, 서장관(書狀官)으로 충임(充任)되어 원(元) 나라에 가서 응시하였는데, 고관(考官) 구양현(歐陽玄)이 크게 칭찬하여 제이갑(第二甲)의 제이명(第二名)에 두었었다.
그리고 여자로 중국에 들어가 존귀하게 된 자는 원 순제(元順帝)의 황후(皇后) 기씨(奇氏)와 명 태종(明太宗)의 비(妃) 권씨(權氏) · 한씨(韓氏)같은 이들인데, 이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니와 명 선종(明宣宗)의 황후 오씨(吳氏) 같은 이는 알고 있는 자가 적은데 오씨는 바로 진천(鎭川) 사람이다.

④ 저항

몽골과 단교하는 방식으로 몽골에 대한 저항 의식이 보인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북원(北元)과 단교(斷交)하려고 이 태조(李太祖)로 동북면 원수(東北面元帥)를 삼아 동녕부(東寧府) 올라성(兀剌城)을 격파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몽고(蒙古)가 강성할 때 이르러서도 그들에게 주는 예물과 폐백을 모두 나쁜 베로 하였다.
대명(大明) 홍무(洪武) 원년(1368, 공민왕 17)에 이르러 경신제(庚申帝)가 도읍을 북쪽으로 옮겼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나라는 벌써 중국에 통사(通使)하여 북원(北元)을 거절한 다음, 먼저 동녕부(東寧府)를 치고 명(明) 나라로 귀의한다는 뜻을 나타내 보였으니, 이는 의리로 보나 형세로 보나 모두 옳다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먼저 북원과 끊은 것은 정포은(鄭圃隱)의 제안이었다.

⑤ 학문

『대동운부군옥』에서와는 달리 원나라 사람들의 학문적 업적이 전면에 많이 나타난다. 특히 유교와 관련된 데이터에 조선 독자들은 영향을 받아 원나라를 학문이 발달한 나라로 여기고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문자 제정과 관련된 데이터가 몇 차례 언급되는데 이는 조선 독자들에게 학문적 선진국으로서의 원나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기옥형(璿璣玉衡)을 가지고 이것을 측량하면, 원세조 지원(至元) 때에 곽수경(郭守敬)이 측량할 때 3도 반이나 떨어졌다.
저 곽 태사(郭太史)의 수시력(授時曆)이 원세조(元世祖) 때에 나온 것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이다.
한(漢) 나라는 개국 이래 다섯 번 역법을 고쳤고, 원(元)까지는 세 번 고쳤고, 원(元)의 태사(太史) 곽수경(郭守敬)이 만든 수시력(授時曆)이다.
원 나라 장자(張翥)에게도 성회명(聖檜銘)이 있고 원 나라 이걸(李傑)에게도 조성회사(吊聖檜辭)가 있다.

노재는 원(元) 나라 사람이니, 대개 북방(北方)에 이런 기술이 있었는 듯하다.
사람들의 말이 성인을 지극하게 존숭한 자가 원(元) 나라 성종(成宗) 같은 이는 없다고 한다.
공자를 소왕(素王)이라고 일컬은 것은 두예(杜預)로부터 시작되었고, 문선왕(文宣王)으로 시호한 것은 당 현종(唐玄宗)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원 성종(元成宗) 때에 이르러 대성지성(大成至聖) 4자를 더하였다.
원 세조(元世祖) 때에 파스파(巴思八)가 불씨(佛氏)의 유교(遺敎)를 얻어 몽고(蒙古)의 글자를 지었는데, 평 · 상 · 거 · 입(平上去入)의 네 가지 음운(音韻)으로써 순(脣) · 설(舌) · 후(喉) · 치(齒) · 아(牙) · 반순(半脣) · 반치(半齒) 등 칠음(七音)의 모자(母字)로 나누어 무릇 소리가 있는 것은 하나도 빠뜨림이 없었다.
원(元) 나라 포의(布衣) 조천린(趙天麟)은 금경책(金鏡策)을 올려 아홉 가지의 징험[徵]과 스물 여섯 가지의 아름다움[美]과 서른 아홉 가지의 착함[類]과 또 세 가지의 편함[安]을 조목별로 진술하였는데, 채용할 만 한 말이 많았다.

⑥ 군사

원나라는 군사면에서 강대국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는데,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과는 별개로 독자들은 한반도 부근의 다른 나라와 원나라 간의 군사적 대립에 대한 데이터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몽고의 48개 부족 가운데서 동북 지방에 거주한 족속이 가장 강성하여 대비달자(大鼻獺子)는 흑룡강 북쪽에 있다.
중세 이후에는 중국 국방상의 문제는 언제나 목책 밖에 있는 몽고에 중점을 두어 왔다.
서쪽으로 2천여 리를 달려 호로항구를 거쳐 관문을 들어갔고 또 남쪽으로 가서 변경(汴京)에 수로를 정했다가 그들이 망할 때에는 송(宋)이 남쪽에서 공격해 오고 원(元)은 북쪽에서 쳐들어왔다.
원 세조(元世祖)는 회회국(回回國)을 쳐 없애고 그 임금까지 도망쳐 죽게 만든 다음, 드디어 인도국(印度國)으로 행차를 옮기고 진격하려 하였다.

⑦ 영토

군사 데이터와 비슷한 맥락을 형성하는 데이터다. 이를 통해서 조선 독자들은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강대국 몽골(원나라)을 떠올렸을 것이다.

지금 의주(義州)에서 산해관(山海關)까지가 모두 1천 3백 28리인데, 광녕(廣寧)에서부터 서쪽은 호로항구처럼 생겼는데 남쪽은 바다요, 북쪽은 목책(木柵)이요, 책(柵) 밖은 모두 몽고의 땅이다. 원은 바로 몽고이다.
요하 및 북쪽에서 오는 산맥을 넘고, 또 혼동강을 넘으면 몽고(蒙古)의 경계가 되니, 몽고는 호(胡)다.
나중에 순제가 응창부(應昌府)에서 죽은 후, 태자가 왕위를 이었으니, 이가 바로 북원(北元)이다. 그렇다면 요양(遼陽) 지대도 오히려 북원에 속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그때 요 · 심(遼瀋) 지대는 모두 원 나라 소유로 되었을 것이다.

⑧ 사회

『성호사설』을 읽는 조선의 독자들은 원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시되는 사회 데이터로 인해 원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元) 나라 때에 정개부(鄭介夫)가 정전론(井田論)을 올려 말하기를 ……
> 원 나라는 부세와 역사를 헐하게 하였는데, 명 나라의 가혹하고 세밀한 것이 이어져서, ……
> 그러나, 묘정(廟庭)에 종향(從享)된 이들 중에 한(漢) · 진(晉)의 여러 선비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唐)의 한 문공(韓文公 한유(韓愈)의 시호)과 송(宋)의 여러 철인(哲人)과 원(元)의 허 · 오(許吳 허형(許衡)과 오징(吳澄))가 반열에 참여하였으니, 아마도 문성공이 원 나라 때 사람이므로 혹 원 나라 때의 제도를 따라 그런 것인 듯하다.
> 원(元) 나라 학사(學士)인 승지(承旨) 기기(巙巙)의 말에, “천하의 일은 재상(宰相)이 말하는 것이나 재상이 못한다면 대간(臺諫)이 말해야 하고, 대간이 못한다면 경연(經筵)에서 말해야 한다.”
> 소위 골고루 배정했다는 것은 절약하여 했다는 말인데, 원(元) 나라 세대가 끝나도록 천하에 징수하는 부세가 모두 가볍게 되어 백성이 편히 살 수 있었으니, 이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 원 나라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 임금이 되어서는 수자리 사는 부역을 혁파시켰고 꼴을 실어 나르고 곡식을 끌고 다니는 수고를 없애는가 하면 요역(徭役)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백성을 잘 살도록 만들었다.
> 그러나 오랑캐를 높이고 중국을 천하게 여겨서 외직과 내직에 우두머리 벼슬은 모두 본국인이었고, 중국 사람은 대개 참좌(參佐)에 지나지 않았다. 소위 저들의 오랑캐 관리는 중국말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아래가 통정이 되지 않아서 억울한 일이 자주 생겼다.
> 뒤에 원 나라가 중국에 들어와 황제가 되자 화인(華人)의 상복(常服)을 금하지 않았다.

⑨ 부패 및 배신

고려를 배신하고 원나라로 도망하는 사례도 보이지만, 원나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패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

> 또 『고려사』 조이전(趙彝傳)에 상고하니, 원(元) 나라 승상(丞相) 안동(安童)은 김유(金裕)의 속이는 말을 옳게 듣고 송고병(松膏餠) 30근(斤)을 구하려고 사람을 보내왔었다.
> 원 세조(元世祖) 시대에 중원(中原)의 관리 중에 민간에서 부세를 거두어 자기의 사재(私財)로 삼는 이가 많아 관청 창고에는 저축이 없었다.
> 공 세운 자에게 상을 주고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줄 경우에도 역시 편파적인 버릇을 면치 못한 관계로 중국 사람에게 점점 인심을 잃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나라를 얻었어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까닭이다.
> 원 성종(元成宗) 이래로 그들이 혹은 관작이 대사도(大司徒)에 이르니, 본국에서 매양 주청(奏請)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이 무리들에게 의뢰하게 되는 까닭에 모두 멀리 평장(平章)을 제수하고 그 친척들에게 관직을 내려서, 거마(車馬) · 의복이 참람하기 그지없었다.

⑩ 사대

굴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데이터지만 동맹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식의 반응이 감지된다. 즉, 원나라를 사대한 결과 고려가 평화를 보증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몽골(원나라)을 바라보는 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원(元) 나라를 성심껏 섬긴 지 이미 오래되었다.
> 우리나라는 고려 때로부터 요(遼)·금(金)·원(元) 3대국만 차례로 섬기면서 거의 보존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 원종(元宗)은 세자(世子)가 되어 원(元) 나라에 가서 항복을 자청하였다.
> 이 일은 원 세조(元世祖)에게 조짐(兆朕)이 나타났고 고려 충정왕(忠定王)에게서 아얼(芽孼 재앙의 싹)이 돋은 것이었다.
> 우리나라는 성심껏 원 나라를 섬긴 관계로 여러 대를 지나도록 사랑을 받아 오다가 ……
> 바로 그때에 동진(東眞)이 공갈하면서도 감히 움직이지를 못했고, 일본이 늘 엿보면서도 감히 침입하지 못했던 것은, 모두 원 나라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 급기야 충렬왕이 왕위를 계승하자 원 나라의 총서(寵婿)가 되어 말만 하면 들어주지 않는 일이 없었으며, 또 왜국을 정벌할 것을 꾀했는데 일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중세(中世) 이상에는 국가가 왜에 대한 근심이 없었던 것은 이를 힘입은 때문이었다.

⑪ 종교

원나라의 종교 데이터로 불교와 유교가 나타나는데 공자를 받드는 원나라의 모습에 유교 국가인 조선의 독자들은 꽤 감화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원(元) 나라 세조(世祖)가 상문(桑門 불문(佛門))에 혹(惑)하여 중국의 도장(道藏)을 다 불태우고, 유·도(儒道) 두 교를 물리쳐 외학(外學)으로 삼으며, 공자를 낮추어 중현(中賢)이라 하고, 상문을 높이어 정도(正道)라 하였다.
> 이에 앞서, 원 세조(元世祖)가 요승(妖僧) 상통(祥通)의 허황한 말을 듣고 유교(儒敎)와 도교(道敎)를 배척하는 한편, 공자를 중현(中賢)으로 강등시키고 불교[桑]를 높여 정도(正道)로 삼았다가, 성종이 즉위한 원년에 중외(中外)에 조서를 내려 공자를 높여 받들게 하고 위와 같이 시호를 더하였으니, 그 역량이 크다 하겠다.
> 경산(瓊山) 구준(丘濬)은 말하기를, “원(元)의 세조(世祖)가 유교(儒道)와 도교(道敎)를 내쫓고 전적으로 불교(佛敎)만을 숭상하며 공자를 낮추어서 중등의 현(賢)으로 만들었는데, 성종(成宗)이 비로소 성묘(聖廟)를 서울에 세웠다. 원사(元史)에는 이것을 휘(諱)했다.” 하였지만, 그러나 원 나라 역사는 곧 명나라 사람이 편찬한 것이라 아마도 기휘(忌諱)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⑫ 권고, 힐난

질책보다는 고려를 향해 던지는 권고와 힐난의 데이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몽골(원나라)의 이미지가 순화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왕(王)은 원 나라 대목인 원세(元世)를 제주(濟州)로부터 불러들이자 원세 등이 와서 재상(宰相)에게 이르기를, “원 황제(元皇帝)께서 토목공사를 좋아하다가 민심을 잃게 되므로 사해(四海)를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짐작하고 우리 무리를 탐라(耽羅 제주(濟州)의 구호)로 보내 궁실(宮室)을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충선왕(忠宣王)이 원(元)나라에 있을 적에 어떤 학사(學士)가 왕에게, “일찌기 듣건대, 왕의 선조가 당 숙종에게서 나왔다고 하니, 숙종이 언제 동방에 나가 놀았으며 아들까지 두게 되었었는가?”고 하였다.

⑬ 문자

무릇 중국의 글자는 형상을 주장하므로 사람들이 손으로 전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몽고의 글자는 소리를 주장하므로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고 귀로 듣게 되어 있다.
이때에 원 나라가 멸망한 지 겨우 79년이었으니 몽고의 문자가 반드시 남아 있었을 것이며, 황찬이 우리에게 전한 바는 아마도 이 밖에 다른 것은 없었을 것이다.
〈고려사〉를 상고하건대, “충렬왕 때에 공주(公主 원 세조의 딸)가 총애를 투기하여 외오아(畏吾兒)의 문자로 편지를 써서 원 나라에 보냈으니, 이는 남들이 알까 두려워한 것이다.” 하였고, 〈사기〉에는, “외오아의 문자는 곧 위구르(回鶻)의 글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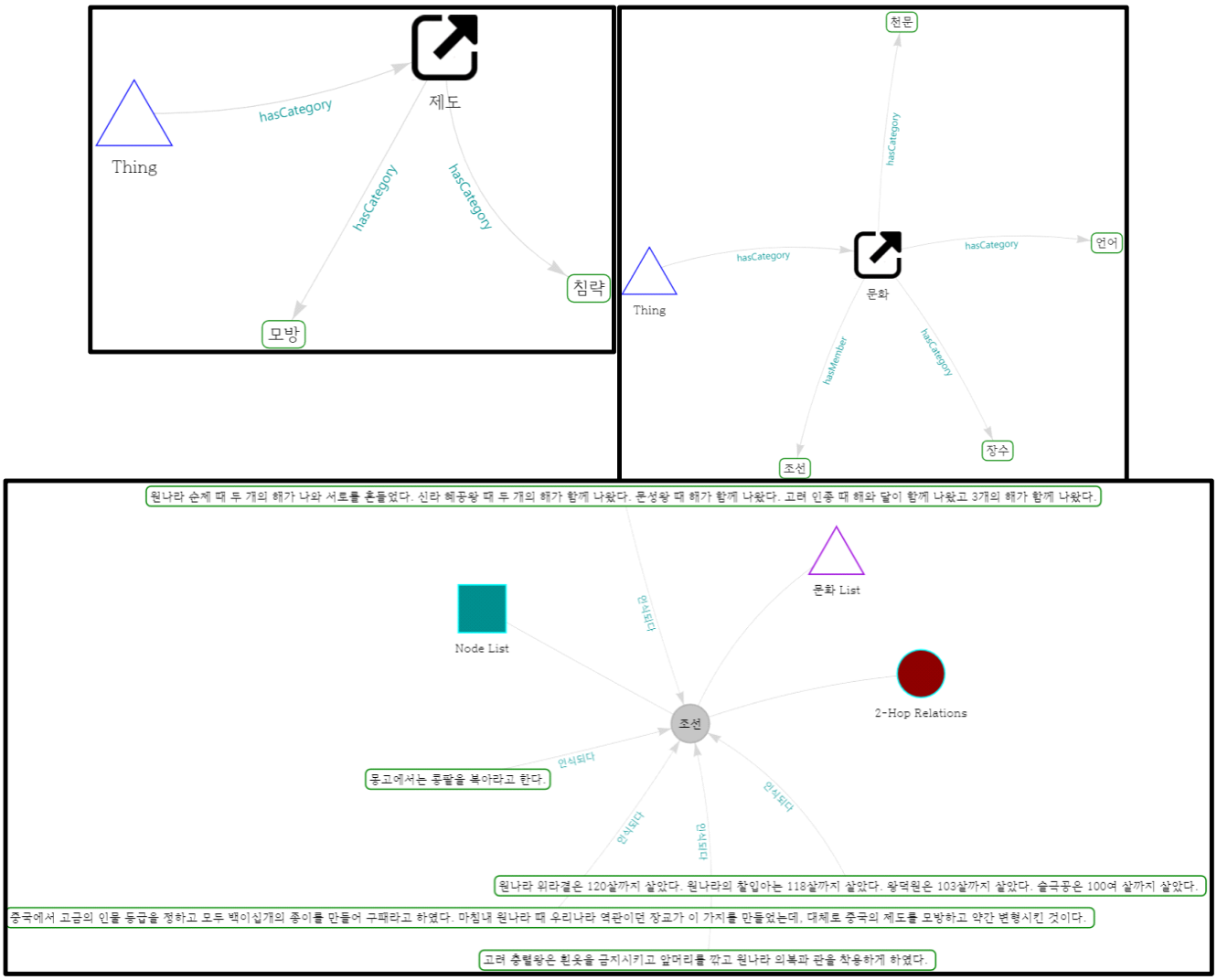
⑭ 교류

물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의 교류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가 처첩을 두는 것은 법에서 금하지 않은 것인데 아마도 그때에 왕이 원(元) 나라 공주에게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듯하며, 조선에 들어와서는 서선(徐選)이 법을 세운 후부터 개가(改嫁)한 여자의 자손에 대하여 앞길을 막아 버렸다.
제주에서 나는 말은 본래 대원(大宛)의 종자를 원 세조(元世祖)가 번식시키라고 보내주었던 것이다.
옛날 충선왕(忠宣王)이 세자(世子)로서 원(元)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잔치상에 우리나라 유밀과(油蜜果)를 썼다 하니 ……
원(元) 나라 사람 양윤부(楊允孚)의 시에, 고려 식품 중에 맛 좋은 생채를 다시 이야기하니(更說高麗生菜美) 향기로운 새박나물과 줄나물을 모두 수입해 들여온다(摠輸山後蓴菰香)하고 ……
요즈음 이 괘배를 도복(道服) 위에다 덮어 입는 이도 약간 있으니, 추측컨대 고려 시대에도 역시 이와 같이 했고 원 나라 사람은 본떠서 만들었던 것인 듯하다.
원(元) 나라 이전엔 둥근 부채[團扇]만 있고 접는 것은 없었는데, 원 나라 초기에 외국 사신이 가진 접선(摺扇)을 처음 보았다.
고려 충선왕에 이르러 원 나라 공주에게 장가가는 데도 백마(白馬) 81필로 폐백을 하여 그 풍속이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 대혼(大婚)의 유속을 상상하여 알 수 있다.

4.3.『아희원람』에 보이는 몽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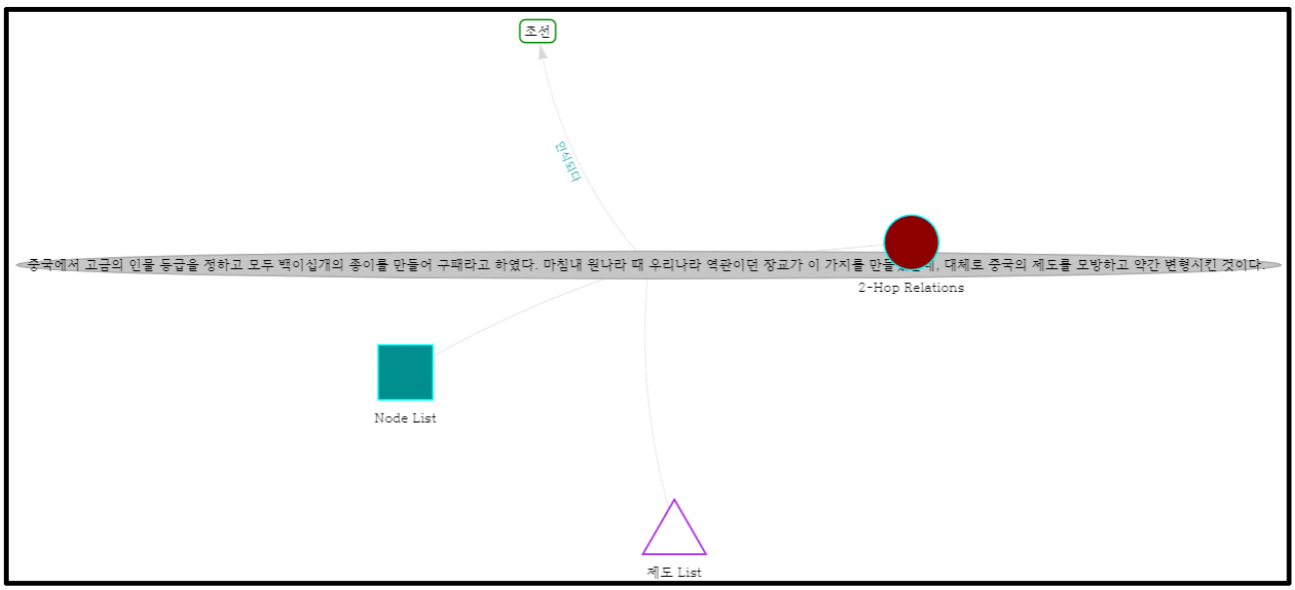
『아희원람』은『대동운부군옥』이나『성호사설』에 비해서 간단한 유서다.『아희원람』에 나타나는 몽골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제도와 문화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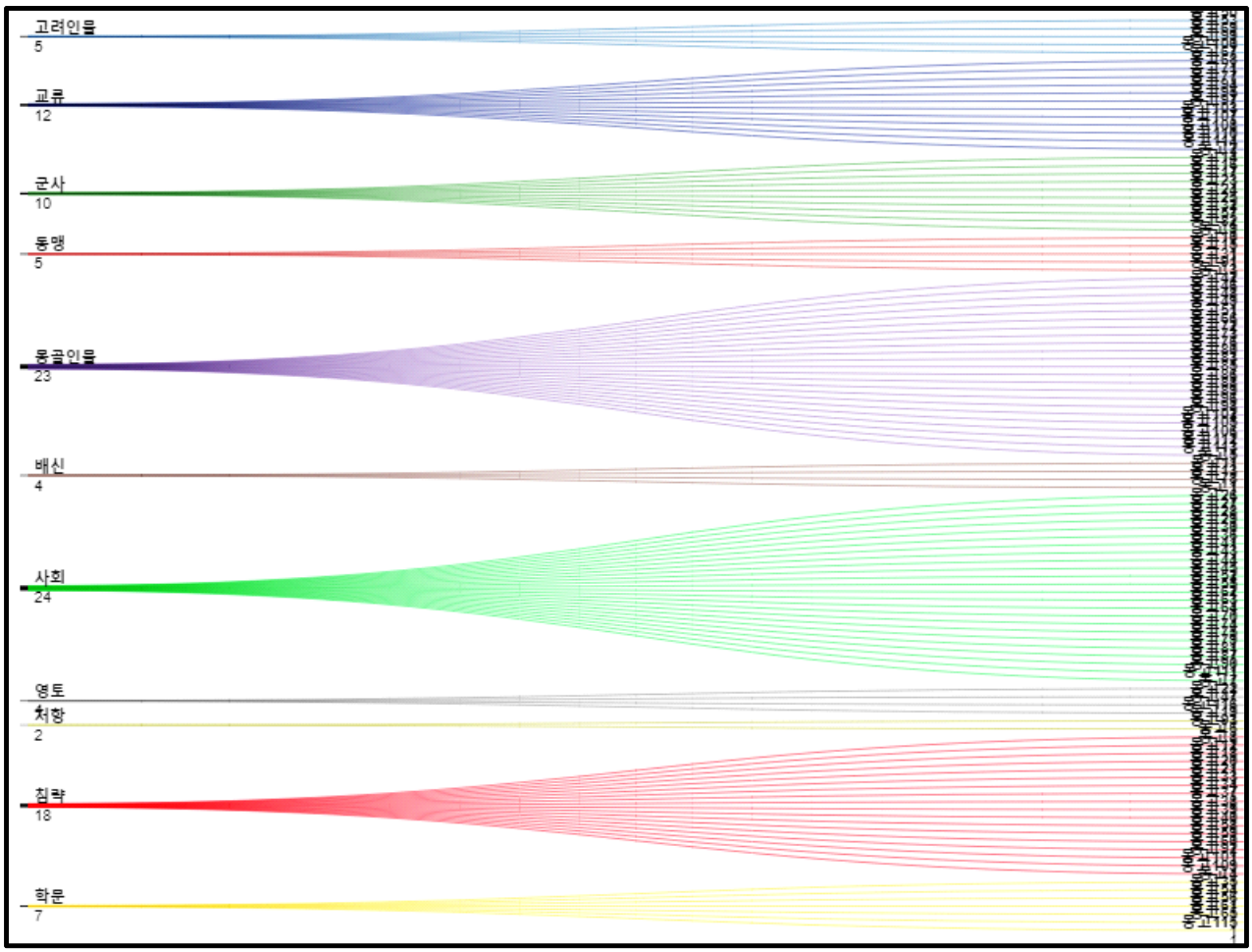
<『아희원람』 데이터 네트워크 그래프 1>

『아희원람』에 나타나는 몽골 데이터의 숫자가 워낙 적어서 독자들의 의식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아희원람』의 전체 데이터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명확히 아동용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아희원람』역시 조선 독자들에게 원나라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아희원람』의 데이터는 몽골 사회 데이터가 주를 이룬다. 위의 내용을 접한 독자들은 원나라가 장수(長壽)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며, 우리나라가 제도를 모방하고 의복 스타일을 따라하는 나라로 인식했을 것이다. 아래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아희원람』 데이터 네트워크 그래프>



<송남잡지 빅데이터 분석>

『송남잡지』에서는 침략 데이터가 감소하고 사회 데이터가 증가한다. 그리고 군사 데이터, 동맹 데이터, 저항 데이터보다 몽골 인물 데이터와 교류 데이터가 많다. 조선 전기에 저술된 『대동운부군옥』에 비하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보다는 비이데올로기적인 양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읽는 조선 독자들의 몽골 인식도 침략국 몽골이라는 이미지에서 우리나라에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국가라는 이미지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송남잡지』의 특징 때문이기도 한데, 『송남잡지』는 어원을 찾아 정의내리려는 작가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찾다보니 몽골의 사회적인 현상에 주목했다.

조선의 독자들은 『송남잡지』를 통해 몽골(원나라)의 풍습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사회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대동운부군옥』가 조선 전기 정치적 메시지를 많이 담고 강조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였다면 조선 후기의 『송남잡지는』 이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인 데이터로 조선의 독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몽골(원나라)은 몇 세기 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유린했던 침략국 몽골과는 사뭇 다르게 보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① 침략

고려 고종 때 원나라의 침입을 피하여 10년동안 도읍을 옮겼다. 육지는 유린되었으나 섬은 끝내 침범하지 못하였다.
몽고 황제는 금패를 하사하고 조서를 내려 이 지역을 몽고에 내속시키고 동녕부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자비령을 경계로 확정하고 최탄을 총관으로 삼았다.
원나라에서 빈번히 와서 여인을 취하고 국내혼을 금지시킨 일이 있다.
또 충열왕(忠烈王)이 국내의 혼인을 금지하고 원나라에 여자를 바치려하자 당시에 딸을 둔 사람들은 날을 잡지 않고 곧바로 혼인을 시켰다고 한다.
충렬왕(忠烈王)이 원나라의 공주를 맞아들이고 군신이 겁구아(怯仇兒)를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였다. '겁구아(怯仇兒)'는 몽고말로 머리를 깎는 것이다.
몽고의 달단족이 우리나라의 국격에 친입하여 근심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아냈지만 없앨 수 없었는데, 신령한 중이 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쫓으니 몽고달단(蒙古韃靼)이 두려워하며 절을 떠났다고 한다.

② 동맹

고려 충렬왕 때 합단이 침범하자 왕이 원나라에 구원병을 청하였다.
살펴보건대,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김방경(金方慶) 등이 몽고군, 남만군(南蠻軍)과 합세해서 일기도로 진군하여 삼백여 명의 목을 베었다.
조충과 김취려가 군대를 인솔하고 몽고•동진과 연합하여 거란의 침입을 평정하였다.

③ 저항

또 고려 원종 때 몽고에서 탈출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신의군(神義軍)'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삼별초(三別抄)의 난을 일으켰다.
충숙왕 때 원나라 사신 완자가 왔을 때 김지경이 국내에 있는 완자의 일족에게 관직을 주기 위한 전형을 하니 신시용이 정방에 와서, "오늘의 제수는 사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욕을 하였다.

④ 학문

나는 생각건대, 원(元)나라 사람은 시에서, 위대한 원나라가 문천상을 죽이지 않았으니, 임금의 의리와 신하의 충성 둘 다 얻었다고 한 것과 같다.
『화죽보(畵竹譜)』에서 "오대(五代) 때 어떤 부인이 밤에 누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달빛이 난간에 비치자 난간 밖의 대 그림자가 자리에 가득했다. 그래서 먹으로 그것을 모사(模寫)하니, 묵죽의 시초이다"라고 하였다.
왕세정이 "『진서(晉書)』와 『남북사(南北史)』는 패관소설이다. 『송사(宋史)』와 『원사(元史)』는 단란조보(斷爛朝報)이다. 그러나 『송사(宋史)』의 번다함 보다는 차라리 『원사(元史)』의 간결함이 좋다"라고 하였다.

⑤ 군사

원나라 세조 때 내안대왕(乃顔大王)이 원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세조가 친히 정벌하여 사로잡았다.
강희황제가 회수(淮水)와 제수(濟水)를 순수하여 은밀이 호걸의 마음을 눌렀으나, 또한 천하의 근심은 항상 북쪽 오랑캐에 있었기에 열하에 궁실을 짓고 중무장한 몽고 병사를 주둔시키니, 중국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면서 오랑캐로 오랑캐를 대비하였다.
원나라가 변경(汴京)을 공격할 때, 금나라 사람에게 진천뢰(震天雷)라는 화포가 있었다.
고려왕이 중국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니 거란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 알고 여진이 변경에 침입하고 몽고가 강남을 함락한 사실은 모른다.

⑥ 영토

혼동강을 넘어서면 몽고의 경계다. 몽고는 오랑캐다.
몽고의 마흔 여덟 부족 가운데 동북 지방의 여러 부락이 가장 강성했는데, 대비달자(大鼻靼子)가 흑룡강 북쪽에 있으면서 동쪽으로 흑룡강에서부터 장성 밖을 거쳐 북족으로 뻗치고 서쪽으로 뻗치니 모두 몽고의 경계다.
몽고는 바로 달단(韃靼)이다.

⑦ 사회

『송남잡지』에는 다른 유서들과 달리 몽골(원나라)의 생활상과 풍습이 많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신묘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동운부군옥』에서 나오는 신묘한 이야기(푸

른 긴 지렁이)가 몽골과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면『송남잡지』의 신기한 이야기는 단순히 몽골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로 당대 민심이 두려움의 존재로 몽골(원나라)을 본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의 근원으로 몽골(원나라)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음역한 글자로, 은(銀)을 '몽고(蒙古)'라 하고, 호금(好金)을 '애신각라(愛新覺羅)'라고 하며, 장사(壯士)를 '예락하(曳落河)'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다.
또 몽고(蒙古)는 그 나라 말로 은(銀)을 의미한다.
『원사(元史)』에서 '색목인(色目人)'이라고 칭하는 것은 대개 몽고 지역 밖의 오랑캐들이다.
『원사(元史)』에는 금으로 사당의 신주를 주조한 것이 보이니, 바로 북위(北魏)에서 처음 임금이 즉위하면 금으로 동상을 만드는 의의이다.
『원사(元史)』에서 "말을 잡아 제수로 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오랑캐의 풍습이다.
『원사(元史)』에서 "몽고(蒙古)에서 대대로 기련곡(起輦谷)에 장사지냈는데, 봉분(封墳)을 만들지 않고 나무를 심지 않으며 능호도 없다"라고 하였다.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말하였다. 한(漢)나라의 제도 중에 선비를 선발할 때에 간책(簡策)에 질문을 써두면 응시자들이 제비뽑기하여 답하는 것을 '사책(射策)'이라고 한다.
원나라 식화법(食貨法)에서는 돈 열 꿰미를 '정(錠)'이라고 하고 열여섯 냥을 한 '근(斤)'이라고 한다.
원나라의 세조(世祖)가 황성(皇城)을 짓는데 커다란 구멍에서 대가리가 붉은 벌레가 무려 만여 마리나 나왔다.
흰 이리의 태생이 돌궐이 되었고 푸른 사슴의 태생이 몽고가 되었다.
원나라의 탈탈이 월준을 정벌한 후 활에 맞아 죽은 사람을 보니 어떤 사람은 꼬리의 길이가 세 치쯤 되었다.

⑧ 배신

『고려사(高麗史)』의 "고종 때에 몽고가 조휘를 총관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이것이다.
최탄 등이 임연을 주벌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아 군영에 들어가 웅거하고, "고려가 북쪽 변경 여러 성의 사람을 죽이려한다"라고 몽고를 속였다.
감창사 이승진이 괴상하게 생각하고 비밀로 해두었는데 그들이 과연 몽고에 투항하였다.

⑨ 교류

『송남잡지』에는 말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자가 수집한 지식 데이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원나라와의 교류에서도 어원에 대한 내용이 많다.『대동운부군옥』이나『성호사설』에서 보이는 굴욕적 교류 데이터보다는 사회 현상으로부터의 교류 데이터가 많다.

호박사(琥珀詞)'는 바로 '화불사(火不思)'이다.
정조가 "광해군 때부터 규장이라는 명칭만 있고 각은 없다"라고 하고 특별히 명하여 규장각

을 세우게 하였는데, 곧 송나라 '용도각' • 원나라 '환장각'과 같은 성격이니 임금의 화상과 필적을 봉안하였기 때문이다.
전세에는 단지 궁궐 안의 관서를 칭하였는데, 원나라 때 기내 주부에 직예중서성을 두었고 외방의 여러 도에 행중서성을 세웠기 때문에, 성이라고 칭한다.
지봉 이수광이 "중국에는 소상을 사용하고 우리나라에 위판을 사용하는데 오로지 개성과 평양에 안치된 소상은 또한 원나라 때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노비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달화주(達化主)'라 이르는데, 이는 원(元)나라의 다루가치[達魯花赤]를 따라 쓰다가 와전된 것이라고 한다.
도치(闍赤)'는 몽고말로 서생(書生)이고 '팔합식(八合識)'은 사부(師傅)이다.
조선 시대에도 내삼청(內三廳)에 소속된 하인을 '조라치(照羅赤)'라고 하니 이것은 고려가 익숙하게 쓰던 위구르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시(交市)를 할 때에 '몽달군(蒙韃軍)'이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와전되어 '몽달귀신(蒙韃鬼神)'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고려 원종(元宗) 때 조량필이 일본에 사신을 가서 밤열매를 얻어서 귀국하여 의안(義安), 즉 창원(昌原)에 심었다. 충렬왕(忠烈王)때에는 원나라에 바쳤다.

⑩ 고려 인물

『대동운부군옥』, 『성호사설』에서는 인물들이 다른 데이터에서 등장하지만 『송남잡지』에서는 단순히 사실로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몽골 인물 데이터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 역시 조선 독자들의 몽골에 대한 이해의 확산을 도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 충선왕(忠宣王) 왕장(王璋)은 원나라로 들어가 이름을 익지보화(益智普化)로 고쳤다.
『원사(元史)』를 살펴보니 순제(順帝)의 황후 기씨(奇氏)는 바로 고려 기자오(奇子敖)의 딸이다.
고려의 이자연이 원나라 조정에 건너갔다가 윤주의 감로사에 올라가서 호수와 산의 뛰어난 경치를 사랑하여 따라온 시공에게 말하였다.
요나라 잔당이 들어와 노략질하고 몽고 군대가 국경을 압박하던 날에 위열공 김취려와 마음을 합하여 국가적 수모를 막고 조용히 잔에 술을 붓고 적을 신과 같이 물리쳐서 국가가 그 덕에 편안해지니 서희와 강감찬도 그들보다 훌륭하다고만 할 수 없다.
몽고가 귀주를 공격하자 박서가 대아포로 그들을 물리쳤다.
고려말 원나라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선발해 갔는데, 가정(稼亭) 이곡(李穀)이 원나라에 가서 이의 혁파를 상소하였다.

⑪ 몽골 인물

『단계심법(丹溪心法)』에서 "닭은 토(土)에 속하는데 어찌 축시에 우는 것이랴! 땅이 축시에서 열려서인가?"라고 하였으니, 대개 각각 뜻을 미루어서 억측하여 이치에 맞춘 것이다.
황간, 왕백, 김이상 세 사람은 모두 주자 문하의 적통을 이어받은 제자로, 그들이 만든 스승에 대한 상복은 상고할 만한 가치가 없지 않으니 후세에 스승을 위해 상복을 입는 자들은 마땅히 이것을 준거로 삼아야 한다.

권문해(權文海)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에서 "양기(楊起)는 한(漢)나라 양진(楊震)의 후예이다. 원나라 순제(順帝)가 그를 보내어 공민왕의 승상으로 삼았다. 청주를 본관으로 하사하고 자손의 부역을 면제시켜 주었다"라고 하였다.

성호 이익이 "몽고의 황제 중에 황태극(黃太極), 청태극(淸太極)이라는 연호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것을 싫어하여 황태길(黃台吉), 청태길(靑台吉)이라고 바꾸어 불렀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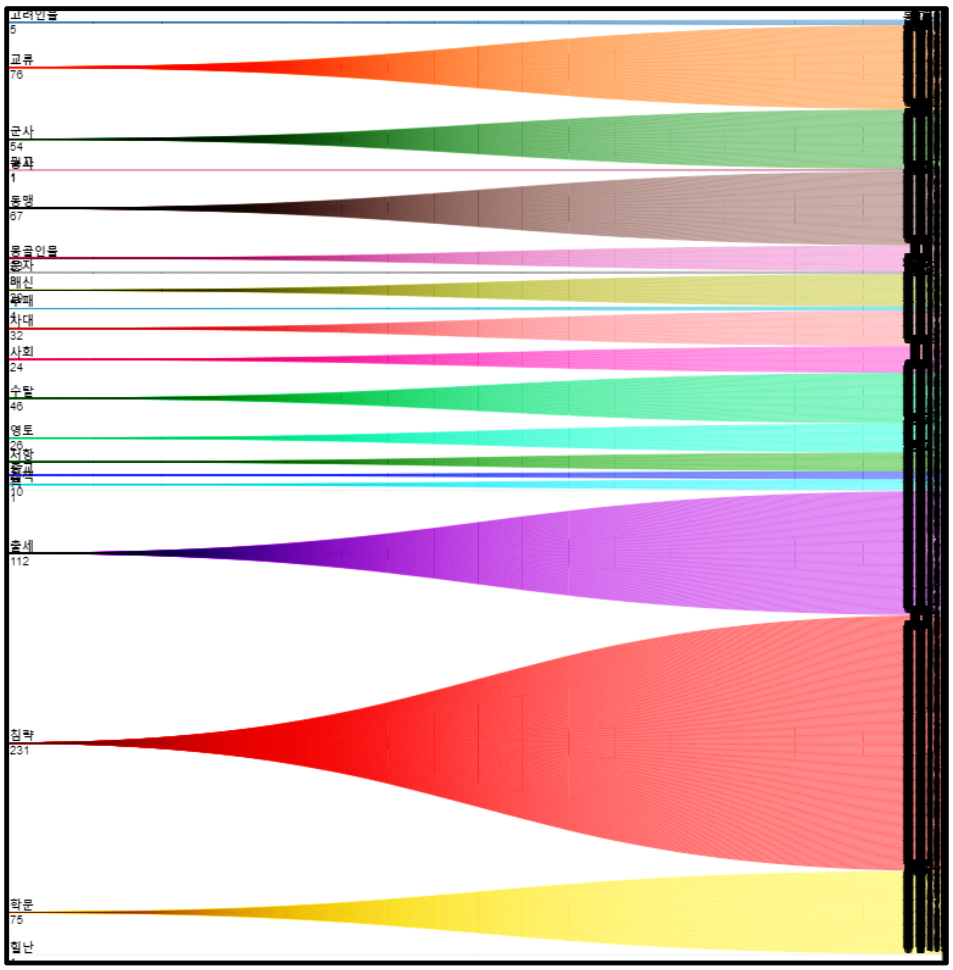
몽고(蒙古) 역사에 "야율초재(耶律楚材)가 금(金)나라를 이기고 낙타 두 마리에 대황(大黃)을 싣고 돌아와서 무수한 사람의 질병을 치유시켰다"라고 한 기록이 이것이다.

원나라 말에 구우와 증선지는 사이가 좋았는데 10년 동안 떨어져서 각각 책 한 권씩 저술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기자고 약속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네 권의 백과전서식 유서에서 몽골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유서들은 단순히 기록서의 영역을 넘어 지식인들의 참고서의 역할을 하였고 교육서의 기능도 하였으므로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서의 기능을 고려해보면 그 안에서 묘사되는 대상의 톤(tone)이 당대와 후대 지식인, 학습자에게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미디어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 국가에 대한 톤과 연관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19]

연구 대상 네 가지 유서 중에서 『아희원람』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서에서 추출된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의 유서에서 보이는 몽골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19) 최용석, 김효미. (2016)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공공외교가 국가이미지와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426-438

이 세 권의 유서에서 보이는 몽골(원나라)은 침략국으로서의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 이 침략을 발판으로 출세한 인물들에 대한 데이터가 그 뒤를 이었고, 학문 선진국과 교류국으로서의 데이터가 눈에 띈다. 조선의 독자들은 이 유서들을 보면서 몽골(원나라)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국가라는 인식을 강하게 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군사 강대국으로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침략 데이터와 함께 역설적으로 동맹 데이터도 상당수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조선의 독자들은 우리나라와 몽골 사이에 일정 정도 균형잡힌 관계 지형도에 대해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맹 데이터는 사대 데이터와 침략 데이터를 중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침략이 가져온 수탈 데이터는 교류 데이터와 함께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갔던 물품의 이동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회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교류가 물품에서 벗어나 문화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자리잡아가는 양상이 전개되었고 이를 받아들이는 조선 독자들 역시 몽골(원나라)을 사회적 교류의 대상 국가로 인식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세 유서의 저술 시기와 저자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로 보면『대동운부군옥』가 가장 먼저 저술되었고, 『성호사설』, 『송남잡지』가 이후 저술되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전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술된 『대동운부군옥』에는 침략 관련 데이터가 주를 이루는 반면 조선 후기에 저술된 『송남잡지』에는 사회 데이터가 다수 등장해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가는 사이 몽골에 대한 이미지가 침략국에서 교류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침략 데이터를 이용해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이 뚜렷이 보이는 『대동운부군옥』의 저자 권문해와 지식의 기원을 좇는 『송남잡지』의 저자 조재삼은 몽골(원나라)을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랐다.

조선은 몽골 연구에 있어서 블랙아웃(blackout)된 영역이다. 지금 몽골에 대한 연구를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의 연속성 상에서 몽골을 제대로 보기 위함이다. 몽골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였다. 중세의 강대국 몽골이 끼친 흔적은 지금도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역사가 곧 몽골의 역사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고려를 끝으로 쇠락기에 접어든 몽골은 조선에서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몽골은 중세의 침략국, 근대의 후진국으로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결과를 보면 몽골은 우리나라에게 다양한 인식의 방향점을 제시하는 국가였고 여러 계층의 영향을 끼친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가 지난 시간 속에 사라진 몽골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한 발자취를 찾아 내어 다시금 몽골이라는 국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작은 촉매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웃 국가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대상 국가가 강대국인지 아닌지를 떠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역사 인식이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환기하는 데에 공헌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통한 외교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국가 간 서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최근 한 대선 주자의 점령군(占領軍)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운 이유도 역사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20] 역사는 되풀이된다. 우리가

20) 「아! 조선, 실학을 독하다」, 『인천일보』, 2021.07.12; 「점령군을 점령군이라 부르지 못하는 비극」, 『

몽골에 대해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근래 들어 다시 명확해지고 있다.[21)]

이번 연구에서 주목한 조선인의 몽골에 대한 인식 연구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근대 개화기 조선에 영향을 끼친 세력으로서 몽골'을 염두에 둘 수 있는 향후 연구 주제를 남긴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 활용된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은 『대동운부군옥』과 『송남잡지』의 전(全)권 디지털화라는 과제를 남긴다.

【참고 문헌】

원문

『대동운부군옥』

『성호사설』

『송남잡지』

THE MORNING CALM. No. 11, VOL. II. MAY 1891.

학술논문

강미령. (2009) 「17-18세기 조선정부의 몽골 이해」, 『중국사연구』, 62권, 137-167.

강민구. (2011) 「조선 3대 유서(類書)의 형성(形成) 경로(經路)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47, 149-174.

이평래. (2011) 「20세기 전기 한국 지식인들의 몽골 인식 1-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중앙아시아연구』, 제17권 제2호, 29-56.

최용석, 김효미. (2016)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공공외교가 국가이미지와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426-438.

최원재. (2020) 역사 데이터 내러티브. 동국사학, 68, 33-85.

Ts, 체렝도르지. (2016) 「몽골제국시대 이후 몽골이 아시아의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연구』, 제41집, 99－124.

신문 및 잡지

「아! 조선, 실학을 독하다」, 『인천일보』, 2021.07.12

「점령군을 점령군이라 부르지 못하는 비극」, 『오마이뉴스』, 2021.07.08

「몽골 지하자원과 한국 기술력 더하면 양국에 이득」, 『조선일보』, 2021.05.07

「개화기 선각자 尹致昊의 영문일기 〈6〉 」, 『월간조선』, 2016.03

단행본

『조선과 몽골 – 최덕중, 박지원, 서호수의 여행기에 나타난 몽골 인식』, 소나무, 2010.

웹사이트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오마이뉴스』, 2021.07.08

21) 「몽골 지하자원과 한국 기술력 더하면 양국에 이득」, 『조선일보』, 2021.05.07

중앙시사매거진 https://jmagazine.joins.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문화콘텐츠닷컴 https://www.culturecontent.com
최원재 프로젝트 http://dh.aks.ac.kr/~pattern/wiki/index.php

여 백

【토론문 6】

「조선 유서(類書)에서 보이는 몽골 인식」에 대한 토론문

체렝도르지(몽골과학아카데미)

몽골에 대한 한국 전통시대 사람들의 인식은 최근에 학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몽골을 오랑캐의 나라, 또한 몽골인을 문명을 받지 못한 야만인이란 인식이 전통시대 특히 조선시대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더 확실하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선생님이 발표하신 논문은 그 동안의 관련 연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조선의 대표적 유서(類書) 네 권을 대상으로 삼았고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semantic data curation) 기법 등의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끕니다. 토론자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할 말은 별로 없고 다만 역사학자 입장에서 생각되는 몇 가지 궁금점과 의문점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1. 무엇보다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유서에 나오는 몽골 관련 내용들은 유서를 읽은 독자들의 몽골에 대한 인식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나 그것은 당시 몽골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몽골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유서에 기록된 몽골 관련 내용들은 대부분이 원나라와 관련이 있으며 조선 당시에는 원이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정한 나라 역사는 그 나라 이미지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역사보다는 당시 현실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을 그 예로 들 수도 있는데 한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른 것처럼 조선 시대 몽골과 원나라 때의 몽골은 다릅니다.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유서에 기록된 몽골에 대한 연구는 당시 사회에서 몽골을 바라보는 인식을 읽을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당시 몽골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과거 역사 속의 몽골에 대한 인식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발표자는 『대동운부군옥』은 네 권의 유서 중에서 몽골 데이터가 가장 많이 추출되었다고 했고 또한 『성호사설』은 『대동운부군옥』에 비해서 몽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두 유서 중 어느

것이 몽골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조선 당시 독자들은 유서를 읽어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유서에 있는 몽골 관련 내용 그대로 믿고 당시 몽골도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검토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닌 듯하나 아무튼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또 한가지 문제는 몽골과 원나라의 차이점인데 이러한 차이는 학문적 측면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언뜻 보면 몽골과 원나라는 같은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몽골 지배하에 있었던 중원의 학문과 몽골의 고유 학문이 다릅니다. 조선인들이 인식했던 학문 선진국이란 것이 전자를 의미 하는 것 같으며 조선인들은 몽골 고유 학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5. 발표자는 『대동운부군옥』과 『송남잡지』의 몽골 관련 데이터를 비교하여 후자에는 사회 데이터가 다수 등장해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가는 사이 몽골에 대한 이미지가 침략국에서 교류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해당 유서의 저자 두 사람만의 의도와 생각 차이로 받아들이면 타당할 테이고 당시 조선인 전체와 연관지어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나 증거를 부탁드립니다.